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에 대한 교수 인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이 단 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에 대한 교수 인식 연구

지도교수 양 은 배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4 년 12 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이 단 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단비의 박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양 은 배

심사위원 이 일 학

심사위원 이 영 준

심사위원 이 종 태

심사위원 박 연 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4 년 12월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감사의 글

학부 시절 의과대학의 교육 현장 사례를 보고 다양한 교수학습의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이어서 호기심이 생겼던 기억이 듭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대학원 세부 전공을 탐색하던 중이었습니다. 제3세계 봉사활동을 통해 교육 및 의료의 빈곤을 경험하며 교육과 의료의 부재로 인한 아픔, 안타까움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 당시 선교 현장에서 뵙게 된 안신기 선교사님(연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을 통해 잊고 있었던 의학교육학 분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사면허가 없는 저도 의학교육학 분야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다는 점이었고, 제3세계를 향한 의료선교와 교육의 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3세계, 국제 의료 분야에서 교육의 빈 부분을 채우고, 제가 배운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자 교육 및 의료선교의 뜻을 가지고 2014년에 의학교육학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의학교육학 분야에 뜻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길을 알려주신 안신기 교수님과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1학기부터 10년간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지도해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양은배 지도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의학교육을 알게 하시고 많은 가르침과 실천을 할 수 있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의과대학이 낯설었던 저에게 복장 규정, 의과대학 문화, 회의록 쓰는 법, 회의자료 만드는 법, 연구 보고서 쓰는 법, 논문 쓰는 법 등 실질적으로 의학교육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알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강의실 현장에서의 책을 통한 가르침 외에도 의학교육 실무 및 연구 현장을 골고루 알게 해 주시고 의학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신생아였던 저에게 발걸음을 떼고 걷게 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석사 및 박사과정 모두 지도교수님의 가르침과 조언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교과서와 현장을 통해 '진짜 의학교육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인 학습자로서 살아가도록 배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시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채찍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의학교육학자로 살아갈 방향과 뜻을 보여주시고 삶에서 깊은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님을 비롯하여 네 분의 심사위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논문을 검토해 주시고 연구자로서 성장하는데 채찍질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구계획서 심사, 공개발표, 예비 심사, 본심사의 여정 속에서 하나라도 더 알고 참된 연구를 할 수 있게 논문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주시고 실질적인 피드백과 방향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사위원장님으로 수고해 주시고 연구 방향과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고 지도해주신 연세의대의 이일학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논문이 더욱더 논문다워지고, 학술적인 글이 되도록 고쳐주시고, 하나하나 피드백 주신 연세의대의 이영준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큰 그림 속에서 연구 주제의 핵심과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시고, 한국의 의학교육 분야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인제의대의 이종태 교수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대학원에서 만난 10년의 기간 동안 선배님으로서, 멘토로서, 의학교육을 실제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챙겨주시는 연세원주의대의 박연철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학교육학을 배우고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되는 10년 동안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연세의대 대학원에서 의학교육학 전공으로 만난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연철·이태선·신혜경·지현경·이혜범·길윤민·이상미·한상돈·김미영·김민정·안상현·신인선·정성서·정주영·김이연·김홍욱·이보라·박소희 선생님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선생님들을 만나 수업 듣고, 과제하고, 시험을 준비했던 추억과 함께 배우고 일하고 동고동락한 시간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교실의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이 계셔서 연구와 세미나 등에 함께 참여하며 배울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교실의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의학교육 분야의 현장을 통해 배운 시간과 그 안에서 만난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시 연세의대 교육파트의 권성준 부장님, 강진수 차장님, 김가영·김지혜·김현경·한은정·이연희·정재은·김윤정·김은정·임승연·이상아 선생님들과 의학교육을 실제 해보면서 현장에서 배운 경험은 저를 성장하게 하였고, 의학교육을 더 알아가는 계기였습니다. 함께 울고 웃던 시간 속에서 내부자의 입장으로 의학교육 분야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한 연세의대의 의예과 및 의학과 1학년 교수님들, 학생들 덕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게 되었고, 무엇이 중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 귀 기울이는 계기였습니다.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의 경험은 저를 한층 더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국내 의학교육의 흐름과 역사, 인증평가와 정책 결정 등을 통해 배운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안덕선 원장님, 양은배 수석부원장님, 한재진·윤태영·이승희 부원장님, 윤주신 차장님, 오선민 대리님, 이승은 주임님을 만나고 함께 일하는 시간 동안 국내 의과대학의 역동성, 의과대학과 인증평가의 힘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었으며, 의학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응원해 준 준 저의 친구들과 선후배, 기도 동역자, 가족들께 한없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부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마음을 잡아주고, 미래에 불안해할 때마다 손잡아주고 기도 해준 오랜 벗들과 가족 덕에 긴 시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학부 시절부터 대학원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과 선후배, 선생님들 덕에 그 큰 울타리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산고 친구들, 대학 동기들, 교육학과 기도 모임 선후배, 다드리미의 우정 덕에 어려울 때마다 이겨내고 웃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촌교회 박현일 목사님과 9-15목장 식구들의 기도로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를 대표하여 대학원의 단계마다 심리적인 부분, 학문적 고충 등에 있어 시간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가족같이 상담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던 선배이자 멘토인 김종규 교수님께 무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동문회 장학생-이사님의 인연으로 시작된 정희섭 교수님의 응원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입학 시절부터 오늘까지도 저를 챙겨주시고 의학교육학 분야에 마음을 열게 한 연세의대의 김동희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가족처럼 챙겨주는 의사학과의 설영형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밥은 먹고 다니는 것이냐고 안부를 묻고 걱정해 주는 오랜 친구들 - 초롱이, 미림이, 박가영이, 나현이, 이가영이, 미란이, 주연이, 재연이, 샛별, 현아, 희지- 고마워!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저의 고충과 기쁨을 함께한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결혼 후 8년 만에 저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시고, 영어유치원부터 지금의 박사과정까지 쉬지 않고 뒷바라지하며 믿고 기다려준 아빠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오랜 기간 학생 생활을 해서 죄송하며, 지금까지 받은 은혜 이상으로 효도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동생이지만 언니 같고, 때론 엄마 같은 동생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내과 의사의 길을 가는 험한 여정 속에서 언니를 챙겨주고, 언니가 의학교육 분야에 뜻을 펼치고 의과대학과 의료 현장을 더 잘 이해하고 마음을 붙일 수 있게 가장 많이 도와준 평생의 친구이자 하나뿐인 피붙이 규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영혼의 짝인 남편 윤섭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논문을 쓰는 마지막 날까지 오탈자를 고쳐주고, 저의 짜증과 괴로움을 함께 인내한 윤섭에게 앞으로는 행복할 날들만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기약해 봅니다. 더 이상 짜증과 괴로움은 보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의과대학 교원이자 기초의학자로서 고민하는 것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제가 이해한 의학교육의 반경을 넓혀주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범위를 넘어 한층 더 깊은 의학교육 분야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동생 규리도 내과 의사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임상 현장에서의 고충을 알게 하였고, 임상 현장을 간접적이나마 한층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층 더 의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부분, 고민에 대해 이해하게 해 준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천국에 있는 우리 엄마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부터 그 누구보다 가장 좋아했던 엄마에게 그리움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박사과정 동안 엄마의 암 투병과 그 이후 이별 속에서 너무나 긴 터널을 지나야 했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엄마의 유언 중 약속을 지킨 것 같아 슬프면서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이 시간을 가장 기뻐할 것 같지만, 함께 하지 못한 마음에 슬픔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엄마의 헌신과 기도, 응원 덕분에 박사과정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의 긴 시간을 마무리하고 진정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힘을 더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학위수여식을 기대하지 못해 속상하지만, 엄마와의 약속을 지켜 마음의 위로를 더해봅니다. 엄마의 기도 제목처럼 '기초의학자로서, 임상의학자로서, 의학교육학자로서 각자의 쓰임대로 선교에 뜻을 두라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단비, 규리, 윤섭이 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박사 학위 과정을 끝으로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연세대학교 교정을 떠나는 것만큼 아쉽고 그리울 테지만 더 빛나는 미래를 위해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새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박사 학위 논문을 잘 마무리하는 데 참여해주신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님 20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동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이단비 올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차 례

표 차례 ····· iv
그림 차례 ····· v
국문 요약 ····· vi
1. 서론 ·····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2. 연구문제 ····· 12
1.3. 용어의 정의 ····· 12
1.3.1. 학습자 특성 ····· 12
1.3.2. 학습자의 우수성 ····· 15
2. 이론적 배경 ····· 17
2.1. 의과대학 학습자에 대한 이해 ····· 17
2.1.1. 학습자 특성 ····· 17
2.1.2. 특성이론 및 자질이론 ····· 25
2.1.3. 의과대학 학습자의 특성 ····· 36
2.2. 의과대학 환경에 대한 이해 ····· 42
2.2.1. 의과대학 학습자의 심리 요인 ····· 42
2.2.2. 의과대학의 역량 중심 패러다임에서 학습의 의미 ····· 46
2.2.3. 의과대학의 특수한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 ····· 48
2.3. 좋은 의사(Good Doctor)에 대한 이해 ····· 56
2.3.1. 좋은 의사 · 의사상의 개념 ····· 56
2.3.2. 좋은 의사에서 우수한(Exceptionally) 의사의 속성 ····· 61
2.3.3. 우수한 전공의의 특성 ····· 63
2.4.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이해 ····· 65
2.4.1. 우수성(Excellence)의 개념 ····· 65
2.4.2. 고등교육에서 우수성의 개념 ····· 71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4.3. 의사전문직업성의 실천 원리로서의 수월성 · · · · · · · · · · 75
2.4.4. 의학교육에서의 수월성 · · · · · · · · · · · · · · · · · · · 80
3. 연구방법 · 86
3.1. 근거이론적 방법(Grounded theory) · · · · · · · · · · · · · · 86
3.2. 연구참여자 · 92
3.2.1.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 · · · · · · · · · · · · · · · · · · · 94
3.2.2. 연구참여자 제외 기준 · · · · · · · · · · · · · · · · · · · 94
3.2.3. 연구참여자 수 및 산출 근거 · · · · · · · · · · · · · · · · 94
3.2.4. 연구참여자 정보 · 95
3.3. 자료수집 과정 · 97
3.3.1. 질문지 도구 개발 · 99
3.4. 자료 분석과 해석 · 104
3.4.1. 개방코딩 · 105
3.4.2. 축코딩 · 115
3.4.3. 선택코딩 · 116
3.4.4. 자료 분석 시 고려한 사항 · · · · · · · · · · · · · · · · · 118
3.4.5. 자료 분석의 신뢰도 및 타당도 · · · · · · · · · · · · · · · 121
3.5. 연구의 제한점 · 122
4. 연구결과 · 125
4.1.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의 특징 · · · · · · · · · · · · · · 133
4.1.1.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탐색 · · · · · · · · · · · · 133
4.1.2.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생을 탐색해 가는 과정 · · · · · · 136
4.1.3.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 특징 · · · · · · · · · · · 140
4.2.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 및 수련 과정에 따른 우수성 · · · · · 163
4.2.1.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에 따른 우수성 · · · · · · · · · · 165
4.2.2. 졸업 후 수련 과정에서의 우수성 · · · · · · · · · · · · · · 176
4.3. 의사 양성 단계와 학습자의 우수성 탐색 간 관련성 · · · · · · 183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4.3.1. 기본의학 교육과정 전반에서의 우수성 · · · · · · · · · · · · · 183
4.3.2. 임상의학 교육과정과 졸업 후 수련 과정(임상)에서의 우수성 · · · 186
4.3.3. 기초의학 교육과정과 졸업 후 수련 과정(연구)에서의 우수성 · · · 187
4.3.4. 의사 양성 단계 전반에서의 총체적 관점에서의 우수성 · · · · 188
4.3.5. 의사 양성 단계에서 본 우수성 탐색의 위치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을 중심으로) · · · · · · · · · 189
4.4.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이 주는 교육적 함의 · · · · · · · · 196
4.4.1.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 방향에 대한 교육적 함의 · · · · 200
4.4.2. 선택코딩을 통한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에 대한 총체적 해석 · 208
4.5. 종합적 논의 · 215
4.5.1.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 및 우수한 학생의 특징 · · · · · · · 215
4.5.2.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 및 수련 과정에 따른 우수성 · · · · · · 217
4.5.3. 의사 양성 단계와 학습자의 우수성 탐색 간 관련성 · · · · · · · 222
4.5.4.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이 주는 교육적 함의 · · · · · · · 223
5. 요약, 결론 및 제언 · 225
5.1. 요약 · 225
5.2. 결론 · 228
5.3. 제언 · 231
참고 문헌 · 234
부록 · 251
ABSTRACT · 316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표 차례

<표 1> '좋은 의사' 관련 국외 연구 동향 ····· 58
<표 2> 11가지 체계적 접근법 ····· 83
<표 3> 연구참여자 개요 ····· 96
<표 4> 연구 면담지 및 질문 예시 ····· 101
<표 5> '일반 학습자의 특징' 개요(4단계 : 하위범주-상위범주 관계) ··· 109
<표 6> 개방코딩 결과 ····· 111
<표 7> 개방코딩 결과(상위범주-하위범주에 대한 속성·차원) ····· 111
<표 8>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을 위한 개념 및 범주 개요 ···· 125
<표 9>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을 위한 범주-하위범주(속성·차원) 개요 · 128
<표 10>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탐색 방향 ····· 134
<표 11>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검토하기 위함 범주 ·· 138
<표 12> 의과대학 교수들이 인식한 우수한 의과대학 학생의 특징 ··· 142
<표 13>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 및 수련 과정에 따른 우수성 검토를 위한 범주 · 164
<표 14> 우수한 학습자에 대한 특징(임상 전 교육과정) ····· 166
<표 15> 우수한 학습자에 대한 특징(임상의학 교육과정) ····· 169
<표 16> 우수한 학습자에 대한 특징(졸업 후 수련 과정) ····· 176
<표 17> 패러다임 모형의 요인에 따른 범주 구성(속성·차원) ····· 190
<표 18>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 회복을 위한 방향(대학, 교수) ··· 196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그림 차례

<그림 1> 임상수업모델 (Cox, 1993) ····· 53
<그림 2> 의학전문직업성의 두 축 ····· 78
<그림 3> 의학전문직업성의 실천 원리 ····· 78
<그림 4> Strauss & Corbin(1990) 패러다임 모형 ····· 91
<그림 5> '일반 학습자의 특징' 개요(1단계 : 코드/라벨 단계) ····· 107
<그림 6> '일반 학습자의 특징' 개요(2단계 : 개념생성 단계) ····· 108
<그림 7> '일반 학습자의 특징' 개요(3단계 : 하위범주 생성 단계) ····· 109
<그림 8>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 115
<그림 9>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을 위한 방향(이론적 모형) ····· 118
<그림 10> 의과대학 교수들이 인식한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개요(1차 분류) ····· 160
<그림 11> 범주6. 의과대학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범주-하위범주-개념-코드/라벨) ····· 161
<그림 12>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 192
<그림 13>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을 위한 방향(이론적 모형) ····· 214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국 문 요 약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에 대한 교수 인식 연구

의과대학 교수 20명의 면담을 통해 의과대학에서의 학습자가 가진 우수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교수들이 인식하는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확인해 나갔다. 이들이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은 무엇인지, 학습자들에게 개발되어야 할 것을 검토함으로써 의사 되는 과정에 필요한 우수성을 탐색하고 학습자가 지닌 고유한 것들을 발현해 가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문제는 '첫째,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 및 수련 과정에 따라 우수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의사 양성 단계에서의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넷째,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이 주는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이다. 이를 기반으로 근거 이론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면담자료에 대해 총 1,358개의 코드/라벨로부터 286개의 '개념', 50개의 하위범주, 총 10개의 상위범주로 구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에 대입하여 범주 간 관계를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선택코딩을 통해 핵심범주 설정 및 도식을 제시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우수성에 대한 탐색은 '우수한 의사를 그려보며, 의과대학 교육 전반에서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임상의학 교육과정에서의 우수한 학습자 특징,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검증 방안'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을 이해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관점, 기존의 무관심 했던 점들에 대한 성찰이 있었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우수한 학생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 이해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 의과대학만의 특징, 저성취자 특징, 전형적인 일반 학습자의 특징'에 대한 검토 후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도출하는 식이었다. 우수한 학습자들은 '배움에 대한 태도, 학습의 본래 기능 회복, 실패에 대한 자신만의 대처 방법이 있고 도움 요청을 잘하며, 인간관계가 원만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었다. 또한 문제해결능력, 자기 객관화, 지식과 경험의 전이와 적용이 탁월한 것도 특징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의사가 되기 위한 자질 및 전공적합성 등을 검토하며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 내재해 있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두 번째 연구문제인 각 교육과정 및 수련단계에 따른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으로 임상 전 단계에서는 '호기심을 바탕으로 연구 주제 설계, 질문 던져보는 것에 능하며 호기심을 기반으로 깊게 탐색해 내는 특징'이 있다. 또한 '궁금한 문제를 해결해 보거나 여러 지식을 탐색 후 종합하여 연구의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단계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이었다. 임상의학교육과정 단계에서는 '임상추론 및 실제 환자에 맞는 지식과 경험의 전이 능력, 임상 영역의 특수성 이해 후 지식의 복합적 활용에 탁월, 소통 능력 및 원만한 관계, 자발적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력이 좋은 경우, 임상의로서 적성 적합성 검토'를 하는 경우였다. 이는 우수한 수련의의 특징과도 유사한 점이었다. 수련단계에서는 '자신이 현장에서 초보자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힘, 애매한 것을 다시 질문하고 확인해 가는 것,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하는 힘이 있는 경우'이며, 이는 임상 현장의 특수성과 연결된 바였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의사양성과정 전반에서 우수성이 각 단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의과대학 전반, 임상실습 과정과 수련 과정 간, 기초의학 교육과정과 연구영역 간, 교육과정 구분 없이 의사 양성 과정 총체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우수성을 검토하였다. 단계별 맥락 특수성 및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유사한 맥락에서 우수성의 요인들이 누적되고 보완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총체적 관점에서 볼 때 의사로서의 우수성을 위한 요소는 사회인으로서 자신을 개발해가는데 필요한 속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인학습자가 가져야하는 학습 성향과 삶에 대한 주체성 등으로써 별도의 교육과정 구분이 아닌 의사이자 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점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각 맥락에 따라 발현되어야 하는 우수성은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의사로서 특별한 우수성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에 대입해 봄으로써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과 의과대학 환경, 교육과정 및 수련단계 등과 관련하여 영향 및 방해 요인 등을 검토하여 범주 간 상호관련성 속에서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 탐색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네 번째 연구문제인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과 관련한 교육적 함의를 교수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총 7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는 '학생 선발의 기준 재검토 및 다양화 전략의 필요성, 의과대학에 적합한 학생상 재검토, 의과대학 문화의 개선에 대한 인식변화, 우수성에 기반한 의사상에 대한 검토 필요성, 다양한 평가도구로 우수성 측정 방안 마련, 현재의 의과대학의 교육방식의 대학과 교수자의 개선 방안의 필요성, 의과대학과 졸업 후 교육과정의 연계성 있는 교육 강화'이다. 이를 통해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을 검토하고 학습자들의 우수성에 대한 잠재력을 표출시키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성을 확인 해볼 수 있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상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은 인지적 부분 외에도 의과대학 환경에 적합한 점과 의사 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바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시험 성적에 국한되지 않고, 학습자의 강점과 특성을 찾아 의사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힘을 탐색 및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수성을 함양해 가는 것은 결국 평생 학습자로서 인간이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힘을 구축하는 것으로 의료 현장과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간다는 점이기도 하다. 또한, 학생들의 우수성을 탐색하고 발현시키기 위해 학습자 개인의 노력 외에도 환경 변화와 교수자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의과대학 환경을 변화시켜줌으로써 학습자들이 가진 우수성의 범주와 폭을 넓혀갈 수 있고, 개선된 환경에 적합한 자신의 우수성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수성을 탐색해나가는 것은 학습자를 알아감으로써 향후 의사로서의 적합성을 맞춰가는 노력이며, 의과대학 환경에 적합하게 학습자의 우수성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발현해나가는 것은 동시에 의과대학의 목적을 실현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내부자들의 관점을 반영한 '의과대학의 우수성 탐색'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에 대한 시대 및 환경이 요구하는 우수성을 개발 및 검토해 나가는 것이 결국 변화하는 사회와 의료 현장 맥락에서 요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데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 탐색이 주는 함의를 기반으로 의과대학 교육문화 개선과 의학교육에 변화를 주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핵심 되는 말 : 우수한 학습자, 우수한 의대생의 특징,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근거이론적 방법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의과대학은 국내의 우수한 학습자들이 모인 곳이다. 입시정책이 다양해지고 변화가 많이 생겼지만 의과대학 입학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뜨겁다. '의과대학 입학' 자체가 학생과 부모에게 트로피라는 상징은 의과대학 입학까지가 그들의 삶에서의 일차적이면서 동시에 궁극적인 목적이었음을 나타내는 징표이다(양영유, 이완수, 배지영, 2021; 정민승, 2019).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습자들은 학업 우수에 대한 성과를 기반으로 입학사정에서의 '우수성(excellence)'을 다양한 평가 지표를 통해 인정받았다(양은배, 2014a; 이동현, 심서보, 최재정, 2020; 정한나, 양은배, 2018). 일반적으로 학습자로서의 우수성을 논할 때 학업성취의 잣대는 이를 결정짓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의과대학에서는 학생 선발 시 인지적 요소의 비중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우수한 학습자라는 의미로 혼용될 때도 있다. 국내외의 의과대학에서는 인지적 요소 외에도 학습자의 우수함을 평가하고 선발할 때 교외 활동을 통해 그들이 경험한 우수성에 대한 총체적(holistic) 관점에서 종합적인 지표를 검토하여 선발한다는 점이 선행연구에 검토되어 있지만 그 비중과 중요성에 있어 '인지적 요소'에 치중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Bowe & Armstrong, 2017; Dhaliwal & Hauer, 2021; Ganjoo, Schwartz, Boss, McHarg, & Dobrydneva, 2020; Stratton & Elam, 2014).

그러나 의과대학이 높은 지적 능력을 갖춘 학생들의 집합체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의과대학에서의 시험에 대한 압박, 하위권 학습자와 관련한 고충 등이다(김경희, 권경인, 장준환, 신민섭, 2015). 이들이 의과대학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모의고사에서의 하위권 성적, 발달시험의 성적을 통한 조기개입 등의 이슈는 의과대학 내 고질적 문제이자 의과대학 이해관계자들 간 주요 대화 주제라는 점이다. 이는 높은 학업 우수자들의 집합체인 의과대학에서의 학업 관련한 모순된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Kalet, Guerrasio, & Chou, 2016). 또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였음에도 이들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지적 호기심 추구보다는 수많은 시험 속에서 유급을 면하는 것, 국가고시에 합격하는 것 등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어떠한 의사로 성장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떤 과에 지원해서 개원할지 여부, 미래 수익 등에만 걱정이 기반 된 학습을 한 채로 4~6년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과대학 기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의학에 대한 탐구, 새로운 것에 대한 앎,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 자신이 어떠한 의사로 성장해 나가고 적성에 맞는 진로(과)를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과 깊이는 적다는데 아쉬움이 있다(양은배, 2014a).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의과대학에서의 학습자들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으로써 이들이 지닌 문제점이나 상황만 검토하는 식의 학습 지원 방향, 학습 전략 제시, 시험을 위한 해결책 등은 미시적 지원 방향일 수 있다. 이는 드러나는 학업성취에 대한 성적과 관련된 문제 이면에 존재하는 의과대학에 대한 입학 동기, 의과대학에서의 적응의 문제, 의사로서의 목적의식, 의사로서의 진로 적합성, 의료 현장에 대한 자신의 특성과의 적합성 등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의과대학과 의료 현장에서의 교육의 내용과 경험, 문화 등이 학습자 자신과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학업성취 저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업성취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이 연쇄적으로 있다는 증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본질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의 개입과 해결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에서의 진정한 '우수성'이 무엇이고, 이들의 의사 양성 단계의 과정과 연관지어 우수성의 속성을 개발하고 보완해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즉, 실제 의료 환경에서 '우수성'의 정의를 재정립하여 우수한 학생으로 선발되었지만 문제가 표출되는 특성이나 자질의 원인을 검토하여 정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인지적 요인에만 집중한 검토를 넘어서야 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의료 현장에서 드러나는 우수한 의사의 특징을 검토하여 이와 일치한 특징을 지닐수록 의과대학 입학 여부를 제대로 사정했는지를 역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Mattick, Dennis, & Bligh, 2004).

현재와 같이 인지적 영역에 비중을 둔 학업성취만을 강조하거나 이를 학습의 증거로 삼을 시에 우려 사항은 먼저 예비 의사로서의 진로 탐색 시 불충분한 자료를 기반으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습자 개인에게나 교수자의 입장에서 학생에 대한 한정된 평가 자원을 가지고 학생을 복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은 채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해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즉, 개인이 가진 다양한 소양을 검토 및 반추하지 않고 진로 탐색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학생에 대한 부족한 이해로 적합하지 않은 진로 탐색에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다음으로, 의과대학 교수들의 학습자에 대한 평판에 있어 학업 우수역량에 집중된 인식과 지대한 편중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부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업 영역의 미시적 결과에만 집중할 뿐 학습에 대한 본질과 학업 외적인 다양한 요인을 성장하고 개발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의과대학에서의 학업 성과 위주의 인지적 요인에 집중한 학습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에 대한 인식, 평판, 우수성의 지표로서의 학업성취 정도를 대표적으로 보는 현상은 균형 잡히지 못한 학습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에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의 범위와 기준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교육 현장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한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우수성을 의과대학 현장에서 발현시키지 못하고 잠재된 상태로 머물러 결국 사장되거나, 성장 가능성을 탐색할 기회를 얻지 못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의사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학습자 개인이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우려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 학습자는 우수하다'는 전제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과대학과 의료 현장에서의 '우수한 속성'들을 다양한 범주에서 도출시키고 평가함으로써 학습자를 검토할 수 있는 우수성의 범주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강점을 검토하여 개인의 우수한 속성을 성장시켜 줌으로써 교육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학습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우수한 속성들의 잠재력을 발견하여 우수하게 키워내고 역량을 함양시켜 '전환학습(transformative learning)'을 통해 자기주도적이고, 실제 할 줄 알고, 유의미한 교육 경험을 통해 우수한 의사로 만들어 나갈 교육의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배움의 현장에 대한 본 기능의 회복과 실천의 본질이라는 점에서이다(양은배, 2014a). 다만, 실제 의과대학 문화와 학생들의 실체는 사회의 약자를 위해 의술을 익히고, 국가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겠다는 등의 의과대학 입학 당시의 포부와 목적과는 거리가 먼 채, 의과대학 입학 당시 보여준 다양한 범주에서의 우수성을 표현했던 개개인의 모습들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이 훌륭하고 탁월한 의사가 된다는 보장이 희미해지게 만드는 의과대학의 교육환경과 문화도 이러한 현상으로 이어진 데에 책임이 있다. 현재의 의학교육 현장에서는 훌륭한 의사가 되라는 성장과 격려의 문화보다는 마치 '너는 하위권이다'라는 성적에 기반한 꼬리표를 붙여줌으로써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에 부정적 시각을 심어주고 스트레스를 부여하는 문화라는 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양은배, 2014a). 이는 의과대학 교육기간 동안 다수의 시험을 보면서 줄세우기 식의 형태로 서열화가 되고, 어느 집단보다 많은 시험을 통해 그 결과를 낙인시키는 특수한 의과대학만의 교육환경 때문이다(양은배, 2014a). 이러한 학습 문화 속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은 대다수 자신이 가진 '우수성'의 속성들을 잊어버린 채 연속되는 시험을 거치고, 동료를 얻기보다는 경쟁상대로 여기고 졸업만을 목표로 하게 된다. 의학교육자들은 이러한 의과대학의 문화를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닌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존의 학습환경의 개선 외에도 학습자들의 우수한 속성을 개선하고 잠재력을 표출되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 또한 책무임을 받아들이고 교육환경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들이 가진 속성들을 발견해 내고 성장가능한 과정으로서의 평가의 의미를 회복함으로써 성장에 기반한 교육 및 수련 과정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수자들의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의과대학 문화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하는 의학교육자의 책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동안 의과대학 교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타파하고 새로운 평가도구와 개발을 통해 '우수성'에 대한 정의와 속성을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이를 적절하게 도출하여 관리 및 코칭을 해 줌으로써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이라는 것이 고정된 용어나 범주가 아닌 개발 및 개선 가능한 열린 구조로서의 인식을 의과대학 내부와 사회에까지 전달할 책무가 있다(이혜범, 양은배, 2013; Dhaliwal & Hauer, 2021).

다만, 이러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의과대학에서 우수성에 대해 재탐색하고 이를 학습자에게 발현시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도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정의나 개념이 혼미하고 제대로 정립된 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단순히 우수성의 속성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재분류하는 작업을 넘어서서 이를 검토하고 사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데 적절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의 특징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의과대학 및 의료 현장에서 우수한 학습자들이 가진 특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러한 학습자들이 가진 속성을 이해하고 그 속성과 의과대학과 의료 현장의 환경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 볼 때, 학습자들의 우수성을 발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그들 내에 잠재된 것을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개인의 강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의료 현장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진로 탐색과 미래에 대한 방향을 그리는 교육도 제공할 수 있다.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 규명과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탐색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관점과 방향을 가지고 선행연구의 흐름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과 유사한 '의사로서의 우수성', '의과대학 및 의료 현장의 환경', '학습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한 바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 주제와 목적과 유사한 선행연구 동향이다. '의사로서의 우수성'을 기반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전공의나 임상의사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가 미국 및 호주 의료 현장을 배경으로 수행되었다(박장희, 2021; Gunderman, 2007/2009; Schnelle & Jones, 2022c). 이 연구는 외국 의사 양성 체계의 구조와도 연결된 바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op-down 식으로 전공의 교육을 먼저 수립한 후 의과대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졸업 후 및 수련단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구조에서 수행된 연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bottom-up 구조로 의과대학 단계에서부터 의사 양성 체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부터의 우수성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고, 우수한 학습자를 검토하여 이들의 특징을 기반으로 우수성이 실현되는 교육, 다양한 학습자의 잠재력을 발견해주는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과대학에서의 시도가 시작되어야 이후 우수한 수련의와 현장에서의 의사로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 및 수련 구조의 나라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존 연구의 우수성 개발에 대한 출발점의 측면에서 볼 때 국외의 연구와 같이 우수한 의과대학생의 개념 정리, 우수한 학습자가 가진 주요한 특징 등을 기초자료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국외 연구는 전공의나 임상의사의 우수성의 특징과 주요 요인에 대한 검토에 그쳤을 뿐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까지의 검토가 이어진 바는 아니었다. 관련하여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 요인을 정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연구(Dhaliwal & Hauer, 2021)는 수행된 바 있으나 의과대학 단계에서의 우수성의 정립이나 특징에 대한 정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을 볼 때 우수성을 검토한 대상은 다르지만 접근 방법과 방향, 목적에 있어 유사하다는 데에서 본 연구와의 접점을 파악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전공의 우수성은 각 과의 특성에 따른 역량이나 수월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의과대학 현장과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국내 의과대학의 특징을 고려하여 우리만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규명하고 우리나라의 맥락에 맞는 학습모델과 교육과정 방향을 제시하는 근거자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사의 훈련과 성장 관점에서의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 동향은 '좋은 의사, 의사상, 의사로서의 역량' 등을 다루는 연구들이 비교적 유사한 방향의 접근이었다(Abu-Hilal, Morgan, Lewis, Mc Phail, Malik, & Hocken, 2006; Fones, Kua, & Goh, 1998; Frank & Danoff, 2007; Herzig et al, 2006; Hurwitz & Vass, 2002; Leahy, Cullen, & Bury, 2003; Maudsley, Williams, & Taylor, 2007; Steiner-Hofbauer, Schrank, & Holzinger, 2018; Yazdi, Nedjat, Arbabi, & Majdzadeh, 2015). 대다수 연구에서 좋은 의사와 일반적인 의사에 대한 특성, 기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연구가 다수였으나, 호주에서 수행된 연구 중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Exceptionally(뛰어난, 예외적인, 우수한)'의 의미를 담은 용어를 사용하여 의사의 우수성을 고려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었다(Schnelle & Jones, 2022c). 국내의 연구 동향 역시 '좋은 의사 특성 규명에 대한 연구(이영미, 안덕선, 2007)', '한국의 의사상(안덕선, 2014; 한재진 외, 2020; 한재진 외, 2022)', '의사 역량(김영전, 이제욱, 윤소정, 2022; 전우택 외, 2022)' 등에 그쳤으며 우수성, 수월성, 뛰어남 등의 요소에 대한 검토는 미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한 실정이다. 다만 수월성에 대한 검토는 '의료전문직업성에서의 실천원리로서의 수월성(김도경, 2019; 황은영, 양은배, 2010)', '의학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교육과정 재설계(양은배, 2014b)' , '탁월성 추구하는 의료윤리교육 방향(김준, 김민지, 김선경, 2021)' 등에 대한 접근일 뿐 '의과대학 학습자의 수월성'에 대한 직접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둘째, 연구 대상이 의과대학 학생은 아니지만 본 연구의 맥락과 동일한 의과대학 및 의료 현장이라는 환경 내에서의 우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의과대학 맥락에서 다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교수자에 대한 특성 검토 및 규정 등을 다루고 있었다(이혜범, 양은배, 2013; Harden, 2018; Huete et al., 2016). 또한 '의과대학 환경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의과대학 환경에 대한 평가에 대해 순위에 그치는 객관적 지표로써 본질적으로 교육 부분의 요소가 손상된 것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야기하였으며, 교수학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승진제도, 교수 개발프로그램을 통해 가르침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를 검토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Harden & Wilkinson, 2011).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들의 의학전문성과 관련(Arnold & Stern, 2006)하여 치료자와 전문가의 특성과 자질 검토(황은영, 양은배, 2010)',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의학전문성에 대한 연구(나상운 외, 2022)', '한국에서의 의학전문직업성(맹광호, 2008)' 등이 있었다. 의과대학에서는 주로 '우수한 학습자'에 대한 검토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의과대학에서의 학습자 특성과 관련하여 '의과대학에서의 일반학습자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의과대학 학습자의 특징, 의과대학에서의 생활 및 상담 경험, 학업성취도, 유급과 관련된 요인 등 일반학습자 및 하위권 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의과대학 환경을 둘러싼 주요 연구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상위권 학습자 혹은 우수한 학습자에 대한 의과대학 환경에서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과대학에서는 일반적 학습자나 의사로서의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특징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심리적 요인(성격 요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검토 등을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 예로는 의과대학에서의 일반적 학습자 혹은 의과대학 학습자 집단에 대한 생활과 학습에 대한 특징을 규명한 연구들이 있었다(김미라, 안서원, 이정모, 안덕선, 이영미, 2006; 박재현, 2012; 신홍임, 전우택, 양은배, 2010; 윤소정, 이상엽, 강신영, 2007; 윤태호 외, 2007, 전우택, 2006; 정한나, 양은배, 2018; 윤소정, 박귀화, 2018; 이이레, 김민경, 김혜원, 2021; 정소미, 고아라, 권복규, 2024; 채수진, 2008; 채수진, 권효진, 2024; 한재진 외 2008; Curtis & Smith, 2020; Ganjoo et al., 2020). 이 외에도 타 단과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삶의 질 검토(민성길, 신원철, 김광일, 정지인, 김동기, 2000), 의학교육 시기와 의대생들의 정서변화 관련 연구(이원경 외, 2020),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과대학 졸업생 코호트의 의사역량 평가(박주현, 권주현, 2022) 등을 통해 볼 때 의과대학 학습자 집단 자체에 대한 관심, 다수의 학습자 집단 자체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근거이다. 또한 의과대학의 하위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및 생활 문제와 관련한 연구(이단비, 2019; 장익, 2016)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다수 양적연구로 진행되어 과학적 원리에 의한 가설을 입증하고 변인을 다루는 검토를 기반으로 의과대학 학습자를 이해하는 접근이었다. 이에 의과대학 환경과 학습자에 대한 가려진 의미, 숨겨진 맥락 등이 심도 있게 기술되거나 도출되지 않아 의과대학 환경과 학습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의 제한적 상황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볼 때, 의과대학의 맥락과 우수한 학습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의과대학의 특수한 맥락에 적합한 우수성의 이해, 이러한 맥락에서 드러나는 우수한 학습자가 가진 특징을 이해하는데 기존과는 다르게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와 의과대학 환경을 넘어서서 '학습자 특성'에 집중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우수성과 관련한 의과대학과 의료 현장에서의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해 볼 때 본 연구와 유사한 방향성과 배경은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의과대학의 학습자'에 집중한 우수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맥락과 다른 맥락에서의 학습자에 대한 특성을 다룬 연구 및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검토 방향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의과대학 및 의료환경을 넘어선 타 교육 분야에서의 학습자 특성 관련한 연구로는 '특성 요인 검토, 학업성취와의 관계 검토, 개인의 성격과 학습 결과 검토, 학습자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지원체계, 학습자의 자질 검토' 등에 대한 연구가가 수행되었다(강명희, 심혜진, 박미순, 김민정, 2008; 김미경, 2012; 김혜숙, 유신복, 2016; 박경진, 정현철, 류춘렬, 김범석, 2019; 박래성, 2024; 박미선, 2011; 심홍임 외, 2010; 엄태환, 박정현, 김지희, 2008; 오봉근, 김현우, 2016; 유은하, 이명화, 오보라, 2020; 정광희, 김병찬, 김태은, 김갑성, 2009; 정다원, 2016; 하지은, 조희수, 정재삼, 2024). 일반적인 학습자의 특성을 넘어서 우수한 학습자와 관련한 연구도 다수 수행됨을 확인하였다. 다만 우수한 학습자들에 대한 검토의 경우 특정 교육 맥락에 한정하여 그 환경에 적합한 우수한 학습자에 대한 연구였다. 그 예로는 우수 언어학습자의 언어 학습전략의 우수성 검토(김경희, 2016; 김숙영, 2002; 김정화, 2015; 이희경 외, 2015),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우수 학습자의 특성(김랑, 송해덕, 2017), 서울대학교에서의 학업 우수자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함으로써 우수한 학습자가 가진 특성 요인을 검토하고 이들에게 심리적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음을 확인 해볼 수 있었다(박알뜨리, 2021).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볼 때 그동안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에 대한 탐색이 부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의과대학이라는 맥락에서 의과대학 교수가 인식하는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의과대학에서 요구하는 우수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 이 과정을 통해 의과대학 교수들이 우수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예비 의사로서의 의과대학 학습자들의 우수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습자들에게 보이는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후 의과대학 교수들이 인식하는 '우수학습자의 특징'을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 및 졸업 후 수련 과정에 따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각 단계별 드러나는 우수성을 검토 한 후에 의사양성 전반에서의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이 갖는 의미를 전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스스로가 가진 잠재력, 능력,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이 가진 내부의 힘을 가지고 우수한 의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사 양성 단계에 따른 의과대학(임상 전 교육과정, 임상의학 교육과정) 및 졸업 후 수련 과정에서의 교육과 수련을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써 이해해 보기 위함이다. 이 연계된 과정 속에서 '우수성의 개발 및 발현'이 단계적이면서도 동시에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과정으로 어떻게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이 갖는 의미를 해석해 보기 위해서이다. 각 단계에서 우수성 발현을 위해 어떠한 점을 함양하고 키워가야 하는지를 탐색한 것을 기반으로 학습자가 각 단계에서 반드시 체득할 것과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검토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우수성의 의사 양성 과정에서의 탐색 과정은 교육과정 단계별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학습자가 우수성을 탐색해 가는 과정은 학습자 스스로 자가 평가를 통해 성찰하고 현 위치를 찾아가면서 우수한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교육과 수련의 과정을 학습의 기회로 인지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각 교육과정 속에서 우수한 학습자로 출발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주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Gunderman, 2007/2009).

'우수성'을 지닌 의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수련 과정을 통해 일련의 학습과정을 기회로 만들어가고, 우수한 학습자, 더 좁혀서는 우수한 수련의, 우수한 의과대학 학생의 규명을 통해 이들이 가진 특징 분석을 통해 이러한 모델이나 상을 의사 양성 단계의 첫 단계에서부터 제시하고 비전을 그릴 수 있고 단계를 밟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학교육의 책무 중 하나이다. Bandura의 모방학습의 일환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나 교사의 행동과 언어 등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것처럼 의과대학의 예비 의사 단계에서는 우수한 의사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그러한 교수자, 수련의 중 우수한 의사의 특징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교수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나 학습자가 우수성을 받아들일 만한 기준이 필요하다. 의과대학은 이러한 우수성의 기준을 의과대학 학부 단계 속 교육과정 및 평가, 의과대학 선발 시에도 우수한 의사의 특징에 적합한 예비 입학생을 선발하는 근거 있는 평가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에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평가하고 교과 내용에서 다뤄야 할 역량과 성과를 설정할 시에도 현장에서의 우수한 수련의의 특징에 기반하여 훈련하고 교육하는 과정과 연결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의과대학과 의료 현장을 고려하여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을 검토해보고 이후 구체적으로 의과대학의 학습자의 우수성을 규명하기 위해 이들이 지닌 특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룬 의과대학 학습자 집단이 가진 특징을 기반으로 의과대학 및 수련환경에서의 일반적 학습자의 특징을 넘어 우수한 학습자가 지닌 특징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의료 현장의 모의 환경인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수련환경에서의 우수한 수련의가 보이는 특징 간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실제 의료환경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특징을 규명하여 의과대학 단계에서부터 개발될 요인과 교육과정을 모색하고 교육프로그램이나 코칭 방안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의과대학에서 필요한 우수성을 검토하고,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을 탐색하는 작업 자체가 학습자에게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우수성을 발견하고, 미흡한 것을 발전시켜가면서 의과대학에서의 학습의 의미를 스스로 고민해보고 발견해 가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우수한 학습자가 보이는 특징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가진 특성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해보는 작업을 통해 의료환경에 적합한 특징들을 자신이 함양하고 있는지를 반추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검토 과정이 교수자와 대학에는 의사 양성 단계에 따른 우수한 학습자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에 적합한 입학 사정과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를 일차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불일치할 경우 입학사정에 보다 적합한 평가도구와 지표를 개발하고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에서 자신이 가진 본래의 우수성을 잊어버리고 생활하는 학습자들에게 학습 저하와 같은 문제점을 풀어가기 위한 도구로서 학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며, 동시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교육의 개입을 시도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의사 양성 단계에서 갖춰야 할 학습자로서의 우수성을 정의 내리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의과대학 학습자들에게 단계별 우수한 우수성을 롤모델 삼아 성장해 나가는 데 활용 가능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를 통해 의과대학에서 학습자 자신의 우수성을 발현하지 못하는 하위권 학생들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성취해 나가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의사로서의 '우수성'을 담고 따르기 위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다. 동시에 의과대학과 의료 현장에서 추구하는 우수성을 학습시키고 개발해 감으로써 이러한 우수성을 닮아가는 과정으로서의 교수 설계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고민을 교수자나 대학이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교육의 본래 목적은 단순히 정보를 탐색하고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존의 요구 분석을 통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요건을 충족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개발해 주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만남과 피드백을 통해 상호 의견교환과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과 보완이 유지되어야 본래의 교육을 통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조건이 성립된다. 동시에 교수 개발을 통해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복합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Huete et al., 2016). 본 연구의 결과 활용을 통해 의료환경에서 요구하는 특징을 지닌 우수한 학습자를 선발하고 이들을 교육하고 수련하는데 일관된 요소의 성장 유무를 점검해보는 평가 요소로 활용하여 우수함을 유지 시키는 교육과 수련이 이어지는 의사 양성 단계 전반에 대한 교육과 수련의 연계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의과대학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연구의 시도를 통해 '우수성'의 범주가 밝혀지고, 자신의 우수성을 탐색하고 발현해 나가는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의과대학 학습자들에게 본질적으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가득한 의과대학만의 문화를 넘어서서 배움의 기회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심리적인 요인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보고자 한다. 이는 의사 양성 단계의 일차적인 출발점인 의과대학에서부터 우수성에 대한 교육이 발현되고, 자신의 우수성을 스스로 탐색해보고, 교수자 또한 이러한 잠재력을 회복시켜주는 의학교육환경으로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이 몇 가지로 정리된다고 가정할 때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육적 함의를 내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프레임워크 개발, 우수한 대상이 가진 특징을 고양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에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를 이후 후속작업으로써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받아 의학교육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생의 특징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할 시에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향후 우수함을 위한 선발, 교육, 지도 가능한 자료로 만드는 토대를 닦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궁극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우수성을 지닌 학습자를 선발하고 교육하고 수련하는 일련의 과정이 연계되어야 우수한 학습자의 학습 부진과 같은 이탈 현상을 방지하고 의료 현장에 있어 우수성의 소양을 갖춘 학습자로 성장함으로써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 필요한 우수한 의료인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양성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수성에 대한 특징 분석을 위해 질적면접(심층인터뷰)을 통해 의과대학 및 의료 현장의 교육과 수련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전국의 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 의미를 도출해 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우수함과 우수한 학습자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여 교육적 함의를 바탕으로 의학교육 현장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1.2.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을 탐색하고자 의과대학에서 필요한 우수성의 의미를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 및 수련 과정에 따른 우수성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의사 양성 단계 전반의 과정과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이 주는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 및 수련 과정에 따라 우수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의사 양성 단계에서의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넷째,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이 주는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1.3. 용어의 정의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을 탐색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의과대학에서 요구되는 우수성을 검토하고,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습자가 보이는 특징을 검토하기 위해 아래의 '학습자 특성' 및 '학습자의 우수성'의 용어에 대해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3.1. 학습자 특성

의과대학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성을 검토할 시에 교육학에서의 '학습자 특성'의 의미에 기반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교육학 용어사전에서의 '특성(property)'은 어떤 사물에 존재하는 성질로써, 특질(quality), 자질·속성(attribute), 특징(characteristic), 성격적 특성(trait) 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해당 집단, 종(種)'이 공통적으로 고유하게 소유한 속성을 아우르는 말로 인간에게 존재하는 성질이라는 광의적 의미로 해석하였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여기에서 특징은 그 집단 혹은 개인을 타인과 비교할 때 독특한 점에 기반하여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는 'a typical or noticeable quality of someone or something'으로 표현되는 사전적 정의에 근거해 볼 때 어떤 대상의 주목할 만한 혹은 전형적인 질을 의미함으로써 영어 사전에서도 이를 국내 교육학 용어에서의 '특징'의 의미와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Cambridge University Press, n.d.). 자질은 사전적 의미를 빌리면 '능력, 실력 등과 유사어로 어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분야냐 일에 대한 능력, 실력, 타고난 체질로 특정 분야에서의 능력이나 실력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국립국어원, n.d.). 소질은 '학습자가 가진 능력, 역량 등'을 의미하는 바이며, 속성은 '사물의 본질적인 성질이나 특징으로써 그것 없이는 사물을 생각할 수 없는 성질'을 의미한다.

다만, '특성'의 협의적 의미로써 '특성이론'을 의미할 때의 '특성'은 'trai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특성이론은 인격, 성격에 대한 심리학 이론으로써 인간에게 있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성격의 요인을 의미한다. 이는 성격적 특성 등을 대변하는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에 근거한 의미로써 성격 특성을 기반으로 개인을 이해할 때의 고유성을 의미하는 뜻에서 'trait'을 활용하며, 영영 사전에 의하면 'a particular characteristic that can produce a particular type of behavior'라고 기술된 바로써 특정한 특징으로써, 이것으로 인해 특정한 행동의 유형을 수행하거나 생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a characteristic, esp. of a personality'와 같이 특별히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Cambridge University Press, n.d.). 특성이론을 통해 성격 특성의 분류, 레이몬드 카텔의 16개 성격 요인, 길포드의 지성구조,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 한스 아인젠크의 3가지 차원으로 요인 분석, 다섯 요인 모델 등을 설명하기 때문에 '특성'의 협의적 의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Costa & McCrae, 1992; Eysenck & Eysenck., 2013; McCrae & Costa, 1987).

동시에 자질이론을 영어로 표현하면 'trait theory'로 기재되는데, 자질이론 초기에 '리더십의 자질'을 탐색할 때 개인이 가진 특성 및 자질이 타인과 달리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있다는 전제에서의 출발하는 점에서 성격 특성과 같이 고정적 개념으로 해석되었다는 점에 근거해서 성격의 'trait'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되었다(이종수, 2009). 다만, 이후 자질이론에서의 자질의 의미가 고정적 특성이 아니고 리더십, 교사로서, 의사로서 등의 자질이 고정된 역할의 해석이 아닌 역할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해석으로 시도되면서 '자질'은 후천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자질은 상대적으로 성격적 특성에 비해 역량, 요인, 능력 등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요인으로써 접근한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내재된 고정적 개념인 성격적 특성과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변형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한 성질로써의 자질로 구분하여 보는 것을 의미하는 추세이다. 또한 일부 특성은 자질과 같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연구의 동향도 있다(김병찬, 2019). 다만 특성은 자질에 비해 보다 '일관성(consistency)'을 가진다는 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안정적 속성으로서의 성격, 인격 등을 의미함으로써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원인 기제로 보는 비중이 높다(Allport, 1961; Davis-Blake & Pfeffer, 1989; House, Shane, & Herold, 1996). 영어 단어로 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현되는 것을 기반으로 볼 때에도 특성은 characteristics, property, attribute로, 자질은 talent, capacity, competence, capability, attribute로 표현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고정적, 유동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이론에서 의미하는 성격적 특성이라는 '협의적 의미로써의 특성(trait)'이 아닌, 교육학 용어사전에서의 '특성'의 의미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성격적 특성, 특징, 자질이론에서의 자질의 의미, 소질, 속성을 아우르는 광의적 의미로써의 '특성(property)'에 따라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 특성'을 해석하였다. 국어사전에 근거한 특성의 의미 또한 '일정한 사물에만 있는 특수한 성질, 개성, 색채, 생물에게 가진 고유한 속성'을 포괄하는 의미라는(국립국어원, n.d.)점에 기초할 때, 이는 '특성'의 하위개념들을 아우르는 상위개념으로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의과대학 우수한 학생 개인 혹은 집단을 이해하기 위한 의미로 이들이 가진 성격적 특성, 자질, 속성, 특징들을 포함한 의미로써 학습자가 가진 '특성'의 의미를 적용하였다. 다만, 특성의 부분적 개념인 특징은 타인 혹은 타 집단과 구별되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점들을 기반으로 비교 시 표현하는 의미로 '일반학습자 집단' 대 '우수한 학습자 집단'에서 보이는 양상을 비교할 때 '특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학습자와 우수한 학습자의 범주를 구분하였다.

또한 학습자 특성의 용어를 활용하는 맥락은 '인간이 다양하듯 학습자의 특성 또한 다양하다'라는 교육학에서의 '학습자 유형'을 설명하는 맥락과 유사하게(신명희 외, 2011) 해당 용어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의미를 정의하였다. '학습자 특성', '학습자의 다양성'에 기초한 학습유형을 파악하여 교수학습 지원, 개별화 교육, 완전 학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서의 학습자 특성이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의미로써 학습자 특성의 의미가 기저에 있어야 함으로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적 지원과 정책 마련 등을 의미할 때 등의 맥락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사용하였다. 학습자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학습환경, 교수학습 방식, 타인과 함께 하는 유형 여부,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는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학습자는 각기 다른 다양한 특성을 지님으로써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님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의과대학에 적합한 우수성을 발현하는데 잠재력을 키워주고 발전시켜 주는 의미에서 의학교육 현장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한 의미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1.3.2. 학습자의 우수성

우수성(Excellence)에 대한 옥스퍼드 사전의 의미를 빌려보면 'the quality of being extremely good, the quality of being excellent'라고 정의 되어있다. 이와 유사한 단어로써 'outstanding(두드러짐, 뛰어남)'은 'extremely good; excellent'를 의미하며, 'good'은 'of high quality or an acceptable standard, of a high quality or level, very satisfactory, enjoyable, pleasant, or interesting:'이며 'superiority'는 'the state or quality of being better, more powerful, greater, etc. than others, behavior that shows that you think you are better than other people', 'virtue'는 선, 미덕 덕목, 장점으로 'moral excellence; goodness; righteousness, effective force; power or potency:, a particular moral excellence' 등으로 우수성과 유사한 용어들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다(Oxford University Press, 1989). 국어사전에 의한 '우수성'의 정의는 '사물 혹은 인간의 특성 중 하나를 의미하며 높은 수준의 품질, 성과를 의미한다'(국립국어원, n.d.). 국문 및 영문의 사전적 의미를 종합해 보면 '우수성'은 '지속적인 개선과 완벽한 상태, 최상의 상태를 위해 노력하는바'를 의미함으로써 '최소한 정해진 기준과 선을 넘어서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에서의 우수성의 개념은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 가족, 사회, 고용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우수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을 위한 관리, 연구, 교육(우수한 교사, 우수한 강의 등), 학생 성과와 관련하여 교육을 수행하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우수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차원적 측면에서 우수성을 검토해 봄으로써 교육기관, 교수진, 학과, 개별 학생 수준 등의 역할과 맥락에서의 우수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결국 관리, 서비스, 교수진과 학생의 경험, 학습 및 연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고등 교육에서의 우수성의 의미를 검토하고 있다(Brusoni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우수성의 의미에서 범위를 좁혀 고등교육에서 의미하는 바에 한정하여 의과대학 학생 중 뛰어난 특징, 성질에 대해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즉, 의과대학 및 의료환경이라는 맥락과 의과대학 학습과 관련한 교수진과 학생의 경험, 학습과 연구 등에 한정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범위의 의미로 제한하여 교육학에서의 우수성의 의미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 성과를 넘어서서 무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개발해 나가는 힘, 역량을 키워가면서 자신이 가진 자질을 개발해 가는 것, 정해진 교육과정을 뛰어넘어 비교과 활동 및 성과로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하는 노력 등을 하는 총체적 행동의 합을 우수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로 인해 타인과 구별했을 때 드러나는 점, 타인과 구별됨과 동시에 의과대학 및 의료환경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라는 맥락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요인에 적합한 경우 이러한 총체적인 개인의 표출 행동을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학습자 자신의 고유한 내부의 특성과 자신이 개발하고 훈련한 자질, 능력 등이 환경과 결합하여 최고의 상태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맥락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의료환경에서 요구하는 바와 일치 할 경우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결과적으로 의과대학 학업 환경이나 임상실습현장에서 요구하는 성취, 역량, 발전, 성과를 이룬 상태가 보이거나 향상도가 그려질 때 '학습자의 우수성을 표출했다', '우수성이 발현되었다', '~한 능력이 탁월하다' 등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만, '우수성'과 유사한 용어로 '탁월함'은 특정영역에서 두드러지게(distinction) 뛰어나고, 독보적으로 차이 나는 특성, 성과를 통해 보이는 것을 의미함으로 우수성과 유사하지만 독창성, 특별함을 더 강조하고, 두각을 나타낼 때 활용하는 용어이다. 이에 의미상은 '탁월함, 우수성'이 연구 맥락에서는 유사한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연구내용을 기술 시에는 혼용해서 용어를 기재할 수 있으나, 탁월하다라는 의미가 우수성이 발현된 표현임으로 탁월한 학습자보다는 학습자를 수식할때에는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 혹은 '우수한 학습자' 등의 표현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다만 그 의미에는 탁월하다는 의미 내포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우수성과 달리 '우수함, 뛰어남(Superior)'은 우수성보다는 타인에 비해 더 나은 것, 상대적인 비교치를 가미하는 바로써, 상대적으로 A보다 B가 더 낫다를 뜻하는 쓰임으로 인해 절대적 의미인 '우수성'에 기반하여 excellence의 용어를 연구 내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뛰어나다'의 표현은 비교적 광범위한 용어로써 도드라지는 것의 개괄적 의미로써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주로 '물건이나 품질에 있어 뛰어나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본 연구에서의 학습자에 적용하는 개념과는 적합한 의미가 아님으로 본 연구에서는 '뛰어나다'라는 표현은 우수성을 표현할 때 제외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정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습자가 타 학습자인 일반학습자(하위권 학습자)와의 단순 비교를 넘어서 이들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 비전, 방향성, 전략, 노하우 등 자신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자 능력으로써 타인과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특성을 이루는 다양한 하위 개념들이 종합되어 표출되는 속성으로 의과대학 환경에서 적합하고 요구하는 '우수한 요인'들이 해당 학습자 혹은 집단에게 드러날 때의 의미로써, 학습자가 표현하는 태도·행동·노력·능력 등의 총체적 결과물로써의 합을 학습자의 우수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이론적 배경

2.1. 의과대학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수자는 다양한 학습자에게 어떠한 교수학습방법이 적합하며, 특정 교수학습방법은 왜 어떤 학습자에게는 효율적이지 않고, 어려워하는 지 등을 고려하는 배경에 있어 '학습자 특성'을 기반으로 검토해야 한다. 학습자 특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한 후에 학습환경에 대한 이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과 학습자에 대한 선 이해 후 적합한 학습전략을 수립하거나 학습을 이끄는 방향을 제공하는 등의 교육적 개입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의과대학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일반적인 학습자들이 가진 '학습자 특성'을 검토하고, 특성이론과 자질이론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특성을 구성하는 하위개념들을 고찰하였다. 끝으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의과대학 환경에서의 의과대학 학습자가 가진 특징을 검토하였다.

2.1.1. 학습자 특성

학습자의 특성은 학생 내부에 존재하는 무언가, 자신만이 가진 특성, 인지적 요소로써 지식을 받아들이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학습전략 등의 활용, 비인지적 요소인 심리적으로 적용하는 학습 동기, 자기효능감, 과제 및 성과에 대한 접근 성향, 메타인지, 시간 관리, 학습에 대한 다양한 심리, 자기효능감 등을 아우르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학생의 성격, 학습스타일, 동기 지능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전성연, 2004). 학생의 특성은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변화 되어가는 유형들이 추가로 생기나 그 전제에는 학습자가 가진 고유한 성향에 의해 어떠한 식으로 학습환경에 적응하고, 익혀야 할 지식을 받아들이고 조직화하여 정보를 처리하여 기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학습의 장기적 유지로 이어지는 지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바이다 (박래성, 2024). 박래성(2024) 의 연구에서는 학습자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요인들을 기반으로 특정 교과를 선호하고 받아들이는 경우 어떠한 특성이 이면에 작용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교과에서의 '흥미'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 선호도로 이는 특정 교육 내용이나 교과 성향에 일관된 선호도를 반영하는 지표이며(Schiefele, 1991), 교과 내용이나 특정 교과의 특성 자체에 대한 흥미는 학교와 과목의 애착으로 이어지고 학업성취 혹은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도 볼 수 있다. 결국 학업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도 이어진다(김종한, 1998; Marsh, 1984; Marsh & Dunkin, 1992). 또한 학습하는 데 있어 정보를 받아들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는 인지능력과 지능의 요소도 중요한 부분이나,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과 연결해 볼 때 개인에게 특정 영역의 지능이 우수한 경우 특정 교과 내용이나 해당 특성에 맞는 직군을 학습하거나 수행할 때 유리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중지능이론의 전제하에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흥미와 연관되는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학습자의 특성 중 '동기'와 관련하여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동기는 내재적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되고 기본적으로 학습을 유인하는 입장과 기준이 어디에서 작용하는지에 따라 그 시작을 다르게 본다. 먼저, 외재적 동기로 인해 학습을 할 때 자신만이 가지는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결국 내재적 동기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진다. 자기결정성이라는 특성은 '무동기, 외적 조절동기, 부과된 조절동기, 확인된 조절동기, 내재적동기'로 이어지는데 자신이 이 학습을 왜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행동의 정당화를 위한 내면의 요인이다(Deci & Ryan, 1986). 상대적으로 외부의 보상에 초점을 두는지 자신의 개인 학습을 위한 내재적 이유로 학습을 하는지에 따른 학습자 개인의 정도 차에 대한 비교 기준이다. 예를 들어 '부과된 조절동기'는 외부나 타인의 기대나 목표 때문에 시작된 학습이기는 하나, 결국 자아존중감 향상,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경우에 부등호가 더 큰 경우이다. 확인된 조절동기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다고 여기는 학습 내용, 목표, 특정 목적 자체에 의미를 두고 학습을 하는 것으로 학습 자체의 순수한 즐거움에서 시작된 요인은 아니지만 추구하거나 방향을 설정한 것을 위해 학습을 수행하는 동기이다. 내재적 조절 동기는 그것 자체가 순수하게 즐거운 것에 중요성이 있으므로 학습자체가 즐거워서 학습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깨달음과 배움의 과정이 즐거운 경우이다.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학습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는 유형이다(김청자, 2006). 학습 성취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본래 학습의 의미를 실천하기 어려운 특성 중 하나가 자기결정성의 특성에서 무동기에서 비롯된 경우이다. 이는 학습 자체의 의미와 즐거움이 없어 행동 또한 부정적 결과로 나아오거나 지연 상태를 자아낸다(Bandura, 1986; Seligman, 1975). 이 외에도 학습에 대한 목표지향성의 유무나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학습에 대한 접근과 태도가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몇 가지로 정의하기 어려운 인간의 성격 특성에서 보이는 인간의 다양성과 동일하게 학습자 특성 또한 다양하다. 학습자는 개인이 선호하는 방식이 다르고, 쉽게 말해 배우려는 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습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양은배, 이승희, 황은영, 2008). 특히, 학습하는 자기만의 방식, 전략,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특성도 매우 다르다. 결국 모든 학습자는 다른 능력, 흥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학습자의 선호도, 능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력 등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이 지원되어야 하는 논리를 의미하는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도 이 맥을 같이 한다. 결국 가드너가 주장하는 지식은 기존 지식의 상하관계,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지닌 지능 간의 다양성, 다름을 강조하는 바이다. 예를 들어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각지능, 신체지능, 음악지능, 대인 간 지능, 개인 내 지능, 자연지능'으로 7개의 지능으로 구분하였고 이후 '자연지능'을 추가하여 8개로 확대하였으며, 결국 지능의 범주와 내용을 다양하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이후에도 이는 충분히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태어나지 않으며, 지능 또한 모두 다르다."는 명제이다. 이는 학습자의 학습 속도, 수행 정도, 학습환경, 문화에 따라서도 이는 영향을 준다. 다중지능이론의 핵심은 인간이 지닌 고정적인 IQ점수 검사를 넘어서서 고유한 가치, 잠재력의 범위를 확장시키려고 하였으며, 자신이 속한 문화나 맥락에서 유용하게 쓰일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생물, 심리학적 잠재력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지능의 의미를 정의하였다. 사람이라면 지능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조합과 구성에 상이함을 강조하고, 지능은 점차 성장되어가고 교육될 수 있는 것이지만 개인차가 있음을 전제하였다. 다만 이러한 다중지능이론은 주 핵심 성분과, 최고 수준 발달 직업군, 발달적 요인이 학령기 아동들의 성장과 진로 계획 등과 관련되는 부분임으로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제는 가능하나 직접적인 전략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다만 인간의 잠재력 발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교수학습 활동 내 개인의 강점 발견하여 향상시키고 단점은 보완해 나가는 교육문화를 만드는 것에의 의의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지능과 관련하여 인간의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지식을 모으고, 분석하며, 사용하는지에 대한 Sternberg의 지능의 삼원론에 대한 이해 또한 분석적지능-경험적지능-실제적지능의 활용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개인차의 다양한 정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적인 행동 및 정신 과정과 관련된 인지적 요인, 학업적 요인과 연관성 있는 '분석적 지능'은 쉽게 말해 공부하는데 보이는 능력이다. 정보를 처리하는 데 고등 정신과정인 메타 요소, 무언가를 계획하고 모니터링 및 통제하는 수행 요소, 실제로 이해하고 문제를 처리하는데 하는 방법으로서 지식습득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경험적 지능은 인간의 경험, 창조적 기능을 통해 정보를 새롭게 찾는 능력, 정보처리를 특정 인지적 노력 없이 새로운 것도 일상적 과정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끝으로 실제적 지능은 지능검사, 학업성취도와 달리 실용적 능력으로 적응, 선택, 조성으로 사회에 대한 경험, 실제 하는 것 등을 말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정 경험 외에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에 적응하고 바꾸고 필요한 것은 '문화'의 요인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지능의 차이가 결국 학습자 간 편차를 보이고 특정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교육환경이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접근하는 방식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검토하는 잣대로 사용할 수 있다(신명희 외, 2011; 이영만, 2009).

대표적으로 학습자의 특성 중 '학습유형 혹은 학습양식(learning style)'의 의미는 '새로운 정보에 집중하고 그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방식으로 학습자가 학습하는 방법, 그로 인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특성'이다. 어떤 유형이 더 좋고 나쁘고의 경중의 의미가 아닌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더 좋아하고 익숙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자가 지닌 선호하는 학습 방식이나 환경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특성이론에서의 특징과 결을 같이 한다. 즉, 학습양식 자체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 기저에 있는 전제는 학습을 위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인지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선호하고 추구하는지에 방점이 있으며, 개인의 특성 중 대표되는 성격 특성과 연결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과 정책 수립, 교수학습 방식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학습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에 활용되는 요소임에 중요성이 있다(Curry, 1983; Ehrman, Leaver, & Oxford, 2003; Hawk & Shah, 2007).

학습양식에 대해 Honey and Mumford는 네 가지인 활동가형(Activists), 실용가형(Pragmatists), 이론가형(Theorists), 숙고가형(Reflectors)로 구분하였다. 활동가형은 사교적, 새로운 것 경험, 지루함을 빨리 느끼는 경향을 특징으로 한다. 실용가형은 실제 작동 정도, 실천을 통해 실제 문제 해결 등에 관심이 있어 이상적인 토론 혹은 결론 없는 고찰 등에 흥미를 잃는다. 관찰을 통해 완벽히 패턴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통합하여 객관적으로 이론을 구축하고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론가형이 있다. 끝으로 많은 정보를 내리고 오랜 시간 동안 숙고해서 답을 내리는 숙고가형이 있다. 이렇듯 학습자들은 필기 선호 유무, 토론 참여 여부, 교수학습 환경영향 등에 따라 규정된 바는 없으나 학습자가 좋아하고 익숙해하는 특성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Ferdiani & Harianto, 2024). Pask(1976)의 모델에 의하면 정보가 제공되는 형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선호도에 차이를 준다고 본다. 순차적으로 정보를 줌으로써 차례대로, 단계대로 짚어가는 학습을 잘하는 경우는 순차적 학습자라 칭하고, 전체적인 그림과 같이 전체 맥락을 먼저 훑고 그다음 세부적인 요소나, 단계별로 나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쪽을 전체적 학습자라고 한다(양은배 외, 2008; Pask, 1976). 이와 관련하여 Dunn과 Dunn의 학습유형을 분류해보면 얼마나 복잡한 구조와 경우의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이 유형의 전제는 모든 학습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독특성, 다양성을 전제로 교수학습에 들어가야 함을 강조한다. 정보 선택 및 획득 능력, 학습 자세, 학습환경에 다른데 이 중 환경적, 정서적, 사회적, 생리적, 심리적 요인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등에서 학습을 자신이 어떻게 취해가는지에 대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온다. 예를 들어 환경적 요인에는 소리, 빛, 기온, 가구 및 디자인 자체에 영향을 받는다. 정서적 요인에는 동기, 하나의 일정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속력, 학습 과제에 대한 책임감, 구조화 된 것에 대한 과제의 선호 정도 등이 이 요인에 포함된다. 사회적 요인은 혼자서 하는 식의 공부가 나은지 여럿이 함께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성인이나 교수자와 함께하는 것이 나은지 도움이 없이 혼자하는 것이 나은지 등에 해당하는 검토 요인이다. 생리적 요인에는 감각 기관의 지각 정도로 시각 자료, 청각 자료 등 보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등 학습자료에 어떤 것이 더 받아들이기 유용하고 익숙한지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무언가 섭취나 즐거운 것이 들어가야 하는 것의 차이, 학습 효율이 오르는 시간대, 공부할 때의 이동 정도에 따른 욕구 정도가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 요인에는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편한 학습자가 있을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분석하여 분절하여 보는 것을 통해 차이점, 비교분석 등을 통해 학습할 때 구조화 자체가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심리적 요인으로써 좌뇌 혹은 우뇌의 사용 정도, 충동적 혹은 숙고형에 따라 빠르게 반응하지만 실수가 많은 유형인지 복잡한 개념을 잘 처리하는 숙고적 유형인지 등을 통해 총 21가지의 유형에 따라 학습자가 다름을 검토한 이론이다.

이는 어떤 것이 더 낫고 그른 것이 아닌 교수자는 교육지원 및 개입을 할 때, 교육적 상담을 할 시에도 무엇이 학습자에게 보다 적절한지, 적합한지, 효과적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계속 중요하다. 이외에도 장독립형 및 장의존형 특성에 따라 특성을 구분하기도 한다. 장독립형은 주변으로부터 자신을 구분하여 방해 요인에서 자신을 빼낼 수 있으며, 비사교적, 추상적인 것, 공학, 천문학 등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덜한 영역에서 학습에 흥미를 보이고 이 분야의 내용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개념을 구체적으로 구분, 자신이 구조화에 능하고, 개념획득을 위해 연역적 접근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점수, 경쟁, 개인의 목표, 유용성, 구조를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자율성을 주는 것 등이 이들이 학습할 때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특성이다. 이에 반해 장의존형은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을 보고 사회관계 속에서 지향하는 바를 학습하는데 능하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있고, 외적 목표 및 강화를 요구하고, 구조화된 틀을 좋아한다. 이들은 외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판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특징을 보인다. 긍정적 외부요인인, 칭찬, 교사와의 소통, 외적 보상,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 따뜻하고 인격적 학습환경 추구, 부정적 피드백 지양 등을 통해 장의존형에 적합한 학습 특성을 가진 학습자를 교수자는 지도하고 학습을 조언할 때 필요한 특성임을 검토해야 한다. 이외에도 좌뇌형 우뇌형 사고를 통해 전체적이고 직관적으로 보는지 계열적 분석적으로 보는지에 따라 학습 방식과 정보를 기억하는 데 차이가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있다. 또한 숙고형과 충동형 특성에 따라 대답이 늦지만 분석적으로 정보를 수집 후 따져보면서 검토하기에 실수가 적은 반면, 충동형은 대답의 속도가 빠르지만 틀리는 것이 많다. 이에 읽고 쓰는 과제에서 실수가 적으며 추론 문제, 시각 구별 등에서 실수가 있다. 이를 위해 말로 다시금 표현하고 글로 쓰면서 실수를 제어하는 방식 등의 학습특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Kolb의 학습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학습자 특성을 나눌 수 있다. 학습자의 다양성,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Kolb의 경험학습회로는 일반적으로 교육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보편화된 학습자의 이해 방식 중 하나이다. 이는 변형되는 축과 고정되는 축을 기반으로 '판단'에 의한 고정, '이해'를 통한 고정을 세로축으로, '확장'에 의한 변형과 '의도'를 통한 변형을 가로축으로 둔다. 이에 세로축은 판단을 통한 고정으로 구체적 경험이 해당되고, 이해를 통한 고정에는 추상적 개념화를 둘 수 있다. 의도를 통한 변형에는 반성적 관찰(반성), 확장을 통한 변형에는 능동적 실험(새로운 행동)이 위치하여 지식을 구분하고 있다. 지식을 구축할 때 구체적인 경험(경험)과 반성적 관찰(반성)을 통해서 하는 경우 '확산적 지식의 유형(분산, 수평적 사고자)', 구체적 경험(경험)과 능동적 실험(새로운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것을 '순응적 지식 적응(활발한 위험감수자)', 추상적 개념화(이론화)와 능동적 실험(새로운 행동)을 통하는 경우 '수렴적 지식(적극적 위험 감수자)', 반성적 관찰(반성)과 추상적 개념화(이론화)는 '동화적 지식(융합, 귀납적 추론가, 이론가)'을 기반으로 네 가지 학습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 네 가지 학습유형의 근거는 정보를 지각하는 방식과 처리하는 방식에 의해 사분면 형태로 그 특성을 구분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정보를 지각할 시에는 구체적으로 직접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여한 경험인지에 따라 혹은 논리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추상적 개념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판단 전 숙고한 뒤에 여러 관점에서 검토 후 답변을 내는 식이고, 반대로 활동적 실험유형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려고 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는 유형으로 문제해결학습에 비교적 흥미를 갖는 경우이다. 즉, '분산자, 융합자, 수렴자, 적응자'로 구분하여 구체적 경험 및 반성적 관찰을 통한 상상력, 아이디어, 다양한 분야의 흥미, 사람들과의 관계 지향성이 특성인 경우는 '분산자'의 학습자 특성에 속한다. '융합자'의 경우, 추상적 개념으로 지각하고 다시금 다각도로 관찰 하여 검토하는 숙고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므로 귀납척 추리, 이론화, 체계적 사고, 과학적 이론 도출 등에 능한 경우이다. '수렴자'는 추상적 개념화이지만 보다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의사결정에 뛰어들고자 한다. 가설을 세우고 연역적 추론방식으로 풀어가지만 인간사회에 대한 상호작용 문제해결보다는 기술, 과학, 공학적 문제해결에 능한 경우이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적응자’의 경우 구체적 경험과 활동적 실험으로 계획, 새로운 경험, 모험적, 감각적, 사람들에 의존하여 리더십 유형으로써 문제를 풀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에 뛰어난 경우이다.

다만, 위의 경우와 같이 학습자를 단순하게 네 가지 유형으로 학습자의 특성을 규명할 수는 없지만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개인 특성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학습자가 자신의 특성에 맞게 학습을 하는데 용이하고, 이를 검토하여 학습 지도와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교수학습 방안 및 진로코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특성은 다양하고 정답은 없으며 보다 적합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며,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환경 제공과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맥락 및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학습몰입에 대한 정도를 자극하고 학습의 성과 및 성취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 개인의 특성이 곧 학습몰입과 집중 정도에 변수가 된다(김규영, 이희수, 2021; 신명희 외, 2011; Lu, Jia, Gong, & Clark, 2007).

학습자의 특성을 논의함에 있어 개인의 특성은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과 관련된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성취목표지향성(Achievement Goal Orientation)이 주요 요소로 언급되며, 이는 ‘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로 구분되어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이는 개인의 학업이나 과제 성취를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도달하는 방법, 결과에 대한 해석이 개인의 특성에 기반한다는 점을 의미한다(Elliot, 1999; Pintrich & Schunk, 1996). 수행과 숙달의 차이는 상대평가의 특징과 같이 학습자 자신의 과정과 결과를 타인의 학습성과와 비교하여 자신의 과제나 성과를 증명하고자 한다. 타인과 비교해서 받는 평가에 집중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에 반대 숙달목표는 절대평가의 성향으로 과제 자체에 집중하여 과제를 하기 위해 학습자 스스로가 달성한 정도, 내용, 완벽 정도를 검토하는 경우이다(송인섭, 박성윤, 2000; 이주화, 김아영, 2005; 조승우, 김아영, 1998; 정명희, 1998). 다만, 이는 학습자 특성에 기반하여 학습자가 무엇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유형을 나타낼 뿐, 특정 학습자 특성이 더 우수하거나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의 특성에 따른 경향은 개인차가 있으며, 학습자의 선호 유형이 좋고 나쁨의 개념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송인섭, 박성윤, 2000; 임경민, 2012; Elliot, 1999).

결국 학습을 접근방법에 따라, 과제를 해나가는 방향에 따라 이 특성 내에서 네 가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지 영역으로 검토한 것이다. 학습자가 지닌 특정 특성을 구분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학습자가 학습 자체에 의미를 가지고, 스스로 필요한 능력, 기술, 지식을 개발하여 자기주도학습 및 메타인지를 활용하여 학습해 나가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우이다. 그리하여 과제를 이해하고 해결해가며 진도를 나아가고 무언가의 앎에 다가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특히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된 메타인지, 자아 통제, 욕구 조절 등에 능한 경우라 볼 수 있다. 학습자가 가진 '자기조절능력'의 정도가 높은 경우이며 자신이 해당 학습을 위해 발휘 가능한 능력에 대해 스스로 관찰, 성찰, 자기통제 등을 통해 우선순위와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힘을 가지며, 자기주도학습의 원리와 같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한 후에 행동과 감정들을 비교적 훈련하고 조율할 수 있는 힘이 강한 경우가 주된 특성이다(박래성; 2024; Bandura, 1986; Pintrich & DeGroot, 1990; Saarni, 1997; Zimmerman & Martinez-Pons, 1986). 결국 자지조절능력을 통해 학습에 책임감과 통제를 통한 자기주도적 힘에 의해 학습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강한 학습 특성을 가진 경우가 이 특성을 가진 경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송영명, 이현철, 2009; 양명희, 이경아, 2012; 이혜주, 2008; 허은영, 2009).

Bandura의 자기효능감과 연결되는 특성으로 개인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검토하고 성찰하는 일련의 과정에 주체 정도 등이 개인의 학습 특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발견해 볼 수 있다(조승우, 김아영, 1998). 이러한 특성이 강한 경우 '학습'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master'에 초점을 맞춘 것은 동일하나 숙달하는 것에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 학습자의 경우 자신이 가진 지식, 술기, 태도, 경험 등이 낮아질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 수행하지 못할 것 같거나 실패할 것 같은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닌 '안 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숙달을 회피하는 특성을 가진 경우이다. 수행의 관점에서도 접근과 회피 성향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수행 접근의 경우 수행하는데 그 동력은 타인과 자신이 비교하여 타 학습자보다 나은 결과나, 성과물을 얻기 위해 목표지향을 하는 경우이다. 반대로 수행 회피 성향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 특성'은 학습자가 가진 개인적 특성이 학업성취를 촉진하거나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자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과 정서를 고려한 '정의적 스캐폴딩의 지원'을 통해 학습 속도와 시기를 맞추고, 보다 친화적인 환경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별화교육과 피드백, 교육 지원 정책, 자원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유형에 따라 과제와 목표 달성을 돕는 요소를 검토하는 것은 교수자와 교육기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궁극적으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 전략과 지원책을 제공하며, 개인의 학습 특성을 고려한 교육적 접근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의의가 있다(하지은 외, 2024).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위의 대표적인 학습자의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교수자는 다양한 학습자의 학습양식을 고려한 교수학습방법과 지원을 해야하고 학습자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교수학습의 전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할 수 있다. 교수자는 일대일로 개별화된 교육을 위해 모든 학습자를 고려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학습자 개인 혹은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여 학습양식을 '맞추기(mathcing)'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 집단이 보다 더 선호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합한 교수학습 환경과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특히, 의과대학에는 강의 외에도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적용되고, 임상 교육이라는 의과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교육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학습환경과는 별도의 교수학습 전략이 요구되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접근도 필요하다. 또한 의과대학 교육에서의 특수성 중 꽉 채워진 공식 교육과정 속의 강의와 소그룹 활동 외에도 '학생 개개인에게 할당된 독립학습의 시간이 높다는 점이 의과대학 환경이 가진 특이성이다(Dent & Harden, 2015). '독립학습(independent study)'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선행지식의 함양정도를 파악하여 학습자 유형 중 개인 학습자가 선호하고 적합한 유형에 근거하여 학습전략을 활용하게끔 안내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독립학습을 통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반추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학습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1.2. 특성이론 및 자질이론

2.1.2.1. 특성이론

특성이론과 유사한 용어로 자질이론을 들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이론 모두 'Trait Theory'로 영문 표현은 기술된다. 두 이론 모두 개인의 성격과 자질 등의 사람의 내부에 가진 무엇을 통해 행동, 감정, 태도, 능력 등을 예측하고자 혹은 특정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수행을 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잣대로 활용하는 접근 방법이지만, 특성이론에서 주를 이루는 연구 분야와 대상은 성격 연구에 강조점이 있고, 특정 특성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필요하다거나 개인에게 있어 타인과 차별화 혹은 강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다양한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다양성, 의과대학 학생의 다양성 등을 소재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이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 자질이론은 리더십 특성이 있는 자질이론 등으로 응용되어 활용하는 식의 리더십 연구 분야에서 다수 등장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특성이론과 자질이론의 일반적 의미와 해당 이론에 근거한 선행연구의 사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이론의 기본 방향과 학습자의 특성을 이루는 내부 요소로써의 성격적 특성에 기초하여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특성이라는 ‘trait’의 사전적 의미를 빌려 검토해 보면 영어로는 ‘a particular characteristic that can produce a particular type of behavior’로 기술되어있다. 이는 특정한 특징으로써 이것 자체로 인해 특정한 행동의 유형을 수행하거나 생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a characteristic, esp. of a personality’로 기술된 바에 의하면 특별히 성격,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특성, 개성, 인격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의 유머 감각은 그의 좋은 특성(trait)이다’라고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 되어있다(Cambridge University Press. (n.d.)). 국어사전에는 ‘개인을 여러 심리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존재로 전제한 후,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된 여러 특성을 찾아내어 인간을 이해하려는 이론, 스포츠 심리학에서 위대한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으로 리더십 이론 중 하나로 이차 세계 대전 직후까지 지배적이었다’라고 정의되어있다(국립국어원. (n.d.)).

특성이라는 뜻의 또 다른 영어단어인 ‘characteristic’은 a typical or noticeable quality of someone or something’으로 어떤 혹은 어떤 것의 주목할 만한 혹은 전형적인 질을 의미한다. 또는 ‘typical of a person or thing’의 의미를 빌려보면 사람 또는 물건의 전형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Cambridge University Press. (n.d.)). 선행연구에 따르면 ‘특성과 자질’은 학습자가 고유하게 가진 기질이나 성격 등이 함축된 내용이지만 일부의 특성과 자질은 교육·훈련 수련 등을 통해 변화되어 갈 수 있으며, 특성과 자질에 대한 정의 또한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김병찬, 2019).

특성이론(Trait Theory)은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론으로 일반적으로 인격을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 다만 심리학 외에도 응용학문으로써 유사 분야인 교육학, 상담학, 리더십 연구, 인재 개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그 분야에서 ‘특성이론’과 관련한 문헌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Vidani & Chauhan, 2015). 실례로써, 리더십 연구 분야에서는 효과적인 리더로서 필요한 성격 특성을 검토하여 어떤 특성이 리더로서의 행동을 잘 수행하는지를 예측하기 위해 검토 도구로 활용한다. ‘리더십 특성이론(trait theory)’의 기반을 검토하면, 여기에서는 효율적이거나 인정받는 리더는 일반인과 다른 ‘그 리더만의 특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리더의 특수성’이라고 한다. 마치 교사라는 직업군 내에서도 ‘교사’ 개개인을 잠재적 리더로 상정하고 성장 가능한 객체로 바라본다면, 특정 개인의 성향과 성격을 넘어서서 ‘교사로서의 리더십’이 있는 교사들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교사 리더십’으로 개인 교사들을 키워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교사 리더십에 대한 내·외적 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의 의식-역량-발휘의 과정을 일종의 속성으로 바라보고 있다(김병찬, 2019).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특성이론은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성격이나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있어 대표적인 접근 방식으로 '개인의 성격이 고유한 특성(traits)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특정 직업군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지닌 자가 특정 직군의 역할과 행동에 있어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적 정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성은 학습되거나 후천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닌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에 보다 더 강조함으로써 개인이 가진 특성들이 행동이나 태도, 감정 등이 상황에 좌우되지 않거나, 일정한 환경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일관성(consistency)'에 주목한 이 속성은 비교적 장기적이고 안정적 요소로 특정 행동을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규정할 때에는 특성이 우리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과관계를 검토할 때 특성에 따라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자 할 때 내적 원인적 특성으로 규정하며, '우리의 행동, 행위가 어떠하다'라는 묘사를 순수한 기술적 개요로서 특성을 규정짓는다. 즉, 특성 중 성격 특성에서의 성격이라는 것은 개인을 특징짓고, 지속적이며 일관된 속성으로 잘 변하지 않으며 개인 특유의 행동 혹은 사고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Allport, 1961; Davis-Blake & Pfeffer, 1989; House et al., 1996).

특성이론은 20세기 초반에 고든 올포트(Gordon Allport), 레이몬드 캐틀(Raymond Cattell), 한스 아이젠크(Hans Eysenck) 등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고든 올포트는 성격연구의 시작을 통해 특성을 기질이라고 하였다. 각 사람이 가진 비교적 고유한, 자신만의 주요한 특성(cardinal traits)은 행동을 지배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든 인간에게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있는 중심 특성(central traits) 외에 개인에게 특히나 더 있는 특정 주요 특성이 이를 제어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특정 상황이나 개인에게만 드러내는 개인이 가진 자질은 이차적 특성으로 보고 이는 중심 특성과 주요 특성 외의 별개의 특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복잡성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제안함으로 인간의 독특성을 드러냈다. 개방성, 우호성, 외향성 등과 같이 특정 성향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더 잘하거나 타인보다 상대적으로 사람이나 업무에 쉽게 다가가는 등 개개인을 구별하는 행동과 사고, 감정을 결정해 주는 것이자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Allport, 1960; Allport, 1961; Cattell, 1970; Eysenck & Eysenck, 2013).

이외에도 성격 특성과 관련해서 성격 특성 이론가들은 성격을 이루는 특성을 검토하였는데 약 200개의 성격 특성이 있고 16개의 군집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Cattell(1970- 레이몬드 카텔의 16개 성격 요인, 길 포드의 지성구조, 마이어스-브릭스 유형지표, 한스 아인젠크의 3가지 차원으로 요인 분석(외향성-내향성 차원, 신경증적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차원, 정신병적), 최근에 활용하고 있는 5가지 성격 특성 요소 혹은 다섯 요인 모델(Big Five personality traits, the five-factor model)인 'Five 성격 모델'을 통해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우호성, 신경증적 경향'으로 최근 연구에서 이 틀에 의한 연구 구분에서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여 성격 특성 연구의 기본 틀이 되었다. 각 연구자에 따른 분류 방법에 따라 성격 특성 구분이 상이하지만 대표적으로는 'Big 5 모델'을 언급하는데 이러한 틀에서 나오는 특성을 기반으로 개인을 타인과의 구별하거나 개인이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식으로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다(Cattell, 1970; Costa & McCrae, 1992; Digman & Inouye, 1986; Eysenck & Eysenck, 2013 Goldberg, 1990; McCrae & Costa, 1987).

성격 특성에는 '사회적 적응력, 감정통제, 순응성, 지적 호기심, 자신감' 등의 요소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표적인 성격 특성은 '외향성, 성실성, 우호성, 정서적 불안정성, 개방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5요인 모델로써 성격 특성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유태용, 김명언, 이도형, 1997; Costa & McCrae, 1992; Goldberg, 1990; McCrae & Costa, 1987). 다섯 가지 대표적인 특성 중 '외향성(Extraversion)'은 대인관계에서의 적극성, 사교성, 자기주장성, 활동성, 주도성, 집단성향성, 야망성, 상호작용기술, 활동성, 등이 주된 특성으로써, 에너지 수준의 차이가 부각 되는 것에 의해 외향과 내향을 구분 짓는다.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안정적이고, 계획적, 미래지향적, 목표나 목적 지향적이며 공부나 일에 적용되는 일관된 태도와 행동이 근거로 적용된다. 이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일이나 학업을 수행하는 요소와 연결될 수 있다. 충동을 억제하고 욕구 지연 능력을 조절하면서 자신이 세운 목표와 계획에 대해 수행하는 것을 대표적인 성실성의 지표를 검토해 볼 수 있다(김현정, 2006). '우호성(Agreeableness)'은 타인에 대한 존중, 신뢰, 관계, 타인 지향적인 것으로 대인관계에서 인기가 많고 배려심이 많은 경우를 의미하며, 사람과의 친밀함이 두드러지는 특성이다, 우호성은 결국 타인과 상호작용에 유용한 속성들로, 신뢰, 낙천성, 공감, 도움, 솔직함 등이 그 속성을 대변한다 (김현정, 2006, 민병모, 2001; 이정규, 2007; 홍숙기, 2004,). '정서적 불안정성, 신경증적 경향(Neuroticism)'은 불안, 피로, 민감, 까다로움, 우울함을 의미하며 스트레스를 견디는 정도, 혼자 힘으로 헤쳐 나갈 믿음의 정도, 침착성과 기분 통제 등과의 요인과 연결되는 속성이다(박미선 2001; 유태용, 1999), '개방성(Openness)'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여 지적 호기심, 상상,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등 새로운 경험에 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받아들이며, 호기심이 많고 대담한 경향, 창조적, 넓은 포용력 등을 의미하는 지표이다. 도전적인 성향으로 새로운 경험, 상상, 대담성을 기반으로 한다(정다원, 2016; McCrae & Costa, 2005).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인간의 복잡성이라는 전제하에 인간의 성격 특성에는 꼭 5가지의 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인지적 영역에서 관심 분야의 다양성, 상상력, 통찰력이 있는 경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있다고 보고, 꼼꼼, 세심하여 원칙대로 행하려는 행동을 볼 때 성실성이라는 특성, 사교적이고 밝고 자신의 성격을 표출하는 외향성, 동정, 우호, 협동 등의 대인관계 혹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의 붙임성, 불안, 우울, 자의식, 충동 등과 관련된 신경증, 진정성 겸손, 공정, 청렴 등 정직성과 겸손, 자기에 대한 태도 및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한 자존감, 완벽주의, 감정불능증, 엄격성, 충동성, 탈억제, 정신병성향, 강박성 등'을 성격 특성 도구를 통해 나온 대표적인 특성을 이루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성이론은 쉽게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5가지 요인 등의 특성으로 개인의 성격을 검토하고 행동이나 감정 등을 예측할 수 있으나, 인간의 복잡성이라는 전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요즈음 연구에서는 특성이 비교적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타인에 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무엇이라는 점과 비교적 장기적으로 고정되고 일관하다라고 볼 뿐이지 오히려 변화 가능하고 성장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상황이나 환경, 교육 및 훈련의 추가적인 외부 행위, 개인의 삶에 특정 변화의 시기로 인해 변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초창기 연구과 같이 선천적인 것에 초점을 둔 특성일지라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요소라는 점으로 관점의 변화를 통해 연구 추세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성이론'의 교육학적 함의를 가져올 수 있다.

특성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 중 의료계 쪽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 및 의과대학에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의과대학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요소에 집중하여 의사들이 갖춰야 하는 역량을 예측하거나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지, 성공적으로 의사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나 학업적 능력으로 대표되는 인지적 요소만으로는 이를 검토하기에 부족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정한나, 양은배(2018)의 연구에서는 비인지적 요인과 의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능력 중 의료지식과 술기영역 외의 필요한 요소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비인지적 요인과 인성 특성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관리 능력, 공감 능력, 진로 가치관, 회복탄력성 등의 개인의 인성 특성 여부에 따라 향후 의사로서 수행하는데 적절성, 의사로서의 업무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함양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의 특성은 'Personality'로 영문을 기재하는 것으로 볼 때 '성격적 특성'의 의미로서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위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중 미니면접 등의 평가도구를 통해 개인이 가지는 인성 특성을 검토해 오고 있다(정한나, 양은배, 2018). 인성 특성 접근법 중 trait approach를 활용하여 성격 혹은 인성의 특성을 검토하는데 주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성격의 대표적 특성 모델인 5요인 모델에 입각하여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을 기반으로 의과대학 입학 전형에 따른 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신경증에는 불안, 적대감, 우울, 자의식, 충동성, 심약성이 내재 되어 있는 하위 요소이고, 외향성에는 온정, 사교성, 주장, 활동성, 자극 추구성, 긍정적 정서를 포함한다. 개방성에는 상상, 심미성, 감정 개방성, 행동 개방성, 사고 개방성, 가치 개방성을 포함하며, 친화성에는 신뢰성, 솔직성, 이타성, 순응성, 겸손, 동정, 마지막으로 성실성에는 유능감, 정연성, 충실성, 성취 갈망, 자기규제성, 신중성이 들어있다. 이러한 특성군을 기반으로 의과대학 입학에서부터 재학시절 중 학업성취 및 진로 선택에 영향, 의사 역할 수행 시 스트레스 조절, 환자 및 타 동료 간의 공감 능력 등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의과대학생의 인성 특성을 집단에 따라 검토해 보고 교육적으로 추가 보완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평가방안을 개발하는 데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에서 수행된 연구였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입학 혹은 선발과의 인성의 중요성, 재학시절 학습, 공감, 스트레스 극복. 진로 탐색 시 필요한 요소, 졸업 후에는 소진이나 의사로서의 태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내적 성격 특성이 작용하는 연구 보고에 의한 배경에서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존의 5요인을 넘어서 'PH요인(심리건강과 영성요인)'을 추가하였고, 인성 유형을 두 개씩 결합하여 인간의 복합성을 구성한 '자유성과 성취지향성의 결합인 학업 수행', '외향성과 융화성을 결합한 대인관계', '민감성과 외향성을 결합한 정서', '외향성과 자유성을 결합한 직업 흥미'를 복합적으로 인간의 특성을 살피고자 인성 특성의 10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의과대학에서의 학업 문제, 중독문제, 이탈과 유급, 정신적 및 영성 문제, 동료와의 관계 등 의과대학에서의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의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토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정한나, 양은배, 2018).

결과적으로 의예과 전형으로 입학생들이 학사편입학 지원자보다 민감성이 높게 나왔고, 외향성과 성취지향성이 의예과 학생들이 학사 편입학 지원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민감성은 짜증, 분노, 우울, 불안과 같은 예민함이며, 외향성은 의사로서의 핵심 특성과도 연관이 깊은 요인으로 자기주장의 명확함, 성취지향성은 문제해결능력 과제에 대한 목적지향성과 연결되는 요소이다. 또한 의예과 입학생보다 학사편입학 입학자들이 보다 타인에게 개방적 태도, 대인관계 유지 등에 더 열려있는 것으로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높고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의예과 입학생을 선발 시에 보다 학사편입학 학생들처럼 의사에게 필요한 자질에 맞는 특성을 가진 학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생들이 선발되고, 이러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입학 시에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정한나, 양은배, 2018).

다음으로,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비춰 의사결정 유형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내적 특성 중 하나인 성격 특성이 스스로의 자기관리 역량 및 내적 동기부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힘을 발휘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개인이 가지는 성격 특성과 환경의 조화를 통해 '셀프 리더십'의 발휘 여부, 발휘 빈도 및 정도를 검토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었다. 개인의 내적 특성인 성격을 대표하는 것으로 '특성이론'을 검토하여 성격의 5가지 혹은 n가지 유형에 따라 보고자 하는 셀프리더십의 발현 가능성, 정도를 검토하는 데 이 이론을 활용하였다. 셀프리더십의 발현과 관련된 의사결정 유형과 셀프리더십의 발현 정도를 보기 위해 특성이론을 가지고 와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성격 유형 5요인을 기반으로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임을 도출해 내었다(김명숙, 2016; Judge, Bono, Ilies, & Gerhardt, 2002).

특성이론 관련 선행연구 중 비 의료계에서 활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개방성을 제외한 우호성과 외향성이 영어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와 소통을 비교적 잘하는 우호성의 경우 영어학습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사교적이고 타인들과 직접적인 교류와 적극성으로 인해 외향적 성격 요인이 영어학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다원, 2016). 또한 교사의 리더십과 특성이론에 대한 연구에서는 내용상의 의미는 '교사 리더십의 유형, 교사 리더십의 특징'에 대한 것으로 정리된 연구였으나, 특징을 특성으로 잘못 용어를 사용하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주체이고 속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목표지향적성, 공동체성, 과업주도성, 전문성'으로 배치하고, 발휘 영역에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학급 운영, 동료 교사, 관계, 행정업무, 학부모 관계', 지도성 발휘 대상으로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에게 미치는 구조를 '교사 리더십 개념 모형'으로 상정하고 발휘 대상별 리더십 특성과 리더십의 속성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교사 리더십 특성을 설명 시에 배경 변인에 따라 교사 리더십의 특징을 설명 시에 특성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정광희 외, 2009).

특성이론은 리더십 초기이론으로서 '리더십 특성이론(trait theory)'에서 언급되는 바이다. 효율적이거나 인정받는 리더는 일반인과 다른 '그 리더만의 특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리더의 특수성'이라고 한다. 마치 교사라는 직업군 내에서도 '교사' 개개인을 잠재적 리더로 상정하고 성장 가능한 객체로 바라본다면, 특정 개인의 성향과 성격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넘어서서 ‘교사로서의 리더십’이 있는 교사들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교사 리더십’으로 개인 교사들을 키워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교사 리더십에 대한 내·외적 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의 의식-역량-발휘의 과정을 일종의 속성으로 바라보고 있다. 교사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사 특성은 의식에 있어 ‘적극적 주체, 소명과 헌신’, 공동체연대 역량으로써 ‘관계지향 소통, 촉진과 조력, 협력적 문제 해결, 지속적 반성과 신념’을 들고 있었고, 발휘 속성으로 ‘변화주도, 신뢰공동체 형성, 교사전문성 도약’을 특징으로 제시하였다(김병찬, 2019). 교사리더십에서의 의식은 마음의 변화, 마음가짐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세와 교사로서 여김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가 자신이 리더십이라는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때 그 내적요소가 움직임으로써 교사 리더십의 속성의 일부를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Katzenmeyer & Moller, 2009/2019; Leithwood, 1994; Lieberman & Miller, 2004).

또한 교사리더십 특성 중 내적 요소로 교사리더십을 수행할 능력, 힘을 포괄하여 역량이라고 보는데 이 또한 리더십을 형성하는 내적 특성 중 하나의 요인이다. 교사리더십을 위한 특성 중 교사역량은 협동, 참여, 주체성, 적극적 의지, 공유, 배려, 도전, 문제해결, 소통, 전문적지식, 성찰과 반성 등을 통틀어 교사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인 세부 역량으로 보고 있다(채지수, 2021; Kouzes & Posner, 2010; Lieberman & Miller, 2004/2009). 마지막으로 교사리더십의 발휘 속성은 발휘 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고유한 특성과 특징을 통해 이는 성향 기질 등을 통해 도전적 과업 수행, 협력해서 하고자 하는지 등 관계적 속성을 보이는 요소를 의미한다(Levin & Schrum, 2017). 궁극적으로 교사들의 특성을 리더십 의식, 역량, 발휘 속성으로 나누어 교사로서의 리더십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 교사들에게 있는 교사리더십의 특성으로 희생하는 속성이 있음을 밝혔다. 예를 들어 과도한 행정업무,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학생들의 위축 속에서 희생과 소통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의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여 조직의 갈등을 해결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식의 ‘희생적 면모’를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또한 특성 중 하나로 기존에 밝힌 ‘의식-역량-발휘’의 순환적 구조로 전후 움직이며 나선형 경험을 하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있었다. 성찰-상호작용 속에서 경험의 재해석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의 깊이와 정도를 확장해 나가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고교정상화를 위해 진짜 교사로서의 역할 속에서 학생의 잠재력을 키우고 배움공동체로 될 수 있게 만드는 등 교사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을 주요한 속성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교사효능감을 회복하여 자긍심을 갖는 것을 통해 볼 때 ‘교사리더십의 특성’을 재검토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교사리더십의 특성’은 기존의 연구와 같이 특성이 개인의 속성, 개인만이 가진 특정한 속성으로 불리는 우수한 속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관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와 공동체 속에서 둘러싼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가고 발전해 가는 것이며, 고정되고 일관된 힘을 넘어서 상호소통, 성장하는 요인으로서의 우수한 속성으로 볼 수 있음을 밝혀냈다(Gronn, 2000; Harris, 2003; Lieberman & Miller, 2004/2009; Smylie, Bennett, Konkol, & Fendt, 2005). 특정 리더 교사가 가진 속성이 '교사리더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이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고 성장하고 소통되면서 확장해 감으로써 우수한 속성이 발현되는 것임을 검토하는데 시사점이 있다(김병찬, 2019).

끝으로, 비의료계 분야에서의 특성이론의 활용은 대학의 취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교육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프로그램 자체와 대학생 학습자 자체의 개인 특성이 어떻게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오봉근, 김현우, 2016).이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과 관련하여 성취욕구가 높은 개인의 경우 문제해결능력, 책임감, 과제 해결능력, 성과 대비 피드백 기대 등을 한다고 보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해결능력과 통제 가능하다는 확신을 스스로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환경을 극복하거나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과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즉,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내적 통제 등의 개인 특성 요소를 통해 교육성과에 미치는 바를 측정하는 연구도 수행되었음을 검토해 볼 수 있었다(오봉근, 김현우, 2016).

2.1.2.2. 자질이론

자질이론은 국문으로 자질론으로도 불리며, 영문으로는 'traits theory, attribute theory'로 표현된다. 이는 대표적인 리더십의 하나로써 '지도자가 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특정한 속성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에 특정 속성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 가정하고 개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특성이 있는 경우 상황과 환경을 막론하고 이를 개발하여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지도자의 경우 외적 신체적 특성과 성격 내에서의 속성을 가지고 옴으로써 자질을 검토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지배 성향, 공격성, 언어구사력, 판단력, 사명감 등으로 검토되는 것을 기반으로 리더십 이론의 초기에는 자질론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지도자의 유형이나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 이러한 요인이 점차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변화되고 재조정 되어가는 것으로써 상황론으로 검토되고 있는 추세이다(이종수, 2009).

특성 혹은 속성이론과 유사한 자질이론은 개인의 내부에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행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동을 예측하고 변화를 감안 해보려는 의도에서 두 이론 모두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자질이론은 특성(trait)인 고유한 속성이나 특징을 가지고 개인의 행동이나, 리더십 발현, 성격 등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즉, 특정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특정 자질을 강조하는데 활용한다. 리더나, 학습자 혹은 직업환경에서의 해당 직군의 특정 대상의 자질인 지식, 술기, 태도가 합쳐진 역량 혹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자신이 놓은 직무 환경 혹은 특수한 상황 속에 반응하고 결과, 성과를 내는지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교사의 자질, 의사의 자질, 후보자의 자질, 코치의 자질' 등의 용어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교사의 자질'은 교사의 자격과 구분되는 것으로 교사가 될 수 있는 특정한 요소, 역량, 바라보는 상 등이 가미된 것으로 인간적인 배경, 준비 요소를 보고 있다. 교사로서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해 나가는 점, 학생과 어린이를 사랑하며 부딪히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 젊고 총명함을 기반으로 모범적 태도와 교육적 효과를 가져가는 것, 교수 학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수업을 지도하는 기술과 전인격적 인간성 등이 합쳐진 전문가로서의 기술,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 등이 뒷받침될 때 교사의 자질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의사의 자질이라는 것에는 '의사의 실력, 의사의 자상한 설명과 친절, 의사의 믿음직함, 의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귀 담아들어줌' 등과 같이 의사가 보이는 반응을 통해 의사의 태도와 자질을 검토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의료인력 관련 요소가 있었으며, 그 중 하나를 '의료인(의사 및 간호사)의 자질과 태도'로 언급하였다. 여기에는 의사의 자질과 태도는 진료와 관련된 일련의 요소들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의사의 인격, 믿음직스러움, 의사의 친절함과 자세한 설명, 환자를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태도, 의사의 예의, 환자 이야기를 귀 담아 듣는 것, 등을 의사의 자질과 태도의 지표로 보고 있었다. 간호사의 자질과 태도로는 의사의 요인과 유사하지만 의사와 업무와는 상이한 특성으로 인해 일의 효율적 처리 등이 차별 요소로 포함되었다(조성남, 2009). 이상을 통해, 자질이론은 특성이론에 비해 비교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직무 상황에 따라 적합 여부가 달라진다는 등 상황에 기반하여 자질의 가변성이 작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상황이론, 행동이론 등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함께 검토되어야 자질을 검토하는데 적합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질이론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리더십 연구는 리더십의 특성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리더십 개인에게 어떤 자질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리더십의 역할로 수행하는지,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고자 적용하는 이론이다. 이는 Trait-Based Leadership Theory로써 리더십 특성이론과 관련 깊으며,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리더십에는 특정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한 어떠한 특성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특성이 있는 경우 리더십으로서 성과나 영향력, 효율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성공적인 리더, 특정 직업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을 수행한 '롤 모델'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게 결국 그 직업군을 해결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적합한 자질이 있음을 검토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다만, 성격 특성과 같이 내적에 있는 성향으로 비교적 일관되고 고정적이라는 불변성을 넘어서서 특정 특성이 있는 경우 해당 직군과 업무에 적합하고 유리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성은 교육이 가능하고, 변화를 나타내며 성장할 수 있는 속성임을 언급하면서, 요즈음 교사의 리더십 특성이론에서도 불변성이 아닌 가변성의 힘을 통해 지속적인 연수, 업무환경의 개선, 업무환경 내에서의 새로운 경험, 상호작용, 역할기대의 변화 등을 통해 변경 되어가는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고전적으로 자질이론에서의 리더십 자질이론을 보면, 리더십으로 선정되고 개념화되는 기초자료에 의해 빠르고 확실한 의사결정능력인 '결단력', 리더 역할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통한 '자신감', 신뢰하고 일관되는 행동을 통한 '성실성, 문제해결능력과 이와 관련된 지식, 술기, 태도의 지식의 유형이 누적화 된 '지능', 타인들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통한 '대인관계기술' 등이 대표적인 자질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고전적 선행연구에서는 리더의 성향과 자질은 타고나는 것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고 내재한 특성에 기반하여 특정 특성이 결국 리더를 결정하고, 리더로서의 특정 성향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 왔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가변적인 요소로 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잠재가능성 발현, 성장 가능한 자질이론의 접근이라는 점이 변화되어 있는 요소이다. 다만, 리더십에는 전형적인 과업, 역할 특징에 따라 규정한 직군의 정의에 기반하여 특정 자질이 있는 경우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리더십의 유형 자체가 여러형태이며, 유형 및 역할의 정의 또한 '상황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등' 가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질이론이 고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수정 보완 가능한 유연한 구조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의사 역할에 있어서도 기존에 정의한 의사의 정의, 좋은 의사의 정의를 넘어서서 좋은 의사의 규정에 기반한 고정적 의미로서의 자질 검토가 아닌 우수한 의사의 다양한 특성과 특징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질이 있음을 검토하는 가변적 의미의 변화가 성장 가능한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

자질이론과 관련하여 선행연구 또한 의료계 내에서 활용된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평가 및 구성에서의 '의학전문직업성의 기초자질 함양'이라는 목적 아래 이 연구에서는 '기초 자질'을 'Basic Qualities'로 표현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의학 전문직업성의 기초자질에 대해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서 의사가 갖추거나 함양해야 할 요소로 이해하고 있었다. 예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들어 '의학적 기본지식, 타인과의 협동력, 다양한 사회문화적 이해력, 정보습득 및 조합력, 외국어 능력, 예술 및 문화적 흥미, 미래 진로에 대한 고려, 읽고 쓰는 능력, 기본 연구 능력, 수학과 통계에 대한 기초지식, 자연과학에 대한 기초지식,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을 그 지표로 보고 있었다(방재범 외, 2008).

또 다른 연구인 응급현장에서의 구급대원이 가져야 할 자질과 자세를 검토한 연구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요인을 세 그룹으로 나눠 자질과 자세의 속성에 따라 구분지었다. '응급환자에 대한 민첩한 대응, 리더십, 환자에 대한 비밀 보호, 능력, 편견 없는 환자진료, 진실성, 정직성, 신중성, 취약한 환자에 대한 보호'를 자질과 특성의 1그룹으로 구분지었다. '인류애의 실천,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협조적 관계, 환자의 복지증진, 동료 보건 의료인의 잘못과 부정 지적 및 개선을 위한 행동, 자원의 신중한 사용 및 책임감있는 관리자 역할,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노력, 의업의 이념과 명예 드높이기,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 등을 하나의 묶음으로 2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 그룹에는 '동정심, 환자에 대한 존경심, 이타성'을 묶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응급의학과 설문지를 기반으로 요소에 맞게 그룹을 정리한 바였다. 이러한 응급구조사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의학교육분야에서의 '의료윤리, 리더십, 의사소통기술, 자원봉사' 등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례를 기반으로 응급구조사의 자질과 태도로 강조되는 '윤리의식, 동료의식, 책임감' 등이 지속적으로 함양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제언하기 위한 자료로 연구를 수행하였다(엄태환 외, 2008).

2.1.3. 의과대학 학습자의 특성

의과대학 학습자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잣대는 다수가 존재한다. 물리적인 연령대를 근거로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 성인학습자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특성, 대학생으로서의 특징, 의과대학 학습자에 대한 기존의 연구 동향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특징을 파악한 주제를 근거로 검토해 보는 등의 방향이 있다.

먼저, 국내에서 의과대학에의 입학하는 과정은 의학전문대학원 혹은 의과대학의 입학(편입학 포함)으로 대표된다. 의과대학 학습자는 크게 의학전문대학원의 지원자 및 의과대학사 편입학생 혹은 의예과로 들어오는 경우로 구성되는데, 전자의 경우 최소 22세이며, 의예과 입학할 경우 최소 연령이 18세가 된다. 입학제도에 따라 의과대학 학습자의 최소 연령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의과대학 학습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의과대학에 학습자들이 최소 연령에 의해 들어오는 것은 아니므로 연령에 제한을 두고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 연령 기준으로 볼 때 인간 발달단계의 위치를 고려하여 학습자의 특징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최소 연령에 근거해 볼 때 의학전문대학원 혹은 의과대학 편입학 제도로 입학하는 경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우 최소 성인 초기 시기 이상의 위치이며 이들은 사전에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이다. 의예과로 들어오는 경우 최소 연령을 기준으로 볼 때 후기 청소년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물리적인 연령을 고려하여 의과대학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해 볼 때 의과대학에 입학한 대다수는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이동현 외, 2020).

또한 의과대학 학습자를 이해하는 데 물리적인 나이에 근거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한 대상으로써 이들이 청소년기의 학습자로서의 특징인지 성인학습자로서의 특징을 보이는지에 근거하여 이들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개인 학습자 및 학습자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기 전 배경으로써 성인학습자의 특징을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잣대 또한 이 학습자 집단을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동현 외, 2020). 성인학습자의 경우 국내 고등교육에서 만 2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함으로써 전문성과 안정된 소득과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향후 은퇴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자신이 속한 일과 가정의 영역 내에서 정규교육 이수 혹은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과정으로 실무적, 전문적 소양 개발과 새로운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들의 경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세계에서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놓이고 처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크다. 또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일정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주체적으로 수렴한다는 점에서 능동적 학습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속한 환경과의 능동적 상호작용, 문제 해결 및 자기 성찰을 통한 상황에 대한 회고, 인식, 반성 등을 통해 학습 자체에 만족을 가지고 학습하는 내적동기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함양되어 있으며 자신의 욕구와 선택에 따른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 목표와 신념을 가지고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보고 있다. 성인학습자는 대학생에 비해 나이가 많으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진학을 결정하고, 대한 진학 등의 선택에 경제적 여건과 취업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 선택을 하게 되며, 직업, 창업 등의 경제적 영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오에도 흥미, 적성을 고려한 선택도 있으며, 적성, 보수, 지위를 얻기 위해 성인교육을 받게 된다(강경리, 2018; 강은석, 문영재, 허승은, 2019; 김석구, 2014; 양은배 외, 2008).

성인학습자는 비전통적 학습자라고도 하며 학업 단절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이론은 없다는 것이 결론이지만 학령기의 pedagogy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의 넓은 범주에서의 성인학습자들의 경우 대표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Knowles가 정의한 성인학습자의 특성은 자율성, 자기주도적이고 계획적 자아관, 풍부한 경험을 학습과 연결, 학습의 필요성 및 목적 설정, 내적 동기에 따른 자아실현의 방향으로 학습 유인, 생애 과업으로써 삶과 학습의 연계성, 특정 상황과 환경에서의 문제해결지향, 성찰학습 등을 기반으로 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는 성인들을 교수학습하기 위한 이론으로 기존의 학령기 학습자들과의 특성과 차이가 있다. 특히 주요한 특성으로 기존의 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학습이며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필요에 의한 목표지향적 학습을 선호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을 학령기 시대의 학습자와 차이를 두고 있다(강경리, 2018; 강은석 외, 2019; 양은배 외, 2008; Merriam & Baumgartner, 2020). 또한 성인학습자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Wilson 및 Conaway가 고안한 것을 볼 때 '자아개념, 학습필요성, 학습준비 정도, 경험역할, 학습동기'를 기반으로 성인학습자로서의 특성을 검토하는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김석구, 2014).

의과대학 학생들의 위치를 일반적인 성인학습자의 전형적 특징과는 달리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특성상 제한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범위를 좁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성인학습자들의 대학 생활 관련된 연구를 통해 검토해 보면, 대학 생활의 경우 사회적, 학업적, 정의적 요구를 만족하려고 학교 환경에 순응 혹은 변화시킴으로써 대처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바로써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대학이라는 환경과 학습자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해 학업, 가족관계, 대인관계, 환경요인, 심리적 요인, 취업 스트레스 등이 있다. 성인학습자와 대학의 적응 관계에서는 과제 및 시험 부담, 진도 대비 학업수행능력, 인간관계,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 학사일정 파악 여부를 보고 있다. 간호학 성인학습자의 대학 적응과 주관적 건강 상태 관계의 연구를 보면 건강을 잘 유지하는 학생이 대학 생활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만족도에 따라 학습 지속여부 및 중도 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간호학 성인학습자는 학과 구조상의 특성에 근거해 학문적 상호작용이 일반 대학생과는 차이가 있기에 학문공동체와의 통합보다는 자신의 학업을 일, 가정, 사회적 생활과 통합하는 능력에 따라 지속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었다. 학습적 인지능력과 학습을 지속할 상황과 지원에 따라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바였다. 또한 성인학습자에게 인적, 물적 지원, 환경적 지지, 각 단과대학의 문화나 교수 동료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대학 생활 적응에 긍정적이라고 보았다. 대학 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령자를 넘어선 연령층에 따른 교육과정 다양화의 제공 여부에 따라 대학 생활 적응 능력을 좌우한다고 보았다(안수경, 김상돈, 차재빈; 2023).

의과대학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대학 생활을 하는 성인학습자로서의 일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적 기준 외에도 의과대학 학습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되었던 연구 분야를 근거로 이들의 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의학교육에서의 의과대학 학습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관심 있게 검토하는 분야는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특성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경우이다. 의과대학 학습자가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길잡이와 조언을 위한 자료제공, 상담 분야에서 활용 시 학습자 개인의 특성과 진로를 희망하는 의료분야의 전공과의 특성 혹은 의료분야 외부에서의 영역의 특정 직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 및 지도를 하게 된다. 기초, 임상, 인문사회의학 관련 30여 개의 전공, 세부전공까지 더하면 40여 개의 전공에 대해 의과대학 교육과정 재학 중 탐색하고 이를 개인 학습자의 특성에 비추어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멘토를 만나고 관련 전공의 선배나 교수와의 면담 등이 더해진다면 의과대학 학생의 진로 탐색 자체가 학습자 특성과 직무 특성을 고려한 유의미한 선택의 과정이 될 수 있다. 특히 진로가이드북을 제공하거나 상담할 때 특정 전공에서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 의과대학 학습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능력, 역량, 소양 등이 상이하다. 전공 특성에 맞춰 직무 분야에서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연결한 점검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진로 선택의 기반이 되는 유의미한 자료이자 상담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전공별 질문 10가지를 제공하였고, 이 질문지는 전공을 선택하는 방법에 수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총 103개 질문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각 전공과에서 이중 선별한 1~10개의 전공별 특성과 몇 가지의 주된 가치를 기반으로 학습자는 자신의 특성과 비교하여 점수를 매긴 후 비교적 높은 점수가 있는 전공을 우선순위로 고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진로 선택 방안 중 이상적인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특성은 세부 전공을 정하고 수련을 받을 시 자신의 성격 특성을 검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내과, 산부인과, 정신과, 소아과 등이고 사람보다는 기계가 더 적합한 특성이면 병리과, 방사선과, 안과 등의 전공선택의 경향이 있다는 점을 예시로 언급하고 있다. 전공별 특성의 예시로는 해부학에서는 형태에 대한 관심, 사물에 대한 관찰 능력, 기계나 물건의 디자인에 관심, 과학적 사고를 즐김, 지식의 공유를 좋아함, 형태적으로 사물 분석 능력, 인체에 대한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 등이다. 예방의학의 경우 의학적 지식 외 타 학문영역인 경제학, 사회학 등의 인문학적 소양,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의 팀 협력 능력, 끈기와 성실함을 가지고 장기적 연구 및 프로젝트 소화능력,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성향, 창의성, 사람을 만나려는 의지 등이 해당 분야에서의 요구되는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임상 영역에서 정신과의 경우 환자와의 따뜻한 인간관계 맺을 능력, 타인과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애정과 관심, 과학적으로 탐구하려는 호기심과 도전정신, 자신과 타인 모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두를 사랑하는 마음 등이 전공별 특이성에 따른 각 직무 분야에서 요구하는 독특한 특성이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전공과 별 가이드와 특성을 매칭하는 도구로써 질문지 체크 등을 자료로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전우택, 양은배, 이수현, 2014).

또 다른 연구 동향에서는 의과대학 학습자 집단에 대한 인지적 요인, 학업성취와 관련한 연구들을 통해 이들의 특성을 검토한 바였다. 한국의 입시 맥락에서 의과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학습의 전문가로 인증받은 것을 반증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들이 학습에 있어 우수하고 잘하는 집단이라는 사실 외에도, 학습자중심의 교수학습 방식이 전개되고 있는 패러다임 속에서 의과대학은 자타 여부에 상관없이 '학습자 주도의 학습에 대한 계획과 전략사용, 자가 평가, 학습자원 조절, 문제 해결 등을 통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가는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김하원, 2017; 정소미 외 2024; Knowles, 1975). 우수한 학습자들의 집단인 의과대학 학습자 중에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경우는 타 단과대학 학생들의 우수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높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인지 전략들을 스스로가 상황에 맞게 작용하는 초인지 전략을 잘 사용하는 경우이다.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검토하는 척도에는 '인지적 요인, 초인지 요인, 동기적 요인, 자원관리 등'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수행의 정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인지적 구성 요인에는 '시연, 정교화, 조직화, 비판적 사고' 요인이 포함되며, 동기적 요인에는 '내재적동기, 외재적동기, 과제 가치, 통제 신념, 학습 기대, 시험불안'이 속해있으며, 자원관리 구성에는 '시간과 학습 환경, 노력 조절, 또래학습, 도움 요청' 등의 요소가 포함되는데 이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학습 전문가들이 있는 의과대학 교육환경에도 과거의 성공적인 학습 경험이 있는 대상들임에도 불구하고 재교육, 유급 등의 학습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다(전우택, 2006). 의사국가고시 외에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시험으로 인한 시험 스트레스, 학습자 간 과도한 경쟁, 시간 관리 문제 등이 의과대학 학습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의과대학 학습자의 특징을 검토하는 요인들 중 하나이다. 특히, 학습과 관련해서는 '학습 기술'의 문제로써 '학습 계획 부족, 부적절한 학습 환경, 비효율적 시간 관리, 목표의 설정과 우선순위 결정의 어려움, 부적절한 자원, 시험 기술 부족'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이러한 이슈로 학습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 의과대학에서도 학습과 관련한 어려움으로 독립학습에 실패하고, 다수의 시험으로부터 부정적 결과를 통해 다음 학년으로 진급이 어렵거나 재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육 등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과도한 학습 분량으로 인해 심화 학습자의 모습보다는 표면 학습자의 특징을 많이 보임으로써 장기적인 지식의 축적이 안 되어 임상환경에서 지식의 통합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된다. 결국 이러한 패턴의 반복은 학습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평생 학습을 위해 독립적 학습에 대한 습관 훈련이 지속되어야 하는 의사의 직업 특성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습관을 바로 잡고 나아가는 것의 강조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의 특징에 기반한 학습자의 학습 양상에 대한 검토도 수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과대학생들은 일반 단과대와 달리 '의과대학 교육과정 특성상'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적용 및 통합, 임상의학 지식의 실제 임상현장에의 적용 등 새로운 지식을 기존의 큰 틀과 구조에 넣는 학습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될 때 학습이 효과적이라는 특수한 교육과정의 환경에 놓여있다. 특히, 이런 조직화 훈련이 잘 되어야 하는 의과대학교육과정 내에서 수많은 시험을 통과해 나가고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준비하는데 적합하다(김영전 외, 2022). 또한 의과대학 교육과정 구성원리 중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에 의한 의과대학 교육과정 내용 자체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과대학만의 특수한 교육환경 및 요소'로 배경을 이해하고 이들의 학습의 목적 및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특수적 상황으로 인해 이들에게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더욱더 요구되는 전공 분야이기도 하다. 자기주도 학습 유형과 학업성취도 간 비교해 볼 때 의과대학 학습자들은 성적이 높을수록 기초-임상, 임상지식-실제 임상환경 간의 학습 내용에 대한 조직화를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잘하는 학습 특성이 있다. 인지(중위권)-초인지(최상위권)-동기유형(하위권) 순으로 자기주도유형이 드러났다. 즉, 인지적 요인에서 볼 때 학업성취가 높게 나오는 집단에서 '초인지'의 요소가 유의미한 자기주도학습 도구 중 하나임을 검토하였다(정소미 외, 2024; Harden, Sowden, & Dunn, 1984).

의과대학 학습자들의 양상을 검토하는 소정의 연구를 통해 보이는 특이점들의 사례로는 또래학습이나 교수의 지원보다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개별학습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의과대학 자체의 특유의 경쟁 환경이 이를 가속화하는 환경이라는 점과 객관적으로 많은 시험의 연속으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 수준 자체가 높다는 것도 높다는 특성이 있다. 타인인 동료를 자신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도 이를 대변하는 특성으로 보인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윤리의식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부적절한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윤리에 대한 규정 이해 등이 이를 대변하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학습 윤리를 강화할 교육지원 및 평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었다(이원경, 박경혜, 2020; 이이레 외, 2021; 채수진, 권효진, 2024).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2. 의과대학 환경에 대한 이해

2.2.1. 의과대학 학습자의 심리요인

의과대학은 시험이 절대적으로 많은 교육기관이다. 우수한 학업 역량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조차도 학업 관련 문제로 인해 유급, 재교육, 퇴학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적지 않은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의과대학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해 원론적인 학생 평가와 관련한 심리요인인 '시험불안, 학업 지연, 완벽주의, 자기손상전략, 휴브리스'에 대해 살펴본 뒤 이와 연결하여 평가의 의미 그리고 의과대학에서의 학생 평가란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시험불안이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안으로 개인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평가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게 될 때, 일반적으로 느끼는 위협적인 요소에 대한 걱정, 두려움 등의 불안 경향성을 지칭한다. 이는 개인의 이전 경험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인지, 생리, 행동적 반응의 총체적 현상이다. 시험에 대한 걱정 및 정서 반응의 결과이며, 시험불안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시험의 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학업 수행 감소를 초래하며, 긴장, 염려, 신경과민, 소화 장애, 불안, 우울장애 등의 심신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시험불안에 대한 기존의 연구대상이 초중고 학생들로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취업 및 승진 상황에 따른 노출이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대학생의 시험불안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김수련, 채규만 2013). 조성현과, 조용래(2012)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시험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수행을 동료와 비교, 실패 결과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자신감 저하, 평가에 대한 과도한 걱정, 부모에게 슬픔을 초래하는 것, 시험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느낌, 자기 가치감의 상실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회피 반응을 하거나 정신적인 도피행동을 하며 목표로부터 이탈하려는 행동 경향성을 보이게 되어 건설적인 자기 대화를 못하고, 상황통제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을 나타나게 되어 회피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김수련, 채규만 2013). 이러한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학문적 자아개념,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지각하는 통제 소재, 교사나 학부모의 높은 성적에 대한 요구나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이 특징이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송윤희, 2012). 시험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나는 시험을 볼 때 불안하고 초조하다, 나는 시험 볼 때 다른 학생들에 비해 뒤처지는 성적이 나올까 걱정된다' 등이다. 이러한 요소로 인해 자신의 정도를 측정하며,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시험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소극적 스트레스 전략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구사하게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 회피하거나 정서 완화적인 소극적 대처 전략을 하며, 시험불안 수준을 상승시킨다. 걱정을 통제하고 억압할수록 환경에 대한 조망이 협소해져 문제 해결적인 대처 전략을 모색하지 못하고 문제로부터 회피함으로써 불안감을 상승시키는 것을 뜻한다(김수련, 채규만 2013).

둘째, '학업지연'과 관련해서는 국외 연구에서 1980년대부터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며, 시험이나 과제를 고의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것을 지칭한다(송윤희, 2012). 학습자들은 학습활동을 뒤로 미루었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성향을 보이며, 과제에 도전하기를 피하거나 지루해한다. 보고서 쓰기, 시험공부, 읽기 과제 등에서 학업지연 현상을 대학생의 30%이상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학업성취도를 낮추고 학습동기를 감소시켜 불안을 높이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학업지연의 요소 및 원인으로는 자기조절, 자기효능감, 완벽주의, 의지통제, 실패공포, 성취동기, 과제혐오,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학업지연 습관을 바꾸고자 희망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지연 정도를 보이고 있다. 학업지연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는 '과제를 너무 오래 미뤄서 마감 시간 내에 과제를 마치지 못한다, 곧 시험 기간인데도 시험공부 대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종종 발견 한다'에 대한 5점 척도로 분석한다.

셋째, '완벽주의'는 세부적 의미상 분류로 의해 자기지향 · 타인지향 ·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구분된다. 단일적으로는 부정적 요소로 인지 될 수 있으나 다차원적으로 접근 시 완벽주의 자체의 긍정적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완벽주의는 대학생의 우울, 시험불안과 연과지어 학업지연과 연계되는 요소이다. 이는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위해 자신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비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완벽주의를 구분해 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는 스스로 높고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하려는 강한 내적 동기를 가진다. 다음으로 타인지향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는 타인에게 완벽한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타인의 수행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social-oriented perfectionism)는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비현실적인 기준을 부과받고 완벽하게 달성하도록 기대와 평가를 받는다고 믿는다. 이 중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긍정적 정서와 연관되며, 시험불안에 비해 다른 구분의 완벽주의 성향보다는 낮게 나타난다. 부정적 결과로써 드러나는 타인지향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비교적 시험불안이 높게 나타난다(송윤희, 2012).

.

넷째, '자기손상전략'은 실패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회피하고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자신의 유능감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자기방어적 책략으로써 대개 자신의 능력 혹은 능숙함이 확실치 않거나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잣대의 모호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학습자의 경우 이와 연계하여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 내에서도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손상전략 노력 포기 차원과 정적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학업지연과도 연계되어지는 요소인데 자기손상전략을 사용하는 학습자의 경우 시관관리를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과제나 해야 할 것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송윤희, 2012). 자기손상전략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나는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많은 일을 만들어 학교 수업이나 과제에 충실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제시한다' 등에 대해 5점 척도로 점수화한다. 궁극적으로 자기손상전략을 사용하는 학습자의 경우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 부족이 아님을 드러내고자 하기때문에 과제를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하거나 시험 기간에도 다른 과제를 함으로써 고의적으로 학업 지연행동을 보이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고의적으로 과제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시간부족, 조절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한 실패로 원인을 돌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휴브리스는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 토인비가 과거에 성공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방법을 우상화함으로써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뜻으로 사용한 역사 해석학 용어이다. 이는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정도의 오만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영어에서도 지나친 오만, 자기 과신, 오만에서 생기는 폭력 등을 의미한다. 역사를 바꾸는 데 성공한 창조적 소수는 과거에 일을 성사시킨 자신의 능력이나 방법을 지나치게 믿어 우상화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고 보았다. 곧 자신의 과거 성공 경험을 과신해 자신의 능력 또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방법을 절대적 진리로 착각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토인비는 휴브리스로 규정하였다. 실제 과거의 성공 경험에 집착해 실패의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뜻이 확대되었다. 쉽게 말해 휴브리스는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능력만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야 어떻든 간에 혹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일을 밀어붙이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부질없는 오만을 일컫는다(소경언, 최진아, 박재석, 2014).

평가는 인간사에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하지만 평가의 본질이 종종 흐려지며, 특히 의학교육 현장에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특성과 평가 문화, 그리고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휴브리스(hubris)에 있다. 휴브리스는 과거의 성공 경험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자만을 의미하며, 이는 새로운 학습과 평가를 수용하기 어렵게 한다. 휴브리스가 강한 사람들은 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신의 성공 기준에 매몰되어 외부 평가나 부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이들은 실패를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이며, 도전과 학습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향은 의과대학 학생들에게서 두드러진다. 이들은 과거의 성취와 지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서의 학습과 평가를 과소평가하며, 완벽주의와 자기지향적 사고로 인해 평가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수치로 여긴다(송윤희, 2012). 의과대학 학생들은 입학 전까지의 평가 경험에서 주로 성공을 경험했으나, 의과대학이라는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좌절을 경험하기 쉽다. 이는 학업성취도 하락, 평가 회피, 학습 동기 저하로 이어지며, 심각한 경우 자기 비하와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휴브리스는 학습과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과대학 내 평가 문화와 연결된 주요한 문제로 작용하게 된다.

평가의 본질은 학습자가 과정을 통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점검하고, 학습 방향을 조정하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양은배 외, 2008). 그러나 평가가 단순히 당락을 결정하거나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도구로 여겨질 때, 학습자는 평가를 두려워하고 회피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쟁 중심 문화에서는 평가 결과가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전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평가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평가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평가를 본래의 의미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휴브리스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겸손과 열린 마음이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평가는 단순한 결과가 아닌, 학습과 성장의 필수적이고 유의미한 과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의과대학은 평가 문화와 관련하여 휴브리스의 영향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과도한 성공 중심의 문화와 완벽주의적 사고는 학생들이 새로운 배움을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따라서 의학교육 현장에서는 평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학습자의 성장과 연결 짓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가의 초점은 학습자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과정 중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습 과정에서 의미 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평가의 결과가 단순히 성적이나 순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과대학 내 평가 문화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와 휴브리스의 관계는 단순히 교육 현장뿐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중요한 문제이다. 평가의 본질을 이해하고 휴브리스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평가를 실패와 성공의 도구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만 보지 말고, 학습과 성장을 위한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통해 평가가 단순한 결과를 넘어 학습자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본래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하워드 가드너가 제시한 다중지능이론과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특정 한 분야에서 우수한 혹은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지능 영역에서 우수한 능력을 다 가진 달란트 소유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만 한다. 즉, '스스로가 반드시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하고 최고일 수밖에 없으며, 꼭 자신만이 정상의 자리에 서야만 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점'은 물론이며 이러한 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다음을 넘어가고 다시 성장함으로써 학습-평가 과정의 연속선에서 평생학습자로서의 의학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전제가 되는 점이다.

2.2.2. 의과대학의 역량중심패러다임에서의 학습의 의미

학습은 인간의 본능적 요구이자 필수적인 과정으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주목받아 왔다. 학습의 정의와 범주는 시대적 패러다임과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며, 때로는 사라지기도 한다. 이는 교육 연구와 시대적 흐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학습 방향과 방법은 중등 및 고등교육, 직업훈련 등의 교육 현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바이다. 최근 OECD의 미래학교 프로젝트와 PISA 등은 역량기반 학습에 초점을 맞추며, 세계 각국에서 역량중심 교육 개발이 강화되고 있다(이효성, 이용환, 2011). 국내에서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단순한 지식 암기에서 벗어나 '어떻게 할 수 있는지(how to do)'등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 활용이 가능한 학습으로 전환되었다.

여기에서 '역량(Competency)'은 특정 상황에서 효과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 등이 포함되는 의미이다. 이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이를 실제로 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 따르면, 역량은 태도, 감정, 가치 등을 활용해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이재덕 외, 2017). 좀 더 세부적으로 직무 현장에서 활용되는 역량에는 '공통 역량'과 '직무역량'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통 역량은 모든 직업군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전인적 능력을 뜻한다. 직무역량은 공통역량을 기반으로 각 직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설정된다. 공통 역량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기본 토대이며, 직무역량은 각 직업군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윤리의식 등은 의사, 간호사, 공군 장교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공통 역량과 직무역량 간 유기적 연결을 통해 해당 직무의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과대학 및 수련현장에서도 역량중심(성과바탕) 학습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의과대학의 경우 2012년 2월 “post 2주기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 발표를 기점으로 졸업생들이 보여야 할 “성과 혹은 역량”에 대한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과중심교육과정의 변화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고찰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다(안재희, 양은배, 2013). 이를 통해 볼 때 의과대학의 경우 졸업 시점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결과 혹은 능력으로써 간주 된다는 점과 동시에 배우고 익힌 것을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써 ‘역량’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간으로 교육적 상황에서 성과중심 혹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함으로써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서 학습자들이 달성해야 하는 최종 성과를 고려한 후에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개편하는 것에 의학교육 현장도 전환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는 ‘학습’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특정 능력의 함양 정도가 학습에서 어떠한 이유 혹은 방법으로써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크게 증가 되고 있는 흐름을 읽을 수 있다(양은배 외, 2014a).

이와 같이 현대 학습 패러다임은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강조한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유기체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는 역량 함양을 학습 결과로 인정하는 변화로, 학습의 본래적 의미에 충실한 교육 방향으로의 회귀를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이 삶과 현장을 연결하는 ‘삶으로서의 교육’을 실현하려는 국제적 움직임과도 연결된다. 이는 역량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반으로 의학교육 현장에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의과대학 그리고 의학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실제적인 역량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이를 평가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것이 곧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의과대학에서 역량중심 교육은 졸업생이 갖춰야 할 능력을 명확히 정의하고,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브라운 의과대학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본 임상술기, 평생학습, 문제해결’ 등 9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했으며, 캐나다 CanMEDS는 ‘의료전문가, 의사소통가, 협력자’ 등 의사의 다양한 역할을 규정했다. 이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넘어서 환자 및 동료와의 협력, 윤리적 의사결정 등 포괄적 역할을 강조한다(양은배, 2014a; 한재진, 2013).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학습의 결과로 실제 삶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지식 암기를 넘어 실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한 역량 중심의 학습이 요구된다. 각 교육기관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역량기반 교육환경을 구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 및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역량중심 학습의 진정한 실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바이다.

2.2.3. 의과대학의 특수한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

의과대학은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교육과정 속에서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성취한 후 졸업하여 의사라는 전문직 활동을 하도록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이종태, 이병두, 노혜린, 2013). 국내 의과대학 교육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지나 수련 과정, 수련 이후 과정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의사양성과정에 대한 이해, 40개 의과대학의 개별 특성은 다르지만 의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내용과 역량, 훈련시키고 있는 술기 및 태도 등에 대한 이해가 선제 되어야 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사양성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 학생상, 의과대학에서의 교육성과, 의과대학에서 교육해야 할 역량, 의사가 갖춰야 하는 역량 혹은 성과, 좋은 의사의 의사상(role-model 제시), 수련 시 필요한 EPA 및 마일스톤 등의 제시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변경되고 해오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의사역량'이라는 개념이 의학교육 분야에 들어오고서부터 지속되온 바이다(Albanese, Mejicano, Mullan, Kokotailo, & Gruppen, 2008).

다만 미국 및 유럽의 의사상에 대한 이해는 해당 사회적 맥락과 시대 배경에 따라 상이함으로 외국의 사례 및 지표를 기반으로 한국형 의사상, 전문과 별 역량개발,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공통역량 개발, 한국형 의사 전문역량 틀 개발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하나의 정답은 아니지만 일종의 의사를 양성해 나가는 방향이자, 훈련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량과 속성을 지니게끔 교육하고 수련해 나가려는 기준이자 이것 자체가 더 좋은 의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바램을 뜻하는 지표일 수 있다. 의사의 전문역량에 기반하여 치료하거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힘을 가지도록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책무이기도 하다. 의사의 전문역량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지니는데 비가변성으로 비교적 지속적으로 국내외 시대 상황이나 환경을 막론하고 의사로서 가지고 오는 변함없는 의사의 역량으로 공감, 안전한 치료 제공, 정확히 진단하는 임상 능력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국내외 사회적 맥락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가미되거나 다른 직군에도 포함된 바로 직업인으로서 현재의 의사에게 요구하는 시대적 역량인 것으로 가변적 특성을 지닌 역량은 시대나 상황, 환경에 따라 그 속성이 변경되고 있다. 여하튼 이러한 두 가지 큰 맥을 가지고 의사를 양성하고 수련하는 것이 의학교육 전반의 책무이자 의과대학의 특수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전우택, 2022).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또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대표적으로 내용 간 통합의 원리, 수직구조 간의 나선형 교육과정 적용을 기반으로 역량·성과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의과대학 4~6년간의 과정을 통해 기초의학-임상의학-실제 임상 환경(병원 내외) 등을 병행하면서 교육되고 이러한 것을 누적해서 반복하는 학습을 수행하는 원리를 가진다. 기본적인 체제는 기본의학 교육과정과 졸업 후 교육단계에서의 연속성 관점에 주를 가지고 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환자 중심 의료를 지속해서 펼 수 있게 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의학교육의 근간에 기인한 원리이기 때문이다. 학부단계에서의 기본의학 교육과정, 의사면허 취득 후 졸업 후 의학교육 및 평생교육은 일종의 '교육 연속체'로써 명명된다. 이는 임상전·후 교육, 임상실습의 연속성은 결국 환자와 학생의 연결 기회를 제공하는 진료 및 기초 및 임상 영역의 통함과 수평·수직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역할모델링 및 멘토링 등의 지도 관점 전체에서의 연속성의 원리를 실천하는 개념이다. 특히 진료연속성을 위해 환자 돌봄 학습의 실천을 위해 종적 통합 임상실습, 전문직종 간 교육 등을 통해 전문직업성 향상 및 환자와의 확장된 만남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은 나선형 교육과정 원리에 의해 전체 학년에 통합되고 지식, 술기, 태도의 통합 및 기초와 임상 영역의 수직 수평적 통합경험을 주는 교육과정 설계를 의미한다. 지도 감독의 연속성의 의미는 학습공동체 실현, 멘토링 및 피드백, 코칭, 퍼실리테이터로서의 교사의 다양한 역할 속에서의 관리와 모니터링, 피드백이 주어지는 교육이 되는 환경을 강조하는 바이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을 할 시에 SPICES(Student-centered, Problem-based, Integrated, Community-based, Elective, Systematic)원리에 의해 학생 중심, 통합교육 및 전문직종 간 교육, 문제기반학습, 지역사회 중심 학습, 선택과목 수업, 체계적 접근의 원리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의학교육 현장에서 교육 편성 시 고려하는 원리 중 하나이다(이종태 외, 2021; Dent & Ramani, 2017; Hirsh, Ogur, Thibault, & Cox, 2007).

학습자들이 실제 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를 직접 평가하는 '실제, 진평가'의 개념을 활용한 것이 기반이 되는 역량중심교육과정 원리에 의한 교육 제공과 이에 대한 실제 앎을 평가하는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수행'에 초점을 두는 교육과정이 근래에 주로 다수의 의과대학 혹은 수련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다(윤보영 외, 2015). 수많은 의사상, 좋은 의사에 대한 역할기대 등을 통해 사회, 국가, 대학이 원하는 의사의 모양, 의과대학생의 성장 모양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는 있지만 일관되게 주어지는 특정한 기준이 있다. 이러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교수학습을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의과대학 교육환경은 타 단과대학이나 교육환경에 비해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실천하여 적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문제바탕학습(PBL), 임상사례중심학습(CBL),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소그룹 토론, 강의식 등 다양하다(양은배 외, 2008). 이러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학습자 중심으로 실천해 나가는 유형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의과대학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평생학습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등을 검토하는 게 강화되었고 이러한 훈련이 가미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정소미 외, 2024).

의사가 된다는 것에는 어떠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고, 특정 훈련이 제시되어야 하는지,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사가 되는 표준 절차라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의사상과 역량'에 따라 그 속성 등을 갖추기 위한 학습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의 ACGME(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에서 규정한 '의학전문가, 대화자, 협력자, 건강수호자, 관리자, 학자, 전문가' 및 캐나다 CanMED에서 지속적으로 개정해 온 의료전문가로서의 공통적인 '의사의 역량'에 대한 개념 변천, 영국의 General Medical Council에서의 개정된 4개의 전공의 대상 역량 및 'Tomorrow's doctor'에서의 의과대학생을 위한 공통역량 개편의 흐름과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 또한 한국의 의사상과 세부 역량이 개정되어 오고 있다(전우택 외, 2022; Frank & Danoff, 2007; GMC, 1993; Swing, 2007). 여기에서 의사의 역량은 의사가 할 수 있는 것, 진료방식, 전문가로서의 의미를 뜻하면 단편적인 능력을 넘어서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하는 지식, 술기, 태도를 포함한 복합적 개념이다(Carraccio, Wolfsthal, Englander,, Ferentz, & Martin, 2002; Harden, Crosby, Davis, & Friedman, 1999).

전공의에 대한 공통교육과정 개발 및 역량 개발 이후, 한국의 의사상은 대표적으로 2014년도에 일차적으로 재정되었다. 한국의 의사상 2014에는 의사의 주요한 능력이자 바라는 모습으로 '환자진료,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직업성, 교육과 연구'로 설정하여 총 5가지 영역 구분 및 하위 65개의 세부역량을 규정하였다(안덕선, 2014; 정한나, 이제욱, 이건호, 2022). 이러한 의사상에 기반을 두어 임상 전공과에서는 해당과의 전문역량(성과)를 설정하고 의과대학에서도 개별 대학의 특수성도 있지만 전체 의과대학들의 공통역량으로서 이러한 의사상을 갖추고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의사 양성 과정 전반에 있어 의사로서의 평생교육측면에서의 의사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식, 술기, 태도 등의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 역량을 추가적으로 응용하여 개발하여 의사의 질 관리 및 향상을 위해 보급하였다. 이는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CPD)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의학연구 역량, 전문직 간 교육, 전문직업성과 윤리, 의사소통, 리더십, 관리 및 행동 기술, 정보기술 역량'이라는 큰 틀에서 출발하였다. 한국의 2014에 해당하는 요소 및 한국 의료상황과 사회맥락을 고려하여 10가지를 평생교육 역량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연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교육의 활성화, 보강 교육, 연수 교육에 대한 지원, 연수 교육프로그램 및 평점 관리 등 실제적으로 연수 교육이 이뤄지고 관리하는 것에 주 특징을 두고 있었다(한재진 외, 2020).

최근 2022년에 발표한 '2020 한국의 의사상'에는 '환자 진료,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직업성, 교육과 연구'라는 총 5개의 큰 영역과 세부 54개의 역할이 발표되었다. 이는 기존의 2014에서 언급한 의사상의 다섯 영역은 유지하되 세부역량을 가미 혹은 삭제하여 수정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정리한 결과이다(한재진 외, 2022). 이러한 국가의 의사상을 기반으로 일개 대학에서는 졸업역량으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환자진료, 전문직업성, 교육과 연구,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자기개발, 사회적 책무' 등으로 세분화하되 일개 대학의 특수성과 설립 배경과 졸업성과 수립의 방향을 같이 한다. 의과대학에서 의사상을 검토하고 이에 맞춘 역량을 설정한 후 교육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사람으로, 전문직 직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에도 1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의사 전문직의 성향상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의사면허 취득 후 병원 및 의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각종 기관에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는 직접적으로 학부대학에서의 교육 경험이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는 것에 직접적이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의과대학 졸업 후 지속적 학습 능력에 대한 검토 및 실제 의료 현장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코호트 연구의 필요성과도 맞닿는 부분이기도 하다(류현욱, 2008; 박주현, 권효진, 2022; 윤소정, 박귀화, 2018; Curtis & Smith, 2020; Garrud & McManus,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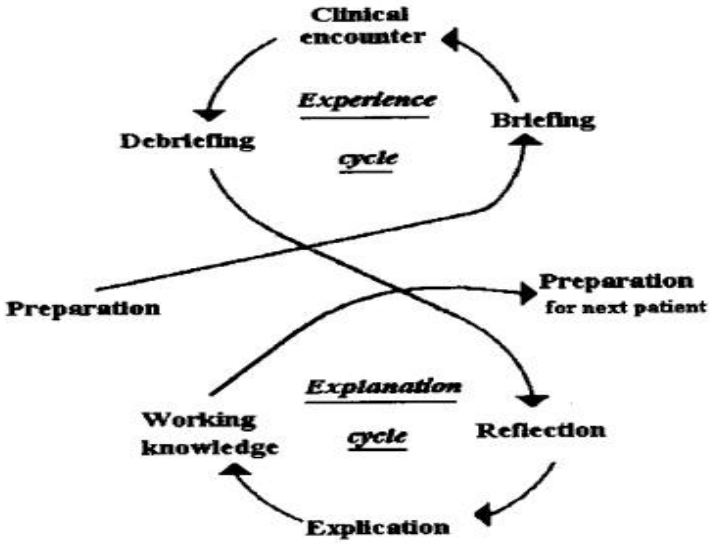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의과대학에서의 교육, 전공의 수련의 방향의 지표는 세계에서 원하는 의사의 모양과 기대에 준하는 한국 사회 맥락에 맞고 사회가 요구하고, 환자의 필요, 개인 의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의 증대로 결국 그 사회나 집단이 원하는 '의사상'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의학교육의 방향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목표설정에서 이러한 방향에서의 의학교육 내 교육과정은 수많은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원리,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도구의 활용, 학습자중심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반영한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이 안에서 이뤄지는 학습은 학습자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의과대학 교육환경의 특수한 목적과 의과대학만의 교육과정이 반영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학습자 특성에 대한 이해와 교육환경에 이해를 넘어서 의과대학에서는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위해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할 가치와 경험을 배우는 것으로 '임상환경에서의 학습' 등과 같은 의과대학 교육에서만이 드러나는 일반 교육환경과 다른 특수함을 이해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습에 대한 정의가 시작되어야 한다(양은배 외, 2008).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과대학 또한 일반적인 교육 분야와 같이 교과서, 피피티 슬라이드 등을 통한 강의식 교수방법을 통해 지식의 습득을 일차적으로 하지만, 이외에도 튜토리얼과 세미나, 임상환경에 대한 임상실습, 사례 발표 및 컨퍼런스(증례토론), 문제바탕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 독립적 등이 이뤄지고, 임상실습을 통한 수업이 이뤄지는 것이 의과대학만의 특수한 학습 상황이다. 이에 임상교육환경에서의 학습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에 전제를 한 <그림 1>과 같이 Cox의 임상수업 모델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험회로(experience model)'과 '설명회로(explanation cycle'로 나뉘는데 경험회로는 환자들을 만나기 전에 학생들이 환자들에 대한 사전 설명(briefing)'을 하는 것으로 고정된 틀을 먼저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임상실습 환경에서의 직접적 경험을 통해 혹은 진료 일부에 참여한 후 학생은 경험을 통해 보고 느낀 것에 대한 '사후보고(debriefing)' 이 추가적으로 학습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정 사건이나 포인트가 학습자에게 어떤 의미를 더해주었는지 임상경험속에서의 질문을 교수자가 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 경험을 반추하게 되고 숙고해서 자신의 선행지식과 경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혹은 배웠던 기초지식과도 연결시키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구조이다(Ramani, 2003). 이는 임상추론교육을 할 때에도 처음 환자를 보고 느낀 것을 검토하는 '숙고단계', 진단을 내리는데 질문 혹은 검사에 대한 계획(계획단계), 심화된 질문과 검사의 시행인 '실험하라'의 과정을 통해 임상상황에서 진단을 위해 접근해 가는 방식을 교육에 적용해 가는 것도 의과대학 임상교육에서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때 교수자는 '임상현장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말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한 근거 제시, 일반적인 절차나 규칙 지도, 긍정적 피드백으로 답변이나 의견을 지지해 주는 것, 실수 교정' 등 임상추론을 위해 다섯 단계의 세부적 기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1분 지도 방법(The one minute preceptor)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임상추론 교육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양은배 외, 2008; Cox, 1993; Dent & Harden, 2015; Dent & Ramani, 2017; Neher, Gordon, Meyer, & Stevens, 1992).

이에 임상현장에서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내용을 기억하고, 임상의사의 활동이 환자 진료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역할 모델(role modeling)',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의식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축적해 나가는 방법을 넘어서서 자신이 임상환경에서 살펴본 관찰, 경험, 실기 훈련, 실습 등을 스스로 반추하면서 'Reflection'하는 훈련이 습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교수자는 임상환경에서 '부메랑 모델을 통해 실습 참여 후 보고, 브레이크아웃 모델인 학생들이 교수의 활동을 먼저 보고 반복 학습, 셔틀 모델을 통해 교육에 적합한 환자가 나타나면 불러서 교육에 참여하는 식' 등의 다양한 임상환경에서의 교수학습 경험을 통해 보고, 듣고,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그림 1> 임상수업모델 (Cox, 1993)
출처 : Cox, K. (1993). Planning bedside teaching.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58(4), 280-282.

경험한 것들에서 단순히 지식의 암기나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왜 그런지, 어떠한 현장에서 특정 행위가 일어났는지, 케이스에 따라 다양한 이슈들을 다시금 자신의 것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반추하여 성찰해 보면서 이 상황에 대한 한계, 개선점, 임상환경에서의 느낌 등을 검토해 보는 훈련이 요구된다. 또한 스스로만 반추해 보는 것에는 임상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에 자신이 아는 것에서의 반추를 넘어서서 선배나, 교수자에게 임상현장의 유경험자들의 도움을 통해 질문을 해보고, 코칭 및 피드백을 통해 즉각적으로 해당 경험을 깊이 이해해보고 자신의 것으로 가져와 반추해보는 것이 이상적인 학습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임상실습에서의 학습하기 위한 방법을 위해 Kolb의 경험학습 회로의 의미를 이해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떠한 학습자는 특정 학습 형이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임상 환경의 특수성에 맞는 학습유형으로의 훈련이나 자신이 이미 이러한 학습유형과 잘 맞는 경우 임상 현장에의 접근성과 임상 사례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임상 환경에서의 학습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반성적 고찰(반성, 성찰)' 부분으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써, 단순히 실습, 이론에 있던 기존의 것은 관찰된 이론일 뿐 실천과 일치 하지 않는 부분임으로 의사되기 위한 학습에 임하는 의학도들은 임상의사는 실천을 통해 결국 이론을 이해하고 발전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바이다. 임상의사는 단순한 의학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고등지식'으로의 응용과 적용을 위해 '지식-이해-적용'의 상위 단계로의 학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탐구적 질문을 더해가고 교수자와 의과대학 학생 간 상호작용, 임상 사례에 대한 확장학습을 통한 상호작용 및 질문의 기회는 결국 임상 상황에서의 정보를 복합적으로 고등지식으로 만들어가는 데 유용하수 있다. 특히나 이러한 유형의 학습 패턴이 적합한 학습자의 경우 임상 환경을 이해하고 임상에서 배운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익히고 경험의 깊이를 더해가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는 결국 '학습 접근법'과 연결되는데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동기화된 학습자'라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동일하게 학습을 하려고 해도 시험을 통과하거나, 점수 획득을 위해,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시험에 나올 것을 준비하는 식의 '표면적 학습자(surface learners)'가 있다. 이와 반대로 '심화적 학습자(deep learners)'들은 특정 주제나 내용, 현상 등을 이해하려고 하고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이론이나 지식을 발전시키고 깊이 학습함으로써 학습 결과 자체도 분야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시험이나 성과 자체를 볼 때에 즉각적으로 그 결과가 그 정도의 학습에 비해 드러나지 않거나 가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다. 의과대학에서의 다수의 시험이 진행되는 환경상 위 두 가지의 접근법을 모두 사용하는 학습자들이 의과대학의 시험 준비를 할 때 열심인 학생으로 그려지는 예이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자신만의 학습전략과 기법 들을 활용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신명희 외, 2011; 양은배 외, 2008).

의과대학 학습자 개개인을 고려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의과대학 학습자 집단이 비교적 더 선호하는 학습유형, 학습전략, 학습환경 등을 고려하여 '맞추기-선택하기-독립학습'이라는 교수학습 활동을 조정해 나간다면, 학습 자체의 지속적 힘과 평생학습을 위한 도구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결국 의과대학의 수많은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개별화된 교육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교수자와 대학의 역할이나, 물리적으로 모든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하기란 한계가 있다. 이에 의과대학 학습자의 특성, 해당 집단의 교수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선호하는 양식, 유형, 전략을 제공하고 지원해 줌으로써 학습의 극대화에 도움이 되고, 의사로서의 배우는 과정에서 교수학습의 효과를 더해가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데서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양식을 검토하여 교수자의 교수양식을 조정해 나가고, 상호 간의 학습양식을 고려하여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특수성과 의사 양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나아갈 방법과 방안을 검토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는데 이러한 특성 검토가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궁극적으로 의과대학 학습자라는 집단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양식을 충족해 감으로써 의사 되어가는 배움의 과정을 유의미하게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양은배 외, 2008).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3. 좋은 의사(Good Doctor)에 대한 이해

2.3.1. 좋은 의사 · 의사상의 개념

‘좋은 의사’의 자질을 바라볼 때 입장의 차이에 따라 중요도를 보는 기준에 차이가 있다. 이는 시대별 소정의 차이 혹은 추가되는 가치가 있을 뿐 현재까지 여전히 관심 갖고 누적 해오는 축적된 경향에 대한 이해의 흐름을 검토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외 상황에 따라 혹은 시기에 따라 ‘의사’를 바라보는 경향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의 차이에 따라 그 결과도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바를 가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의사에 대한 시각, 사회에서는 어떠한 의사를 ‘좋은 의사’로 여기고 있으며, 바라보는 상인지, 기대하는 바를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좋은 의사에 대한 규정과 속성을 검토해봄으로써 좋은 의사에서 ‘우수한, 훌륭한, 탁월한’ 의사의 특징을 검토하는 데 연결선 상이자 기반이 되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2.3.1.1. 국외의 ‘좋은 의사, 의사상’

국외에서의 ‘좋은 의사’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 보면 의사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른 요소의 결과가 검토되었다. ‘public’으로 대표되는 대중 혹은 환자(비의료인)가 바라볼 때 의사에게는 ‘의학지식 및 최신지식의 습득’과 같이 임상의로서의 자질, ‘효과적인 대인관계능력’, ‘의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게 바라보았다. 다만, 같은 의사(의료인)로서 의사가 바라보는 ‘좋은 의사’로서의 자질에는 ‘정직함, 책임감, 신뢰감 등’ 의사로서의 ‘비인지적 요소인 가치, 임상적 수월성’을 중요시 하였다(Abu-Hilal et al, 2006; Fones et al., 1998; Leahy et al., 2003). 의사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를 막론하고 ‘좋은 의사’란 임상적 능력이 좋은 것을 ‘좋은 의사의 자질’로 여기는 데 공통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전공의 수련단계에서의 ‘좋은 의사’는 수련환경에서의 특수환경이 접목되고 입장의 차이도 조금은 다르지만 ‘환자에 대한 온정, 후배들에게 모범적 역할 모델, 정직함, 임상적으로 뛰어난 것’을 주요한 자질로 보았다. 이는 수련환경이라는 특수한 맥락이 들어간 것은 보이지만 일반적인 의사의 좋은 의사 자질과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Wright, Kern, Kolodner, Howard, & Brancati, 1998). 의과대학 학생의 입장에서는 ‘온정적이고 환자 중심적 의사, 후배 의사에게 모범적,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지니는 것’을 주요한 자질로 보고 있다(Maudsley et al., 2007). 21세기 대중이 원하는 의사상에 대한 각종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환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잘 들어주고 설명해 주는 의사소통능력, 환자 중심적 접근’을 중요한 자질로 보고 있는 것으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보아 대인관계 및 신뢰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을 좋은 의사의 자질로 보는 추세이다(이영미, 안덕선, 2007).

‘좋은 의사’에 대한 물음과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특별 호로 별도로 집중 연구도 수행되었으나, 결론은 ‘알 수 없음, 정의할 수 없음; defining a good doctor is impossible.’이다. 이는 의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경제적 맥락, 시대적 배경에 따른 요구가 다르며, 이를 규정하는 바도 다각도로 접근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현재까지의 약 20년 간의 연구 추이를 통해 미루어 알 수 있다(Hurwitz & Vass, 2002). 또한 좋은 의사의 특징 중 ‘효율성, 안전, 수용성, 효과성 등’을 특징으로 꼽고 12개의 질적 자질을 검토하였으나, 이는 좋은 의사를 이루는 특정 요소의 수행 수준에 그친 분석을 검토한 바여서 특징 혹은 자질의 질적 분석을 통해 보이지 않는 부분을 통해 그 자체의 질적인 부분을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Pringle, Wilson, & Grol, 2002). 혹은 임상 전문 분야에서 각 과에서 요구하는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 방법 등 특정 영역에서 환자의 치료 성과, 순위, 횟수 등의 결과물 혹은 업적과 관련하여 ‘좋은 의사’를 규명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이는 두드러진 환자치료 성과(patient’s outcome) 자체를 기반으로 ‘좋은 의사’의 자격, 특징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rown et al., 2016; Glance, Dick, Osler, Li, & Mukamel, 2006; Rudmik, et al., 2017). 이와 반대로 ‘환자치료 성과’ 외에도 가시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좋은 의사’를 규명하는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기술, 윤리, 의료 관리, 교육, 연구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었으며, ‘좋은 의사라고 느끼는 시기, 시점’을 연구함으로써 ‘어떠한 요소’가 보일 때 좋은 의사로 여기는지를 역추적하는 독일의 연구도 있었다. 이러한 요소에는 ‘충분한 지식, 공감 능력, 충분한 실무능력, 환자에 대한 배려 능력, 평생학습능력’을 주제어로 표출하였다. ‘환자치료, 타당성, 의사소통 및 경청 기술, 자신과 타인의 한계 인식, 공감 및 비판적이지 않음, 적응력, 평생 개발, 비교, 헌신 및 동기부여, 팀워크 등’을 ‘좋은 의사’의 주요한 요소로 특성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양적연구를 통한 좋은 의사의 요인 검토를 넘어서서 질적연구를 통해 좋은 의사의 특성으로 ‘의사의 용모 단정함 정도, 개인적 특성’을 기반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에 보고자 하는 임상 능력, 학업 수행 능력을 넘어서 비인지적 요소와 비가시적 요소를 의사의 좋은 역량, 특징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이고 입장과 관점이 전환되고 있는 흐름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좋은 의사’의 정의와 ‘좋은 의사를 이루는 속성’의 양적 및 질적 자료를 정리하면 ‘개인적 특성, 의사와 환자 관계, 의사소통 및 경청, 의학적 역량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지식으로 진단 및 개입, 윤리, 평생 학습, 환자치료를 위한 관련자들과의 연계-관리 능력' 등이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Fones et al., 1998; Herzig et al., 2006; Lambe & Bristow, 2010; Steiner-Hofbauer et al., 2018; Yazdi et al., 2015).

국외에서의 '좋은 의사'에 대한 속성의 흐름의 추이는 다음의 <표 1>와 같다.

<표 1> '좋은 의사' 관련 국외 연구 동향

연도	연구/출처	검토대상 : 주요 내용	특이점
1998년	Fones et al. (Singapore Med J)	- 대중/환자: 임상적 자질, 대인관계 능력, 접근성 중시	
		- 의사: 정직, 책임감, 신뢰, 임상적 우수성 강조	
1998년	Wright et al. (N Engl J Med)	- 전공의: 환자에 대한 온정, 정직함, 후배에게 모범적 역할, 뛰어난 임상 능력을 좋은 의사의 자질로 평가	
2002년	Hurwitz & Vass (BMJ)	- '좋은 의사' 정의의 어려움 강조: 사회적 맥락,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름	
2003년	Leahy et al. (Ir Med J)	- 대중: 의사소통 능력 및 환자 중심적 접근 중요, 임상적 능력	
		- 공감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의사를 선호	
2006년	Abu-Hilal et al. (Br J Hosp Med)	- 의료인: 임상적 수월성 - 환자: '환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잘 들어주고 설명 해주는 의사소통능력, 환자중심적접근'을 중요한 자질	
2006년	Herzig et al. (Dtsch Med Wochenschr)	- '좋은 의사': 충분한 지식, 공감 능력, 실무 능력, 환자 배려 및 평생학습 능력 강조	
2007년	Mandsley et al (Med Edu)	- 의대생: 환자 중심적, 책임감 있는 전문가, 후배에게 모범적 역할을 하는 의사를 '좋은 의사'로 평가	
~2000초	21세기 좋은 의사상 권고 등	대인관계 기술, 윤리적 판단, 환자와의 신뢰 관계, 평생학습 능력 강조	
2010년	Lambe & Bristow (Med Teach)	- 환자 관리, 성실성, 의사소통 및 경청 능력, 자신의 한계와 타인의 한계를 인식하는 능력, 공감과 비판적이지 않은 태도, 적응력, 평생 개선하려는 태도, 연민, 헌신과 동기부여, 팀워크 능력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016년	Brown et al. (Am J Med Qual)	- 환자치료 성과를 기준으로 좋은 의사의 자질 분석: 당뇨 관리 등 특정 임상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	각 임상과에서 업적으로 인정하는 환자치료성과
2017년	Rudmik et al. (JAMA Otolaryngol Head Neck Surg)	- 수술 성과를 기반으로 '좋은 의사'의 자질을 정의: 환자 치료 결과와 실무의 질을 중심으로 검토	
2018년	Steiner-Hofbauer et al. (Wien Med Wochenschr)	- 의학적 기술, 대인관계 기술, 윤리, 의료 관리, 교육, 연구	체계적 검토(좋은 의사에 대한 다른 의사들의 관점 검토)

이상과 같이 2022년도까지 정리된 '좋은 의사'의 특성은 정리하면 개인적 특성(공감, 예의, 개방성, 덜 판단적, 동정심, 적응성, 동기, 겸손, 팀플레이 등), 의사와 환자 관계, 의사소통 및 경청(환자에게 설명에 능함), 의학적 역량과 지식으로 진단 및 개입, 윤리의식, 평생학습, 환자치료를 위한 관련자들과의 연계-관리 능력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Schnelle & Jones, 2023).

2.3.1.2. 국내의 '좋은 의사, 의사상'

'좋은 의사'에 대한 개념, 속성을 규명하는 것은 시대맥락, 역사, 경제적 상황등에 의해 좌우되는 바이다(이영미, 안덕선, 2007). 좋은 의사에 대한 연구는 국외 현장에서 'good doctor'를 규명하는 요인과 역량과 관련하여 다수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도 또한 좋은 의사가 무엇인지, 국외에서 바라보는 의사역량에서의 좋은 의사의 개념을 한국사회와 맥락에 맞게 재배치하여 한국의 의사상을 규명하는 연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다만, '좋은 의사'가 되기위한 역량과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다수일 뿐 '좋은 의사'를 이루는 특성과 자질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2007년에 처음 수행되었다(이영미, 안덕선, 2007)는 결과적으로 '좋은 의사'의 자질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 능력', '최신의학지식과 기술의 지속적 습득과 적용' 등과 관련된 '임상능력'부분, '평생자기개발'과 같은 임상적 수월성, '환자의 입장에서 아픔을 공감하고 권이적이지 않고 친절해야함'이 좋은 의사의 특성으로 규명되었다.

'좋은 의사'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좋은'을 good 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고, 특성을 attributes라고 하여 당시 2007년 기준의 좋은 의사는 어떤 특성과 자질이 있는지 의과대학 교수, 학생, 개업의 외에도 의사 아닌 입장으로서 의료의 수혜자인 환자 시각을 통해 다각도적으로 좋은 의사가 지닌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다. 좋은 의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그 속성에 무엇이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의학교육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개편 및 전공의 수련에서 키워줘야 할 자질, 의사로서 지속적으로 키워가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당시 외국에서 언급된 의사, 의대생, 전공의의 좋은 의사의 자질과 속성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2007년 당시 국내에서의 의료인 시각과 환자가 생각하는 좋은 의사의 특성과 자질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의과대학 학생 1,000명, 의과대학 교수 250명, 개업의 200명, 환자 100부를 기반으로 총 1,550부의 설문 중 64% 회수율을 가지고 그 결과를 정리한 바였다. 두 단계를 거쳐 좋은 의사의 자질과 관련된 기반 자료인 '21세기 의사의 역량, 미국에서 바라본 좋은 의사가 갖춰야 할 능력, 영국의학협회(GMC)에서의 'Tomorrow's Doctor'에서의 6개 영역 등을 기반으로 총 18개의 자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캐나다 CanMed 2000 Project를 기반으로 21개의 역량과 선행연구를 기반하여 좋은 의사 속성 25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국외 검토 자료를 기반으로 총 30개의 자질을 추출하였고, 추가적으로 30개 자료 검토 이후에 더해져야 할 속성을 3개 추가하여 총 33개의 항목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이 33개 항목 중 우선적인 자질 10개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5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자질을 실제 의료 현장에서 수행하는지의 현 수행정도에 대한 요구분석과 수행도 분석을 수행하여 수월성 정도까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영미, 안덕선(2007) 연구에 의하면 총 33개의 자질 중 국내에서 바라보는 좋은 의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 10개는 중요도 순에 근거하여 볼 때 '1. 정확한 진단과 치료, 2. 최신의학 지식과 기술의 지속적 습득과 적용, 3. 환자의 입장에서 아픔을 공감, 4. 평생 공부하고 자기개발, 5. 환자 진료 시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 6. 환자에게 권위적이지 않고 친절함, 7. 환자 및 환자 가족과 신뢰 관계 구축, 8. 임상문제해결능력, 9. 지역사회 공헌하고 봉사, 10. 적극적인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노력함' 순이었다. 총 네 개의 응답 집단인 의과대학 교수, 의과대학 학생, 개원의, 환자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이 10개 자질 중 중요한 5개 자질로 검토했을 시 공통적으로 나온 요소는 2개였는데 '정확한 진단과 치료', 그 다음은 '최신의학지식과 기술의 지속적 습득과 적용'이라는 자질이었다. 이는 10개의 자질 중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순위에서의 1~2순위와 동일한 요소였다. 다만, 앞서 언급한 중요도에 따른 자질의 순서는 집단의 입장에 따라 다른 우선순위를 보이기는 했다. 다만 집단 불문하고 5순위 안에 드는 요소는 '환자의 입장에서 아픔을 공감', '평생 공부하고 자기를 개발', '환자에게 권위적이지 않고 친절함' '임상문제 해결' 자질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는 10개의 우선순위에 비춰볼 때 3번, 4번, 6번, 8번 순서로 나온 요소인데 이는 집단 간 입장과 의사에 대한 기대와 바라는 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 외에 이영미(2007)의 연구에서는 좋은 의사의 33개 자질에 대한 요소를 6개의 주제(1. 임상적능력, 2.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3. 의료자원관리 및 경영, 4. 건강옹호 및 사회공헌, 5. 평생전문성 개발 및 자기관리, 6. 학술능력)로 의미를 분류하여 현재 현장에서 의사의 수행정도를 검토하였다. 연구대상자 4개의 집단이 공통적으로 현장에서의 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의 보통 이상으로 생각하는 요소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최신의학지식과 기술의 지속적 습득과 적용', '임상문제해결능력' 과 같이 임상현장에 놓인 요소를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집단유무와 상관없이 느꼈으며, '최신 컴퓨터 기술 활용 능력', '품행이 바르고 용모가 단정함',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음'이었다. 다만, 의사들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보통' 이하로 낮다고 느끼는 요소는 '의료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임',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의 능력', '타인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였음을 볼 때 의료 현장 외의 요소와 사회를 둘러싼 것에는 관심이 적고,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개척하고 변화시키려는 힘, 리더십 등의 요소가 부족함을 해당 연구결과를 비추어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연구 주제로 미루어 볼 때 의사는 '임상적 능력' 범주가 높게 나오며 낮은 범주는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및 '건강옹호 및 사회공헌' 쪽의 범주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 개선 되어가는 점, 강조 되어가는 점에 향후 변화는 있을 요소로 판단되었다. 다만,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은 의사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생교육 측면에서 강조되고 함양되어야 하는 속성임으로 향후 연구가 필요하며, 일부 요소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2.3.2. 좋은 의사에서 우수한(Exceptionally)의사의 속성

좋은 의사는 누구이며, 이를 규명할 수 있는 요인, 좋은 의사를 만드는 것에 대한 탐구는 국외의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희소하게도 '뛰어난, 우수한, 탁월한' 의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좋은 의사'에 대한 특성을 기반으로 'Characteristics of Exceptionally Good Doctors'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반의사와 다르고, 기존의 '좋은 의사'와는 차이가 있는 '이례적일 정도로 우수한, 특출한, 예외적인 경우, 유난히, 특별히' 등의 의미인 [1]'Exceptionally' 한 기억나고, 우수하다고 느끼는 좋은 의사에 대한 질적연구가 호주에서 진행되었다 (Schnelle & Jones, 2022). 이 연구는 질적연구를 통해 주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13회의 반구조화 된 인터뷰 된 내용을 기반으로 총 6가지의 테마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1) 이례적일 정도로 우수한, 특출한, 유난히,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 (출처: 네이버 어학사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기반으로 ‘우수한 의사들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인터뷰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6개의 테마는 ‘성격 특성, 성격 외 기타 특성, 환자와의 관계, 동료 및 의료시스템의 관계, 교육, 뛰어난 임상진단 치료 사례’ 의사들이 생각하는 ‘우수한 의사들의 특성 범주’이다. 이러한 범주를 기반으로 우수한 의사들의 경우 ‘최신지식에 맞는 의학지식과 술기를 가지고 있고, 환자들과의 관계가 좋으며 우수한 진단 능력’이 있음을 밝혀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의사들에게 드러나는 특성 기반에는 경청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탁월함과 겸손한 태도로 인해 다가갈 수 있는 소통 관계를 구축해 주고, 영감을 주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동료 의사, 의료 팀원, 환자에게 친근하고 오랫동안 기억되는 ‘롤 모델’과 같은 대상의 특징이 있음을 밝혔다. 다만, 영미권 및 호주지역에 맞는 의료시스템 맥락에서의 ‘우수한 의사’에 대한 특성임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와 의사에 대한 위치와 사회에서의 기능 등에 타 문화권에서의 차이로 인해 다른 문화권에서의 ‘우수한 의사’의 속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만, 이러한 우수한 의사에 대한 특성을 검토 해봄으로써 의학교육 및 수련을 위해 학습자들을 지도하고, 롤모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기반 자료가 될 수 있다는데 이러한 특성에 대한 탐색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표하였다.

위 연구가 수행되기 전의 ‘좋은 의사’ 자체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수술 성과 여부, 지속적 학습 하는 경우’를 환자의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 ‘임상능력, 지식, 접근성, 한계에 대한 인식’이 좋은 의사의 특성이라 한 바 있다. 이러한 요소 자체는 이미 존재하는 바이지만 해당 연구의 목적은 ‘예외적으로 좋은 의사’는 누구이며, 이러한 정의와 뛰어난 의사를 설명하는 특성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연구설계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 종단적으로 체계적인 연구설계를 통해 규명해 가고자 한 노력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사가 바라보는 우수한 의사의 특성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무엇이 우수한 의사를 만드는지, 우수한 의사를 만난 경험이 있는지, 이 의사가 다른 의사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주로 질문하고 주제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관련하여 연결된 연구로 이 주제에 대해 설문조사 수행 후 질문 중 열린 구조로 답변을 쓰게 하면서 특정 의사로 보이는 우수한 의사들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의사들이 바라보는 중요한 요인에 대해 검토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바이다(Schnelle & Jones, 2022b). 다만, 이 연속된 연계 연구 속에서의 함의는 좋은 의사, 우수한 의사가 누구이며, 우수한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의료계와 의학교육 전반에 있어 중요하지만, 우문 우답과 같은 내용이지만 좋은 의사의 특성을 정리하면서 탐색해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의 본질에는 ‘우수한 의사’란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며, 필요와 관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열린 구조로 연구 결과의 답을 열어두었다는 점이다. 다만 이 질적연구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통해 우수한 의사는 '대인관계 자질, 의사소통 기술, 환자 참여, 의료경험과 기술, 의사 환자 관계, 윤리, 관리 및 리더십 자질, 교육 및 감독 기술, 연구 및 지속적 교육' 등 다양한 측면이 우수한 의사가 가진 특징으로 탐색하였다(Schnelle & Jones, 2022).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로 우수한 의사에 대한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환자와의 탁월한 의사소통, 탁월한 임상 진단, 탁월한 개입'을 탁월하고 우수한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뛰어난 의사소통은 경청이 기반 되어야 함을 시사하였고, 뛰어난 진단 또는 뛰어난 치료 성공률 등을 뽑고 있었으나 뛰어남에 대한 기준과 특성은 정의 내리기 어렵고, 우수한 의사의 자질을 합의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라고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우수한, 뛰어난, 탁월한, 예외적인 의사'의 자질은 '의사소통자, 진단자, 중재전문가 등'을 뽑고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요소는 의사가 환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경우이며, 이는 동료 의사 사이에서도 다르게 보이는 요인이기도 함으로 경청을 통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있어 환자치료 결과와 의사에 대한 만족도 향상으로도 이어지는 바로 의사의 우수한 속성 중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Schnelle & Jones, 2023).

2.3.3. 우수한 전공의의 특성

Gunderman(2007/2009)은 '우수한 전공의'에 대한 특성을 미국 의료상황에서는 '우수한 전공의'의 특성으로 '과도한 지식의 양 축적, 최상의 학습기회 탐색, 새로운 기회 창출 노력' 등을 을 대표적인 특성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들은 지식을 함양할 때도 단순히 알고자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왜 알려고 하는지, 어떤 지식이 우선순위가 있는지에 대한 우선순위와 중요도 정도에 대한 변별능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집중할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점이 주된 특징이었다. 이들은 과제 수행시 뛰어난 역량을 보였으며, 의료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대인관계능력 등이 결합되어 임상에서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 및 주어진 과업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성과를 드러냈다. 특히, 이들은 호기심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학습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 점이 주된 특징이며 수련 도중 좋은 질문을 많이 함을 알 수 있었다. 전공의로서의 수련받는 것과 업무를 즐기는 능력, 성실함, 성찰능력이 배양되어있었고 이들은 자신의 부족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실수를 했을 시에도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해결하고, 문제를 처리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알아가고 해결해가는 노력을 기울였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임상현장에서 수련의로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 해내고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있었다. 미국의 우수한 전공의의 특성에 대한 탐색 연구라는 문화적 맥락의 차이는 있지만 임상현장에서 전공의의 우수성을 검토해 봄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로써 교육현장과 교수자 입장에서도 전공의들에게 수련 과정을 통해 어떻게 더 잘 수행하고 변화시키고 자신을 성장시키고 업무현장에 도움이 줄만한 역할로 성장 해 갈지에 대한 코칭과 지도에 있어 교육적 함의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유사한 선행연구 중 환자진료능력, 교육자적 자질, 개인적 자질로 구분하여 제시한 연구결과도 존재하였다. 의학지식을 겸비한 실력자, 인간적으로 가르치고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능력, 자기 확신 및 자아존중감, 솔직함, 성실함, 협력 등을 가진 자질을 지닌 전공의가 롤 모델로서의 우수성을 보이는 경우라는 점이 특징으로 드러났다(박장희, 2021). 다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수련 체계에 있어서도 상이한 부분이 있고, 미국의 경우 각 전공과 별 특수성을 반영한 수월성 추구를 위한 수련의 교육과 훈련이 구축되고 이를 기반으로 학부 의학교육에 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과 의과대학 간 연결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더 미친다는 것이 국내와 다른 상황이다. 물론 국내의 전공의 수련 상황도 의과대학과 전공의의 연계성이 고려되지만 수련 현장과 의과대학의 교육 방향과 역량에 대한 고민에 차이가 있다는 한계가 있어 미국 전공의의 우수성만이 국내 전공의에게 볼 수 있는 우수성의 틀로 볼 수는 없지만, ‘전공의’의 업무 특성상 공통 사항에 대해 함의할 부분과 지도자로서 교육과 수련에 있어 개선 방향을 검토 해보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국외 상황에서의 우수한 전공의의 특성과는 다른 국내 의과대학 현장에서의 수련 특성을 고려한 우수한 학습자의 특성을 규명하고 우리나라의 맥락에 맞는 학습모델과 교육과정 방향, 선발 정책 시 사용될 수 있는 근거자료 규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4.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이해

2.4.1. 우수성(Excellence)의 개념

Excellence에 대한 영어단어상으로의 유사어로는 'outstanding, good, superiority, virtue 등으로 확인 해 볼 수 있다(Oxford University Press, 1989). Excellence는 국문으로는 '수월성, 탁월성, 우수성'으로 불리며 '전문성(expertise)'과 동의어인 것으로 정의되어있다(국립국어원. (n.d.). 이는 '일관성 있게 반복될 수 있는 뛰어난 수행능력을 가진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Ferrari, 2002). 수월성의 개념을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습 현장과 연결시켜 이해해보면 학습자를 바라보는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의 핵심과도 연결되는 바이다. 학습자가 지닌 다양한 특성과 지능을 기반으로 이를 이해하고 잠재력을 끌어내며, 특정 대상자가 지닌 강점에 집중하여 개발하여 더 나아가게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본래의 기능이라는 점에서이다. 궁극적으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은 '모든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계발하여 뛰어나고 개성 있는 존재로 만든다'는 핵심으로 결국 학습자의 경험의 성장을 지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바이다(Gardner, 1999/2004).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월성'의 개념은 변천해 왔는데, 수월성 혹은 탁월성이 통해 왔으며 'arete는 곧 excellence'라는 용어로 개념이 이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배경과 상응하게 그 용어의 쓰임과 범위가 변경되어왔는데, 오늘날의 의미는 '수월성이라는 것 자체가 연구대상이자 인간의 삶에 대한 인식의 결정체'라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고대에는 윤리적 인간에 대한 희구, 인간의 욕망과 현실에의 인식, 정신과 육체의 조화 등의 변천을 통해 '수월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최승현 외, 2023). 고대에서의 '수월성'의 변천을 보면 인생에서의 훌륭함(arete)와 지혜(phronesis)에 관여하도록 전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혜에 대한 사랑은 결국 철학을 일관하는 게 결국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하였다. 아테네 철학에 나오는 arete는 aritos로 영어의 단어로는 excellence, best와 유사한 의미이다. 우수성을 의미하고 국문으로 탁월성으로 번역하게 되며 우수성, 탁월성 유사한 의미로 '자신의 고유한 특성 혹은 독특한 자신만의 무엇이면서 무언가를 잘하는 수행 정도를 가지고 탁월하다'라는 표현을 쓴다. 즉, 인간에 대한 탁월성은 인간이 수행하고 기능하는데 특정한 우수성과 뛰어난 속성을 의미하며, 인간 기능의 훌륭한 성과, 실행이라고 보고 있다. 이성을 지닌 본래의 것으로 지적 탁월성이 있고,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부분이 성격적 탁월성이라 한다. 인간적인 좋음의 단계가 행복이라고 보고 있다. 성격적 탁월성은 실천의 원리가 강조된 것으로 습관을 통해 생기는 것으로 행위를 통한 습관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을 통해 성격적 탁월성을 가지게 된다. 탁월성의 이론은 특정한 공동체 내에서의 행복을 강조하는데, 후천적이며, 인간의 정신적 우수성인 품성을 의미한다. 자족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그 자체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결국 탁월성이라고 보고 있다. 탁월성은 무언가를 위한 것이 아니며 가장 좋고, 가장 고귀하고 즐거움 자체가 즐겁고, 자체 속에 즐거움이 있다. 즉, 학습하는 데 있어 그 자체의 즐거움, 학습에서 얻는 지식, 술기, 태도의 일체 경험 속에서 즐거울 때 본연의 배움의 행복을 느끼는 것을 학습자로서의 탁월성이라고 볼 수 있다(윤지연, 2009).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하나의 상태인데, 나은 상태, 좋은 상태로 만든다고 하였다. 이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것처럼 지속적인 훈련, 지원, 교육을 통해 연마되어 자연적 탁월성을 발휘하고 개발하여 성격적 탁월성으로의 후천적 더 나아짐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격적 탁월성이 결국 '우수성'이라는 특성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닌 습관의 노력, 실천으로 빚어지는 일련의 실천 결과, 누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수련, 교육, 훈련의 힘을 통해 나아가고 도달해 가는 상태의 지속적인 힘을 의미하는 바이다. 즉, 본성이라는 자연적 탁월성을 지속적 훈련과 교육을 통해 습관을 형성하여 성격적 탁월성이 고양되어 결국 실천적 지혜의 개입으로 엄밀한 탁월성이 완성된다. 이는 지적 탁월성, 가르침, 교육 등의 결과라 볼수 있다. 단순히 자신이 가진 재능만이 아닌 재능을 정의롭고 가치 있는 자기의 업무 혹은 직군 내에 연관시켜, 무엇을 하는지에 방점을 두어 지속적인 습관이나 지혜를 통해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김광연, 2021).

소크라테스의 『파이돈』에는 수월성 혹은 훌륭함(arete; 덕')과 지혜를 얻는 것이 상통한다고 언급한다. 'arete' 자체의 의미는 '좋음'을 의미하는 아리스토스에서 도출된 바로, '최대한도의 능력 혹은 최상의 행위, 최상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아레테를 가진다'라는 의미는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위치에 있음, 최상의 질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최승현, 서범종, 2023). 이는 '탁월성'으로 그 의미를 확대해 나갔으며, 소크라테스와 고르기아스의 대화에서도 '의료에 관한 일을 배운 자는 의술에 능하고, 그 분야에 배운 자는 그 분야의 앎이 각자에게 부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라고 이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이 가진 자연적 탁월성인 있는 그 자체 외에 훈련이라는 습관을 통해, 교육을 통해 더욱 능력을 고취해가고 길들여감으로써 더욱 탁월하게 만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엄밀한 탁월성이 기존의 자연적 탁월성과 겹쳐질 때 더 나은 것을 실천해갈 수 있는 인간이 된다. 즉 엄밀한 탁월성은 성격적 습관을 통해 완성되는 성경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탁월성으로 인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원리 또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 습관에 의해 배우고, 들어서 배우는 데 결국 자신이 가진 본성에서 습관에 따라 좌우되는 데, '이성, 본성, 습관'을 통해 훌륭함을 이루고, 이는 곧 덕스러운 사람을 지향한다. 결국 국가도 이러한 이상향을 지향하는데 이럴 때 아레테라는 의미가 적용된다. '수월성, 우수성, 탁월함, 훌륭함, 좋음'은 이러한 아레테가 적용되는 상태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후 고대에서의 전체적인 좋음, 우수함을 의미하는 바였지만, 욕망 간 차고 넘치지 않는 균형을 통한 중용이 우수함의 의미라고 변천되었고, 궁극적으로 인간은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통해 이러한 아레테의 본성을 살려 나감으로써 최상의 상태로 만들 수 있음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뜻을 해석해 왔다. '때에 맞게, 적절한' 중용의 실천, 감각적 쾌락만이 아닌 이성에 의한 쾌락과의 조화를 통해 인간의 모습을 갖춰가는 좋음의 상태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은 개인 스스로가 아닌 동물과 달리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덕스러움, 훌륭함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릭슨과 스미스의 수월성 교육에서 말하는 '의도적 연습'을 위해 Zimmermann(짐머만)은 '자기조절 과정과의 관련'이라고 보고 있다. '의도적 연습'은 단순히 기계적 반복, 학습을 넘어서 몰입하는 것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몰입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은 최대한의 상태를 의미했다. 이것이 의도적 연습이라고 칭하는 교육에서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방향이다. 여기에는 학습자가 롤 모델의 경험을 바라보고 익히는 관찰이 포함되고, 롤 모델 혹은 전문가를 흉내 내기, 혹은 모방하게 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고, 통제해 가면서 행위를 다듬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훈련인 의도적 연습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만의 전문성 영역, 전문적 수준을 만드는 수준으로 올리게 되고 이 안에서 자신의 행위를 조정 혹은 조절(self - regulate)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자기조절을 하는 것은 아동이 성인 사회로 가는 사회과 과정에서 적합한 행동을 하고, 인식하며, 행동에 책임을 지고, 즉각적 행동을 넘어서서 문제를 재검토하고 반추하며 문제해결과정, 자기 점검, 자기평가 등의 활용능력을 의미한다. '학습 전 예상, 수행, 자기성찰'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자기 점검 등의 자기조절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학습과정에 대한 효능감과 책임감 등의 요소가 갖춰져야 수월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가드너의 '초인지적 성찰(메타인지 활용)'과도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 수월성의 교육에의 적용의 함의를 파악해 볼 수 있다(이영만, 2009; 최승현, 서범종, 2023).

이러한 배경하에 'excellence'에 대한 국문으로 이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우수성, 우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수함, 수월성, 탁월성' 등의 사전적 의미를 비교해 보았다. '우수성'은 여럿 가운데 뛰어난 특성으로 제품의 우수성 등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또한 '우수하다(우수한)'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 가운데 뛰어나다, 특별히 뛰어나다 이며, 유사어로는 '낫다'를 사용할 수 있다. '수월성'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에 비하여 빼어나고 우월한 성질을 의미하며, 매우 탁월한 수준이나 정도, 남들이나 같은 부류의 다른 것들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나 정도로 특히 연구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로 정의되어 있다. '탁월함'의 의미는 남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나며, 유사어로는 독특하다, 높다, 눈부시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뛰어나다'는 '남들보다 월등히 훌륭하거나 앞서 있다'라고 사전적 정의가 기술되어있다.

'우수성'과 '우수함'의 사전적 의미는 높은 수준의 품질이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특정한 기준 대비 탁월하고 뛰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우수성(excellence)은 어떠한 상태로써 목표나 기준을 넘어서는 성과, 결과, 최고 수준에 도달하려는 상태, 지속적인 개선 혹은 개발을 통해 완벽한 상태, 정해둔 최상의 기준에 도달하려는 노력의 과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학문이나 예술의 성취가 탁월한 경우, 제품의 품질서비스가 기준 이상으로 뛰어날 경우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표현한다. 우수성에 비해 특별하거나 특이점으로 독창적이다 등으로 두각을 나타낸다거나 두드러지는 특성이나 성과를 '탁월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에 두드러진 상태, 독보적 상태 등으로 탁월한 리더십, 탁월한 창의성 등으로 무언가가 두드러지고 독보적이다 등의 요인이 추가되어야 해석이 되는 용어이다. 이와 달리 더 넓은 의미에서 나은 상태를 포괄할 때는 '뛰어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이는 광의적 개념으로 쓰이기에 학습에서의 뛰어남보다는 학습자 고유한 특성임으로 학습자의 우수성, 탁월성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우수성은 밖으로 솟아오르다, 위로 솟아오르다, 뛰어나다의 어원을 가지며, 무언가보다 우월하다는 것, 탁월한 상태를 말함으로써 기준, 준거, 기대 이상의 수준에 도달하여 위치상 높은 기준에 도달한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 '우수함(Superiority)'은 '다른 것(상품), 타자'와 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상태, 우월한 경우에 활용하는 용어이다. '우수함'은 superiority라는 단어를 통해 다른 제품, 상대보다 뛰어난 것을 강조하고 상대적 비교를 의미할 때 ~보다 더 낫거나 우수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절대적인 기준이나 준거 대비 탁월한 정도나 상태,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는 현상, 탁월하고 우수한 위치에 대한 특성을 '우수성'이라고 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탁월성은 본래의 순수 목적, 그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자연의 것대로 자체로서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최고치를 의미한다. 인간은 숙고할 수 있는 능력과 미덕의 실천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재 자체의 본질을 수행하는데, 결국 탁월성은 인간이 가진 실천으로부터 비롯되고, 작은 실천이 결국 탁월성을 발휘하게 되는 자양분이라고 아리스투젤레스는 말하였다. 지나치거나 모자람 쪽에 취해봄으로써 균형, 중용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고, 결국 '무엇이 좋은 것인 줄을 아는 것이 탁월성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성을 발휘하는 활동이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였다. 윤리라는 어원도 습관이라는 것에서 기인하였으며, 습관, 습성의 덕을 통해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인 인간은 탁월성을 만들어낸다. 습관적 행동은 내면으로 이어지고 이는 내면의 덕이 습관적으로 발휘되는 것을 의미한다. 탁월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경우, 활동을 통해 삶의 성격을 규정하고, 진실되고 현망한 사람은 품위있고 인내할 줄 알며, 자신이 놓인 상황 내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존재이며, 이것이 결국 행복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닌 미덕에 맞는 활동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성찰 역량을 통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을 수월성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윤리학의 배움의 목적은 이론이 아닌 탁월성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고찰하고 성찰하며, 행동에 있어 마음가짐을 보게 되고 특정 행동이 나오게 되기 위해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게 되는 연습 등을 통틀어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였다(손영수, 2010; 정대성, 2015).

쾌락과 고통을 다루는 자가 탁월한 사람이고, 특정한 마음가짐으로 행동하는 것이 결국 수월성의 실천, 덕의 실천이라고 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고 검토하며, 무엇 때문에 등의 수단이 아닌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고, 안정되고 일관되게 굳어진 자신의 단련된 품성에서 나온 행위가 결국 수월성이라고 보고 있다. 즉, 절대적 가치로서, 타인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한 기쁨을 넘어선 내재적 기쁨과 동기와 유사하며, 주객이 전도된 행위가 아닌 학습이라고 할 때 학습 그 자체가 본질이자 목적이 되어야 하고, 학습하는 과정 자체의 훈련을 통해 이를 숙달해 나가고 인내해 가면서 배움의 실천이 실재로 이어지는 것을 학습에서의 탁월함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결국 탁월성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 심리적 상태가 아닌 '자기존중, 자아성찰, 배려, 소통, 자기조절, 정직, 전문직업성' 등의 덕목을 고찰하고 성찰하여 그 자체를 발휘하는 힘이 학습에서의 탁월성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의학교육에서의 탁월성이란 의학에서 배우는 미시적 의미의 교육과정 상 내용, 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로그램 등을 넘어서서 지식, 술기, 태도 훈련 이면의 의학도로서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습득해 나가며, 실천을 통해 '탁월성'에 도달하는 것이 결국 의업이라는 가치 속에서 전공의 다양성과 진출 분야의 한계를 넘어서 의사로서의 전문직으로서의 프로패셔널리즘을 갖고, 습관 된 힘을 통해 일관되게 나오는 실천으로 인해 '탁월성'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절대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탁월함에 이르는 것은 그 자체가 학습과 배움의 기쁨이고 행복 자체라 할 수 있다.

우수성의 개념은 '수월성, 탁월성, 덕 등'으로 표현되는 용어로 의과대학의 학습자들은 의사로서의 전문직업성을 실현하기 위한 원리로서의 '수월성 추구'도 존재하지만 의사로서의 어떠한 역할과 역량을 수행하는 것에서 넘어선 '탁월성'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특정 역량을 달성하고, 성과를 내거나 정해진 '의사상처럼 살아가는 정도'를 넘어서서 가치를 찾아내고 탐구하고 그 내면의 것을 표출하여 실현해 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탁월성을 의학의 가치 내에서 찾아가는 사유의 과정을 의미하는 고차원적이고 숭고한 가치의 실현을 의미한다. 의사에게 주어진 과업, 역량, 의사상에 맞춰가는 과정을 넘어서서 의학적 가치를 실현하는 고차원적인 과정을 통해 의사로서, 의학도로서의 행복을 찾게 되고 순수한 자연의 무언가를 회복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것은 결국 의료의 비인간화를 피해 가면서 의료의 행위를 실천하고, 동시에 의학도로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 전반에서 탁월성을 추구하고 탐구하면서 자신 본연의 기쁨을 찾는 것이 탁월성을 누리는 것이다. 전문가에게 있어서 지적 탁월성 외에도 도덕적 탁월성이 방향을 같이 해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회의 책무를 가진 전문가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료를 실천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로서 도덕적 탁월성에서 기인한 가치가 연결될 때 의학의 지식과 술기라는 지적 탁월성의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기여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김준 외, 2021). 결국 학습의 우수성이란 학습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가며 그 자체에서 즐거움과 덕,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배움과 학습 자체에서 누리는 본연의 순수한 기쁨과 자연스러운 가치를 회복하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배움의 본질이며 동시에 가르치는 이가 가르침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학습의 우수성을 추구하고 발견하는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스승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학습자를 만나 그들과 상호작용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자체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낀다. 이러한 경험은 결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우수한 학습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느끼는 깊은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4.2. 고등교육에서의 우수성의 개념

고등교육에서의 우수성의 개념은 학문적, 연구적, 행정적, 학생 경험을 통틀어 최고 수준의 성취를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Brusoni et al., 2014). 이를 통해 기관의 지속적 발전, 사회적 기여, 국제 무대에 공헌 등에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준이자 촉매제로서 우수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을 포함하여 고등교육기관이 교육, 연구, 봉사 등 다면적으로 최고의 수준, 성과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 학습의 질, 연구과 지식의 창출, 학생성과 및 지원, 다양성 및 형평성, 지역사회 및 국제 무대로의 연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우수성'의 실천 과정으로 보고 있다(Harvey & Green, 1993). 이를 통해 볼 때 교육에서의 '우수성'은 단순히 학습자의 학업적 성취만의 미시적 의미를 넘어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여하는 것, 혁신을 선도하는 것, 교육기관의 구성원 모두가 성장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으로써의 고등교육 기관의 변화 노력, 내외부의 요구 반영 등이 기반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Gibbs, 2010). 고등교육에서의 우수성의 개념 자체는 복합적이고 동적인 개념이자, 포괄적으로써,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 발전적 과정으로써 이해되며, 해당 고등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 문화, 가치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고등교육의 우수성 발현을 통해 고등교육의 가치와 사회적 혜택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탐구와 지식 추구와 관련한 필요성을 옹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우수성'의 개념의 활용으로 학생의 성과, 연구 성과, 교육의 성과(교수학습 경험), 기관의 성과 등의 합을 통해 고등교육 기관이 경쟁력 강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활용하고 있다(Skelton, 2007).

고등 교육에서의 우수성은 교육의 질, 학생의 역량, 자원 제공 규모, 학생 성취 수준과 관련된 학업의 질과 표준의 맥락에서 정의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교육과 학습의 질에서는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학습프로그램 제공,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배양할 기회 제공 등이 전제된다(Gibbs, 2010). 이는 학생, 가족, 사회, 고용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우수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를 강조하는 바이다(Skelton, 2007). 실례로 본 장에서는 교육과 관련한 관리, 연구, 교육, 학생성과, 품질 보증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고등교육기관의 관리(management)영역에서의 우수성은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의 수준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함으로써, 우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성과 기준으로 보고자 할 때 우수성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기관 관리 차원에서의 자가 진단 프레임워크로써 조직의 강점과 개선 영역을 평가하는 잣대로써 EFQM(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모델을 활용한다. 이 모델을 통해 리더십, 정책과 전략, 인적 자원(인재)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관리, 파트너쉽 및 자원, 과정 관리 등을 기반으로 우수성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인지, 접근인지를 검토하는 기준으로써 이러한 요소를 기반으로 검토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Baldrige 모델은 학생의 학습을 강조하며 이 모델을 통해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를 잘 했는지, 년마다 하는 학습자의 학습의 수행의 개선정도, 리더십 퍼포먼스, 다른 기관 대비 수행의 개선 등을 검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성과, 지속적 개선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법을 제공한다. 또한 미국에서의 우수성을 검토하는 요인은 리더십, 목적과 계획, 수혜자 및 선거구, 프로그램 및 서비스, 교수진/직원 및 직장, 평가 및 정보사용, 결과 및 성과의 요소를 통해 고등교육의 우수성을 정의하기도 하며,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학과, 기관, 프로그램의 설립 및 유지의 근간을 검토하는 프레임워크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관리 차원에서의 우수성을 보고 있다.

고등교육에서는 연구의 질과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우수성의 개념을 활용하기도 하며 이는 연구와 관련하여 지식의 창출 측면에서의 의미를 뜻한다. 연구에서의 우수성은 독창성, 중요성, 엄격성 등의 세계적 수준의 도달 여부를 기반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연구 능력의 강화 정도를 교육에서의 우수성의 지표로 보고 있다. 다학제적 협력을 통해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연구와 관련한 우수성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의 연구 우수성 프레임워크(REF)[2]를 기반으로 국제 기준에 따른 연구 품질을 평가하고, 자금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 안에는 외부 연구 수입, 논문서지 지표, 대학원생 참여도 등을 기반으로 검토한다(Harvey & Green, 1993).

교육에서의 우수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기반으로 우수성을 표현하게 된다. 교수자의 강의 경험, 학생에게 훌륭한 교수학습 경험이 제공되었는지 등을 기반으로 검토한다. 교수의 영감적, 체계적 교육 제공, 학생과의 상호작용, 학습 성과 등을 따라 평가하며, 학생 참여를 극대화하였는지 등을 기반으로 교수학습 방법이 적절한지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점에서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교육의 우수성을 검토하는데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학습경험을 결정적 특징으로써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것을 했는지를 기반'으로 검토하는 바이다(Gibbs, 2010; McEwan, 2002). '우수한 교육에 대한 이해, 강의의 질, 개별 교수의 우수성, 수업 자체의 우수성, 탁월한 교수법을 통한 우수한 학생의 학습경험' 등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학습자 중심의 학문 지도와 멘토링 등을 통한 학습자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학습자의 성공과 이들

2)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2012). 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http://www.ref.ac.uk/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을 지원하는 차원에서의 우수성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개인의 우수한 교수법은 우수한 학생의 학습경험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써, 학과나 기관 자체의 우수성이 기반이 되어야만 하며, 개인의 우수성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학생성과에서의 우수성은 학생의 성과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지녔는지, 학문적 성취를 이뤘는지를 잣대로 우수성을 검토한다. 음악, 연극 등의 예술 분야에서의 높은 성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높은 성취도와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기관에 입학 전 우수한 학업성적 외, 후보자의 오디션,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실력, 이 실력을 위한 실습 및 개인지도 등이 포함되어 이를 기반으로 선발하게 된다. 학생의 성취도는 수행의 질을 기반으로 검토하는데, 기술 능력 개발은 학문적 연구, 전문성 개발과 결합 되고, 개별 수업료, 학생들은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 연습 및 개발에 시간 투자, 전문가인 강사의 투입을 통해 학생들이 각 분야에서의 높은 역량을 갖춘 강사(교수자)를 만나게 되고 교육기관은 이러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예술적, 학문적 잠재력 표출을 위해 지원하는 배경이 됨을 설명한다[3].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기준으로써 '우수성'을 지표로 설정하고 우수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높은 성취도와 뛰어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우수한 성과는 일대일 수업의 집중적 특성, 이를 위해 각종 자원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합을 통해 우수한 학습자의 성과를 보일 수 있다. 이는 conservatoire model을 근거로 확인 할 수 있다.

끝으로 학문적 기준을 강화하고 우수성을 촉진하는데 '품질 보증'과 연계성을 검토한다. QA기관들은 우수성 기준을 평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문적 성과를 촉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과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학습문화 조성, 평등한 기회 접근과 정책 제공을 통해 다양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고, 결국 이러한 교육기관들이 지역사회 및 국제 무대와 연결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교류와 협력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했는 지를 기반으로 기관의 우수성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한다. 결국 고등교육에서의 우수성은 교육과 연구의 일차적인 발전을 통해 개인 및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학문적 공간, 연구, 문화, 지역사회 협력에도 이바지하며 이는 결국 고등교육의 우수성을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을 통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고등교육에서의 우수성은 결국 학문적, 연구적, 사회적 차원에서 최고의 기준 충족,

3) Musician's Union (2013). Learning for Life: Conservatoire Students. http://www.musiciansunion.org.uk/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달성을 위한 목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속한 개인 학습자, 교사 및 교직원, 사회전체 발전을 위해 다각도 측면에서의 우수성 확보를 통해 결국 우수성을 확보해가는 의미로써 교육에서의 우수성의 관계, 위치를 의미하는 바이다. 교육에서의 우수성은 협의적으로는 교육기관, 학계, 학습자의 목표이자 열망으로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정의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탁월하고, 능력 있고, 뛰어나며, 일반적 기대치를 넘는 것으로 사용되며 일종의 기관의 평판, 학생의 성취도와 관련된 것을 뜻한다. 다만 모든 사람들의 엘리트적 우수성에 의미가 아닌 모든 학생이 자신이 하는 일과 분야에서 탁월함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우수성이 성취는 부가가치와 개인 개발 측면에서 드러남을 강조하는 바이다. 다만 우수성은 학업의 질, 잣대를 검토하는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데 있어 잠재적 우수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결국 고등교육에서의 우수성은 광의적으로 볼 때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이 용어를 정의하는 사람이나 그 배경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우수성 자체는 가시적 현실일 수도, 영구적 움직임일 수도, 양으로 측정되기도, 과정으로써의 과정과 정신으로, 성취 달성 여부 등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지표로써도 목적적 사용에 대해서 혹은 주관적 표현에 의해 사용 범위도 다를 수 있다. 전자는 목적 적합성으로 특정 표준이나 성과를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는 예상된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환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혁신의 의미와 연결된다.

우수성은 또한 역량이 출발점이 되는 과정의 일부로써 단순한 결과라기보다는 예외적인 특성으로 정의함으로써 품질의 한 측면으로써 품질과 예외적인 것을 연결하여, 항상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무언가를 나타내는 척도이자, 독특한 무언가가 결국 품질이며, 교육적 측면에서의 우수성과 이는 상응하는 바라고 볼 수 있다. 우수성은 사람이나 사물이 그 자체로 가지는 높은 수준의 완성도, 그 본질과 기능의 이상적 표현에 거의 완벽하거나 우월성을 보이는 것, 뛰어남 등을 의미한다. 결국 우수성은 사람, 사물, 단체 그 자체와 그것의 능력이다, 다른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측정된다. 결국 우수성은 평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어떠한 맥락에서 우수하다고 선언되며, 우수성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기준에 따라 상이하며, 우수성 또한 변화되는 속성이며, 이를 판단하는 사회나 환경 맥락에 따라 달라지며, 판단 또한 주관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결국 교육에서의 우수성도 다양한 맥락에서 적용되며, 다양한 관점이 포함된 복합적 용어로 볼 수 있다. 우수성이 모든 교육기관의 기본 기준을 넘어서 기준과 품질을 식별하는 수단이 되려면 이에 대한 평가 방법이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우수성은 교육기관, 학과의 평한, 기관 순위를 넘어서서 평판의 장기적 특성을 통해 그 과정을 강조하는 바를 알 수 있다. 평판은 연구 경험, 축적된 지식, 사회적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상호작용, 학술커뮤니티의 과정을 통해 나오는 결과이며, 교육은 사회화 과정이면서, 그 안의 학생은 소속기관의 가치, 문화, 그 환경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다만 엘리트 교육기관의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이 결국 최고의 교육 수준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수성은 다양한 학문 분야, 교육기관들의 합의된 기준에 의해 평가되며 교육기관과 학생 간 다양성 반영을 위해 적용되는 개념을 시사하는 점이다. 다만 우수성을 검토하거나 인정하는 다양한 기준인 기관의 전략적 거버넌스 및 관리,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 학생의 졸업 후 실적, 우수한 학생 경험, 이해관계자의 긍정적 만족도, 학생 만족도, 연구 및 학술 발전에 헌신, 사회 경제 문화 발전, 교육의 사회적 이익에 대한 인식, 국제화를 위한 노력, 형평성과 학문의 자유 증진 등의 요소를 통해 이러한 질적 지표가 우수한 기관의 특성을 검토하고 상징하는지를 구체화 하기 위한 우수성을 위한 성과지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3. 의사전문직업성의 실천원리로서의 수월성

2.4.3.1. 의사전문직업성의 개념

우수한 의과대학 학생의 특성과 자질을 검토하기 위해 학습자의 특성, 학습자의 자질, 우수함에 대한 일반적 정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을 정의하기 위해 일반적인 의미의 Excellence의 이해를 기반으로 의사전문직업성의 개념, 의학전문직업성에서의 수월성의 위치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결국 의학교육의 수월성을 이야기하는 흐름에 기반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의학 직업 전문성은 '전문직', '전문가', '직업전문성'의 개념에서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정 분야의 단순 전문 지식과 술기 이상의 고도의 훈련을 통해 실제 타인을 위해 적용 실천하는 것으로 의학, 법학에서의 실천하는 분야를 의미하는 바이며, 이러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한다. 다만 이들이 타인 혹은 사회에 일하는 목적이 개인의 이익, 경제적 부를 넘어서서 타인을 위한 무언가 되어야 함을 성공의 지표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특성과 자질, 수행하는 역할을 전문직업성으로 정의하고 있다(황은영, 양은배, 2010; Brandeis, 1914;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이를 기반으로 Flexner는 '의학직업전문성'은 끊임없이 지식 및 기술 습득을 통해 자신의 수월성(excellence)를 유지하고 자기통제를(self-regulation)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속성을 주요한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미국 개원협회와 미국 내과 학회에서는 3가지 내용과 10가지 덕목으로 이 의미와 요소를 정리하기도 하였다. '환자를 최우선 생각, 환자 자율성 존중, 사회적 공평성 추구'를 3가지 주요 원리로 보고 있으며, 의학전문직업성을 위한 10가지 덕목으로는 '환자 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료에 필요한 의학전문성, 환자에 대한 정직성, 환자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환자와의 적절한 관계 유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 의료 제공 기회를 높이기 위한 노력,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 과학적 지식을 위한 노력, 이해 갈등 상황을 관리하여 신뢰 유지를 위한 노력,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려는 노력'을 언급하였다(맹광호, 2008). 의료전문성을 정의할 때 '가치, 행동, 관계를 세우는데 이는 의사를 향한 대중의 신뢰를 위함'이라는 것에 기반하였다. 전통적으로는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 의미로 여겨왔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이익보다 환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주의, 고통이나 곤경에 처한 환자를 돕는 연민을 강조해 온 것이 고전적 의미에서의 의학 전문직업성이라고 하였다. 다만, 고전적 정의에 넘어서서 상업주의,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반영한 현대에서는 의사의 전문성이 단순히 이타주의, 사회정의, 사회적 계약에 넘어서 과도한 이익을 좇는 것은 아니나 사회적 계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병원 간의 경쟁, 의료수요 창출 문제를 고민하고 부적절한 치료나 과도한 이익을 환자 관계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개념의 변화를 수정하고 있다. 또한, 의사의 과도한 희생을 강조하는 맹목적인 헌신보다는 전문가적 가치를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병원, 의사협회, 수련 시스템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고, 의료 환경과 보건의료 정책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현시대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도경, 2019).

미국의 의학교육 과정에 대한 의료직업전문성을 포함한 역량강조 교육의 방향 외에도 국내에서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연구를 볼 때에도 전공의의 의학전문성과 사회적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2014년 대한의사협회 및 보건복지부 연구 및 2019년 보건복지부 연구에서는 전공의를 위한 역할 중 하나로 프로패셔널리즘 영역에서 전문직업규범과 자기규제에 높은 직업윤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전문성과과 자기관리가 기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모든 전공의에게 강조되는 역량 중 하나로써 전문성, 탁월성, 우수성을 강조하는데 의학직업전문성을 위해서는 '자기통제 및 자기관리, 직업윤리 유지, 성실성'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나상운 외, 2022).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의학교육 환경에서의 국내외 흐름을 보면 자기통제, 탁월성에 대한 부분이 시대를 막론하고 필요한 요인으로 검토되고 있다. Flexner가 2000년대 초에 제안한 '자기통제'와 '수월성'의 측면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의학전문직업성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수월성'과 '자기통제'가 왜 여전히 다른 요인들에 비해 의과대학 학생인 예비 의사 및 의사에게 필요한 속성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학전문직업성 의미의 변화 과정 속에는 사회계약적 요소도 존재했다. 환자들이 원하는 최신의학 지식과 술기에 맞춰 의사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적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과거의 '동정심'에서 시작된 서비스 행위가 아닌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대가로써 의료서비스의 개념이 변화되었고, 이는 의사 또한 전문가로서 이러한 새로운 지식과 술기를 연마하여 자기통제가 기반 된 '수월성'에 대한 조건으로 이 경제적 대가를 받게 되는 셈이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수월성 유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이 의사전문직 중심으로 준비되었고, 의사들의 윤리 강령 등이 만들어짐으로써 의학 직업성을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독점에 대한 '계약'이 성립된 것이었다. 다만, 이러한 개념의 변화와 달리 미국사회에서의 의사들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기여라는 본래의 의미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자기통제를 못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후 사회에서도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본질이 흐려짐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입이 시작되었고, 관련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의사가 가져야 하는 특성부터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도덕적인 사람, 돌봄, 동정심, 환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책임, 신뢰 형성, 존중, 의료행위에 대한 성실성, 비밀 유지' 등을 의미한다. 이에 의학전문직업성을 생물학적 특성과 의사-환자의 감정 교류라고 보고 있다. 또한 'project professionalism' 보고서에서는 의학전문직업전문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과 기술 전파 시 고도의 수월성을 유지하고, 환자의 복지와 이익,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이타성, 책무성, 수월성, 의무, 명예, 정직, 타인에 대한 존중'을 핵심 가치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권효진 외, 2012; 황은영, 양은배, 2010).

2.4.3.2. 의학전문직업성에서의 수월성의 위치

의학전문직업성을 이루고 있는 하위 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개념을 이루고 있는 세부 구성요소가 결국 하위 특성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치료자'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기반으로 각각 특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역사적으로 치료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오고 있으나 전문가로서의 속성은 지역 혹은 사회에 따라 그 역할의 차이를 그리고 있다. 각 역할에 따른 속성을 보면 치료자는 의사의 자질과 역할에 포함되는 내용이 그 속성 요인으로 들어가 있고다. 예를 들어, 돌봄, 동정심, 환자 질병에 대한 통찰력, 개방성, 치료에 대한 확신, 환자에 대한 존중과 인품, 환자에 대한 자율성 존중(추가된 요소) 이다. 이에 반해 전문가는 전문직의 사회 변화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이 추가 되어감을 알 수 있다. 전문성에는 의사의 책무성과 환자의 자율성 증가 간의 조율, 의료자원과의 균형, 의사의 자기통제권에 대한 사회 내에서의 균형, 보건의료 직종 간 팀워크 등이 요구된다.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의료전문직업성'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 두 축인 '치료자'와 '전문직'의 공통 속성은 '능력, 책무, 비밀유지, 이타성, 신뢰성, 성실과 정직, 윤리적 태도, 동료에 대한 책임감'이다. 이를 기반으로 의사들은 자신이 의사면허를 취득했다는 데에 안주하지 않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자기통제에 관한 전문직으로서의 권한을 개인과 동료 간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점, 환자들이 의사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이타심의 본질을 기반으로 생활 습관 균형과 의료시스템을 개선해 가야 할 부분 검토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점, 정직, 성실, 윤리적 행동에 기반한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를 추구해야 한다.

<table>
<tr><th colspan="2">치료자</th><th></th></tr>
<tr><td>돌봄, 동정
통찰력
개방성
치료기능에 대한존중
환자위엄과 자율성 존중
영향력 수행</td><td>역량
책무
비밀유지
이타성
신뢰성
정직
윤리적 기준 준수
도덕적 행동
전문직에 대한 책임감</td><td>자율성
자기규제
사회적 책임감
팀워크</td></tr>
<tr><td colspan="3">전문가</td></tr>
</table>

<그림 2> 의학전문직업성의 두 축

출처 : Cruess, S. R., & Cruess, R. L. (2009). The cognitive base of professionalism. Teaching medical professionalism, 7-31,

재인용 : 양은배. (2014). 역량중심 교육과 의학교육 이슈. 한국의학원

<table>
<tr><th colspan="4">직업전문성</th></tr>
<tr><td>수월성</td><td>휴머니즘</td><td>책무성</td><td>이타주의</td></tr>
<tr><td colspan="4">윤리적, 법적 이해</td></tr>
<tr><td colspan="4">의시소통 기술</td></tr>
<tr><td colspan="4">임상 수행 역량(의학지식)</td></tr>
</table>

<그림 3> 의학전문직업성의 실천 원리

출처 : Arnold, L., & Stern, D. T. (2006). What is medical professionalism. Measuring medical professionalism, 15-37.

재인용 : 양은배. (2014). 역량중심 교육과 의학교육 이슈. 한국의학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마치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의 용어를 검토해 볼 때도 또한 이러한 <그림 3>과 같은 구조와 유사한 정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우수성, 우수함, 학습자의 우수성' 개념의 구조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의과대학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의 특성과 자질, 이들의 역할을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특성과 자질은 이것이다. 궁극적으로 의학전문직업성을 추구하기 위해 수월성, 책무성, 이타심 휴머니즘의 실천이 기반되어야 한다. 이는 medical professionalism 기반이 되는 이론을 의미한다. 의학전문직업성을 위해서 '수월성, 휴머니즘, 책무성, 이타심'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에서 윤리적 법적 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의학지식에 기반한 임상 역량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의학전문직업성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황은영, 양은배, 2010; Arnold & Stern, 2006).

의학전문직업성의 실천을 위한 원리 중 하나로 '수월성(excellence)'은 지속적으로 의학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힘, 노력을 강조한다(황은영 외, 2010). 수월성은 평생학습(life long learning)의 뿌리를 둔 것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힘, 자기주도적으로 평생 배우려는 힘이 근간을 이룬다. 평생학습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학습요구를 인지하고, 학습동기를 기반으로 스스로 자기주도학습하는 능력, 학습을 위한 정보 검색과 기술 등의 요소를 통해 자신만의 근육을 기르고 이를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권효진 외, 2012; 양은배, 2014a; Hojat et al., 2003). 이는 성인학습의 기본적인 요인과도 상통하는 개념이다. 의료에서의, 의학에서의, 의료 현장에서의 수월성은 결국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자기 자신의 노력, 헌신, 개발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이는 의료과오 감소, 환자 안전성 극대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헌신하는 전반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자기 자신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은 결국 의료지식과 술기 발전에 이바지하는 점이기 때문에 수월성에 근간을 둔 행위라고 여길 수 있다. 의사는 지식기반, 근거 기반의 연구와 치료를 촉진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최신의 지식과 술기, 연구를 기반으로 환자진료 및 연구에 기여 해야 할 책임을 갖는 점에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힘'을 자기주도능력과 평생학습의 기본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를 결국 수월성이라는 개념과 상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의학전문성과 의과대학생의 수월성과의 관계는 의사들이 가져야 하는 가치 기준이 '의학직업전문성'으로 대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 기준을 의과대학 학생 때부터 그리고 의사가 되어 행동하는 실천 사항에서도 나와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의사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 가치 중 하나로 의학전문성을 언급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수월성'의 실천을 의미할 때, 의과대학 학생의 수월성, 우수성을 검토하고 이 개념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해되고 실천되고 있는지 탐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발전하여 의과대학 학생들의 의사되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가치로, 기본 신념으로 교육해 나갈 책무가 있다. 이에 의학전문직업성의 실천 원리 중 하나인 '수월성 혹은 우수성(excellence)'을 기반으로 '의과대학 학생의 수월성 혹은 우수성'의 근간은 실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4.4. 의학교육에서의 수월성

미국의 의학교육에서의 모토는 '수월성 추구'이다. 이는 학부 의과대학이나 전공의 교육의 성공적 모토의 기반을 삼아왔다.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자체에 수월성을 기반으로 혁신의 방향을 내세워 온 셈이다. 학습성과의 표준화 및 학습진행 과정의 개별화, 지식, 임상경험, 역할과 책임의 통합, 탐구와 자기 향상의 습관 개발, 명확한 의학 전문성 확립 등을 수월성을 이루기 위한 구축 방안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서의 우선순위와 중요정도를 구분하여 최소한의 지식이지만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을 검토해 주는 작업을 시행해왔다. 학습자는 개인의 속도와 시간의 유연성을 가미한 역량중심(성과중심)교육과정을 구현해 줌으로써 교육과정의 유연한 설계와 수준에 맞는 평가를 통해 다양한 수준에 맞게 개별화된 교육이 가능하고 필요한 내용에는 더 심도있게 지식과 술기교육에 참여, 비임상적 역할 기회 획득 등을 통해 의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학습자중심의 교육환경을 만들었다. 이때 수행역량을 수준별로 제시해줌으로써 핵심이 무엇이고 무엇을 반드시 성취 해야하는 것에 대한 지표를 보여주는 것을 기반으로 학습자 개인의 '수월성'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는 교육의 흐름으로 상황을 바꾸었다. 결국 이러한 교육환경과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의과대학에서와 전공의 수련경험 속에서 학습자들은 '수월성'을 추구하고, 달성하는 학습의 습관을 기르는 교육환경을 제시해 준 셈이었다.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은 습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최신의학과 혁신적 술기를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효과적 치료에 도움이 되고, 타 의료인과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해 나가고, 학습의 나선형 구조를 통해 재학습 혹은 반복학습을 통해 모르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알게 되고, 아는 것도 재반복을 통해 익힘으로써 누적된 학습의 경험은 결국 앎의 깊이와 정도를 더해가는 교육의 개념이었다. 자신이 사전에 배운 사전 지식과 술기의 통합, 새로운 것과의 조합,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간극을 좁혀감으로써 모르는 것을 채워가고 물어감으로써 학습의 망을 연결해 가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게 된다. 이는 결국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을 초인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메타인지'를 활용하고 자아성찰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지식과 술기, 태도에서의 구멍을 채워가는 학습으로 결국 '수월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학습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방향으로 가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반복 학습, 누적 학습의 힘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주도적인 학습과 지속적 학습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이를 성찰할 수 있게끔 지식과 술기의 경험이 전제되어야 추가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외에도 학습자와 소통되는 멘토, 동료학습, 교수자의 역할이 필요하며, 의미 있고 다양한 평가도구를 통해 평가를 통해 자신의 상황과 수준과 평가 기준 간의 간극을 알아가는 도구가 필요해야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고, 보충 해나가야 할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어 평생학습의 힘을 키워갈 수 있다. 결국 수월성은 의학 전문직업성에서의 요인 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속성을 추구해 나가는 기반에 있는 일련의 활동과 습관들이 결국 학습자의 수월성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자 결과가 되며 이는 결국 에너지로 발현되는 것이다.

수월성은 의학전문직업성의 속성이자 속성 그 자체이다. 결국 의사가 되기 위한 전문적 지식과 술기 그리고 이를 위한 일련의 힘을 키우고 근육을 단련시키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 모두가 수월성이라 할 수 있다. 의학교육의 근본은 결국 수월성에서 출발하고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학습성과 개발, 학습성과의 표준화, 학습자중심의 교육, 흥미와 능력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 등을 통해 의사로서의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체성을 형성해 줌으로써 수월성을 추가하는 교육이자 수련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교수자들의 책무는 무엇이 의학전문직업성, 의사 되는 것에 있어 우수성, 탁월성, 수월성을 요구하는 바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탐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교육환경에 접목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제공, 평가, 코칭, 피드백 등의 교수학습과정 일체에서 드러나는 교육이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수월성을 추구하는 의학교육의 변화를 위해 총 네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학습성과를 먼저 수립하고 개별화 교육원리에 따라 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는 정해진 학습성과에 개별화 교육원리에 맞는 학습자의 개성, 가치, 흥미 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데 유연성과 자율성을 발휘하게 해줌으로써 해야 하는 핵심성과 및 역량을 완성한 후에는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른 학습의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경험 속에서 조기 임상 노출을 통해 지식의 통합, 역할과 책임감을 이수할 수 있는 협업문화, 지식과 술기와 증례의 통합적 성찰 등의 훈련을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강조하는 점이다. 셋째는 학습자에게 문제해결능력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 자신의 학습 문제를 검토하고, 성찰하고, 이에 맞는 지식을 쌓아가면서 탐구와 향상의 습관이 커지게끔 도와줘야 한다. 끝으로는 전문가적 정체성 형성을 위해 의학 전문직업성에 대한 윤리, 피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백, 성찰, 교수 관계 형성, 의사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탐색, 수월성과 지속적 자기 개발을 위해 개인의 평생교육관점에서의 학습 탐색의 시간을 통해 학습과 임상의 현장이 어우러지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강조한다. 수월성을 추구하는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통해 환자치료에서의 수월성을 위함이다.

이를 기반으로 <표 2>와 같이 의학교육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수월성을 추구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네 가지 원인인 '표준화 및 개별화, 통합, 혁신 및 향상, 전문가적 정체감'을 기반으로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에 맞춰 11가지 체계적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76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제 의학교육 현장에서의 2010년대의 자료이다. 다만, 아래의 틀을 통해 의사 양성 단계에 따라 각 단계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원칙과 관련 요인을 제안함으로써 각 교육 및 수련단계에서 학습하고 경험해야 하는 본질이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에 입각하여 준비되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국내 의학교육 현장에 적용할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다(Cooke, Irby, & O'Brien, 2010/2014).

다음의 <표 2>에 의하면 의학교육 및 수련 과정 단계에 따라 네 가지 요인(표준화 및 개별화, 통합, 혁신 및 향상, 전문가적 정체감)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화 및 개별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의과대학 저학년 단계에서의 지적 환경의 폭을 넓혀주고 깊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통해 핵심과 깊이에 대한 인문사회의학 및 예술과 의과학, 등으로 옴니버스 프로그램 접근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활용, 임상실습단계에서 종단적 임상실습 참여 등을 통해 임상현장의 의사역할에 보다 직접적인 개입을 해봄으로써 환자에 대한 이해를 보다 직접적으로 하는 경험 지원과 개인의 개별학습 계획을 검토함으로써 임상적 구성요소에 대한 능력 향상 기회 제공, 전문가적 책무를 발전시키기, 전공의 초기에는 주어진 임상 회진을 통해 학습의 기회로 삼고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할 것들 및 개발해야 할 점에 대해 인식 후 문제점의 재정립'을 통해 공통적으로 반드시 각 단계에서 수립해 둔 공통역량에 대해 성과 달성 및 자신의 학습의 깊이를 위한 배움으로써의 개별화과정 원리를 통해 이뤄갈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는 '의과대학 저학년 단계에서는 임상적내용(현장케이스)과 같이 병행하여 기초와 임상의학의 누적 학습 후, 이를 평가할 수 있게 통합단계의 임상 사례에 대한 지식의 활용 평가 수행, 고학년인 임상실습 단계에서는 상황과 관점의 통합을 실천하기 위해 개념지도 연습, 포트폴리오 훈련 등을 통에서 보다 다양한 시각과 요소로 환자를 둘러싼 임상구조와 임상현장에서 인력체제 등을 거시적으로 배우는 기회 제공, 전공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의사의 영향력에 대한 통합'의 노력이 더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표 2> 11가지 체계적 접근법

재원		표준화 및 개별화	통합	혁신 및 향상	전문가적 정체감
의과대학 저학년	1. 핵심과 깊이	O			
	2. 임상적인 누적학습		O		
	3. 호기심과 전공분야 구축			O	
	4. 도덕적 공동체에 가입하기				O
의과대학 고학년	5. 전문가적 책무를 발전시키기	O		O	
	6. 상황과 관점		O		
전공의 초기과정	7. 문제점 재정립	O			
	8. 불확실성, 자신감과 책임감				O
전공의 상급과정	9. 의사의 영향력		O		
	10. 일상의 혁심 및 개선			O	
	11. 수월성에 대한 책임감				O

출처 : Cooke, M., Irby, D. M., O'Brien, B. C. (2014). 의학교육의 개혁과 미래 (신익균, 정욱진, 박이병, 박귀화, 유찬종, 박정율, 임기영, 임준 공역), 서울: 학지사, (2010)

'혁신 및 향상'의 관점에서는 '의과대학 저학년에서는 의사의 다양한 진로 경로를 보여주고 역할 군의 공개를 해 줌으로써 대학원에서의 연구실 오픈 등의 계기는 호기심과 전공 분야를 구축하도록 도움을 제공, 문제해결학습 등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경험을 하게끔 제공함으로써 일상적 전문성과 적응적 전문성을 동시에 개발하도록 지원, 전문가적 책무를 발전시키는 임상실습 단계에서의 노력,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점차 일상의 혁신 및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적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초기에는 가운 의식,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토론, 역할 모델, 의사로서의 이상향 검토 등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미래 의사가 되기 위한 의사 사회의 도덕적 공동체 가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전공의 단계에서의 죽음과 팀 안의 갈등 등'의 복잡한 의료환경에서의 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신감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 환자 문제에 개입하게 되는 시기 모니터링,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교수 혹은 멘토와의 관계 등을 통해 현장의 긴박한 상황과 의료문제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과 자신감 획득 경험 지원, 책임감 함양하는 초기 단계의 수련 경험, 점차 전공의 수련 연차의 상급 단계로 갈수록 수월성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는 것'으로 총 네 가지 영역에 대해 체계적으로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전공의 수련단계에서 누적된 경험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과대학 저학년 단계에서는 의사로서 평생학습을 하는 데 있어 기본 힘을 키워주는 시기이다. 임상경험이 기존의 지식과 연결하고 필요시 심화학습으로 깊이 들어가는 식으로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의사의 사회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소개와 의사 직무에 대한 열망, 의학 학문을 다가서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이다(Cooke, Irby, & O'Brien, 2010/2014).

체계적 접근을 통해 이루려는 최종의 목적은 '수월성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의료인 양성이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및 학부 교육 전반의 의학교육을 제공하는 바라고 볼 수 있다. 이 의미는 '수월성, 우수성'을 지닌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전공의, 의과대학생의 출발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바이다. 의학전문직업성에서의 수월성의 원리를 실천하는 이유는 환자의 치료 성과의 향상을 위해 지식, 술기, 태도를 경험하고 이를 통합하여 적용해서 그러한 성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위해 관련된 행동에 대한 경험과 훈련을 전공의와 의과대학 교육 전반에서 갖는 '학습경험'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성찰하는 습관, 문제의 재정립과정, 전문적 임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술기, 태도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배우려는 힘, 동료 및 선배 의사들로부터의 롤 모델링의 중요성 및 관찰 기회 등의 코칭의 기회를 통해 상호 배워가고, 피드백을 주면서 의료인 간의 성장도 일차적으로 이뤄지지만 이러한 경험은 타 의료인 간의 소통 경험, 환자와의 상호작용의 역량 증가로도 이어지는 셈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최상의 환자 진료를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먼저 특정 의학 영역의 인지적 혹은 비인지적 요소 모두에 대한 지식, 술기, 태도의 결합 된 앎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성찰의 힘, 문제점의 표출,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반추하고 학습하는 힘, 타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배우는 기회, 이를 표출하는 소통의 과정 속에서 의사로서의 수월성을 함양해 나가는 길일 수 있다. 이를 위한 모니터링을 위한 적절하고 다양한 평가도구의 활용을 통해 자가 점검이 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학부 및 전공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수월성 교육을 위한 실천의 예라고 할 수 있다(Cooke, Irby, & O'Brien, 2010/2014).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는 의학전문직업성의 실천에서 중 하나로서의 수월성의 원리와 맥을 같이 하는 비이다. 수월성을 추구하는 의학교육 환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의 주인공인 학습자들의 수월성 추구가 그 근간이 되며, 수월성을 추구하는 의학교육 환경 속에서 학습자들을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그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3. 연구방법

3.1. 근거이론적 방법(Grounded theory)

본 연구는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의 근거이론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을 포함하여 질적연구 내에는 Creswell의 분류에 의하면 크게 내러티브연구, 현상학적연구, 근거이론 연구, 문화기술지, 사례연구로 다섯가지 방법을 대표적으로 제시한다(권경만, 김한솔, 변기용, 2022; 변기용, 2020; Creswell, 2013).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질적연구의 대전제는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나 현상 혹은 대상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거나 전무한 경우, 사전 지식이 있어도 의심이 되거나 낯선 상태에서 다시 탐색·분석·해석하고자 할 때, 현상 이면의 심층적 구조와 과정을 밝히고자 할 때, '우리'가 아닌 '그들'의 의미가 궁금할 때, 현상의 의미를 총체적이고 체험적으로 공감하고자 할 때'의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때 연구자는 1인칭 주관적 시점에서 현상, 사물을 바라보고 특정 경험이나 현상을 맥락에서 이해하여 해석하게 된다. 사건,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묘사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여 해석의 깊이를 더해 수정 과정을 거쳐 해당 사항이나 이슈에 대한 재해석하는 과정을 이끌어 내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조용환, 1999). 질적연구의 가장 큰 뿌리에는 사람이나 사물, 현상에 수량화가 가해지기 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점이다. 이에 기존의 이론, 가설 등을 배제한 채 가설과 이론을 탐색해가는 '발견의 맥락'에서 출발한다는 구성주의적 입장으로의 접근이 양적연구의 기본 방향과 상이한 바이다(Stern, 2016).

근거이론적 방법은 복잡한 현상, 사건, 상황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고안된 연구방법으로 현장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이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며, '이론적 표본추출'과 '포화 실체이론의 생성'이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접근한다. 이 방법론은 상징적 상호주의 개념에 근거하여 특정 현상이나 경험에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은 해당 경험에 대해 사회 심리적 과정의 접근이 어떠한지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데이터의 코딩작업을 통해 추상적이고 도식화 과정을 통해 이룬 지속적인 비교 분석 과정을 통해 이론을 구축하는 결과물을 내는 데 적합한 접근이며 특히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현상을 인과적이고 맥락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현상의 과정에 대한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주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비교적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유용한 접근이다(김형숙, 2007; 변기용, 2020; 염유식, 김여진, 2011). 이는 Glaser & Strauss가 1965년에 고안한 방법으로 죽음 전단계에 놓인 다양한 환자와 가족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수용 정도를 병원 내에서 어떠한 방식의 소통과 행위로 임종 상태를 전달하며, 임종 상황을 환자 본인에게 알리거나 감추는 등의 과정을 관찰하고 면담하였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환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정도, 의료진의 소통 방법 등을 이해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연구를 기반으로 근거이론을 도출함으로써 그들이 임종 전단계에 놓인 환자와 의료진 간의 '죽음'을 전달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근거이론의 발견'이라는 저서를 통해 해당 이론을 세상에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Glaser & Strauss, 1967).

근거이론은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영향을 강하게 받음으로써 탐색하고자 하는 현상·사건·상황을 연구하는데 귀납적으로 접근을 시도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주제에 대해 기존의 이론이 전무하거나, 특정 현상이나 행동에 대한 설명과 예측이 알려지 않았을 때 이를 검토하고자 접근하는 방식이다(김소선, 2003; 신경림, 2001). 관련 현상에 대한 자료를 면담, 참여관찰, 등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동시에 자료를 분석하면서 검토해 나가게 된다.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자료가 결국 이론을 만들어가는 기초자료가 되게 된다. 특정 현상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수집을 통해 분석해 나감으로써 개념을 도출하고, 개념 간의 관계를 정리하여 범주를 구축한 뒤, 범주 간 관계를 논리적 흐름에 의해, 이론으로의 연결 과정을 귀납적으로 도출해 나가는 것이 질적연구 중의 근거이론 방식의 적용이다(Strauss & Corbin 1990/2008). 이때 코딩은 첫 번째 면담에서부터 시작되면서부터 이러한 자료들의 모음과 분류작업 자체가 '이론적 표집'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이며, 이러한 과정이 더 이상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 없을 시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연구자가 판단하게 된다(변기용, 2020). 결국 새로운 개념의 수집과 개념과 개념의 통합, 혹은 상위개념으로의 연결, 범주-범주, 개념-범주 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수집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자료의 수집, 분석, 성찰, 자료 수집'을 반복하게 된다. 이 과정의 지속적 반복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간결하게 정리하면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과정을 됨을 의미한다(김수구, 2009).

근거이론을 처음 소개한 당시의 Glaser & Strauss의 원 방식에서는 차별되는 과정이 근거이론의 발전 속에서 일어났다. 초기에 함께 연구했던 Glaser와 Straus는 각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 이론에 대한 방향이 바뀌면서 두 근간의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다. 국내에 주로 소개된 근거이론은 Strauss & Corbin의 '약한 구성주의' 관점을 지닌 근거이론이 주를 이룬다(김은정, 2017; Strauss & Corbin 1990/2008). 이들은 사제관계로서 초기에 Strauss와 같이 개념을 알렸던 객관주의적 근거이론을 주장하는 Glaser의 어떠한 틀도 없이 선입견을 배제한 백지상태에서의 접근을 강화하는 개념과는 반대 입장을 지닌다. 다만 Strauss & Corbin의 경우 구조적 틀에 의거하여 자료를 해석하고자 하고 이를 이론으로 구축하는데 더 방점을 둔다(김용관, 2023; 김인숙, 2011). 해석학적 연구방식에 의거하여 두텁게 기술하는 측면의 문화기술지, 내러티브연구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이러한 구조 틀에 넣어 자료를 기반으로 이론을 구축하거나 수정해 간다는 점, 개념과 구조의 인과적 구조를 찾는다는 점에서 해석학적 접근과는 상이한 바이다. 해석학적 접근의 예로는 내러티브연구, 현상학적 연구,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등이 있으며 이는 이론개발보다는 해석, 구성주의적 접근으로 두터운 기술에 근간을 두며. 이와 반대로 이론개발을 목적으로 실용주의적 연구와 차이를 둔다(변기용, 2020). 근거이론적 방법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론'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명시적 목적을 드러냄으로써 질적 연구 내에서는 비교적 양적연구와의 거리를 좁혀준다고 볼 수 있다.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의 일종의 '이론'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권향원, 2016). 구조 속에서 범주 간의 인과관계를 구축해 보려는 접근은 실증주의 전통을 활용하는 접근이며 그 맥락은 질적연구의 본질인 해석학적 패러다임 속에서 구축한다는 점이 근거이론에서도 실용주의적 특징을 가진 Strauss & Corbin의 접근방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0/2008). 본 연구는 Strauss & Corbin이 소개한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근거이론은 개방 코딩 단계에서 텍스트화된 것을 읽고 분석하여 의미 파악, 개념분류, 비교 및 범주화 과정을 한다. 근거자료에서부터 개념추출까지를 개방코딩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범주화 작업까지 하여 범주를 확정하는 단계까지 한다. 다음의 축(Axis)코딩 단계에서는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 분석, 중심현상을 짚어보고자 노력한다. 이때 중심현상을 가져오는 사회현상에 대한 맥락이 어떤지, 중심현상의 강도를 조정하는 중재적 조건이 어떤지를 설명한다. 또한 작용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현상을 다루는 전략이자 쟁점을 다루는 전술이 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후 그려진 범주 간의 관계를 조직화하여 이론의 틀을 마련한다.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핵심범주를 확정하여 보다 정교화 과정을 통해 이야기를 구성하여 이론의 유형을 완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세 단계의 코딩의 과정을 거쳐 이뤄지며, 특히 마지막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이론적 표본추출을 통해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기도 한다(김형숙, 2007).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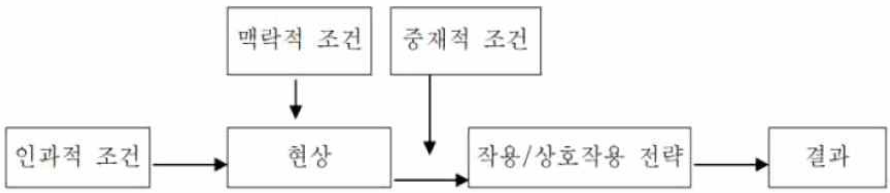
근거이론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현장에서 모은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 수집 후 코딩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이 드러내는 현상, 문제를 검토하고자 시도한다. 개방코딩에서는 전체 면담자료를 연구자는 여러 번 읽은 후 다음에 특정 내용의 문구, 줄, 문단 등을 기반으로 의미 있거나, 흥미 있는 부분에 줄을 긋고, 이에 대해 라벨링을 한다(개념의 명명화). 이는 원 면담자료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1차 자료로 분류한 경우이며, 해당 내용에 맞는 라벨링(딱지, 명명화)을 붙이는 식이다. 이 과정을 코딩이라고 한다. 이러한 라벨링 된 개념들이 쌓이게 되면 유사한 내용, 속성에 따라 추상화된 상위개념(concept)을 생성하고, 이러한 개념들을 유사한 개념끼리 유목화하여 이에 대한 하위범주를 구성하고, 그 위에 상위범주를 만드는 식으로 '범주화 과정(categorizing)'을 수행한다. 그리고 범주는 속성과 차원으로 구분하여 범주를 정의하거나 특징하는 것을 속성이라고 기재하며, 이는 범주를 이루는 하위 개념들의 의미를 엮은 것이다. 이러한 속성을 연속성 차원에서 어디에 위치시키는지를 '차원'이라고 표현하여 범주과 개념 간의 관계를 표현하게 된다(변기용, 2020; 염유식, 김여진, 2011).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연구자가 확신이 들 때까지 반복적인 분석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자료를 통해 개념 간의 비교를 통해 범주 구성을 하는 것을 반복적 비교라고 하며, 연구자가 확신이 들 때까지 한다는 점에서 반복적 비교를 통해 더 이상 해당 범주에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 추가적인 자료수집이 필요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이론적 포화상태'라고 하며, 이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중지 작업을 수행한다(변기용, 2020; Strauss & Corbin, 1990/2008). 최종적으로 범주가 생성된 뒤에 범주를 분류하고 이를 관계를 그림으로써 핵심/중심범주를 선택하여 '핵심범주'라 칭하고 이와 다른 범주들 간의 관계를 '맥락, 인과적요인, 중재, 상호작용, 결과' 등의 요인으로 분석하여 상호관련성을 도식화 함으로써 이론을 구축해 나간다. 이 과정을 Srrauss & Corbin의 방식에서의 축코딩 패러다임 구축 과정을 의미한다.

근거이론은 연구자가 수행한 참여관찰, 면담, 현장 노트 등의 자료원을 가지고 원자료에서부터 내용을 검토하여 주요 내용별로 라벨링을 한 뒤에 이러한 관련 내용을 상위개념으로 묶어가고, 묶어가는 과정 속에서 범주를 구성하고, 범주를 이루는 속성과 차원을 기준으로 하위범주와 연결하여 그 설명력을 높이게 된다(염유식, 김여진, 2011). 이를 위에서 언급한 개방코딩을 통한 축코딩 과정이라고 한다. 범주를 구성한 후에는 범주 간의 관계를 그리면서 수평 혹은 수직 관계를 통해 범주 간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범주 안에서의 연구자료 간 소통이 어떻게 되는지의 관계를 검토하는 도식화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축코딩 과정을 통해 패러다임 모형을 그릴 준비를 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는 단계이다(김은정, 2017; Moghaddam, 2006, Strauss & Corbin, 1990/2008). 범주를 세우고 내용별로 정리하는 것을 개방코딩 단계에서 축코딩 단계의 시점이라고 볼 때, 축코딩을 통해 구축된 범주 간의 관계를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의 틀에 넣어 범주 간의 관계를 해석하게 된다. 이렇게 틀을 통해 범주 속의 내용들을 이해함으로써 타 질적연구 자료의 해석보다 도식화된 구조를 통해 명료한 이해와 구조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사회과학적 근거를 갖고 설득력있는 해석이 되는데 이바지하는 근간을 이루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모형 내로 범주 간 관계 분석을 하면서 관계를 해석하는 과정 자체에서 여러 조건하에서 작용/상호작용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별도의 단계는 아니지만 이 내부 흐름 속에서 과정 분석이 이루어진다(염유식, 김여진, 2011). 다만, 근거이론방법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모든 방식이 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딩의 용어를 쓰지 않기도 하며, 이와 유사한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것에 핵심이 있다. 또한 패러다임 모형에 국내의 연구들은 틀을 맞추려고 하는 점이 있으나, 이 틀을 안 맞춘다고 해서 근거이론의 과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통상 사용하는 근거이론에서의 축코딩 패러다임 과정을 통해 범주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연구자료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 속에서 드러난 관계해석의 의미는 보고자 하는 현상 혹은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할 수 있고, 인간의 행동이 현 상황이나 현상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상호작용주의 관점'에서 그 복잡성을 해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여기에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언어사용을 기반으로 사회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부여된 의미, 이를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현상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한 바이다. 근거이론 또한 사회학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출발한 방법으로써 실제적 자료에 근거하여 행위, 상호작용, 과정 등 관계를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론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곽영순, 2009; 조용환, 1999). 즉, 이론은 자료 자체에서 바로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구자와 참여자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써 그 결과가 이론으로 도출되거나 수정되는 것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양적연구에서의 가설에 대한 검증 방식과 달리 귀납적 접근방식으로, 연구자가 구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에 있는 내용들을 유목화 해나가면서 자료 간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보다 연구자들에게 단어와 줄 코딩을 통해 코딩을 해가는 과정, 도식을 그려주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틀인 패러다임 모형에 적용하는 과정이 코딩의 결과를 이론적 틀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패러다임 모형 내의 요인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해석을 토대로 이론을 도출해 가기 위한 목적에서의 접근방식이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그림 4> Strauss & Corbin(1990) 패러다임 모형
출처: 김용관. (2023). 근거이론을 활용한 치과병원 원내생 진료센터 진료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그림 4>과 같이 Strauss & Corbin이 소개한 '패러다임 모형'은 크게 총 6가지 요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6개 중 4개가 주요 구성요소로써, 이는 '(중심/핵심)현상, 조건(conditions), 행위/상호작용(전략)(actions/interactions), 결과(consequences)'의 흐름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Creswell, 2002; Strauss & Corbin, 1990/2008). 여기에서 조건을 다시 세분화하여 세 개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조건은 중심현상과 관련된 상황, 쟁점을 만들어내는 일이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지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이다. 이는 자료 안에서 발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먼저 인과적 조건은 특정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 중재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 혹은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며, 맥락적 속성은 특정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특성으로 규정하고 있다(권향원, 2016; 김은정, 2017; 김인숙, 2011; 변기용, 2020).

6개의 요인에서의 상호 관계,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이 틀에 맞게 연구자가 개방코딩 단계에서 도출한 범주들을 배치함으로써 범주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중심 혹은 핵심 현상은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찾는 점이다. 혹은 행위나 상호작용의 반복된 양상을 찾는 것으로 코딩 시 범주가 현상을 대표한다고 보고 있다. 연구자가 찾고자 하는 연구문제이며 이는 직간접적인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중심 현상이 일어나거나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인과적 조건에 배치하며, 맥락적 조건은 환경, 상황, 구조를 그리게 되고, 인과적 조건과 중심현상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영향을 주는 맥락을 의미한다. 또한 이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이 일어나게끔 계기를 일으키는 배경이나 환경적, 조직적 특성이 되기도 한다. 중재적 조건은 상호작용이 현상에 가해지는 것을 가감하는 변수 역할을 하게 되며, 행위/상호작용은 일종의 전술이나 전략을 의미한다. 결국 중심 현상이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다루는 방식을 드러냄으로써 중심현상이 목적한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게 만들어나가는 촉매제라고 볼 수 있다. 결과는 인과적조건에 의한 현상이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의 도출된 바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모형 속에 축코딩 결과를 넣어 해석함으로써 이론을 만들어가는데 범주들로부터 도출된 바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지만, 서두에 언급한 바와같이, 이러한 모형은 하나의 예시일 뿐 근거이론의 모든 결과를 이 틀에 맞출 필요는 없으며, 이 틀에 맞추기 위해 범주들을 6가지 요인에 국한하여 관계를 자아내려고 해석하다가 본래의 범주 간의 의미의 해석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이러한 틀의 장점을 활용하여 도출한 범주 간의 관계를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 해당 현상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에 6가지 요인을 구조화 하여 범주간의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원인과 상호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할수 있다. 이후 선택코딩 과정을 거치는데 마지막 단계로써 기존의 범주들의 통합을 통해 개념코딩과 축코딩 결과를 통해 도출된 개념과 범주들간의 통합을 이룸으로써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핵심문제인 연구문제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범주의 발견이라고 하는데, 이는 범주들의 상위개념을 의미하는 바이다(오인수, 이승연, 김화영, 김혜미, 2016).

3.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국내 의과대학의 의학교육 분야에서 교육 및 수련 경험이 있는 교수자로, 의학교육의 질적 발전과 수월성을 추구하며, 의학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들은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질 향상과 사회적 책무성을 위함이라는 평가인증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동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기반으로 '수월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충족하는 경우를 연구 참여자의 1차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 목적과도 연계되는 우수한 의과대학 학생의 양성과 질 향상, 수월성 추구를 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한 교육과 수련의 연계성을 위해 우수한 학습자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제작업으로써 그러한 수월성과 질에 대한 검증된 교육기관에 속한 구성원을 연구참여자 및 이러한 연구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 설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밝힌다. 동시에 근거이론적 방법의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과 관련하여 연구주제에 적합하고, 연구문제에 답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고려하여 모집단을 구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동의 여부에 의해 연구참여가 진행되었다. 다만, 이러한 의도적 표집을 위해서는 연구자 선정 기준에 근거하여 설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를 검토함으로써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표집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일개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에 국한한 '우수성'에 대한 기관 단위의 속성을 밝히는 것이 아닌 국내 의료상황과 의과대학 맥락에서 통용되는 '의과대학과 의료 현장에서의 우수성'을 규명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보이는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을 탐색해 나가는 작업임으로 일개 기관과 조직에 한정하지 않고 국내 의료 맥락의 시장 속에서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40개 의과대학 소속 교수가 모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의과대학에서 임상실습 전, 임상실습 후, 졸업 후 수련 과정에 따른 우수한 학습자들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교수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세부 선정기준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연구대상자 중에는 해당 대학의 리더십 위치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시각을 보는 역할을 한 경우도 있다. 각 대학의 의학교육 현장과 관련된 교수자들을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20명의 교수자와 질적 면담을 통해 연구 질문을 풀어가고자 하였다. 총 20명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확보 과정은 근거이론 방법론의 '이론적 포화상태'의 의미에 기반하여 진행하였다. 일차적으로 16명의 면담을 통해 자료확보를 하였으나, 연구자의 원자료를 해석한 결과 추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야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원 자료의 반복적 비교분석과 내용 검토를 통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를 근거로 삼는 과정이다. 이에 면담내용의 추가자료 확보를 위해 총 6명의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모집 과정은 1차 면담을 통한 기준에 근거하여 동일한 선정기준을 따랐다. 결과적으로 이론적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20명의 의과대학 교수들의 면담 결과를 근거로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3.2.1.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

- 국내 40개 의과대학 교수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20인을 구두면담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였다(단, 학교별 인원 제한은 고려하지 않는다).
- 최근 5년 이내(2018.12~2023.11) 국내 의학교육 관련 3개 조직(한국의학교육학회, 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협의회(KAMC)) 중 1곳 이상의 임원(위원 활동)으로 아래의 충족 조건을 갖춘 대상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아래의 <항목>의 조건에 관련된 경험을 가진 자(단수, 복수 가능)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항목>

- 국내 의과대학 학생교육 및 전공의 수련 경험 5년 이상인 자
- 국내 의과대학 의학교육 관련 전임 교수(혹은 이에 준하는 겸무 교원(임상교수여도 본인의 시간의 80%이상을 의학교육분야에 할애한 경우)
- 의과대학 학생 및 전공의 지도교수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 의학교육과 관련된 상을 수상받은 자

: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 본 연구의 배경 및 조사 결과의 활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주의 사항을 준수하기로 서면 동의한 경우

3.2.2. 연구참여자 제외 기준

- 연구 진행 중 관찰되는 상황이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연구 참여 중단을 요청한 경우
- 기타 연구담당자가 연구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2.3. 연구참여자 수 및 산출 근거

교수자의 경우 국내 의과대학 및 의학교육 관련 유관 기관이며, 대표기관인 3개 기관의 활동 여부를 유의미하게 보았으며, 이러한 기관에서 활동하는 대상이 결국 의학교육에 대해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우수성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대학별 인원에 국한한 것이 아닌 전체 의과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국내 의학교육 관련 대표기관 3곳 중 1개 이상의 기관에 속해 활동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과대학 내 교육과 수련에 직접 경험을 한 대상을 근거로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1:1 면담인 만큼 방법론의 특성으로 인해 인원수를 무작정 확대하여 면담하지 못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지만 근거이론적 방법에서의 이론적 포화상태에 근거하여 최대한 면담 대상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위의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를 한 뒤 추려지는 연구대상자에 대해 국립/사립 여부, 수도권과 지방 여부 등의 기준을 정리하여 균형있는 인터뷰 자료원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하였으며, 더 이상의 면담 자료가 없이도 수집된 자료로부터 충분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 '이론적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연구참여자의 추가적인 추출을 통해 면담을 지속하였다. 이에 일차적으로 14명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연구자료의 반복적 비교 분석 결과 추가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동일한 조건으로 연구참여자를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 총 6인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20명으로 면담을 기반으로 자료확보를 마무리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균형 있고 다양한 관점의 교수진으로부터 우수함에 대한 내용을 수집하여 국내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우수함의 특성과 정의를 밝혀 교육 관련 정책 및 과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3.2.4. 연구참여자 정보

<표 3>와 같이 총 20명의 국내 의학교육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사 출신 및 비의사 출신의 의과대학 교수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한국의 의학교육현장에서 총 40개의 의과대학에 내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연구를 지도하며, 생활에 대한 면담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을 검토하여 사전에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여부를 이메일과 전화로 일대일 연락을 통해 동의의사를 검토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의학교육자들은 3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며 모두 전임 교수로 각 의과대학의 의학교육업무에 관여하거나 학생교육과 면담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 임상 및 연구 분야에서 본인의 기존 전공과 겸하여 의학교육 분야의 일을 맡는 경우와 의학교육 분야 일만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참여자가 혼합되어 있었다. 또한 평균적으로는 25년 전후의 의학교육현장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교육 및 수련에 20년 이하의 경력이라고 할지라도 의학교육분야에서의 실무경험 혹은 의과대학 졸업자로서 의학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20년 이상 이력이 있는 경우였다.

아래의 <표 3>는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배경 및 간략한 정보에 대한 개요이다. 의과대학의 구분은 국립, 사립 여부 및 서울/경기, 지방 소재지를 기반으로 소속기관을 표시하였으며, 연구참여자 성명은 익명(코드화) 처리, 성별, 교육 및 수련 경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력, 온·오프라인 면담 유형, 의사·비의사 여부로 구분하여 개요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총 20명의 연구참여자의 경우 남성 11명, 여성 9명 참여하였으며, 사립 13개교, 국립 7개교, 서울/경기 8개교, 지방 12개교, 의사 출신(임상: 10명/기초: 6명) 16명, 비의사 4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3> 연구참여자 개요

순번	성별	대학 구분	소재지	소속 기관	성함 (코드화)	교육·수련경력	온라인·오프라인	의사 여부
1	남	사립	서울	H	PH	35년	온라인	O
2	여	사립	부산	I	BY	25년	오프라인	O
3	남	국립	대전	C	JS	25년	온라인	O
4	남	국립	서울	S	YH	25년	온라인	O
5	여	사립	서울	U	CS	20년	온라인	X
6	남	국립	강원	K	KS	20년	온라인	O
7	남	사립	서울	H	KD	6년	온라인	O
8	남	사립	강원	W	YB	30년	오프라인	O
9	여	사립	대구	Y	LK	25년	온라인	O
10	남	사립	경기	C	LD	20년	온라인	O
11	여	사립	서울	K	LY	24년	온라인	O
12	여	사립	광주	C	CH	15년	온라인	X
13	남	사립	경북	D	HJ	27년	온라인	O
14	남	국립	서울	S	DY	20년	온라인	O
15	여	사립	부산	K	KM	30년	온라인	O
16	여	국립	경남	K	SJ	25년	온라인	X
17	남	사립	경기	S	JK	25년	온라인	O
18	남	사립	대전	E	YS	30년	온라인	O
19	여	국립	경남	K	JY	20년	온라인	X
20	여	국립	광주	J	JE	25년	온라인	O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3.3. 자료 수집 과정

본 연구는 국내 의과대학 교수자 20명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것과 없는 것, 추가자료의 확보여부 등은 연구자가 가진 연구주제와 관련한 배경, 경험 등에 기반한 연구자의 능력에 근거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이론적 민감성이라는 근거이론방법에서의 용어의 의미에 근거해 볼 때, 자료의 수집된 애놩을 지속적으로 연구자가 검토하고 면담 자료 간의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의미부여와, 해석, 분류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다. 연구 자료 수집 과정에서의 연구자의 민감성과 통합성은 본 연구주제에 대한 흥미와 연구참여자들의 맥락에 대한 이해, 연구문제와 관련한 연구자의 유관 경험 등에 좌우하여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의미를 도출해가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주관적 관점에 근거하여 이 판단을 내리게 됨으로써 단순히 본 내용에서 범주의 구성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거나, 단순히 범주의 수량화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그 근거는 범주를 구성할 때 범주와 하위범주간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통합되는 지점까지 개념적으로 발전했거나 범주 간의 설명이 잘 되는 등의 질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야함을 강조하였다(변기용,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면담 자료를 기반으로 총 10개의 범주와 50개의 하위범주 간 관계를 분석해보았을 때 속성과 차원을 기반으로 10개의 범주가 모든 하위범주들과의 연결 및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동시에 연구문제를 파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중단해도 되겠다는 질적 판단을 수행하였다. 범주와 하위범주의 속성과 차원에 의한 자료의 분석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면담을 통해 우수한 학습자들이 보이는 의과대학 및 졸업 후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로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들의 우수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의사 양성 단계에 따라 교육과정에 따라 임상실습 전, 임상실습 후, 졸업 후 수련 과정 등의 다양한 입장에서의 의과대학에서의 입장 혹은 위치와 역할에 따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다만, 임상실습 전, 임상실습 후, 졸업 후 수련 과정 속에서 의과대학 내부자의 입장이나 역할에 따라 바라보되, 일개 대상자의 경우 기초의학교육과정단계, 임상의학 실습단계, 수련단계 모두에 속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있고 분절적인 경험에만 국한된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들을 각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것이 아닌 의학교육의 졸업 전후 교육의 연계성 상에서의 관점을 보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바라보고 경험한 의과대학 및 졸업 후 의료 현장에서의 우수성이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을 지닌 학습자들을 우수한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를 검토 해보는데 집중 하였다. 다만, 국내 수련환경 특성상 전공의 교육의 경우 각 전공(기초, 임상)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과 별 특성과 재량에 따른 과별 편차가 크게 작용한다. 이에 특정 과에 근거한 전공의 대상의 우수성 규명이 아닌 의사양성과정에서 볼 때 졸업 후 의료 현장에 나가는 수련의(인턴 혹은 전공의로서 공통적인 점)에 근거하여 수련현장에서의 드러나는 우수한 수련의들이 보이는 태도, 행동, 양상 속에서 과의 특수성을 배제한 보편적인 특징을 면담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연구대상자들을 기반으로 면담 자료자료 수집은 2024년 2월~ 4월까지 실시하였다. 일차적으로 사전에 선정된 연구대상자들에게 보낼 연구안내문 및 연구참여동의서, 연구목적 개요, 면담 내용 예시 등의 자료는 세브란스병원의 IRB 심의를 거쳐 통과된 자료로써 면담 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녹음 및 녹화 동의는 면담 직전에 수행함으로써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허락을 구한 뒤에 면담 시작 시 녹음 및 녹화를 진행하였고 연구참여자가 면담 녹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시에는 면담 후 전달할 기로 하였으며, 면담 외 용도로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상호 약속하였다.

사전에 면담 관련 자료들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연구참여자의 개인 일정과 면담 시간 등을 조율하여 일대일 면담일자를 계획 하여 ZOOM을 통한 온라인 면담 혹은 직접만남을 통한 오프라인 면담을 개인 참여자의 선호와 상황에 맞게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평균 1인당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를 면담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1명의 경우 의과대학에서의 학습자의 한정하여 면담을 1차적으로 마무리 한 경우여서, 임상현장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에 대한 추가 설명을 위해 2차 면담을 통해 추가 내용적 보완을 수행하였다. 면담 내용 및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안 되거나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메일 혹은 전화 소통을 통해 의견을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 중에는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 배경에 대한 설명을 추가 보완해 줌으로써 관련한 연구자의 질문도 추가적으로 더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연구참여자가 흔쾌히 시간을 허락할 시에는 추가 면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보다 질 높은 면담의 답변 내용을 수집할 수 있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BY 참여자, HJ 참여자, YB 참여자, PH 참여자였으며 이들의 경우 2시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 주었다. 이들은 면담내용의 질에 있어 초기 개념을 잡고 범주들을 구성해 가는데 주 자료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근간이 되는 사례이기도 하였다.

면담 장소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사전 희망에 따라 편의에 의해 혹은 개인 상황에 맞춰 조정하였는데, 온라인을 희망할 경우, ‘ZOOM’을 통해 화상회의 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1:1 참여만 허락하였으며, 모든 면담 내용은 사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동의를 구한 후 녹음 및 녹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오프라인 면담의 경우 연구참여자가 위치한 곳 혹은 상호 조율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조용한 회의실, 카페 등을 통해 진행하였다. 외부 장소에서도 연구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휴대폰 및 녹음기의 녹음진행과 동시에 사진 촬영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직접 만남의 현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면접 질문은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면담의 답변에 맞게 설문 혹은 사전에 가설을 세운 것에 맞춰 특정 이론·틀과 비교하기 위한 면담이 아니며, 질적연구의 성향 그 자체로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의미와 주제를 얻고자 함이 목적이었으므로, 본래 목적에 맞게 반구조화된 면담지는 사전에 전달은 하였으나, 면담지에 맞게 일대일 답변이 아닌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참여자가 생각하는 답변을 확산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임을 사전에 안내하였다. 실제 면담 시에도 반구조화된 틀에 의한 질문 및 관련 내용을 고민하여 자유롭게 답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의 재량권과 융통성을 허락하였으며, 연구참여자가 경험하고 검토한 '우수한 학습자'에 대한 경험을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관련한 답변에 관하여 면담 상황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고, 답변과 연관된 내용에 이어지게끔 면담을 진행하였다. 다만, 사전에 구축한 면담질문지는 '우수한 학습자, 우수한 의사 및 전공의' 등 관련된 연구를 기반으로 그러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재확인 및 상기할 수 있게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에 면담지의 구성은 아래의 <표 4>와 같이 '라포 형성, 일반학생과 다른 우수한 학생이 가지는 차별점, 학습전략, 의사동기 등에 대한 특이점, 개인 일상 영역에서의 특이점, 교수들이 바라보는 의사의 정의와 역할, 우수한 학생들이 의사가 되는 데 겪는 과정 및 극복 방안, 비교과 활동 및 외부 활동 등에서 특이점 등'을 주제로 잡고 관련 예상 질문을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이러한 질문 구성의 틀은 사전에 전달 후 면담 시작과 동시에 연구목적과 개요, 연구방향, 묻고자 하는 점을 다시금 구체화하여 설명하였으며, 면담지에 따른 답변 구축이 연구과정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해당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바를 구성하고 구축해 가는 것 자체에서 새로운 의미와 관계를 그려볼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아래의 질문지의 내용 및 우수한 학생을 그려볼 수 있는 요인들의 배경으로만 참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3.3.1. 질문지 도구 개발

'우수성'의 조작적 정의를 위해 도출할 수 있는 요인과 관련하여 해당 주제의 선행연구자료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고찰, 우수성의 정의'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우수성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해당 요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한 예시 질문이나 사례를 기재하여 반구조화된 면접 문항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국내외 의과대학 학습자의 특성을 규명하는 선행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의과대학 학습자들의 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반적 특징 및 타 단과대의 학생들과 구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내에서 우수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연구 수행을 위한 면담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우수한 학습자들과 일반학습자의 차별성, 그들만의 학습 전략(단순 학업기술이 아님), 교외 활동 참여, 의사 되는 과정으로서의 성숙한 모습, 인간으로서의 성장하는 특징 등을 주요 주제로 구성하여 하위 질문을 예시로(환자 진료 능력, 교육자적 자질, 개인적 자질로 의학지식을 겸비한 실력자와 같은 복합 요소, 자기확신 및 자아존중감, 솔직함, 성실함, 실패 극복 능력, 팀워크 요인 등) 기술하였다.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자극하고 새로운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유사 질문들도 추가적으로 기재해 두었다(Gunderman, 2007/2009).

질문지 구성의 방향은 의과대학 교육과 수련을 위해서 학습자의 잠재력과 재능을 개발해 주는 방향으로 우수성의 탐색에 대한 면담내용이 자유롭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기존에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의과대학 학습자들에 대한 선입견, 인지적 요소에 한정된 평가 결과 등에만 제한하는 식의 우수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양하는 목적하에 면담 질문을 구축하였다.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 탐색을 위해 연구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요소를 기반으로 첫 번째 항목의 면담 질문의 테마를 구성하였다. 이는 우수한 전공의의 특성을 기반으로 정리한 선행연구 자료를 토대로 예시를 기재해 두었다. 우수한 전공의들은 '엄청난 지식의 양을 축적, 최상의 학습 기회를 찾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자, 지식을 함양할 때도 단순히 알고자 함을 넘어서서 왜 알려고 하는지 어떤 지식이 우선순위가 있는지에 대한 변별능력이 있고 집중할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점'이 주된 특징인 것을 기반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의과대학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여 예시 질문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과제 수행 능력에 뛰어난 역량을 보이고, 단순히 기술로서의 술기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 대인관계능력 등이 결합되어 일을 잘 수행하는 결과, 지적 호기심과 통찰력의 여부, 배우려고 하는 학습에 대한 열정 등이 있는지를 통해 자신이 경험하고 만난 학습자를 떠올릴 수 있도록 라포를 형성하는 질문들을 추가하였다. 학습의 태도 관련해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는지, 학습에 대한 열망과 내용을 깊이 이해하려는 정도, 실수에 대응하는 태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인지적, 비인지적 요소를 가미하여 구성하였다. 학업이나 과제 등을 즐기는 능력, 성실함, 자아 지각 능력,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 등의 기본적인 힘이 있는지 등을 질문에 추가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익숙하고 친밀한 요소들에 대한 편견 배제, 사회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학습자의 모습, 성장의 마인드로 전환, 성과중심 교육과정과의 우수성의 관계, 우수성에 대한 코드의 일부로 '향상 및 발전'의 개념 포함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여 구성하였다.

임상 현장 및 실습 관련 영역을 검토할 시에는 '환자를 위한 의사의 질 향상 및 개선 이슈, 의과대학 교수학습방법과 우수성의 관계, 효과성, 격려 및 용기, 질문에 대한 반응, 학문적·술기적 향상 요인, 이해를 위한 전략, 새로운 과제나 과업에 대한 반응, 다자간의 관계 및 협력 여부, 지지환경, 심리적 상태, 비평·비판적 사고 능력, 노력 여부, 즐기는 정도, 참여 정도, 구성원에 대한 존중 태도, 업무처리 및 학업 처리 과정, 팀워크, 자기에 대한 탐색 및 객관화, 의사 결정 방안, 책임 여부, 지식과 술기 및 태도의 통합능력, 인지조절 능력, 설명 능력, 자료의 탐색, 절차적 지식의 활용, 훈련 및 수련 수준, 딥러닝 여부, 임상 추론 및 증례 토의 여부, 윤리적 성과, 스트레스 관리 능력, 동료학습 및 평가 등'을 기반으로 항목을 구성하여 질문지를 개발하였으며,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Gray, Wheat, Christensen, & Craft, 2019; Gunderman, 2007/2009; Huete, et al., 2016).

<표 4> 연구 면담지 및 질문 예시

구분	질문
라포형성	1)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함에 대한 고민해 보신 경험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과대학에서 우수함이란 무엇인가, 의과대학에서 잘한다는 것 의미, 의과대학에서 수월하다는 의미, 의과대학에서의 excellence의 의미 등 2) 의과대학에서 우수함(수월성)에 대한 검토와 개발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 의과대학 학생들을 우수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유도 부탁드립니다.
일반 학생들과 달리 우수한 학생 차별점에 대한 인식, 우수한 대상만의 효과적인 적응전략이 있는지(공부의 의미, 학습전략, 의사가 되고자	1) 의과대학에서 일반학생들에 비해 '우수한 학생'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2) 의과대학 내 일반학생들에 비해 우수한 학습자들에 대해 교육 및 수련현장에서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3) 우수한 애들의 양상, 특징이 있을까요? 4) 의과대학에서의 '배움'을 바라보는 그들의 가치, 태도는 어떠했나요? (공부를 하는 자세 및 동기, 전략 방법, 실습에 임하는 태도 및 방안 등) 5) 의과대학에서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하는 동기 등)	습 방법, 전략, 방안, 노하우 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은 그러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것을 보셨나요? (학습, 실습, 등 전반에 대한 적응 전략 방안)
구체적 학습 전략 영역	1) 의과대학에서 학습, 실습, 수련 과정 속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노력한 것, 방안, 팁에 대해 면담, 지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2) 교육과정 안(임상실습 전후, 수련 중)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 갈 때 우수한 학생들이 접근, 처리하는 방식은 어떠했나요?
개인 일상 영역 (협력,리더십,봉사, 의과대학 정신과 연결)	1) 우수한 학생들(떠오르는 대상)이 의과대학에서의 동료와의 생활은 어떠했나요? 2) 우수한 학생들(떠오르는 대상)이 PBL, CBL, TBL 등 참여, 뛰어난 업적을 보였던 것, 참여 비중은 어떠했나요? 3) 이 학생들이 특정 영역, 관심, 분야에 에너지, 시간을 부여했는지요? 만약 투자를 했다면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요?
교수들이 생각하는 의사의 정의(역할),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	1)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사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탁월한, 우수한 의사는 무엇인가요? 2) 교육하시는 가운데 우수한 학생들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어 했나요? 진로 선택과 관련해서도 사례를 부탁드립니다. (진로선택, 결정, 연마 과정, 어떠한 의사가 되기 위해 그들이 의과대학 시절 했던 노력, 연습, 시도를 했는지, 유의미한 경험 등)
우수한 학생들이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 (교육과정 속에서)	1) 우수한 학생들은 의과대학에서의 시험, 실습, 국가고시를 준비할 때 어떻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극복, 이겨냈는지요? 2) 우수한 학생들이 의과대학에서 슬럼프를 겪었다면 극복,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사례를 부탁드립니다. 3) 우수한 학생들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교수, 친구, 대학 등에 도움 요청, 극복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기억나시나요? 4)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과정 외(비 교과과정)속에서 활동한 경험, 참여한 이력에 대한 사례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 탁월성, 실력을 발휘했는지요?
‘특정 영역’에 관해 추가적으로 한 활동 관련 *우수한	1) 의과대학에서 “우수함”이 돋보이는 특정 영역을 함양하기 위해 우수한 학생들이 노력하거나 시도한 것은 무엇이 있나요? (개발, 도전하기 위해 시도한 것)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부분을 특정적으로 검토할 때 활용	2) 특정 영역의 우수성에 영향을 준 요인, 계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3) 의과대학 과정 속에서 우수한 대상의 기질, 특성이 적합하다고 여긴 부분이나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의과대학 과정 속에서 우수한 대상의 우수성을 적용, 발현한 사례나 경험이 있으신지요? 5) 특정 영역/역량의 우수성이 의과대학에 적합한 경우, 사례, 유의미하다고 느낀 부분은 무엇인가요? 6) 우수한 것의 특성을 후천적으로 교육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방법, 전략이 있었거나, 기억나시는 건이 있으신지요? 7) 특정 영역, 특성이 진로 선택과 연결되곤 했나요? 8) 특정 영역이 의과대학 기간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9) 의과대학 준비를 위해 그러한 특정 영역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타	1) 우수한 의과대학 학생의 특성과 수련현장에서의 우수한 대상과의 연관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 우수한 의과대학 학생의 특성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개선 사항이나 평가의 개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3) 우수한 의과대학 학생의 특성을 검토하여 선발에서부터 신경 써야 하는 이유나 함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3.4. 자료 분석과 해석

본 연구는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성과 자질을 탐색하기 위해 Strauss & Corbin의 근거이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Strauss & Corbin, 1998). 선행연구 검토에 의하면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명료하고 적합한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학습자의 특성과 자질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인 의과대학 교수들의 우수한 학습자에 대한 인식에 대해 면담을 함으로써 이들이 가진 우수성에 대한 개념, 이러한 우수성을 함양하는 특성과 자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있는지를 검토하는데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탐색해가는 과정에서의 관계성 이해, 이 관계를 통해 의과대학 학습자가 가진 특성과 자질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체적인 구조와 관계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인식하는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가 가진 특성과 자질을 검토하기 위해서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raw data)하였다. 자료수집과 동시에 자료분석과 해석을 위해 내용읽기의 반복과정을 진행하였다(Creswell & Poth, 2018). 이를 위해 기록한 것에 대해 필기물과 녹음된 사항을 모두 전자문서로 합치는 과정을 거쳤다. 한글파일 및 기록한 모든 것에 대해 전사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자료수집의 기초토대는 음성과 비디오 녹화자료, 전사자료를 기반으로 수집하였으며, 이는 온라인의 녹음파일 녹취-전사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차적으로 내용을 옮기고, 직접 필기한 자료는 타이핑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모든 전사화 작업이 종료 된 후 연구자가 녹음파일을 기준으로 내용이 맞는지 재검토하였으며,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연구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전달받기를 희망한 바, 면담내용 전사본과 녹음자료를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근거이론의 방법에 기반하여 면담자료의 전사본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읽어가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초동적 개념, 개념 부스러기' 등으로 불리는 다음 단계의 개념 생성을 위한 메모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코드/라벨(Code/Label)' 혹은 줄코딩을 통한 '피상적 개념'이라고도 불린다(변기용, 2020). 메모한 내용을 1차적으로 엑셀시트에 유사한 내용끼리 묶는 과정을 거친 후 연구자가 만든 개념 부스러기를 기반으로 해당 내용들을 다시 읽으면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추상적 용어로 메모들을 분류하였다. 이 작업에서 연구자가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시 면담 원자료의 맥락을 통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관련된 내용의 메모(코드, 라벨, 개념부스러기)들을 기반으로 주요 '개념(Concept)'들을 생성하였다. 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넘들은 다시 이들 내에서 유사한 개념끼리 범주(Category)를 통해 묶는 과정을 거쳤고, 하위범주는 이를 통칭하는 상위범주로 묶어감으로써 범주 내에서의 속성과 차원을 구분해서 검토함으로써 유사한 하위범주들을 수준 높은 단계인 상위범주로 정리해가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면담자료를 근간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요약해가는데 '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딩'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특히 연구자는 면담자료 중 대표적인 내용을 많이 언급한 연구참여자들의 내용을 기반으로 1차적인 개념 부스러기를 생성하기 위해 의미 있는 연구자의 면담 내용을 통해 아이디어 작업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주 면담자의 내용을 근거로 개념을 구축해가고 범주를 만들어가는 틀을 세우는데 활용하였다(변기용, 2020).

근거이론 방법에서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theoretical sampling)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는 본 연구에 맞는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표집하는 의도적 표집을 통해 연구대상 선정이 근거이론 방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의 우수한 의과대학 학생이 가진 특성과 자질을 검토하기 위한 적합한 연구대상(연구참여자)로 국내 의과대학에서의 의과대학 교수학습 경험, 지도 및 상담 등에 관여한 의과대학 교수 20명을 선정한 면담 내용에 대한 분석을 근거이론적 방법의 과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특정 문제나 현상에 관련되거나 이를 경험한다던지, 이를 설명해줄 목적이 있는 대상으로 불특정 샘플링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 표집을 통해 대상범주와 샘플을 정하게 된다. 이에 앞 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연구 문제가 놓인 맥락에서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을 의도적으로 선발하고자 선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볼 때 연구와 적합한 연구대상자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때, 어떠한 기준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고, 일부 기준에 의거하여 제외했는지에 대한 목적화된 연구대상 표집이 중요하다.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도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구축하는 것이 근거이론의 시발점이자 핵심 사항이다(나경은, 2012; 변기용, 2020; 조용환, 1999).

3.4.1. 개방코딩

자료 분석은 본 연구의 참여자인 총 20명의 면담자들의 면담 내용 전사본을 가지고 연구자가 여러번 읽고 내용을 밑줄 그으면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일차적인 내용분류를 시작하였다. 이때 연구문제와 관련한 주요한 답변을 제공했던 교수들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내용분류를 해나갔다. 면담을 수행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자료수집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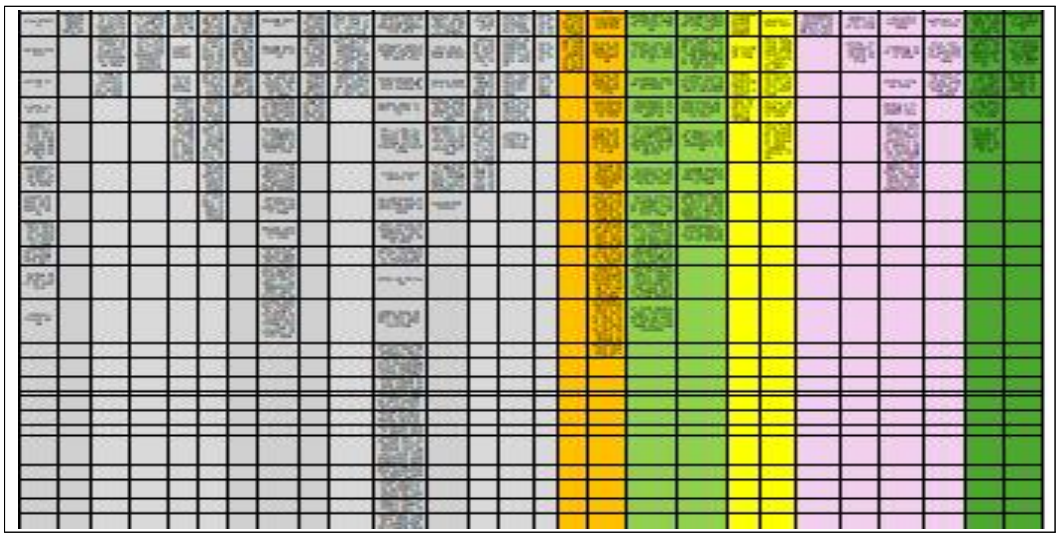
동시에 분석을 함으로써 이론적 민감성과 자료 내용의 통합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구축한 면담 내용들과 새로운 면담 내용 간 지속적 비교 분석을 수행하면서 자료수집과 분석을 진행해 나갔다. Strauss & Corbin의 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딩 과정을 밟아나갔는데, 일차적으로 개방코딩에서는 원자료에서부터 의미있는 내용을 밑줄쳐 둔 내용 혹은 메모를 통해 짧게 요약한 글 등을 기반으로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가면서 잠정적인 '내용 주제'별로 묶어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면담 자료가 추가적으로 확보됨으로써 기존의 분류에서 추가적으로 세분화가 되거나 상위개념으로 묶이는 식으로 다시 재분류 등이 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는 과정을 겪었다. 개방코딩결과 면담 자료를 읽은 후 1차 분류를 위해 면담 기록에서의 메모 및 인용된 밑줄 사항을 정리한 것들을 묶어 '코드/라벨, 개념부스러기'등의 용어로 유사한 내용끼리 묶음으로써 잠정적인 주제를 기록해 두었다.

아래의 <그림 5>과 같이 '일반 학습자 특징'과 관련하여 면담 자료를 통해 여러 번 읽으면서 의미 있는 내용에 대한 메모 및 발췌해 둔 문구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유사한 내용끼리 묶음 '코드/라벨'의 과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 단계에서는 초기 단계로써 유사한 내용을 묶어가고 이해해 나가는 단계로써 구체적인 상위개념이 설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연구자가 잠정적 유사한 주제를 기반으로 분류를 해둔 결과이다. 동일한 색깔로 표시된 사항이 유사한 내용에 대한 묶음으로써 이후 상위단계로 올라갈 때 동일한 범주를 구성하게 되게 된다. 연구자료를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동일한 색깔의 묶음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상위개념으로 도출시켜 봄으로써 동일한 색깔 그룹 안에서 다시 상위개념에 근거하여 재분류를 해나갔다. 코드/라벨을 기반으로 개념을 생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선정한 후, 각 코드들이 개념으로 선정한 것 중 어느 것에 포함되는지를 역으로 체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자료 비교 및 분석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었다.

코드/라벨 단계의 1단계에서 상위개념인 개념을 생성하기 위해 동일한 색깔 범주로 분류된 유사한 내용들의 코드/라벨 가운데 상위개념을 도출하여 '개념'을 생성하였다. 이는 2단계 작업으로써 코드/라벨의 내용들을 포괄하는 상위범주이면서 여러 개의 개념들을 기반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 혹은 압축하여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에 <그림 6>에 표시한 바와 같이 하위단계인 '코드/라벨' 그룹의 109개로부터 10개의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개념'을 도출하였고, 동일한 방식으로 16개의 '코드/라벨'로부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터 7개의 상위개념으로 '개념'을 도출하는 식의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일차적으로 한 후, 도출된 내용들이 개념에 포함되는 하위내용들의 의미를 충분히 포함한 상위개념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역으로 '코드/라벨'별 개념과의 1:1 매칭 작업을 수행하였다. '코드/라벨'에 따라 복수의 개념들과 매칭이 된 경우, 해당 라벨 자체가 개념을 생성하는데 유의미한 자료이자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코드/라벨'임을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반대로 코드/라벨에서의 정보가 풍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의 본래 면담 자료의 맥락을 다시 읽으면서 어떠한 개념과 연결되는지를 검토하여 매칭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위계적으로 코딩 단계를 역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상위개념이 하위개념들을 잘 포함하며 대표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하는 역할과 하위내용들이 상위 내용과 잘 매칭된 분류가 되어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으로 자료 분석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자료의 분류와 검토를 쌍방향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5> '일반 학습자의 특징' 개요(1단계 : 코드/라벨 단계)

<그림 6> ‘일반 학습자의 특징’ 개요(2단계 : 개념생성 단계)

다음으로 3단계로써 ‘개념’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인 ‘하위범주’를 생성할 때 개념들의 의미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대표 단어, 의미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함의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만 해당 개념들의 내용만 가지고 도출할 때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우려로 인해 개념을 이루는 하위단계인 ‘코드/라벨’의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일부 내용은 면담의 원자료를 읽으면서 확인하는 식으로 지속적인 자료 분석 및 비교를 코딩 단계를 거쳐감으로써 진행하였다. 이는 자료수집-분석-해석의 과정이 동시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방코딩의 특징을 나타내는 바라고 볼 수 있다. 아래의 <그림 7>과 같이 개념들을 대표하는 상위개념으로 범주(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코딩 결과를 동일한 시트에 정리하고 수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개방 코딩 단계-절차에 따라 지속적인 재확인과 자료의 내용이 충분히 의미 있는 단어로 도출됨으로써 면담자료의 내용의 본질을 파악해 가려는 근거이론 방식의 개방코딩 단계를 수행하는 목적에 부합한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1. 객관적으로 높은 학업 성과를 이룬 경우		5-2. 의사로서적성 검토 없이 입학		5-3. 휴브리스가 강함		5-4. 심리적 상태. 불안. 압박. 완벽주의 등 정신적 문제로 고통		5-5. 사회경제적 환경 조건에 대한 공통적 특징		5-6. 인간의 과업에 있어 성장해야 하는 성인학습자로의 단계로 미전이
	10		7		12		9		9		9
	a. 학습 그 자체로 접근보다는 계산적 접근 b. 게임하듯 전략 수립 c. 학업 내용을 쪄내기 식의 접근 d. 효율 추구 e. 피상적 학습자 f. 머리회전 g. 전략 h. 요령 i. 빠르게 과업처리 j. 성인학습자보다 청소년기 학습자		a. 의사 직업자체의 안정감으로 입학 b. 수능성적이 아까워서 c. 의과대학입학이 자기의 보상체제 d.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부모나 외부의 추천으로 들어옴 e. 적임최피. 등기부여 적응 f. 전공적합성 없이 의사로의 삶 고민 부족 g. 어떤 의사로 살지에 대한 고민이 적음		a. 실패 시 자괴감. 회피 b. 실패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c. 과거의 경험에만 사로잡힘 d. 새로운 도전에 회의적. 소극적반응 e. 한번 멀어지면 돌리기 어려워함 f. 면담이 깨짐 g. 자신을 과거의 모습에 제한. 가둬버림 h. 새로운 것 하는데 시작이 오래걸림 i. 좋은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포기. 회피 j. 휴브리스와 완벽주의가 많나 책임감과 성취 속에서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깨짐 k. '나는 저울이고. 일반 모르는 게 당연하고. 배워야 하는 사람이다' 등의 인식 부족		a. 유급. 완벽주의 고통 b. 완벽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현재 간 충돌 c. 우울. 불안 d. 자책 반성 e. 실패의 누적으로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짐 f. 의과대학 교육문화와 의과대학생들의 특성 연결지음 g. 도움요청. 지원받기 등에 부족함 h. 스스로 저리하려다 번아웃. 슬럼프. 우울증 i. 회복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음.		a.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원받는 환경(문화기. 경제적) b. 그들만 대접 받은 것처럼 고객. 소비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대접이나 서비스를 받는 입장으로 생각 c. 자신은 학업만 할 뿐. 나머지는 가족이나 주변에서 삶에 대한 문제를 대신 처리 및 해결해주는 경향 d. 타인의 힘에 의존한 정보탐색 e. 타인에게 빌린 문제해결. 의존적 f. 책임전가 g. 소극적인 문제해결의 힘 h. 정해주는 틀. 가이드대로만 하려고 함(주체적이지 않음) i. 가이드대로 표댓대로 하는 것을 편하게 여김		a.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 성장에 미성숙 b. 인간의 발달과업. 성장을 직면해 소극적 c. 인간의 삶 및 인간에 관심이 적고 고과 지식에 한정한 이해에 익숙 d. 전체적 삶에서의 의사로서의 부분임에도 부분에만 집중. 전체적으로 보지 못함 e. 사람과 어우러지는 대인관계 부족 f. 문제해결 및 의사소통 능력 부족(주어진 문제 풀이를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 g. 협력. 버티능력 부족 h. 갈등해결 능력 부족 i. 사람이 중인 상황 맥락에서의 이해 부족
코드	109	코드	16	코드	21	코드	11	코드	16	코드	10
a.e.g.j	입학을 위한 수학능력. 성적은 우수(비교할필요없이 군집)	f	목적의식도 만들어서 오는 경우가 있음	c.g.j	의과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휴브리스	e	정신적 문제많음	b	자신들이 소비자처럼 특권을 누려야한다고 여김	a.c.i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보다 교과지식에 한정한 학습
a.e.j	수능성적우수	f.g	의사가됨기위한 조건으로 목적의식. 소명 등은 알고 있음	c.d.g.h	과거에 뛰던 정글때문에 재들게 나가려는 마음 결여	e.h	게임중독. 우울증 등으로 자신의 잠재적 발휘에 어려워함	b	공부잘해서 왔기때문에. 사회에서. 의대에서 뭔가를 자기네가 노력아	a.c.d.i	인간의 삶. 이해 등의 맥락 이해 없이 부분적 이해 위주
a.e.j	학생부성적 우수	d.e.g	자신이 왜 그렇게 속도가 낮고 효율적이지 않은 저성취 학습자로 가는지 본인도 모름(메타인지를 의외로	c.d.e.g.i	과거에 성적. 자기자신의 높에서. 잘했던 나에서 못 헤어나오고	e	정신적영향 고정병 있음	h.i	명확한 가이드라인 좋아함	a.b	인생사에서 불파는 발견스가 안일 습정으로 미숙한데 공부는 잘함
a.f	암기력 우수	b.c.e.d	정적으로 의대를 준이과적정로지 않고. 의과대학인이 목적이었을	a.b.f.i	우리면할. 맹탈을 극복하지 못하는 성을	c.e.g.h.i	우울감. 정서적 문제가해결되면 정신나 탈도가 좋아짐	h.i	명확한 지시가 있으면 잘 따름	a.b.c.e.f.g.h.i	인간으로서 스킬 챔어지고 사회는 무를는 어이없이넘 지식으로만	
f.g.h	논리적 사고 우수	b.c	수능성적우수함으로 의대입학	c.g.j	대학입학한 그동안고패의 자신의 성적의 높음만 앞	c.e.g.h.i	정신적문제에 대해 자기자신도 돌라서 대처를 못하는 경우도 많음	h.i	사전에 가이드하인 제시만 되었으면 잘따름	c.i	사람 환자에 대한 정이나 공감이 적음
j	입학전 단계까지는 너무 무사하여 우수성이나 특성 검토 불필요함(질	b.c.f	자신의 적정을 알지못하고 정적으로 판단 을	c.g	자신이 잘해오고. 지금방하오고. 우월했던 경험에서 실패를 마주하게	a.b	완벽주의 성향	a.b.c.d.e	환경적 요인이 지원이 좋고 의지함	c.e.f.g.h.i	정적 등 지적영역은 발달해다 사회성 표인트는 낮은 편
a.c.d.f.g.h.i.j	의과대학이 기대하는 탐대한 양의 정순능력 탑재	b.c.d.e.f	자신의 적정을 알지 못하고 의과대학에 입학	c.g	자기자신이 의과대학에 입학 됨것에 대한 프라이드 강함	a.f	공부의시점의 달인	a	소득수준이 중은경우가 많음	e.f.h.i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
a.d.e.f.j	수학한 철력과 합시요령. 문비철하는 에들	b.c.f	의과대학에 만족히 합시정적때문에 입학	c.g	자신이 가져온 정글경험이 없고 고하한 성공에 환정되는 경우가 있을	a.b.c.e.f.g.h	휴글경이어도 완벽주의 정향으로 중증 정도가 커서 심리적 스트레스	a.b.c	가족들의 지원. 지지를 많이 받을	e.f.h.i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쳐야 함
e.j	의과대학진학이 목적이지 의사가 되고자 하는 동정이 적음	b.c.e.f	본인의 적정을 알지 못하고 합시정적. 점수 마까워서 옴	j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지만 자신이 성공했다는 그랑시 기억으로 버려	a.b.f.g.h	완벽주의적 요순이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것에만 집중	a	경제적 지원을 받음	c.e.f.i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합기적으로 접근해서 실제 활용이 더딤
d.g.h.j	정절하게 자기 자신의 목표를 억제하는 능력	b.c.d.e.f.g	자신을 합격해로 경험이 적고 정적 만으로 의과대학 입학	c.d.g.i.k	성인이됨고 사람으로서 성장하였고 과업을 잘었어 공부했지 않고	a.b.h	자신의 경험을 유지. 고집하려다 실패	h.i	학원이나 가이드를 주는대로만 의	f	끝이다 발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부족

<그림 7> '일반 학습자의 특징' 개요(3단계 : 하위범주생성 단계)

개방코딩의 마지막 단계로써 4단계는 하위범주들을 포괄하는 상위범주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은 하위범주가 상위범주를 충분히 설명하고 정의할 수 있는지, 특징할 수 있는지를 '속성 및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념-하위범주들의 집합이 결국 상위범주를 도출하는데 충분한 내용적 근거가 기반이 되었는지, 풍부한 의미로 해석이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일반학습자의 특징'과 관련한 범주에 대한 예시는 <표 5>와 같으며 이는 상위범주-하위범주 간 관계를 '속성과 차원'으로 의미를 검토한 결과이다.

<표 5> '일반 학습자의 특징' 개요(4단계 : 하위범주-상위범주 관계)

범주		하위범주	속성	차원
범주번호	범주명			
5	의과대학 일반학습자의	• 5-1. 객관적으로 높은 학업 성과를 이룬 경우 • 5-2. 의사로서 적성검토	학업성취도 의사로서의 적성검토	높음/낮음 단기적/장기적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특징	없이 입학 • 5-3. 휴브리스가 강함 • 5-4. 심리적 상태, 불안, 압박, 완벽주의 등 정신적 문제로 고통 • 5-5. 사회경제적 환경 조건에 대한 공통적 특징 • 5-6. 인간의 과업에 있어 성장해야 하는 성인학습자로의 단계로 미전이	휴브리스의 회복가능성	높음/낮음
		정신, 심리적 상태	안정/불안정
		사회경제적 환경 의존 정도	독립적 /의존적
		인간으로서의 발달단계	성인 /청소년기

이러한 총 4단계의 절차를 기반으로 개방코딩 결과 본 연구자료 전체에서 1차적으로 분류된 개수는 총 1,358개였다. 이러한 코드/라벨을 기반으로 그 안에서 상위개념을 다수 도출하거나 추상적 개념을 만들면서 총 286개의 '개념'을 생성해 나갔다. 위에서 언급한 과정에 근거하여 9개의 코드/라벨을 기반으로 3개의 상위 의미를 뜻하는 '개념'을 구성함으로써 주제 혹은 내용을 함축하는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후 '개념'을 기반으로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코드/라벨→개념→하위범주를 구성해 감으로써 점차 관련된 하위의 내용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올라감으로써 하위범주가 하위내용들을 포괄하는 가장 높은 상위개념으로의 하위내용들을 함축하게 되는 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자료를 분석해 나갔다. 이렇게 정리된 하위범주들은 총 50개가 도출되었다. 총 50개의 하위범주들을 다시 범주 간 관련성을 검토하여 유사한 범주끼리 묶어봄으로써 총 10개의 상위범주로 줄여나감으로써 더 높은 상위개념으로 자료들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개념에서부터 시작된 하위범주들이 모여 상위범주를 도출하는 데 있어 충분한 내용적 이해와 관련성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속성과 차원'이라는 두 가지 축을 기반으로 내용적으로 이해하는데 충분한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에서 속성은 하위범주-상위범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요인, 특징, 정의 등으로 하위범주가 상위범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속성에 대해 차원을 제시함으로써 그 위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속성과 차원을 통해 하위범주가 상위범주를 도출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지를 기반으로 개방코딩의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자료의 1,358의 1차 분류된 코드/라벨을 기반으로 총 286개의 개념들이 도출되었으며, 개념들의 상위개념인 하위범주로는 총 50개가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현황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은 아래의 <표 6> 와 같으며, 범주별 분석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구결과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표 6> 개방코딩 결과

	범주 1	범주 2	범주 3	범주 4	범주 5	범주 6	범주 7	범주 8	범주 9	범주 10	합계 (개)
상위 범주 (개)	1	1	1	1	1	1	1	1	1	1	10
하위 범주 (개)	6	1	3	2	6	9	3	6	7	7	50
개념 (개)	32	3	10	8	56	48	15	34	33	47	286
코드/ 라벨 (개)	166	6	18	16	183	530	19	96	81	243	1358

이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50개의 각 하위범주 간의 관계를 통해 유사한 내용끼리 다시 정리하여 총 10개의 상위범주로 전체 연구자료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개방코딩 결과 50개의 하위범주를 범주 간 관련성을 기반으로 '속성 및 차원'으로 상위범주를 도출해 감으로써 개방코딩과정에서의 분석을 마무리하였으며 개방코딩 결과 드러난 속성과 차원에 근거한 하위범주와 상위범주 간의 이해의 기준, 도출된 분석 현황에 대한 자료는 아래의 <표 7>와 같다.

<표 7> 개방코딩 결과(상위범주-하위범주에 대한 속성·차원)

범주		하위범주	속성	차원
번호	범주명			
1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탐색 방향	• 1-1. 우수한 의사를 그려보며 검토 • 1-2. 의과대학 교육 전반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를 회상하며 검토 • 1-3. 임상의학	영역별 우수한 의사의 분류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우수한 의대생이 보이는 지표 (성적 외)	다양함 /단순함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교육과정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를 회상하며 검토 • 1-4.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검증 방안 • 1-5.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교수들의 성찰 • 1-6.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이해	의과대학에서 우수성의 검증 지표	외재적 /내재적
			우수성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낙관적 /회의적
			의과대학에서 우수성의 의미에 대한 이해정도	구체적 /추상적
2	의대생들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	• 2-1. 의과대학생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	의대 입시기준의 신뢰	높음/낮음
			의사들이 우수한지에 대한 인식	긍정적 /부정적
3	국내 의과대학 특징	• 3-1. 성실함을 강조하는 의과대학 문화 • 3-2. 유급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관심 • 3-3. 위계질서 강조	학습환경(문화)	경직성 /자율성
			유급제도에 대한 인식	강함 /약함
			의사 사회 분위기	개방/폐쇄
4	의과대학에서의 하위권 학습자 특징	• 4-1. 학업 관련 낮은 성과 • 4-2. 의과대학 생활에 적응이 어려움	의과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	상위권 /하위권
			의과대학에의 적응 수준	안정적 /불안정적
5	의과대학 일반학습자의 특징	• 5-1. 객관적으로 높은 학업 성과를 이룬 경우 • 5-2. 의사로서 적성검토 없이 입학 • 5-3. 휴브리스가 강함 • 5-4. 심리적 상태, 불안, 압박, 완벽주의 등 정신적 문제로 고통 • 5-5. 사회경제적 환경 조건에 대한 공통적 특징 • 5-6. 인간의 과업에 있어 성장해야 하는 성인학습자로의 단계로 미전이	학업성취도	높음/낮음
			의사로서의 적성검토	단기적 /장기적
			휴브리스의 회복가능성	높음/낮음
			정신, 심리적 상태	안정/불안정
			사회경제적 환경 의존 정도	독립적 /의존적
			인간으로서의 발달단계	성인 /청소년기
6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 6-1. 배움에 대한 가치와 태도, 마음가짐이 다르다 • 6-2. 성실함과 끈기를	배움에 대한 태도	적극적 /소극적
			학습에 대한 접근	목적성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학습자의 특징	가지고 학습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가는 경우이다 • 6-3. 실패에 대한 대처방식과 도움을 청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 • 6-4.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성이 발달 된 경우이다 • 6-5. 문제해결 능력이 탁월하다 • 6-6. 자기 관리 능력이 탁월하다 • 6-7. 지식과 경험의 전이와 적용에 탁월하다 • 6-8. 의사가 되기 위한 내적동기와 목적의식이 뚜렷하다 • 6-9. 사람에 대한 관심과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높다		/수단성
			실패에 대한 대처방식	수용성 /회피성
			대인관계	활발함 /제한적
			문제해결방식	복합적 /단편적
			자기관리능력	체계적 /무질서
			지식과 경험의 전이 수준	복합적 /단편적
			의사가 되기 위한 목적의식	높음/낮음
			인간에 대한 이해	깊은/얕음
7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임상전 교육과정)	• 7-1. 학습성과를 내는 것에 탁월한 경우 • 7-2. 기초영역과 임상의학의 통합에 탁월한 경우 • 7-3. 연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	시험에서의 학습성과	높음/낮음
			기초와 임상의 접근	기계적 /자기주도적
			지식과 연구와의 연계성	약함/강함
8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임상의학 교육과정)	• 8-1. 임상추론능력이 탁월한 경우 • 8-2. 실제 환자 적용과 가능한 정도를 고려하여 전이 능력이 탁월한 경우 • 8-3. 임상 영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식의 복합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 • 8-4. 임상실습을 수행하면서 소통 능력과 관계성, 협력을 기반으로 팀 활동에 적합한 경우 • 8-5. 임상실습 시 자발성, 적극성, 적응력이 뛰어난 경우 • 8-6. 임상실습을 통해	임상추론 방향	단순/복합
			실제 의료 현장에 지식의 전이 능력	높음/낮음
			임상 영역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고정적 /유동적
			임상실습에서의 팀 활동에 대한 태도	적극적 /소극적
			임상실습 과정에서의 참여도	적극적 /소극적
			임상실습과	적극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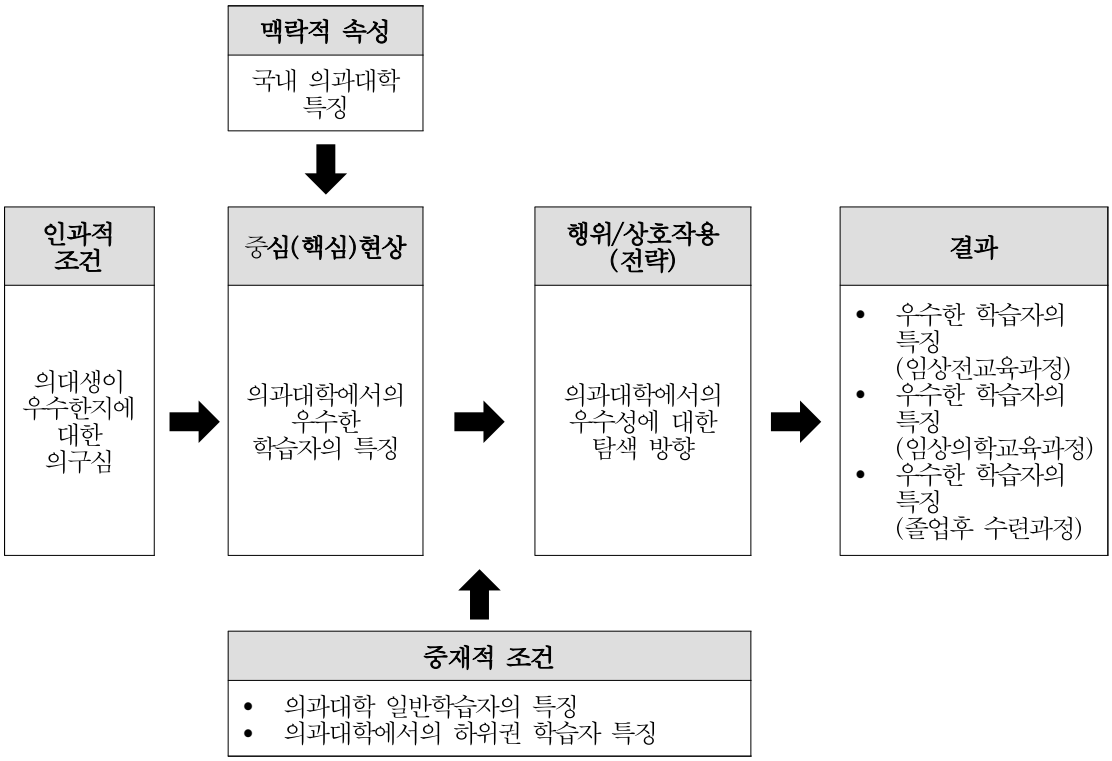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자신이 임상의사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경우	자신의 진로와의 탐색	/소극적
9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졸업후 수련과정)	• 9-1. 배움을 실천 해가는 능력 • 9-2. 환자 중심의 소통 능력 • 9-3. 인간에 대한 존중 • 9-4. 전공과의 선택에 있어 목적성 • 9-5. 희생정신 • 9-6. 의료 현장에서의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원활함 • 9-7. 수련의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범위를 아는 능력	의료 현장에서 학습의 실천	지속적 /일시적
			환자 중심에서의 소통	적극적 /소극적
			의료 현장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	다양성 /획일성
			전공과 선택에 대한 준비도	능동적 /수동적
			의료 현장에서의 공동체적 자세	적극적 /소극적
			의료 현장에서의 다양한 직군과의 관계 형성	넓음/좁음
			수련의로서의 책임감의 범위	명확함 /모호함
10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 회복을 위한 방향 (대학, 교수자)	• 10-1. 의과대학 선발 기준의 재검토 및 다양화 • 10-2. 의과대학에 적합한 학생상에 대한 재검토 • 10-3. 의과대학 문화의 개선이 필요 • 10-4. 의과대학의 우수성을 표현하는 지표 전환을 통해 기대하는 의사상의 전환 시도 • 10-5.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도구 개선으로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 확충 • 10-6. 의과대학 교육방식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 방안 도출 • 10-7. 의과대학과 졸업 후 교육과정의 연계성 고려	의과대학 선발기준	획일화 /다양화
			의과대학의 학생상의 검토 범위	내부적 /대외적
			의과대학의 문화(풍토) 유형	획일화 /다양화
			기대하는 의사상에 대한 평가 기준	상대적 /절대적
			우수성의 측정 도구	획일화 (단일화) /다양화 (복합적)
			의과대학 교육의 방향	학습자중심 /교수자중심
			졸업 후 수련과의 연계성	높음/낮음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3.4.2. 축코딩

다음으로 개방코딩에서 얻은 총 10개의 범주 간의 상호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축코딩 단계에서는 '축코딩 패러다임 틀' 모형에 맞춰 배치하였다. 연구자료를 통해 도출된 범주를 '중심현상, 맥락,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에 맞게 배치함으로써 범주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연구자료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도식화한 것은 아래의 <그림 8>과 같다. 이에 대한 총 6개 요인에 기반하여 연구자료를 통해 도출한 범주 간의 관계를 해석한 결과에 대한 내용 및 해석은 연구결과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림 8>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다만,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 틀과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최종적인 범주와의 구조화 과정에서의 한계점은 연구자료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총 10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으나, '범주10.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 회복을 위한 방안'의 경우 연구의 우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수성 탐색 과정 자체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패러다임 모형 내에 범주 간 상호작용하는 요인으로 해석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선행연구 자료에 근거해 볼 때 이 모형의 틀에 연구내용을 맹목적이고 인위적으로 끼워 맞추는 것은 지양한다고 한 점에 근거해서였다. 패러다임 틀에 맞춰서 해석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6가지 요인에 맞게 인위적으로 구성할 경우 연구결과의 본래의 의미에 기반한 해석이 왜곡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해석의 인위성에 대한 위험을 지적하였다(변기용, 2020). 이에 '범주 10'의 경우, 중심현상을 기준으로 현상의 과정을 해석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범주로 인해 이를 제외하고 총 9개의 범주를 아래의 6가지 요인에 맞게 배치하였으며 각 요인 간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 과정에 대한 범주 간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3.4.3. 선택코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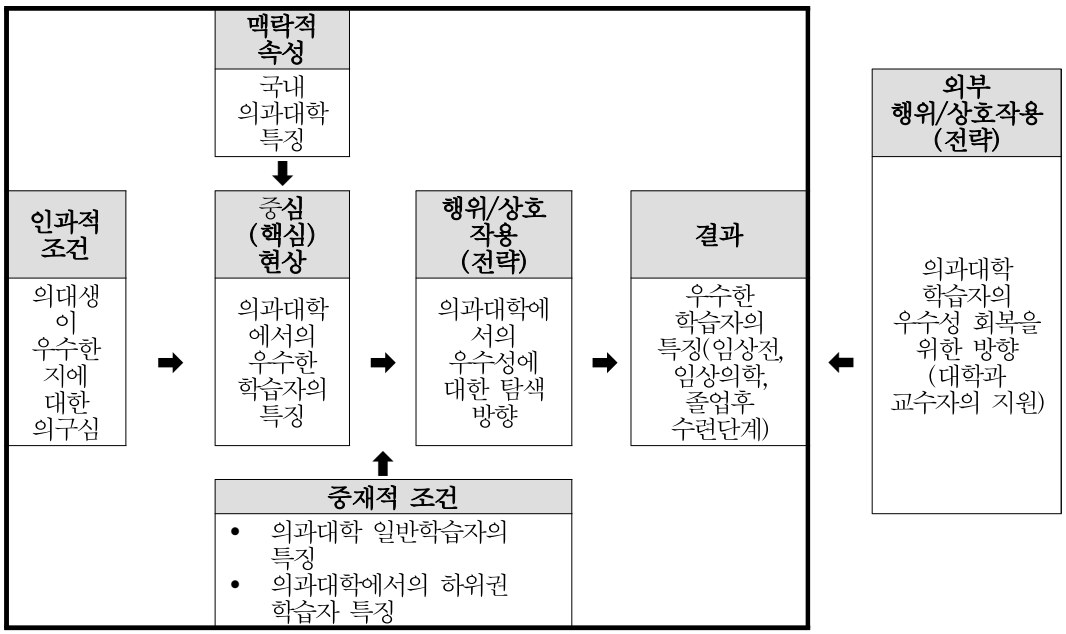
축 코딩 단계에서는 연구자료로부터 도출된 범주들을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대입해 봄으로써 범주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인 선택코딩 과정에서는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주요 주제인 핵심범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은 개방코딩으로부터 얻은 모든 자료의 내용에 대한 범주들의 결과를 토대로 총체적으로 그 의미를 압축하여 본 연구자료의 '핵심 범주'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 자료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내용이나 주요 현상을 이해 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연구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바를 의미한다. 핵심범주는 연구의 주제이기도 하며 그동안 개방코딩과 축코딩에서 밝힌 개념에서부터 하위범주-상위범주, 그리고 범주 간 관계의 총체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모든 내용의 통합을 의미한다. '핵심 범주'는 범주들을 대표하는 상위개념으로 이해하거나 범주들을 엮어서 해당 현상의 과정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범주들을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촉진하기 위해 '이야기 윤곽 적기(story telling)', '도표 이용하여 시각화하기', '메모를 통해 검토하고 정리하기' 등이 있다(김수구, 2009; 변기용, 2020; 신경림, 2001;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축 코딩에서의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범주들 간의 상호관계에 기반한 '이야기 윤곽 적기'를 활용하여 전체적인 중심 현상이 빚어지는 과정과 다른 범주들 간의 관계를 해석해 봄으로써 '핵심범주'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결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과 부분에서 ‘이야기 윤곽적기’를 기술함으로써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총체적 해당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핵심범주’의 의미이자 역할에 근거해 볼 때, 모든 범주들을 포괄하면서 연구의 주요 문제를 의미하는 대표성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과대학 학생이 가진 우수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의 핵심범주(주제)를 ‘의과대학 맥락(환경)에 적합한 학습자의 우수성 발현을 위한 교육의 방향제시’라고 설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범주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기’ 방법을 활용한 도식을 아래의 <그림 9>과 같이 도출하였다. 이는 연구가 이뤄진 현상에 근거한 과정을 설명하고자 패러다임 요인과 범주들을 연결지어 봤을 때 총 9개의 범주만이 중심현상과 관련한 요인들로써 연구 내용에 대한 범주 간의 상호 관계를 해석할 수 있었다. 연구로부터 도출된 10번째 범주의 경우 특정 현장의 과정을 해석하는 흐름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적용이어서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해서는 해석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는 내용이었다. 다만, 선택코딩 단계를 통해 모든 범주를 기반으로 본 연구결과의 방향과 의미를 해석하는 데 시각적으로 표현할 시에는 패러다임 모형을 일부 변형하여 차용함으로써 새로운 모식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기존 패러다임 모형의 구조를 근간으로 외부적인 행위/상호작용 전략을 가미함으로써 전체적인 기존의 현상 전반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우수성을 발현하는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로써 본 연구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명시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도식화 해봄으로써 연구결과의 총체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적 모형은 아래의 <그림 9>과 같다. 핵심범주를 도출한 후 연구결과 전반을 해석하는 내용은 연구결과 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그림 9>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을 위한 방향(이론적 모형)

3.4.4. 자료 분석 시 고려한 사항

구체적으로 각 연구문제 따른 분석 시 주의한 점과 분석할 때 제거한 요인, 검토한 기준 등에 대한 정리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수성'의 조작적 정의를 위해 도출할 수 있는 요인과 관련하여 해당 주제의 선행 연구자료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고찰, 우수성의 정의' 등의 자료를 면담 시 설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의과대학 교수자들이 우수성을 정의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 우수성에 대한 탐색의 흐름 등을 기준으로 관련 주제별로 묶은 다음에, 개인 1인의 발언이나 우수성을 특징 하는 것과 거리가 있을 경우는 제외하였다.

의과대학 학습 환경에서 본 우수한 학습자가 보이는 특징을 기반으로 우수성을 규명하기 위해 의과대학 내부의 상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으므로 의과대학에 대한 특성 및 특수성, 문화, 의과대학에서의 일반적인 학습자, 하위권 학습자, 우수한 학습자를 구분하여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주제를 분류하였다. 다만 의과대학에서의 교육과정 별 특성과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 양성과정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우수성에 포함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의과대학에서만 요구되는 내용을 위주로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때의 면담 내용에 대한 정리 기준시 교육과정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우수성을 도출하기 위해 교육과정 단계에 따라 기초의학, 임상의학, 졸업 후 단계에서 요구하는 성과 및 주요 과업을 기반으로 각 단계의 맥락적 특징에 근거하여 내용은 별도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의과대학 교수자들이 생각하는 국내 의과대학 및 의료 현장에서의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대상들에 대한 특징, 자질, 속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일반적인 의과대학 학습자의 특징과 비교하여 두드러지는 차이점 혹은 차별 요소를 중심적으로 모색하고자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 및 수련 과정에 따라 우수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의과대학 및 의료 현장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들에 대해 임상실습 이전 및 임상실습 이후, 졸업 후 의료 현장까지 총 세 가지 교육과정 시기 및 단계를 구분하여 차별적 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임상실습 이전은 의료 현장의 모의 환경인 의과대학이라는 공간은 동일하나 아직 강의 중심 단계에 머문 상태임으로 비교적 한정적 경험을 한 상태로 가정하고 임상실습현장과 같이 현장 맥락과 유사한 단계와는 구분해서 특징을 보고자 하였다. 임상의학 교육과정단계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을 한 시기이기 때문에 보다 의료환경에 노출된 시점으로써 현장 경험이 추가된 시기임으로 의료 현장의 특성과 의료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기반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후 우수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우수성을 보이는 수련의로부터 드러나는 우수성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각 교육과정 및 졸업 후 단계에 따라 교수들의 인식에 있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구분하여 타 자료들과 동일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유사한지를 검토하였다. 혹은 특정 단계에서 필요한 우수성 자체를 언급한 경우에는 이를 체크하여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학습자를 우수하다고 볼 때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필요시, 특정 우수성은 각 교육과정 단계에서의 특수적으로 필요한 요인임으로 하위내용에서 개념 생성 및 범주를 구성할 때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졸업 후 수련과정은 인턴과 전공의를 통칭하는 수련 기간을 의미하며, 의과대학 환경과 달리 전공의 수련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교수자와 수련의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직접적인 만남의 장소로써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우수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다만, 교수자에 따라 임상 현장에서의 전공의 수련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경험들의 내용만 정리하였다. 다만, 기초의학 분야의 의사나 의사가 아닌 교수자의 경우 연구현장에서 만난 졸업생(기초전공의, 연구원 등)의 우수성에 기반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는 임상의학 전단계인 기본의학 교육과정에서의 우수성과 검토할 때 비교 척도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 특히 수련 과정에서 드러나는 우수한 수련의의 특성은 임상교수에게 검토해 봄으로써 그 우수성이 의과대학 학생 시기와 무엇이 유사하고 다른지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임상교수의 경우 우수한 수련의에 대한 탐색의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 국외의 우수한 전공의의 특성에 대해 선행연구 등의 내용을 면담 시 소개해 줌으로써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수련의 경험에서 우수성을 검토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면담 배경을 기반으로 내용을 검토하였다.

셋째, 의사 양성 단계에서의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세 번째 연구문제를 풀기 위해 기존의 첫 번째 두 번째에서의 우수한 학생의 특성, 교육과정에 따른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봄으로써 수련현장에서만 드러나는 것,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우수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문제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의 일차적으로는 연구문제 1~2번에서 도출된 바를 기반으로 수련 현장에서만 요구되는 것과 탈락되는 것, 연계되는 것 등을 보고자 하였으며, 의사양성 단계 전반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위치를 탐색하기 위해 근거이론의 축코딩 단계 분석을 통해 패러다임 모형의 틀에 근거하여 각 요인과의 관계, 상호작용을 그려봄으로써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이 의대 맥락 내에서의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다만 졸업 후 수련 현장에서의 수련의의 우수성은 전공과의 맥락에 국한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수련의의 우수성에 기반하여 보고자 하였다.

넷째,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이 주는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점, 교육의 역할, 대학과 교수자의 역할 등을 면담을 통해 드러났던 내용 위주로 내용 구분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는 교육행위의 주체(대학 혹은 교수자)인지,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거시적인 의과대학 문화의 흐름의 변동인지, 미시적 차원에서 지원 체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에 근거하여 내용별 구분하고자 하였다. 의과대학 선발 제도의 변화, 우수한 학생상의 재설정,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과대학 문화의 개선,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도구 개선, 교수자의 역할 변화, 교육과정 변화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중 개인 교수자의 요구사항이나, 각 대학의 풍토에 대한 비판, 해당 의학교육 지원 상황에 대한 불만 등을 이야기한 것 등은 큰 의미에서는 의과대학 교육을 위한 것이지만 주제와 밀접하지 않은 교육의 개선 사항이고, 일개 개인의 학교의 상황인 경우는 면담 내용의 대표성과 거리가 먼 자료로 판단되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제외하고 내용분석을 하였다.

3.4.5. 자료 분석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는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을 위해 교수들의 인식에 대한 면담 자료를 근거이론적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 후 해석하였다. 일차적으로 연구자에 의해 면담 자료의 범주를 도출하기 위해 코드/라벨,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간의 지속적 분석과 단계에서 단계로 이행할 때 상위단계에서 하위단계의 포함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하위단계의 상위단계 간 매칭 작업을 통해 검토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 후에 전체적인 범주 구성에 대해 국내 의학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인 내용 전문가 3인을 통해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범주화 작업을 한 일차 자료에 대해 범주 구분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내용전문가 3인에게 연구참여자 20인의 면담 전사본, 면담시 수행한 질문지, 각 단계 별 코딩 작업과정(하위범주에서 상위범주로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엑셀데이터 시트 및 범주 구분표), 최종 범주 구분표,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표와 기술 내용을 전달한 후, 각 범주의 구성, 하위범주에 대한 상위범주의 포괄성에 대한 적절성, 하위범주-상위범주에서의 속성·차원의 구분 적절성, 범주명에 대한 적절성, 축코딩 패러다임의 범주 관계 구성, 코딩 전반적 과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검토 결과, 범주에 대한 적절성은 내용전문가 3인 모두 동의하는 바였으나, 범주명에 대한 의견, 범주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단어 제시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제시된 용어 등이 연구자의 초기 범주 구분의 목적 및 의도, 의미 자체와의 이견은 드러나지 않아(의견 예시: ‘우수한 의사를 그려보며 검토’ → ‘우수한 의사를 탐색하며’로 제안)별도의 수정은 없이 검토를 마무리하였으나, 일부 범주의 표현에 있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변경 예시:, ‘의과대학의 성실함 문화 강조’ → ‘성실함을 강조하는 의과대학 문화’로의 제안)에 한하여 소정의 수정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내용분석에 대한 신뢰도 검토를 위한 Krippendorff의 세 가지 원칙인 ‘안정성, 복제성, 정확성’을 포함하는 데 의의가 있다(Milne & Adler, 1999). 안정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도 데이터에 대한 코딩의 결과가 일치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함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으로 연구자의 코딩 검토 결과의 신뢰도 측면을 의미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코딩 분류 후 일정 시간 후에도 코딩 분석 결과(상위범주, 하위범주) 구분이 유사한지를 검토함으로써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일차적으로 코딩해 둔 것을 기반으로 일정 기간 후 다시 내용 검토 시 해당 항목이 맞는지 확인하고, 분류가 적합해 보이지 않는 것은 원자료의 맥락을 다시 읽고 재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코딩 작업에서 상위 개념으로 하위범주를 포괄할 시, 하위범주가 상위범주 어느 것에 해당되는 지를 일대일 매칭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복제성은 일종의 재현을 의미하는 데 신뢰도의 종류 중 평가자 간 신뢰도의 한 예로써 다양한 평가자를 활용하여 검토해 볼 때 여러 전문가가 해당 내용을 분석 시에 코딩 주제어의 일관성과 유사성이 있는지 코드를 검토한 전문가 간 일치도를 검토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내용 전문가 3인의 범주 구성에 대한 타당도, 범주 설정 및 용어에 대한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이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정확성에는 내용 전문가 패널을 통해 해당 내용의 데이터 분석에 의한 코드 분류와 하위 코드 구조화 작업이 타당한지를 내용 전문가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자문을 통해 신뢰도를 얻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방법 또한 의학교육학 전문가 3인의 피드백을 검토받는 과정을 통해 초기 연구자에 의한 코드 분류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자료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3.5. 연구의 제한점

연구분석 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과정에서 면담자료를 여러 번 비교 분석하고 하위-상위 개념 간 충분한 해석 여부 및 포함 정도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면담의 내용을 깊게 이해하고 본래의 연구 참여자가 언급한 맥락에 맞는지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동시에 연구자의 주관성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의학교육학 전문가 3인의 외부 연구자의 시각으로 범주 구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해석과 판단에 의한 과정 및 질적연구 자체가 가지는 본연의 특징으로 인한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자료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비교적 높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근거이론적 방법의 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딩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자료를 반복하여 확인하여 코드-개념-하위범주-상위범주 간의 구성이 적합한지 검토하였다. 일차적으로 분류한 코드들의 묶음을 상위개념으로 도출한 뒤에 그 상위개념에 하위개념 간 매칭을 시도함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으로써 역으로 자료의 해석과 의미도출이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개념에서 하위범주를 구성할 때에도 대표성을 갖는지 하위내용을 검토하였으며, 하위범주의 상위범주 체계에 대한 이해 시 속성과 차원을 구분하여 검토함으로써 하위맥락의 내용들이 충분하게 해석 되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 자료의 맥락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과 코딩된 결과의 위계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자료 해석과 코딩 분류의 객관성을 높이기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다자간 검토를 통한 코딩 분류를 기 작업에서부터 시도하지 못하고 범주화된 결과에 대한 검토만 수행한 점에 대 검토하지 못 하고, 연구자가 1차적으로 수행한 작업을 바탕으로 사후에 범주 구분과 해석을 검토한 점은 한계로 작용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의 양보다는 질, 맥락적 해석을 기준으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에 질적연구에서의 자료수집에서의 연구자의 민감성과 통합성의 중요로 인해 자료의 미묘한 부분을 맥락과 지속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료 간의 비교를 수행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는 연구자의 능력에 근거하여 자료의 우선순위와 내용의 깊이를 해석하는데 연구자의 위치와 경험이 연구주제와의 이해정도를 대변하는 바라고 보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다수의 연구자의 참여가 아닌 연구자 단독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미세한 부분을 분별하기 위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개인에 의한 자료 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경우 연구주제의 경험에 대해 직접적인 참여 경험이 있는 연구자이거나 연구주제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등에서 연구자 자신의 단독연구가 오히려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연구자는 의과대학 학생이나 교수가 아닌 상황에서 의학교육 분야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실무 경험과 대학원 생활)에 의존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로서 단독 해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를 선정할 때 연구 주제에 적합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자를 '의도적 표집'을 시행하였다. 또한, '이론적 포화상태'의 개념에 기반하여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수집된 자료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신뢰할 만한 자료원임을 확보하려 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적합한 연구참여자의 면담 자료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원자료로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자가 의과대학 교수가 아닌 입장에서 시도한 자료 분석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료 해석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면담 내용 중 유의미한 답변을 제공한 연구참여자의 자료를 내용 구분의 주된 기준으로 삼았다. 특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히 연구참여자 중 네 명의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료의 의미별 일차 분류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자료원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답변이 담긴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데에도 활용하였다. 또한, 유의미한 답변을 한 네 명의 참여자와 비슷한 내용을 언급한 자료는 유의미한 자료로 간주하였으며, 면담 전사본의 원자료 맥락을 검토하여 해석 방향성이 적절한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4. 연구결과

국내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을 탐색하기 위해 20명의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20명의 면담 결과에 대해 전사한 원 자료를 기반으로 단어, 구절, 문단 등의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서 줄 단위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밑줄을 긋고, 관련한 문장을 엑셀 시트에 옮겨서 1차 자료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1차 자료를 엑셀시트에 옮겨보니 해당 내용 중 일부 중복된 범주에 속한 경우도 있으나, 총 1,358개의 코드/라벨(문구·문장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유사한 내용은 동일 군으로 묶어 상위 '개념(concept)'을 생성했다. 연구에서 도출된 개념들은 총 286개로 정리되었다. 이 개념들을 포괄하는 일종의 상위개념으로써 범주로 묶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하위범주는 다시 상위범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다. 총 286개의 개념들을 기반으로 50개의 하위범주가 생성되었으며 이러한 50개의 하위범주들 사이에서도 유사 범주 간의 묶음을 통해 상위개념을 산출하여 보다 추상화된 '범주(상위범주)'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상위)범주'는 총 10개로 정리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한 요약은 아래의 <표 8>와 같다.

<표 8>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을 위한 개념 및 범주 개요

범주(상위범주)(10개)		하위범주(50개)	개념 (286개)	1차 분류 (1,358개)
범주 1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탐색 방향	● 우수한 의사를 그려보며 검토 ● 의과대학 교육 전반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를 회상하며 검토 ● 임상의학 교육과정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를 회상하며 검토 ●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검증 방안 ●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교수들의 성찰 ●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이해	32개	166개
범주 2	의대생들이 우수한지에 대한	● 의과대학생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	3개	6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구심			
범주 3	국내 의과대학 특징	• 성실함을 강조하는 의과대학 문화 • 유급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관심 • 위계질서 강조	10개	18개
범주 4	의과대학에서의 하위권 학습자 특징	• 학업 관련 낮은 성과 • 의과대학 생활에 적응이 어려움	8개	16개
범주 5	의과대학에서의 일반학습자들의 특징	• 객관적으로 높은 학업 성과를 이룬 경우 • 의사로서 적성검토 없이 입학 • 휴브리스가 강함 • 심리적 상태, 불안, 압박, 완벽주의 등 정신적 문제로 고통 • 사회경제적 환경 조건에 대한 공통적 특징 • 인간의 과업에 있어 성장해야 하는 성인학습자로의 단계로 미전이	56개	183개
범주 6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 배움에 대한 가치와 태도, 마음가짐이 다르다 • 성실함과 끈기를 가지고 학습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가는 경우이다 • 실패에 대한 대처방식과 도움을 청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 •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성이 발달 된 경우이다 • 문제해결능력이 탁월하다 • 자기 관리 능력이 탁월하다 • 지식과 경험의 전이와 적용에 탁월하다 • 의사가 되기 위한 내적동기와 목적의식이 뚜렷하다	48개	530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사람에 대한 관심과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높다		
범주 7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임상 전)	● 학습성과를 내는 것에 탁월한 경우 ● 기초영역과 임상의학의 통합에 탁월한 경우 ● 연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	15개	19개
범주 8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임상의학 교육과정)	● 임상추론능력이 탁월한 경우 ● 실제 환자 적용과 가능한 정도를 고려하여 전이 능력이 탁월한 경우 ● 임상 영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식의 복합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 ● 임상실습을 수행하면서 소통 능력과 관계성, 협력을 기반으로 팀 활동에 적합한 경우 ● 임상실습 시 자발성, 적극성, 적응력이 뛰어난 경우 ●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이 임상의사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경우	34개	96개
범주 9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졸업 후 수련과정)	● 배움을 실천해 가는 능력 ● 환자 중심의 소통 능력 ● 인간에 대한 존중 ● 전공과의 선택에 있어 목적성 ● 희생정신 ● 의료 현장에서의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원활함 ● 수련의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범위를 아는 능력	33개	81개
범주 10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 회복을 위한 방향	● 의과대학 선발 기준의 재검토 및 다양화 ● 의과대학에 적합한 학생상에	47개	243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대학, 교수자)	대한 재검토 ● 의과대학 문화의 개선이 필요 ● 의과대학의 우수성을 표현하는 지표 전환을 통해 기대하는 의사상의 전환 시도 ●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도구 개선으로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 확충 ● 의과대학 교육방식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 방안 도출 ● 의과대학과 졸업 후 교육과정의 연계성 고려

아래의 <표 9>는 전체 연구자료의 개방 코딩 결과 최종적으로 정리된 10개의 범주에 대해 이해하고자 '속성과 차원'을 기반으로 범주를 분석한 것을 정리한 바이다. 총 10개의 (상위)범주는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정의하기 위해 '속성과 차원'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되었다. 이는 하위범주에서 상위범주로 의미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범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중요한 설명적 기반으로 볼 수 있다.

<표 9>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을 위한 범주-하위범주(속성·차원) 개요

범주(10개)		하위범주(50개)	속성	차원
번호	범주명			
1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탐색 방향	• 1-1. 우수한 의사를 그려보며 검토 • 1-2. 의과대학 교육 전반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를 회상하며 검토 • 1-3. 임상의학 교육과정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를 회상하며 검토 • 1-4.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검증 방안 • 1-5.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영역별 우수한 의사의 분류	기초의학/임상의학/기타
			우수한 의대생이 보이는 지표 (성적 외)	다양함/단순함
			의과대학에서 우수성의 검증 지표	외재적/내재적
			우수성에	낙관적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대한 교수들의 성찰 • 1-6.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이해	대한 교수들의 인식	/회의적
			의과대학에서 우수성의 의미에 대한 이해정도	구체적 /추상적
2	의대생들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	• 2-1. 의과대학생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	의대 입시 기준의 신뢰	높음/낮음
			의사들이 우수한지에 대한 인식	긍정적 /부정적
3	국내 의과대학 특징	• 3-1. 성실함을 강조하는 의과대학 문화 • 3-2. 유급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관심 • 3-3. 위계질서 강조	학습환경 (문화)	경직성 /자율성
			유급제도에 대한 인식	강함/약함
			의사 사회 분위기	개방/폐쇄
4	의과대학에서의 하위권 학습자 특징	• 4-1. 학 업관련 낮은 성과 • 4-2. 의과대학 생활에 적응이 어려움	의과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	상위권 /하위권
			의과대학에의 적응 수준	안정적 /불안정적
5	의과대학 일반학습자의 특징	• 5-1. 객관적으로 높은 학업 성과를 이룬 경우 • 5-2. 의사로서 적성 검토 없이 입학 • 5-3. 휴브리스가 강함 • 5-4. 심리적 상태, 불안, 압박, 완벽주의 등 정신적 문제로 고통 • 5-5. 사회경제적 환경 조건에 대한 공통적 특징 • 5-6. 인간의 과업에 있어 성장해야 하는 성인학습자로의 단계로 미전이	학업성취도	높음/낮음
			의사로서의 적성 검토	단기적 /장기적
			휴브리스의 회복가능성	높음/낮음
			정신, 심리적 상태	안정/불안정
			사회경제적 환경 의존 정도	독립적 /의존적
			인간으로서의 발달단계	성인 /청소년기
6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 6-1. 배움에 대한 가치와 태도, 마음가짐이 다르다 • 6-2. 성실함과 끈기를 가지고 학습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	배움에 대한 태도	적극적 /소극적
			학습에 대한 접근	목적성 /수단성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가는 경우이다 • 6-3. 실패에 대한 대처방식과 도움을 청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 • 6-4.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성이 발달 된 경우이다 • 6-5. 문제해결능력이 탁월하다 • 6-6. 자기 관리 능력이 탁월하다 • 6-7. 지식과 경험의 전이와 적용에 탁월하다 • 6-8. 의사가 되기 위한 내적동기와 목적의식이 뚜렷하다 • 6-9. 사람에 대한 관심과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높다	실패에 대한 대처방식	수용성 /회피성
			대인관계	활발함 /제한적
			문제해결방식	복합적 /단편적
			자기관리능력	체계적 /무질서
			지식과 경험의 전이 수준	복합적 /단편적
			의사가 되기 위한 목적의식	높음 /낮음
			인간에 대한 이해	깊은/얕음
7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임상전 교육과정)	• 7-1. 학습성과를 내는 것에 탁월한 경우 • 7-2. 기초영역과 임상의학의 통합에 탁월한 경우 • 7-3. 연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	시험에서의 학습성과	높음/낮음
			기초와 임상의 접근	기계적 /자기주도적
			지식과 연구와의 연계성	약함/강함
8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임상의학 교육과정)	• 8-1. 임상추론능력이 탁월한 경우 • 8-2. 실제 환자 적용과 가능한 정도를 고려하여 전이 능력이 탁월한 경우 • 8-3. 임상 영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식의 복합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 • 8-4. 임상실습을 수행하면서 소통 능력과 관계성, 협력을 기반으로 팀 활동에 적합한 경우 • 8-5. 임상실습 시 자발성, 적극성, 적응력이 뛰어난 경우 • 8-6.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이 임상의사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임상추론 방향	단순/복합
			실제 의료 현장에 지식의 전이 능력	높음/낮음
			임상 영역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고정적 /유동적
			임상실습에서의 팀 활동에 대한 태도	적극적 /소극적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경우	임상실습 과정에서의 참여도	적극적 /소극적
			임상실습과 자신의 진로와의 탐색	적극적 /소극적
9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졸업후 수련단계)	• 9-1. 배움을 실천해가는 능력 • 9-2. 환자 중심의 소통 능력 • 9-3. 인간에 대한 존중 • 9-4. 전공과의 선택에 있어 목적성 • 9-5. 희생정신 • 9-6. 의료 현장에서의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원활함 • 9-7. 수련의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범위를 아는 능력	의료 현장에서 학습의 실천	지속적 /일시적
			환자 중심에서의 소통	적극적 /소극적
			의료 현장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	다양성 /획일성
			전공과 선택에 대한 준비도	능동적 /수동적
			의료 현장에서의 공동체적 자세	적극적 /소극적
			의료 현장에서의 다양한 직군과의 관계 형성	넓음 /좁음
			수련의로서의 책임감의 범위	명확함 /모호함
10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 회복을 위한 방향 (대학, 교수자)	• 10-1. 의과대학 선발 기준의 재검토 및 다양화 • 10-2. 의과대학에 적합한 학생상에 대한 재검토 • 10-3. 의과대학 문화의 개선이 필요 • 10-4. 의과대학의 우수성을 표현하는 지표 전환을 통해 기대하는 의사상의 전환 시도	의과대학 선발 기준	획일화 /다양화
			의과대학의 학생상의 검토 범위	내부적 /대외적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과대학의 문화(풍토) 유형	획일화 /다양화
• 10-5.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도구 개선으로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 확충 • 10-6. 의과대학 교육방식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 방안 도출 • 10-7. 의과대학과 졸업 후 교육과정의 연계성 고려	기대하는 의사상에 대한 평가 기준	상대적 /절대적
	우수성의 측정 도구	획일화 (단일화) /다양화 (복합적)
	의과대학 교육의 방향	학습자중심 /교수자중심
	졸업 후 수련과의 연계성	높음/낮음

본 장은 총 네 개의 연구문제(첫째,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 및 수련 과정에 따라 우수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의사 양성 단계에서의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넷째,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이 주는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에 근거하여 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딩의 결과를 정리한 바이다. 총 10개의 범주를 중심으로 각 절에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특히, 연구문제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개방코딩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범주-하위범주를 이루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문제의 답을 검토하였다. 연구문제 3번의 경우 의사양성 단계에서의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의 관련성에 대해 축코딩 결과 얻게 된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6개의 요인에 맞춰 범주들을 배치하여 상호 관계를 해석하여 범주 간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4번의 경우에는 우수성 탐색을 통한 교육적 함의에 대한 장으로써 교육의 개선문제, 문화의 변화, 교수자의 역할 변화 등을 기반으로 한 면담 내용에서 도출된 개방코딩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연구문제 1~3번까지의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선택코딩 결과를 통해 얻게 된 최종적인 연구자료의 총체적 의미인 핵심범주를 설명함으로써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과 교육적 개선 방향과의 종합적 의미를 보여줌으로써 연구 전반에 대한 정리와 선택코딩의 결과를 도식화한 것을 해석하고자 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4.1.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의 특징

4.1.1.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탐색

본 절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탐색은 우수한 학습자를 탐색하기 전 단계로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인식하는 우수성은 무엇인지, 어떤 범주인지, 어떤 것을 기반으로 검토하는지 등을 탐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의과대학 학습자들이 '우수성, excellence'를 규정해가는 데 있어 자신들이 경험한 사례, 의과대학에서의 척도, 지표 등을 기반으로 주관적이지만 20명의 연구참여자들이 이해하는 우수성의 의미를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후반부에 나오는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성과 자질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우수한 학습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수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연구의 첫 출발이자 배경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담 내용 중 우수성과 관련하여 자신만의 조작적 정의, 이해정도를 체크할 때 사용된 용어를 기반으로 정리한 바이다.

이에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과 관련한 내용들에 해당하는 바들을 개방코딩 과정에서 1차적으로 검토한 총 166개의 내용을 토대로 총 32개의 개념을 생성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의 유사 분류를 기반으로 하위범주를 총 6개로 구성하고, 이들을 포괄하는 상위범주인 '범주1.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탐색 방향'으로 상정하였다. 총 6개의 하위범주 중 3개의 범주(우수한 의사를 그려보며 검토, 의과대학 교육 전반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를 회상하며 검토, 임상의학 교육과정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를 회상하며 검토)는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을 탐색하는데 활용한 요소와 흐름에 기반하여 한 '탐색 방향'이었다. 이후 우수성을 탐색한 바를 기반으로 우수성을 검증하는 지표, 척도로 이해하는 바가 하위범주 1개를 구성하였는데 이는 3개의 개념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나머지 두 개의 하위범주는 우수성을 탐색하는 것에 대한 교수들의 성찰 부분과 이러한 전반의 과정을 통해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을 이해한 바를 각각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6개의 하위범주를 기반으로 의과대학 교수들이 우수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요약은 아래의 <표 10>와 같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표 10>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탐색 방향

범주 (1개)	하위범주 (6개)	개념 (32개)	개념 내용	코드/ 라벨 (166개)
범주1.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탐색 방향	우수한 의사를 그려보며 검토	3개	• 환자 안전을 고려한 임상의사 •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 • 연구 역량이 좋은 기초의사	9개
	의과대학 교육 전반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를 회상하며 검토	9개	• 학습전략이 좋은 학생 • 연구 역량 우수한 학생 • 의대 생활 전반에 참여도가 높은 학생 • 팀 학습을 잘하는 학생 • 리더십 경험을 한 학생 •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 • 심화학습을 꾸준히 잘 하는 학생 • 맥락적 사고를 잘 하는 학생 • 상황에 맞게 대처 능력이 좋은 학생	50개
	임상의학 교육과정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를 회상하며 검토	7개	• 환자관찰 시에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하는 학생 • 다른 환자의 케이스로 전이해서 확장학습을 하는 학생 • 기초의학 지식을 임상현장에 전이능력이 뛰어난 학생 • 배운 지식을 잘 누적하는 학생 • 깊이 있게 주제를 분석하는 학생 •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학생 • 환자 보고 만나는 것이 적합한 학생	18개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검증 방안	3개	• 자신의 진로 모색 여부 • 임상 현장의 필요 요소와 자신의 특성 검토 • 우수하다고 여기는 학습자가 가진 공통 소양 유무	23개
	의과대학에서의	4개	• 저성과자 관심에서 고성과자 관심의 변화, 이러한 교육과정 개입 관심 분위기	35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필요	
우수성에 대한 교수들의 성찰		• 평가인증제도 틀에만 국한된 교육과정 검토 반성 •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못한 현실에 대한 성찰 • 의학교육자로서의 역할 및 기능 성찰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이해	6개	• 명료한 요소로 정의하기 어려움 • 대학 혹은 교수자에 따라 주관적 기준 • 단편적 요인을 가지고 우수하다고 하지 않음 • 인지적 요인은 우수성의 일부이나, 의과대학 학업을 수월하게 하는 능력 • 의과대학생활을 잘 해 나간다는 의미 • 전문가로서의 태도 유무	31개

범주1에 해당하는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탐색방향'의 하위범주인 '우수한 의사를 그려보며 검토 → 의과대학 교육 전반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를 회상하며 검토 → 임상의학 교육과정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를 회상하며 검토'를 기반으로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을 탐색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검증 방안,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교수들의 성찰을 기반으로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이해'를 정리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해당 과정은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를 탐색해가는 과정 전에 의과대학에서 이해되는, 납득되는 우수성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으로써 연구문제의 답을 찾기 위한 배경으로써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탐색 방향'인 범주 1에 대한 자세한 해석과 인용은 [부록 2]에 수록하였다.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교수들이 인식하는 요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우수성을 정의하거나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분류하였을 때 32개에 그쳤지만, 이를 포함하여 우수성을 탐색해 나가는 방향과 우수성을 검토하는 척도, 지표를 종합해 봄으로써 복합적으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이는 전체 텍스트 중에서 1차 자료로 분류(코드/라벨)하였을 때 총 166개의 요인이 주요 내용에 대해 중복되는 부분과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점들을 함께 바라봄으로써 어떤 방향으로 우수성을 검토해 나가는 지와 어떠한 기준이나 지표를 가지고 이를 검증하는지에 대해 의과대학 교수들의 인식 과정을 통한 도출이라는 점 자체에 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를 둘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임상의사로서의 우수성, 기초의사로서의 우수성, 이외의 의과대학 학습자의 진로 역할에 대한 우수성 등으로 범주를 구분하여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와 상담(학습자의 '우수성' 잠재력 회복 방안'이라는 자극을 통해 자신의 우수성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주는 방향이 필요할 것 등을 제안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수성 개발과 관련하여 관심이 적었던 것 자체에 대한 교수자로서의 성찰, 교육적 함의와 교육 현장에 주는 시사점 제시, 향후 개발해야하는 교수개발 프로그램, 교수학습 방법, 진로프로그램 등을 검토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의과대학 혹은 수련현장에서의 우수성을 찾는 것은 결국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누구에요?" 라는 것을 건드리는 질문 속에서 우수한 그들이 가진 우수성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이러한 제자들을 교육하고 수련하는 입장에서의 뿌듯하고 유의미한 추억으로 교수자도 회상함으로써 연구참여자에게도 우수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배움의 과정에 참여하고 연구의 목적을 함께 풀어간다는 점에 연구의 내부자로서의 의미를 더해볼 수 있다.

4.1.2.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생을 탐색해 가는 과정

앞 절에서는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이들이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기준 등을 기반으로 검토함으로써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을 살펴보기 전단계의 작업으로써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의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본 절에서는 우수한 의과대학 학생이 가진 특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한다는 것'이 한국의 입시문화 속에서의 의과대학에 진입하기 전 배경이라는 점에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짐으로써 '의과대학 학습자가 가진 우수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의과대학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했는지 여부와 더 나아가 '우수한 의사로서 성장할 만한 요인을 갖춘 학생들이 입학했을까'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때 외부에서 바라보는 의과대학의 우수함과 같이 '입시요건에 따른 우수 조건을 충족한 자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한 것'이라는 점과 '이들이 절대적인 학습양이 많은 의과대학이라는 학습환경에서 많은 양의 공부를 해낼 수 있는 학업적 자질을 지닌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였다. 다만, '우수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분야에서 수월함을 드러내는 요소로서 어떠한 기준으로 정의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하였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적 방법에 의한 개방코딩 과정에서 도출된 생성으로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탐색하기 위해 관련된 범주들을 기반으로 검토한 바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다. 면담을 통해 만나본 20명의 의과대학 교수들의 경험과 시각에서 바라본 '우수성'을 재정의하는 과정 이후에 이들이 생각하는 우수한 학습자가 가진 특징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검토하면서 앞 절에 이어 첫 번째 연구문제를 풀어보고자 하였다. 20명 개개인과의 면담 후 전사한 자료 중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을 바라보기 위한 구조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면담을 통해 볼 때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습자의 특성과 자질을 도출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들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 → 국내 의과대학의 특징 검토 → 의과대학에서의 하위권 학습자 제외 → 의과대학 학생들의 전형적 특징 제외'의 흐름을 가지고 의과대학에서 우수성을 도출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일차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고려할 사항과 제외할 사항을 구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학습자가 지닌 특징'만 남도록 하는 식의 구조망을 그려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범주들의 구축 결과는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습자가 가진 특징을 검토하는 주요 근간이 되었다.

다만,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도출해 나가는 방식은 연구자가 자료의 분석을 통해 개방코딩 과정에서 얻은 바를 기반으로 범주들의 관계, 관련성을 가지고 재배치하여 해석을 한 경우이다. 이에 면담 자체의 과정에서는 반구조적 면담 시 제시된 질문 구성들의 범주와 예시 질문에 대한 검토 요인들을 연구참여자들의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장치로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질문지에 국한한 대답이 아닌 열린구조의 답변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에 각 교수들이 의과대학의 우수성을 규정해 나가는 과정 및 우수한 학습자가 지닌 특징을 검토하는 방식 자체의 흐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유목화된 범주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재배치하여 해석한 것은 연구자의 재해석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밝힌다. 다만, 우수성을 도출하는 내용의 의미에 중점을 둘 때 연구참여자들의 역할은 국내 국립 및 사립 의과대학의 의학교육현장에서 의학교육자로서 경험하고 의사선배로서 반추해 보는 자신의 삶을 통한 성찰을 통해 의과대학에서 생각하는 내부자로서의 '우수성'은 어떻게 의미 지어가야 하며 어떠한 속성을 이들이 유의미하게 검토하고 성찰하였는지를 보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면담 과정 속에서 국내 의과대학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험 혹은 관찰하는 과정에서 '우수성'을 자신의 기준에 맞게 정의하고 그러한 특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질의하고 관련된 질문을 추가적으로 더해가는 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문제의 답을 찾아가고자 하였다.

면담과정에서 '우수한 학습자'를 떠올릴 때의 '우수성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의 라포 형성 시 언급하였다. 연구목적에서 언급한 '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은 무엇이라고 봐야하는가?'에 대해 기존의 성적, 특정 수행성과 등을 넘어서는 의사로서, 의학도로서 필요한 우수함에 대한 고민에서부터의 시작이라는 점을 배경에 설명하였다. 이에 상대적 의미로서 누구보다 무엇을 혹은 어떤 요인을 '잘한다, 더 낫다'의 개념이 아닌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해야하는 과업을 의사 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면서 소화해 가면서 교수자가 관찰하고 지도하는데 있어 수월하게 지나고 있다고 느끼거나, 지금 이 시점에도 그 학습자가 기억에 남고 궁금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질의하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의사 되는 과정으로서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고 의사 되는 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의과대학과 수련환경을 거쳐나가는 가운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적합성을 찾아가고 이질적이지 않게 이러한 과업을 경험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볼 때 연구참여자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의 내용을 엮어나갔다.

아래의 기술한 내용의 흐름과 같이 의과대학 교수들이 우수한 의과대학 학습자가 가진 특성과 자질을 도출하기 위하여 개방코딩 결과 총 5개의 범주(범주 2 ~ 범주 6)가 이 과정 내에 해당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주2. 의대생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 '범주3. 국내 의과대학 특징', '범주4. 의과대학에서의 하위권 학습자 특징', '범주5. 의과대학에서의 일반학습자들의 특징', '범주6.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의 과정을 통해 우수한 학습자가 가진 특징을 검토해 나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래에 기술되는 내용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범주별로 내용을 기술한 바이며, 각 범주의 세부 내용에 대한 기술과 함께 관련된 개방코딩 결과를 표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표 11>는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된 총 5개의 범주의 전체적인 개괄을 볼 수 있게 요약한 표이다.

<표 11>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검토하기 위함 범주

범주(5개)		하위범주 (21개)	개념 (137개)	코드/ 라벨 (753개)
범주 번호	범주명			
범주2	의대생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	• 의과대학생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	3개	6개
범주3	국내	• 성실함을 강조하는 의과대학 문화	10개	18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과대학 특징	• 유급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관심 • 위계질서 강조		
범주4	의과대학에서의 하위권 학습자 특징	• 학업 관련 낮은 성과 • 의과대학 생활에 적응이 어려움	8개	16개
범주5	의과대학에서의 일반학습자들의 특징	• 객관적으로 높은 학업 성과를 이룬 경우 • 의사로서 적성검토 없이 입학 • 휴브리스가 강함 • 심리적 상태, 불안, 압박, 완벽주의 등 정신적 문제로 고통 • 사회경제적 환경 조건에 대한 공통적 특징 • 인간의 과업에 있어 성장해야 하는 성인학습자로의 단계로 미전이	56개	183개
범주6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 배움에 대한 가치와 태도, 마음가짐이 다르다 • 성실함과 끈기를 가지고 학습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가는 경우이다 • 실패에 대한 대처방식과 도움을 청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 •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성이 발달된 경우이다 • 문제해결 능력이 탁월하다 • 자기 관리 능력이 탁월하다 • 지식과 경험의 전이와 적용에 탁월하다 • 의사가 되기 위한 내적동기와 목적의식이 뚜렷하다 • 사람에 대한 관심과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높다	48개	530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다만, 범주2~범주5의 경우, 범주6인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내용임으로, 각 범주(범주2~범주5)에 대한 설명 및 주요 인용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은 범주6의 결과 도출 방식은 동일하나 본문에서 제외하여 [부록 2]에 수록하였다.

4.1.3.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의과대학 학습자들은 '무언가를' 잘하는 학생이 입학했다는 점에서는 의예과 입학, 의과대학 편입, 의학전문대학원 등 다양한 입학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교수들 입장에서 동의하는 바였다. 의과대학에 입학할 때에 다양한 입학 사정 요인을 검토하지만 그 중에서도 학업적 역량이 높다는 것은 객관적 지표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에서도 학업에 뛰어난 대상이라는 점에 강력하게 동의하였으며, 총체적인 점수로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입학했기에 의과대학 학생들은 연구참여자들인 의과대학 교수들 또한 '얘네들은 잘하는 애들'이라는 전제가 암묵적으로 기저에 있다고 하였다. '잘하는 애들'이라는 기준과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잘하는 애들'로 인식하고 그것은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고정관념 속에서 의과대학 학습자에 대한 시선은 굳혀져 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의 의과대학생에 대해서는 그들의 특징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라는 점을 경계로 규정화 되어 왔고, 이들 중 우수하다는 애들은 더욱이 '별다른 지도와 지원 없이도 알아서 잘할 것이다'라는 전제 속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도 못해왔다고 하였다. 오히려 의과대학에서의 관심은 우수한 대상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저조했음을 고백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러한 연구에 참여하면서 면담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회고해 봐도 우수한 학습자들이 비교적 의과대학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저성취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대상들에 대한 우수한 속성이라거나 우수한 학습자를 발견해가려는 노력,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을 규정하는 속성들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족했음을 성찰하였다. 우수한 학생들도 피교육자 중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저성취 학생들에 대한 관심 대비 시간과 에너지, 면담 등을 통해 학습자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과 특성을 도출하고 잠재력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책무를 잊게 된 것도 사실이었다는 고백을 하면서 면담에 참여하였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여기는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을 탐색해가는 데에는 '이들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발견하고 우수성이 무엇일까'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의 성찰에서부터 시작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우수성에 대한 발견은 교육의 본질과 가치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나 우수성을 개발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이 서구문화권에서의 '강점, 장점, 잘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고 격려 해가는 점과 달리 동양 문화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권에서는 잘하는 학생이어도 '실수, 오점, 틀린 것,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 등의 '약점'에 집중하여 결함을 메꾸는 문화가 익숙한 환경 속에서 '우수성'의 방향은 이해되나 문화적 차이가 있었음을 이야기하였다. 서양 문화권은 학습자의 장점과 강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러한 소질과 자질을 살려주는 강점 중심의 성장형 교육철학이 교육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반면 국내 문화를 포함하여 동양 문화권은 실수를 최소화하고 약점을 줄여가는 방식의 교육환경 속에서 중등교육과정을 경험하고 고등교육환경으로 넘어왔음에도 유사한 교수학습에 대한 방향과 평가 방식의 이해가 이어지는 것이 배경인 것으로 검토하였다.

교수자 개인의 철학과 교육의 방향으로는 성장형 교육철학으로 학습자의 장점을 끌어주고 장점이 유인될 수 있도록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지원해 주는 식의 역량중심교육과정의 기반인 시간을 변수로 두고 완전학습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유인해 주어야 하는 바는 동의하였으나, 교육환경의 특성상 정해져있는 평가도구의 결과를 통해 나오는 성적, 상대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의과대학에서는 줄 세우기, 절대평가라고 할지라도 pass와 honor 등급을 제외한 재교육대상자 구분, 유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의사국가고시의 필기 및 실기시험 제한된 시험 유형, 표준화 환자에 대한 실습 등의 유지되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환경의 상황으로 인해 우수성을 발현시키고 시간을 기다려주는 성과중심교육과정과 서양 문화의 교육철학보다는 새로운 교육과정 방향성과 평가방법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 식의 교육과정개발과 평가가 불균형하고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한계를 더하였다. 이는 개별 교수자의 방향과 교육철학의 다양성을 존중하더라도 입시제도로 인한 제한된 입학사정, 평가도구의 제한으로 인한 평가도구 타당도의 결여, 성과중심교육과정을 표방했지만 교육과정과 평가도구 개발의 불균형, 국가고시의 필기 및 실기에 중심을 둔 의사면허 취득을 통한 의사 양성이라는 대전제가 제한적으로 의과대학 교육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우수성에 대한 인식과 우수성의 범주의 다양성에 대한 검토에는 유의미한 바를 보였으나 '우수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만들어가며 이해해야 하는지 모호함을 느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의과대학이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의학교육자들의 내부자로서의 목소리의 수렴과 우수성을 규정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 의과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가치 실현이 의사 양성이라는 직업 교육의 한계와의 모순을 극복하고 균형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우수성 검토와 다양한 우수성의 속성을 공유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 자체의 과정이 유의미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였다.

이러한 우수성에 대한 가치와 철학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기반으로 의과대학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교수들이 우수한 학습자들의 교육과 지도 경험을 비춰 '우수성'의 특성과 자질로 손꼽는 것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방코딩 결과 총 9개의 범주로 정리되었다. 이는 원자료로부터 우수한 의과대학 학생의 특징과 관련한 요소인 530개의 '코드/라벨'을 기반으로 48개의 개념을 생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총 9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인식한 우수한 학생의 특징에 대한 '범주-하위범주-개념-코드/라벨'의 개요는 아래의 <표 12>와 같다.

<표 12> 의과대학 교수들이 인식한 우수한 의과대학 학생의 특징

범주	하위범주 (9개)	개념 (48개)	개념 내용	코드/라벨 (530개)
범주6.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배움에 대한 가치와 태도, 마음가짐이 다르다	12개	• 비가시적 성과 중요 • 적극적 • 열심 • 계산하지 않고 • 과정을 의미 있게 여김 • 자기주도적 학습 • 도전하고 마주하려는 성향 • 열린 마음 • 도전을 받아들이는 자세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 과거의 성공을 잊고 도전 • 잠재력 탐색	114개
	성실함과 끈기를 가지고 학습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가는 경우이다	7개	• 출석 등에 성실함 • 요령을 피우지 않음 • 매일의 습관과 훈련의 중요성 •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고 진로를 개척 •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함 • 꾸준히 하려고 함 • 단기간의 성과를 바라지 않음	43개
	실패에 대한 대처방식과 도움을 청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	5개	• 회복탄력성이 높음 • 스트레스 해소 능력 및 관리 방안 • 주변의 지지를 통한 안정성 • 피드백을 통한 성찰에 대한 수용적 태도	79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대학 내 다양한 활동과 체험에 참여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성이 발달된 경우이다	5개	•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 원만 • 임상실습의 바뀌는 과와 구성원과의 관계 원만 • 질문이나 알아가려는 태도가 적극적 • 이타적 태도로 주변을 돌아볼 줄 앎 • 조별 실습, 프로젝트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	61개
문제해결 능력이 탁월하다	5개	•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 • 상황 파악을 통해 맥락적 사고 가능 • 전체에서 부분, 부분과 부분을 보는 능력 • 우선순위를 보는 능력이 뛰어남 • 의사소통 등 의사 결정 체계를 이해하고 중요성을 앎	40개
자기 관리 능력이 탁월하다	5개	• 시간 관리, 우선순위에 대한 관리 • 메타인지를 통한 자기 객관화 능력 • 타인의 피드백과 자기 자신의 성찰이 함께 이루어짐 • 중요도 판단에 능함 • 신체와 정신 관리에 적극적	99개
지식과 경험의 전이와 적용에 탁월하다	3개	• 기초지식과 임상현장 등 지식과 경험의 조화 능력 • 3차원적 구조로 생각하는 힘 • 증례토의 및 발표에서 복합적 자료를 통한 지식 생산	31개
의사가 되기 위한 내적동기와 목적의식이 뚜렷하다	3개	• 의과대학을 위한 준비가 아닌 의사 되는 과정을 준비함 • 어떠한 의사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 • 자신의 적성과 전공 등의 진로	55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와 연결하는 능력	
사람에 대한 관심과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이 높다	3개	•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음 •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구성원들과의 소통에 탁월 •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	8개

첫째, 우수한 학습자들은 배움에 대한 자세가 일반 의과대학 학생들의 전형적인 특징과는 다름을 보였기에 '배움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있어 우수성을 지닌 경우라고 보았다.

연구참여자 중 다수가 중복되게 대답한 의과대학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으로써 '학습과 배움에 있어 적극성, 심화학습' 등 배움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 등에 우수한 속성을 지닌 경우라고 인식하였다. 이 경우의 내용은 총 114개의 내용들이 '코드/라벨'로 1차적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위 단계인 '개념'으로 총 12개가 도출되어 하나의 (하위)범주를 생성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코드/라벨'인 114개의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와 '코드/라벨-개념' 간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다.

결국 이들이 경험하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있어 유의미한 학습 과정으로서 의사되는 과정의 일부로 배움의 과정을 받아들이고 학습의 효과 또한 가시적 성과 외에도 비가시적 성과의 힘을 믿고 누적해 나가고자 하였다. 배움에 자세에 있어 일차적으로 적극성을 보였다. 이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장을 맞이하거나 교육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과정과 과업에 대해 '배우겠다'라는 열망과 새로운 장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식의 자세를 가졌다. 긍정적 자세로 배움을 받아들이고, 배움에 임하겠다는 준비된 자세로 적극적이면서도 자발적 참여를 하는 식의 성향을 보였다. 적극적이고 열심인 자세로 기억되는 이들은 교육과정 혹은 비교육과정의 전체적인 과업에 대해 계산하지 않고 의미를 이해했으며 대학이나 교수의 요청이나 요구에도 모든 경험을 배움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반응과 대응으로 '참여하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과목에서 다루는 지식에 대한 것만을 배움으로 한정 하지 않고 자신들이 물리적인 환경과 숨은 교육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는 성향이 강했으며, 배우는 것 자체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성향을 가졌으므로 배우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성취를 얻어가는 식의 진정한 학습자로서의 학습을 해가는 기능을 회복하는 식이었다. 이들은 평생학습자의 성향이자 성인학습자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배움의 끊임없는 참여와 성취로 그 본질 자체에서 얻는 순수함을 즐기고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식이었다. 의예과에서 기초의학 교육과정 단계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넘어가고 임상의학 교육과정 단계로 넘어가는 식의 새로운 교육과정의 전환 앞에서도 특정 학문과 교육과정 속에서만 적극성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장이 바뀜에도 배움 자체에 즐거움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수업 시간에 경청하는 태도, 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성 등을 통해 배움을 좋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느끼게끔 하는 특징을 보였다. 결국 배움은 인생의 과업 중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서 인식해 나갔으며, 인생 속에서 배워간다는 것은 성장해 나가겠다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며, 성장을 할 때에는 기존의 것과는 이질적인 것도 수용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낯선 것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즐거움으로 새로운 도전을 여기는 태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새로운 도전 과업이나 과제에 대해 스트레스로 여기는 것이 아닌 '오늘도 새로운 것을 해결해 보겠다, 이루어 보겠다'식의 마음가짐으로 과업을 마주하고 새로운 것에 회피하지 않고 부딪히는 성향을 가졌다. 성장을 해간다는 마음가짐과 동시에 이러한 성장을 너무 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성장통을 겪어가면서 성장 과정을 통해 다음 단계로 도약해 가는 것에 용기가 있으며 사전에 머리로 계산하고 재보면서 부딪히는 것이 아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과제를 받아들이고 도전해 나가는 자세 속에서 배움을 즐기고 학습의 본래 의미와 기능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였다. 특히 '도전의 자세에 있어서는 기존의 것이나 대다수가 하는 과업의 도전을 넘어서서 새로운 것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가치와 주관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도전해보는 용기'를 의미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방향과 뜻을 가지고 임하고 개척해 나가려는 자세'를 의미한다. 이들은 의과대학에서 주어지는 교육과정과 선택과목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동아리, 교외 활동, 창업 활동, 교환학생, 이중 전공 등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대다수가 선택하는 것이 아님에도 자신이 길을 찾아가고 새로운 방향을 검토하면서 두드려가는 것에 도전을 즐거워하고 새로운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그 자체로의 가치를 느끼면 도약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었다.

"엑설런트한 애들은 배움 자체를 아주 좋아해. 배우는 거 자체를 공부하는 걸 엄청 좋아하고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거 배우는 게 나중에 내 의사 됐을 때 너무 필요해서 꼭 공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 BY 교수

이들의 '배움에 대한 자세는 열린 마음, 도전을 받아들이는 자세, 과거의 성공을 잊고 새로운 과제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새로운 것에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 의과대학 학생의 역할을 넘어서 인간으로서 삶의 일부로서 성장해 나가려는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태도,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닌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의 전환,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 타인에 의한 추진이 아닌 자발적 참여' 등이 이들이 배움에 임하는 자세였음을 검토해 볼 수 있었다. '성장에 대해 긍정적 인식과 태도'가 기저에 있었으며 '초심의 자세로 과거의 것을 잊고 새로 시작하는 자아로서의 배움에 임하는 태도', '성장통이 힘들어도 마주하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해 거쳐 나가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도약하는 과정을 힘들어도 이겨내 나가는 힘'이 있는 경우였다. 이는 '성장하겠다'는 도전하는 자세의 기전에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표출해 가는 것에 흥미를 지니는 경우였으며 자신이 지닌 창조성, 잠재력, 가능성을 교육과정 속에서 발현해 나가고 비 교과과정 속에서도 노출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이 지닌 가능성을 검토해 가는 것을 즐기는 경우였다. 이에 새로운 과목이나 새로운 교수자와의 만남과 참여를 즐거워하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속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의과대학에서 주어지는 교육과정과 규정화된 학사 내규 외에도 자주적인 학습자로서 선택과 책임을 경험하면서 성장해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기저에 있는 경우였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학습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습을 통한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래 기능에 가까운 특징을 지녔기에 '우수한' 속성 중 하나로써 배움의 자세가 일반 의과대학 학생들의 특징과는 차이가 있다고 바라보았다. 결국 이러한 학습의 과정이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완수와 의과대학 졸업을 위한 단기적 목표이자 해결 해야하는 과제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의사로 성장해 나가고 의업을 수행해 가야 하는 역할 기대에 따른 책임으로 받아들였다. 역할에 따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필요 요인으로 생각하고 '의사가 되는데 모든 경험이 유의미하다'라는 전제에서 학습하는 과정을 경험해 나가고 임상 현장을 이해해 가는데 유의미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 보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우수한 학습자들이 배움에 대한 학습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는 성실함과 끈기가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중 다수가 중복되게 대답한 의과대학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으로써 '성실함, 끈기, 꾸준함' 등 학습을 위한 태도, 학습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갖춘 경우라고 인식하였다. 이 경우의 내용은 원자료로부터 총 43개의 내용들이 '코드/라벨'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상위 단계인 '개념'으로 총 7개가 도출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코드/라벨'의 43개의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와 '코드/라벨-개념' 간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제가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항상 자기 분야에서의 최고가 될 수가 없거든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정말 내가 필요하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겠다’ 이런 자율적인 것과 막 누가 시켜서 하기 싫어서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JE 교수

여기에서 말하는 성실함은 의과대학 학생들 다수에게 드러나는 해야 하는 것을 매일 하는 것, 출석 문제 등을 언급하는 소극적 범위가 아닌 성실함은 요령을 피우지 않고, 계산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 임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문제이다. 배움의 자세에 있어 요령을 피우지 않고 학습의 본질에 맞게 배움의 과정에 참여하고, 배움을 통해 성장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단순히 성적 획득을 위한 일반 의과대학 학생들과는 차이를 지닌 특성이다. 이에 일반 의과대학 학생들 중 ‘성적이 높다고 우수하다’는 점과는 다르다는 의미이다. 이는 교육과정 가중치, 과목 간 가중치, 국가고시 포함된 과목, 의사 출신의 교수들이 가르치는 과목 등 일반적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눈여겨보고 계산해서 접근하는 과목과 달리 ‘교육과정의 어느 시기이거나 임상실습 중에 주 수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교육과정의 과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학점 가중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배움에 있어 순수한 동기와 마음이 있는 경우, 성실하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성실함의 속성이 학습 태도에 있는 경우에는 시험을 위해 단기적 집중과 전략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초와 임상 영역, 실습과 비실습 구분을 하지 않고 꾸준히 동일한 것을 매일 실천 해가고 학습해 가는 습관, 자신이 해야 할 일 등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배움에 두고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전환해오는 능력을 기반으로 매일의 성실한 태도와 습관을 훈련하여 일상에서 학습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힘을 지녔음을 뜻한다. 이들의 특징은 시험을 앞둔 시기, 실습에서 중요한 과목 등 특정 상황에만 한정하여 학습하는 것이 아닌 ‘매일 훈련된 학습의 힘이 습관화 되어있는 경우’를 의미하였다. ‘성실한 태도가 실천으로 되려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타의에 의한 힘이 아닌 자력에 의해 자신이 학습에 대한 내적동기가 확실하고 자신이 세운 가치와 목적하에 자주적으로 매일의 실천으로 옮겨가는 힘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의 큰 범위에서 의과대학에서 경험하는 연구, 진료, 사업 등 의사의 다양한 역할에서 성실성이 훈련된 사람은 향후 진로를 찾아가고 그 역할을 해나갈 때 이어지는 우수한 학습자 및 졸업생들의 특징 중 하나였다. 결국 평소에 꾸준히 학습해 나가고 배워가는 자세의 기본은 ‘어떠한 의사가 되겠다는 목적의식 하에 그러한 목적을 수립하기 위한 내적동기가 기반이 자리 잡은 경우이며, 장시간 과업의 누적으로 그러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이 배워나가고 새로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것을 익혀나가며 매일의 습관의 실천이 평생학습자 입장에서 배움에 대한 태도와 습관이 성실함과 끈기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력을 통해 의사 되는 과정을 받아들이고 깊이 있게 학습함으로써 단순히 족보나 슬라이드 식의 공부가 아닌 교과서, 논문 등 다양한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고 깊게 들어가는 식의 학습으로 전환해가는 식의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었다.

우수한 학습자들은 학습에 있어 요행이나 요령을 피움으로써 피상적으로 그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고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있는 것이 주된 특징 중 하나였다. 배워가고 새로운 것을 익혀가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한 지표와 상관없이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통해 자신의 것을 공부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학습자들을 우수한 학습자의 특성으로 교수자들은 바라보았으며, 점진적 학습을 통해 버텨나가면서 꾸준히 하는 학습자들을 우수한 학습자의 특성이라고 강조하였다. 임상의사의 경우에도 새로운 약이나 치료법이 나오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공부해서 알아감으로써 끊임없이 배움을 기반으로 준비 해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안 자기개발을 통해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힘과 단기의 목적을 떠나서 장기적 관점에서 매일의 성실함과 끈기가 이어져야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장기적 성과의 일부로 우수성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수한 학습자들은 실패에 대한 자신만의 대처방식을 알고 있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였다.

연구참여자 중 다수가 중복되게 대답한 의과대학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으로써 '회복탄력성, 도움을 청하는 자세,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 등 실패에 대한 자신만의 방법이 있고, 대응 방안, 도움 요청 등이 가능한지를 검토했을 때 우수한 학습자들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자세, 도움을 청할 곳, 마음을 기댈 곳 등 회복이 가능한 장소와 대상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의 내용은 원자료로부터 총 79개가 '코드/라벨'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상위 단계인 '개념'으로 총 5개가 도출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코드/라벨'의 79개의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와 '코드/라벨-개념 간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자기가 그 어려운 것들이 힘들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엄습하니까 새벽에 나가가지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걸로 뭔가 풀면서 자기 건강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체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불안감을 푸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는 이제 가족의 지지, 의과대학 과정에서 낙오나 중도 탈락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변인 같은데 ‘가족의 지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논문에서도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가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CH 교수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속에는 실패의 경우도 많고, 비교적 학업 우수자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 기존의 ‘노력과 열심’하고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바라본 우수한 학습자들은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냈다가 아닌 실패를 받아들이는 힘, 실패를 대처하는 능력에 있어 우수성을 지녔다고 보았다. 소위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습자들의 경우 새로운 교수학습 환경, 평가도구의 변경, 다수의 시험으로부터 오는 결과에 대해 긍정적일 때나 저성취를 보인 자기 자신과 상황에 대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실패로 이어질지라도 무너지는 것이 아닌 넘어져도 일어나려는 힘을 강하게 가진 경우였다. 넘어져도 일어나려는 힘이 강하다는 점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다수 의과대학에서의 학습자들 중 우수성을 보이는 경우는 다수의 ‘스트레스로부터 관리해 나가는 능력, 자신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받을 방안을 모색하는 식의 방안을 탐색하거나 이미 찾은 경우’들이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자신들이 지켜오거나 고수해 온 학습 방식을 과거에 성공적 학습전략과 방향이었다고 해도 ‘의과대학 학습을 해나가거나 실습현장에서 마주하는 과업들과 차이가 있을 경우, 자기 자신을 검토해 보고 학습 환경에 적합한 학습전략을 탐색하고 자기 자신의 특성과 그 중 맞는 것을 조정해 가는 능력’을 지녔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경험에 맞게 상황 파악을 한 후 태세 전환을 하고 살아남을 힘을 기는 방향으로써 학습 방법 및 전략 공부 습관 등을 조정해 나가는 힘을 가졌다. 즉, 상황에 맞게 자신의 방향과 습관을 전환해 나가는 힘이 실패를 마주하거나 극복해 나가는 방법 중 하나라고 표현하였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 자아 탐색과 자기 객관화 과정을 통해 완급조절의 방법을 익혀가고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갔으며 동시에 외부의 피드백과 조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shaping 해가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실패를 마주하는 것만이 아닌 이들은 적절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교수자, 선배, 또래, 가족 등에게 조언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들로부터 오는 조언과 피드백을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기저에 있었기에 실패를 전환해가고 개선 해가는 방향 전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실패에 마주했거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히지 않고 정서적 지지와 응원을 받고 회복하는 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실패를 마주했을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그 부분에서 보완해 나가는 힘이 있음은 발달을 해가는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학습자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이들 또한 회복탄력성이 있는 경우이면서 자신만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겨나가는 과정으로 이들을 바라보았다. 비교적 의과대학 학습자들이 대부분 실패 경험이 부족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잘 이겨내고 충격에 대해 털어버리고 이겨내고 올라가려는 힘'이 있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실패를 마주하고 이겨내는 데에는 실패라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거나 동시에 스트레스 자체를 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훈련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해야 하는 방향과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스트레스를 대처해나가는 훈련이 평상시에 이루어진 경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실패 자체를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부딪혀보고 실패를 이겨내 나아가는 것도 연습이라는 생각으로 훈련에 임하고 실패를 하고도 인생에 있어 지속적 성장의 관점에서 진행 중이라는 인식'이 그들의 내면에 있을 때 그 힘으로 인해 의과대학에서의 다양한 학습 과정과 경험을 받아들이고 마주해가는 것을 그들의 우수한 속성을 보고 있었다. 실패한다는 것은 결국 그 상황이나 과업에 실패라는 부정적 성과가 아닌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워가고, 자기 자신을 겸손의 태도로 되돌아봄으로써 교만한 자세가 아닌 '지속적으로 배워가야 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과거의 성공에 함몰되어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 개발하려는 의지가 약한 데 비해 과정 속의 실패 경험은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 봄으로써 체득하고 채워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기회가 된 셈이라고 이 시기의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실패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자신만의 심리적 안정 방안을 찾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도움을 청하는 것과 달리 자신의 취미나 흥미를 기반으로 자신의 감정과 현재의 우울하고 불안한 상황을 치환할 수 있는 것을 삶 속의 일부로 늘 포함해 나가면서 자신의 감정과 상태에 균형을 맞춰나가는 노력이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교우관계를 통한 친목 활동, 종교활 등 비교과활동과 대외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또 다른 잠재력을 발현해 나가면서 학업적인 면에서 소진된 에너지와 실패한 상황 내로만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고 여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러 가지의 특성으로 이루어진 자기 자신의 총체적 모습 속에서 균형을 맞춰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즉,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해 나가고 인생의 삶에 있어서 현재의 상황 또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 일부라는 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성숙한 인간이자 성인학습자 모습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바였다. 실패라는 특정 이슈를 자신만의 노하우와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통해 극복해 가는 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재회복되는 기회이고 어려움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값으로 살 수 없는 교훈을 얻게 된다. 또한 안주하거나 안전지대에만 머무르려는 것이 아닌 새로운 개선 방향을 향해 도약하는 기회의 과정으로 학습의 기능을 회복하는 학습자로서의 순기능을 달성하게 되는 셈으로 보았다.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내고 극복하는 것은 그동안 타인이나 외부 지원에 익숙했던 의과대학 학습자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한층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계기이고 자신만이 극복해 내는 자력이 생김으로써 향후 의사 되는 과정에서의 수련과 교육 등에 있어 외부의 힘과 지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학습자로서 자기 자신을 조율하고 관리하고 성찰해 나가는 힘을 키우는 계기가 실패를 극복해 나가는 방안과 실패 자체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것 자체가 주는 힘이라고 하였다.

넷째, 우수한 학습자들은 인간관계가 원만하다는 점이다. 이는 대인관계능력과 사회성이 발달 된 경우였다.

연구참여자 중 다수가 중복되게 대답한 의과대학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으로써 '대인관계능력, 눈치, 사회성' 등 인간관계에 있어 원만함이 의료 현장에서의 다양한 직종간의 만남 시에도 수월할 수 있다는 인식이었다. 이 경우의 내용은 총 61개의 '코드/라벨'이 원자료로부터 분류되었으며, 이를 상위단계인 5개의 개념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코드/라벨'의 총 61개의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와 '코드/라벨-개념' 간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다.

"조금 더 눈에 띄는 학생들이 지금까지도 나한테 기억에 많이 남는 경우이고,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학생들은 저런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대학의 교수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그런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 학생들이 가장 큰 특징은 이타성이었던 것 같아요." -KM 교수

전체적인 의과대학 학생들의 특성상 이공계열, MBTI에서 E보다는 I인 내향형 학습자가 많고, 제한된 인간관계 경험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과 출신의 남학생, 내향형, 의사와 유사 직군에의 관계 형성, 기호의 한정' 등이 의과학의 학생들의 인구분포에 대한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하였다. 다만 이들 중에서도 교수들이 기억에 남거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나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요인은 동료나 교수와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였고, 그 안에는 헌신, 희생, 학교나 공동체에 대한 애정, 봉사 정신 등이 뛰어난 경우가 주된 특징이라고 하였다. 단순히 대인관계 능력이 좋다는 점에서 우수하다는 것이 아닌 자신이 현재 속에 있고 경험하고 만나고 있는 동료와 교수와의 원만한 관계의 구성과 유지에는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시간과 우선순위가 제한된 경우가 아닌 주변도 돌아볼 줄 알고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상호 존중하고 도움을 주는 관계라는 것을 인식한 경우에서였다. 이들은 특히 의과대학에서의 TBL, PBL 등의 조별 학습 과제나 임상실습과정 속에서 소그룹(조) 위주의 실습 과정을 경험할 때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구분되는 부분이었다. 이는 모두가 제한된 시간과 주어진 과업과 시험의 연속선상에서 자기 자신의 것만을 챙기고 내 것만을 처리하는 과거의 의과대학 입학 전까지의 대다수가 지닌 속성을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학교나 공동체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고, 교수가 부탁하는 학교의 일이나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부탁하는 과업에 있어서 수용적 태도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헌신하는 자세를 지닌 경우였다.

이는 결국 의사가 되어서 의사 외에 간호사와 병원에 있는 의료팀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치료를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는 요인이며, 거시적으로는 사회와 지역사회에 자신이 해나가야 할 의사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해나갈 수 있는 책무를 다해가는데 기본 속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단순히 이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만의 학습과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의사의 역할과 모순에 대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각종 정책이나 경제원리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 구조 안에 의료체계가 있고 의사의 역할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역할의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학습자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홀로 수행하는 과업의 익숙한 의과대학 입학생들의 특성을 넘어서 타인들과 팀을 통해 소통해 나가고 협력해 가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이러한 노력에서 탁월함을 보이는 관계 지향적 특성, 소통 능력의 우수성 등은 이들이 가진 우수성이고 추후 의사로서 의료팀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과업을 해결하는데 수월성을 지닌 경우라고 가정하기 때문이었다.

의과대학을 경험하고 의사로서 수련받는 과정과 의업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혼자 처리해 나갈 수 없는 영역이 있고, 소통을 통해 정보가 없이는 업무처리에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실패를 경험하거나 힘든 과제에 부딪혔을 혼자 고립되는 부분에 있어 타인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알고, 일을 분담하는 능력, 타인을 도와주는 능력 등을 통해서 소통과 관계의 능력으로 결국 에는 의사로서의 일을 수행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과대학에서의 기본의학 교육과정 단계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 해나가는 과정, 임상실습 속에서 조별 실습을 수행하고 실기를 준비하고 증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 학습을 못 따라오는 학습자들을 구성하여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길을 만드는 노력을 통해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학습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구성원들을 생각하고 함께 가는 것에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타인을 챙기면서 같이 나아가는 힘의 중요성을 아는 경우를 의과대학 교수들은 우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로 구분하였다. 결국 타인을 돌아보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각자 해야 하는 책무를 구분하고 업무를 조정하고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은 소통 능력이며, 관계를 지향하는 관점이라고 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특성을 잘 발현하고 개발하면 누적된 배려와 관심 속에서의 관계 지향적 유형은 이타적인 성향을 기반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이 기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학습자들은 향후 리더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는 점에서도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문제해결능력이 탁월한 경우였다.

연구참여자 중 다수가 중복되게 대답한 의과대학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으로써 '해결책 고민, 전체에서 부분 판단, 전이 능력, 우선순위 검토' 등을 기반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처리하는 경우였다. 이 경우의 내용은 원자료로부터 총 40개의 내용들이 '코드/라벨'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상위 단계인 '개념'으로 총 5개가 도출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코드/라벨'의 40개의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와 '코드/라벨-개념' 간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다.

"자기주도형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엑셀런트하고 자기 주도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족보만 쫓아갔는데..." -YS 교수

이들의 경우 단순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복합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문제를 파악해 내고 문제 속에서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파악한 뒤 전략적으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아는 경우였다.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결국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구축했다고 보는 점이고 이 기반에는 상황 파악, 눈치가 빠르다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서 눈치가 빠르다는 점은 상대와 상황에 대한 이해와 요구 분석이 제대로 된다는 점이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 파악과 문제 해결 방식의 우선순위를 잘 찾는 특징은 단순히 답을 찾아 정답을 맞추는 단편적 과정이 아닌 상대의 요구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에 특화 되어있고, 이 안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으며, 결국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상대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방은 상황과 선행지식을 종합하여 눈높이를 고려해서 설명을 잘 한다는 점을 의미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임상의사가 되거나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의 의사 역할을 볼 때 다양한 역할 속에서의 의사는 가르치고 설명하는 자로서 교육자의 기능을 함양하고 있기 때문에 눈높이 맞는 설명을 잘하는 특성을 지닌 학습자는 장기적으로 우수한 의사가 되는데 적합한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연결해서 보기 때문이다.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잘한다는 점은 자신이 먼저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하고 소화했다는 것으로 해당 내용의 설명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전달 능력인 셈이며 이는 향후 수련 현장에서 환자의 이야기와 환자가 놓인 다양한 상황 속에서 환자 문제를 받아들이고 치료계획 또한 정해진 답만을 주는 가이드가 아닌 환자에 따라 상황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유연한 치료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특성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수나 선배에게 자신의 이해를 재확인하며,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누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설명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며, 자신의 지식 상태를 명확히 전달하고 상호 소통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의사로서는 선배나 교수자에게 자신의 이해한 부분과 해결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의료상황에서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책임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소통 및 문제해결을 접근 방식에 있어 한정되고 틀에 박힌 사고방식이 아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가능한 대안을 찾아가는 데 있어 유연한 사고와 열린 구조의 사고방식 융통성이 있는 경우였다. 정해진 답에 맞춰 학습하는 족보와 정답 추구 식의 의과대학의 일반 학습자들의 양상과는 차이가 나는 경우였다. 이러한 특성을 갖춘 학습자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이들은 단순히 교과 지식을 갖추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닌 의과대학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면담 및 지도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를 찾아가고 탐색해 나가는 데 시간을 쏟는 경우였다. 결국 학습자가 가진 에너지와 시간의 양을 학업에만 쏟는다면 자신이 장기적으로 의사로서의 적성 적합성, 진로 탐색에 할애해야 하는 부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교과, 비교과영역, 교외 활동, 멘토링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만나가고 알아가고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 긍정적이고 열린 구조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경우였다. 이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관리와 스스로를 탐색해 나가는 노력이 기반을 이룰 때 유연한 사고의 시작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았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여섯째, 우수한 학습자가 가진 특징으로는 자기관리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능력이 탁월했으며 그 안에 자기 객관화를 위한 도구로써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참여자 중 다수가 중복되게 대답한 의과대학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으로써 '메타인지 활용, 자기 객관화, 피드백 수용 및 자기 성찰 등을 기반으로 자기관리 능력이 탁월한 경우'를 우수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총 99개의 내용들이 '코드/라벨'로 분류되어있으며, 이를 상위 단계인 '개념'으로 총 5개가 도출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코드/라벨'의 99개의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와 '코드/라벨-개념' 간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들이 그 메타인지가 뛰어난 애들이 많아요. 지금 자기가 뭘 외워야 되고, 외워서 시험을 빨리 봐야되는데 그것을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애들과 달리 강약에 대한 힘 조절을 할 줄 알아요. 이제 의대 서바이벌한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학점이에요.(중략) 대화를 하면은 이 맥락에 맞는 얘기만 하고 인과 관계가 뚜렷하고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KS 교수

자기관리에는 자신이 해야 할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고, 우선순위 속에서 상황을 전환하는 shift 능력, 시간 관리, 정서 관리 등이 포함된 요소였다. 시간 관리를 통해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이 해야 할 것에 대한 우선순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였고, 자신의 강점과 취약점을 구분하여 힘을 줄 것과 뺄 것에 대한 에너지 분산 능력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자기의 객관화 과정이 전제된 것으로써 자신이 무엇에 강하고 약한지에 대한 개인 성찰을 통해 외부 피드백을 통해 검토된 바였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능력이 결국에는 메타인지를 통해 점검해 나가는 과정을 겪었으며, 의과대학에서 학습과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할 것과 뺄 것에 대해 객관적 양의 기준과 자신을 분석한 가운데 자신의 에너지 투입 가능한 가용자원을 기반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는 과도한 양의 학습 내용을 조절해 나가고 집중해야 할 것과 덜 집중해야 할 것에 대한 구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집중해야 할 시간에는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는 데 능숙한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보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의사로서 필요한 역량이라면 그러한 강점을 강화해가는데 피드백, 조언, 학습 등을 통해서 보완해 가고 성장해 감으로써 약점을 강점화 시켜감으로써 에너지를 만들어가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결국 시기별 해야 할 과업들이 있고 에너지를 덜 써야 할 시기가 있기에 이러한 것을 자기주도적으로 시간, 학습, 심리, 삶을 주체적으로 조율해 나가고, 완급조절을 해감으로써 에너지와 시간을 취사선택하고 조정해 나가는 힘이 강한 경우였다. 우수한 학습자들은 학습에 있어 완급조절을 통한 심화학습과 피상적 학습의 경계를 구분하는 능력이 탁월하였으며, 이러한 검토 작업 속에서 에너지를 분산해 나갔다. 이들은 자기관리의 일부로써 정신 및 육체 관리를 기반으로 건강함을 유지해 나가는 방향을 찾아갔다. 이를 통해 체력을 보완하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안과 지지 세력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궁극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과업을 위해 지탱해 주어야 할 내적인 힘들을 개발해 나가고, 유지해 가는 데 평소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는데 탁월하였다. 결국 이 총체적 작업은 자기관리의 일환으로써 의사로서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수련 현장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상황에 맞게 통제해 가거나 상황에 적응해 감으로써 자기 자신을 통제 및 관리 해가는 데 강점을 보이는 경우였다. 이들의 단순히 학업에 있어서 완급조절, 우선순위 문제, 학습전략 사용 등의 경우 외에도 일상생활과 의사로서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해 나가고 객관화 해가면서 보완할 것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 등 평생학습자로서의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학습한 지식과 경험과의 전이와 적용에 있어 탁월함을 보였다.

연구참여자 중 다수가 중복되게 대답한 의과대학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으로 '기초지식과 임상 지식의 활용, 증례 토론 탁월, 지식과 경험의 적용' 등 지식과 경험의 전이 능력에 우수한 속성을 지닌 경우라고 인식하였다. 이 경우는 총 31개의 내용들이 '코드/라벨'로 분류 되어있으며, 이를 상위 단계인 '개념'으로 총 3개가 도출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코드/라벨'의 99개의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와 '코드/라벨-개념' 간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다.

"의학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의료라는 것하고 분리가 될 수 없고, 의료라는 것은 당연히 사이언스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영역 인플리케이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것 자체를 앞당겨서 자기 하는 의학에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트레이닝이 잘 안 되고 본인이 그런 일정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되게 귀찮은 일이 되거든요." -DY 교수

우수한 학습자가 지닌 특징 중 하나로써 단순히 '학습성과를 높게 나타낸다' 식의 성적 등의 지표로 보이는 탁월함이 아닌 기초의학에서 배운 지식에서 각 과목 간 지식을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으며, 이를 임상의학에 적용하여 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습 과정이나 PBL, TBL, 증례 토의 등을 할 때 증례에 대한 이해와 답만을 도출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경험한 것들과 배운 지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적용할 줄 알고 하위지식을 상위지식에, 사실적 지식을 절차적 지식으로 통합 해가는데 탁월함을 보였다. 이는 거시적 맥락 속에서 부분을 볼 줄 아는 힘과 큰 틀에서 각 부분이 가지고 있는 위계와 관계를 그려볼 줄 알며 복합적으로 지식을 상황에 맞게 전이하고 적용할 줄 아는 지식의 상위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였다. 인지적 지식의 위계질서의 구조 속에서 지식-이해-적용-분석-종합-평가라는 상위체계로 올라갈수록 활용되는 지식의 구조를 이용할 줄 알았으며, 지식의 특성에 따라 선언적, 절차적, 인과적 지식의 구분 속에서 절차적 지식으로 구조와 구조, 연계되는 연속선상으로의 절차적 지식으로 임상 현장을 논리적이고 자연 분석적 사고를 기반으로 3차원 적으로 구조를 상상하면서 이해하고 증례 토의에서 표현할 줄 아는 경우였다. 이들이 활용하는 학습 방법 또한 단순히 족보와 슬라이드 암기로만 시험을 위한 준비보다는 교과서와 저널을 읽고 깊게 탐구하는 식의 호기심을 가진 심도 있는 학습 방법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의학의 불완전성을 이해하면서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 속에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닌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의학 공부와 경험을 접목해 나가는데 유연한 사고와 적용의 흐름을 이어가는 식이었다. 정해진 답 가지와 틀 속에서의 학습은 자신이 지닌 학업 우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의학의 특수성에 봉착되어 방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학습자 중 우수한 특징을 지닌 경우에는 이러한 의학의 특수적 상황을 이해하고 유연한 사고와 이해의 폭을 기반으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이하고 적용해 나가는 데 범위를 넓혀가는 식의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특징이 있었다.

여덟째, 의사가 되기 위한 자질과 적성이 적합하고 의사가 되고자 하는 내적동기와 목적의식이 뚜렷한 점이었다.

연구참여자 중 다수가 중복되게 대답한 의과대학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으로써 '의과대학 과정을 의사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 소명 의식, 목적성' 등 의사로서의 동기부여가 뚜렷한 경우를 우수한 속성을 지닌 경우라고 인식하였다. 이 경우의 내용은 총 55개의 내용들이 '코드/라벨'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상위단계인 '개념'으로 총 3개가 도출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코드/라벨'의 55개의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와 '코드/라벨-개념' 간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다.

"자기개발이라는 게 결국은 거기서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이걸 잘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타의에 의해서 선택을 했거나 성적,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성취감뿐만 아니라 욕망이 없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 컷오프만 넘기자 라는 거죠.." -JK 교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우수한 애들을 찾으려니 오히려 순수한 목적과 동기가 가진 애들이 결국에는 더 우수해 보이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하고...” -JS 교수님

이들은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이자 목적으로 삼은 다수의 의과대학 학생들의 특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들 또한 일차적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의과대학 입시를 위해 준비한 대상이었음은 동일하지만 ‘왜 의사가 되고자 하는지, 어떠한 의사가 되고자 하는지, 의사의 다양한 범주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진로 탐색, 의사가 된 후 미치고자 하는 영향력’ 등에 대해 자기 스스로 탐색하고 찾아가는 데 열정을 가진 경우였다. 우선적으로 의과대학 입시에 적합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보다 의사가 되기 위해 개발해야 하는 소양과 자질, 의업을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특징과 자기 자신이 가진 것과의 비교를 통한 보완점 모색 등 의사가 되는데 어떠한 노력이 있으며 자신이 가진 특성과 자질, 역량 등을 개발해 나가고 맞춰갈 수 있는지 모색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경우였다. 이들은 목적의식, 방향성, 목표, 진정성, 동기부여, 신뢰 등이 진로를 탐색해 나가고 의사로서의 역할 과업에 대한 관심에서 묻어나왔으며, 모든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의사가 되기 위해 경험하면 좋은 유의미한 과정으로서 인식하는 경우였다. 이를 통해 미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인간으로서 보다 성장 된 자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인으로서의 모습을 성장해 가고자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노력하고 있었으며 의사가 지녀야 할 좋은 의사의 속성을 갖추거나 개발해 나가는 데 힘을 쏟는 경우였다.

먼저 자신의 특성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검토하여 의사의 다양한 역할과 진로 속에서 어느 것이 적합할지 진로에 대한 적합성을 찾아갔으며, 자신의 가치와 철학에 기반하여 의사상과의 매칭 작업을 수행 해나갔다. 이들은 진로 탐색 프로그램, 선배와의 만남, 지도교수와의 면담, 임상실습과정, 지역사회 실습,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신은 의사로서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만나는 대상이고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를 둘러싼 문제를 복합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문제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는 노력을 하였다. 이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개인이 가진 배경과 의사상과의 연결을 통해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동반되었으며 이는 열정과 적극성으로도 연결되는 특성이었다. 결국 자신을 탐색하고 자신이 할 수 있고 흥미 있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인 선택으로 의사가 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진로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다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성향, 자신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참여로 인해 단순히 학점을 취득하고 점수를 얻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적보다 상위목적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의사로서의 다양한 범주 속에서 자기 자신과 의사의 역할 간의 깊은 성찰은 통찰로 이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객관화 과정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외부인들의 피드백을 보완하여 어떠한 의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을 위한 적합한 대상이 아닌 의사가 되는데 적합한 소질과 자질을 지닌 학습자로 구분되었다.

아홉째,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과 휴머니즘, 생명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경우였다.

연구참여자 중 다수가 중복되게 대답한 의과대학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으로써 '사람에 대한 애정, 인간관계에서의 맥락 및 상황 파악, 소통 우수' 등 사람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있는 경우를 우수한 속성을 지닌 경우라고 인식하였다. 이 경우의 내용은 원자료로부터 총 8개의 내용들이 '코드/라벨'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상위 단계인 '개념'으로 총 3개가 도출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코드/라벨'의 8개의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와 '코드/라벨-개념' 간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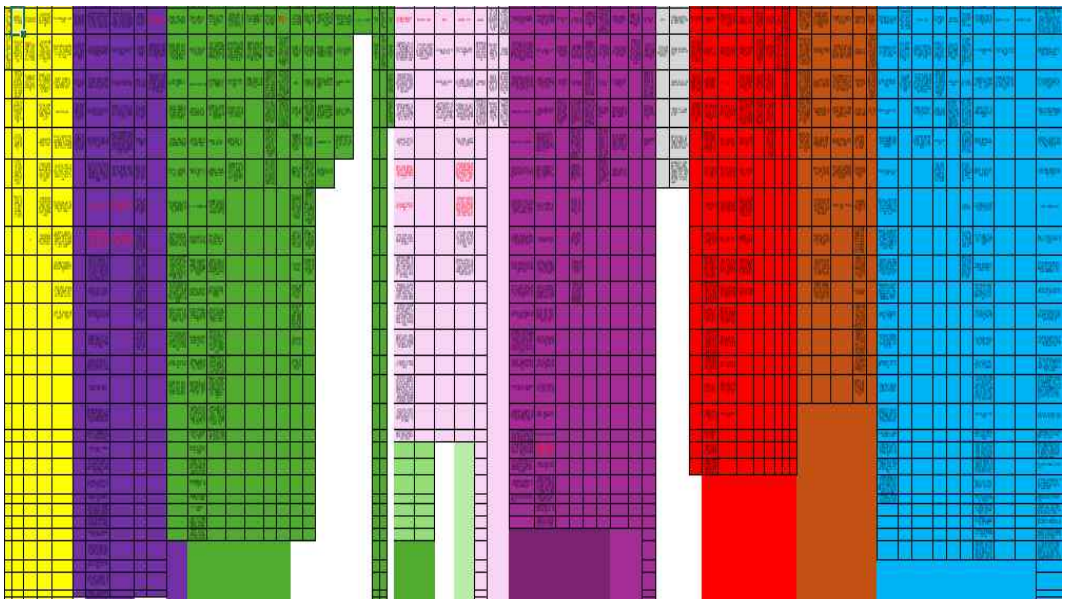
"굉장히 인간적이고 사람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동기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인관계나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자기 성적보다는 그런 걸 우선시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성적은 좀 중한데 굉장히 자발적으로 잘하면서 동료가 힘든 거를 자기가 대신 많이 해 주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우수한 측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LK 교수

의사의 다양한 역할과 범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사는 임상, 연구, 교육 등 어떠한 분야라도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고, 무엇보다도 다수의 임상의사들은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하고, 의료팀에 있는 다수의 의사 외 의료전문가들과의 소통과 관계 맺음 속에서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역할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일정한 관계를 맺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나 집단보다는 환자라는 불특정 다수를 만나야 하며, 상황과 배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 군을 상대하거나 교육을 해야하는 역할이기에 기본적으로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 사람과의 대화, 사람과의 관계 형성, 생명에 대한 존중과 윤리의식 등이 기저에 강하게 내재되어 있어야 우수한 특성으로 도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사람이 착하고 좋다'라는 특징과 달리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사람 만나는 맥락과 상황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야 하며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의사로서 성장하는 데 의과대학에서의 경험과 수련 경험을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었다. 좋은 임상의사가 된다는 전제는,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는 점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야 보다 수월하게 의사로서의 마주하는 과정들을 넘어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의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중과 경외심, 신중함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있어야 이러한 태도를 통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형성되며, 의사로서 자신이 이 직업에 적합한지 탐색하고 발견하는 과정도 보다 용이해진다고 하였다.

이상은 연구참여자들이 바라본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들의 주요한 특징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그림 10>과 같이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관련된 요인이 530개가 원자료에서 '코드/라벨'화 되었으나, 유사한 자료끼리 정렬한 후, 이러한 내용들을 함의하는 상위단계로써 개념을 도출함으로써 총 48개의 세부 항목으로 포괄하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는 다시 주요한 내용으로 포괄성을 기반으로 내용을 대표하는 총 9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에 총 9개의 하위범주를 기반으로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검토해 볼 수 있었다. 이는 비교적 다수의 의과대학 교수를 통해 나온 공통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묶어놓은 주제별 분류라고 볼 수 있으며, 중복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은 하나로 묶거나 일부 삭제를 진행한 결과이다. <그림 11>는 범주 6에 해당하는 우수한 학습자들의 특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으로써 '범주-하위범주-개념-코드/라벨'에 대한 개요이다.



<그림10> 의과대학 교수들이 인식한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개요(1차 분류)

<그림 11> 범주6. 의과대학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범주-하위범주-개념-코드/라벨)

의과대학 교수들이 경험하고 지도한 학습자들의 우수성에 대한 특징을 총 9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다만, 연구참여자들에 따라 우수성을 규정해 가는 방식과 요인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위의 9가지 특징은 공통적으로 다수의 연구참여자가 비슷한 주제로 언급한 내용들을 개방코딩 과정에서의 -코드/라벨-개념-하위범주-범주'를 구성해 나가는 식으로 의미를 검토하면서 도출한 결과이다.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의미 자체가 단일화되기 어려운 정의이며, 단순히 어떠한 과목이나 영역을 잘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의과대학 교육과 의사 되는 과정의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가능한 정도를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습자'가 지닌 속성으로 이해해 볼 수 있었다. 전체와 부분 속에서의 학습을 이해해 나가고 줌인-아웃을 해가며 경중에 따라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조절해 가는 특징을 지니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힘을 조정하는 데에는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메타인지가 기저에 내재해 있어야 가능한 경우였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우수성을 볼 때 일개 과목의 성적 우수자, 성취를 통해 상을 받은 경우와 같이 소극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의학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해 나가는데 전체 맥락 속에서의 응용 능력, 실제 환경에서의 전이 가능성 등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강조하였으나 우수성의 기반은 학업을 잘하기 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해 가진 다양한 특성, 자질, 특징을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려고 접근한 것이 새롭게 알게 된 특징이었다. 또한 학업을 잘 하기 위함은 의학 공부의 특수성과 구조를 이해하고 의학과의 전공 적합성이 부합하여 의사 되는 과정에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입학하는 단순한 목표를 넘어서서 의사가 되기 위한 내적동기가 출중한지, 의사가 되는 훈련의 과정 속에서 실패를 받아들이고 훈련될 준비, 회복탄력성의 힘, 자립할 수 있는 마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세,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소통 능력, 상황 파악 능력, 문제해결능력, 팀을 통해 협력하는 자세, 리더십,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 공감 능력, 우수한 의사가 가지고 있는 소양 함양, 학업 외에 교외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에 관심이 있는 경우, 유연한 사고, 융통성, 꾸준함, 몰입, 성실성 등의 요소가 '의과대학 학습자가 가진 우수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4.2.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 및 수련 과정에 따른 우수성

첫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의과대학에서 요구되는 우수성 탐색을 기반으로 우수한 학생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 및 졸업 후 수련 과정에 따른(임상실습 전과 후, 졸업 후 수련 과정)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교육과정별 특징과 교육의 장(맥락)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의과대학 내에서는 기초의학 교육과정 단계인 임상실습 전과 임상실습과 지역사회 실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임상의학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였으며, 졸업 후 수련에 대해서는 졸업 후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수련의가 가져야 하는 우수성에는 어떤 점 들이 강조되어야 하는지 우수한 수련의의 특징을 통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다만, 연구참여자들은 면담 내용에 기반하여 답변할 때 의과대학에 한정하여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검토해 나간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었으며, 자신의 전공영역에 따라 임상실습에 대한 경험, 졸업 후 지도 및 수련에 대한 경험에 상이한 졸업 후 단계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연구자 개인의 배경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총 20명의 연구참여자들 중 의사 17명, 비의사 3명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졸업 후 경험에 대한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제한적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비의사인 경우에도 졸업 후 인턴에 대한 지도와 교육 등에 개입되어 졸업후 교육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우수한 수련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의사 17명 중 임상의사 11명은 임상실습 후와 졸업 후 의료 현장에서의 우수성을 함께 표현하는 특성을 볼 때 환경 유사성에 근거하여 우수성을 구분하는 특징이 있었으며, 비의사 혹은 기초의학 교수자들은 의과대학 교육 현장과 연구 참여에 있어 우수성을 드러내는 학습자를 기반으로 우수한 학습자들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수련 단계에 따른 우수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총 3개의 범주인(범주7~9.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임상전, 임상의학, 졸업 후 수련))를 기반으로 자료를 검토하였다. 총 3개의 범주는 1차적으로 원자료로부터 도출된 '코드/라벨'의 196개의 자료원으로부터 상위개념으로의 '개념' 작업을 통해 82개로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개념을 상위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 '하위범주'를 구성함으로써 총 16개의 범주로 정리되었다. 16개의 범주는 상위범주인 총 3개로 각 교육과정 단계 및 수련단계 범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범주 7~9까지의 개방코딩 자료를 근간으로 연구문제 2번에 대해 답을 하고자 한다. 범주를 이해하기 위해 속성과 차원 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넘으로 검토한 하위-상위범주간의 구성은 연구결과 초반에 전체적 개요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범주 7~9까지의 하위범주와 개념에 대한 개요를 기반으로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 및 수련 과정에 따른 우수성을 검토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개방 코딩 결과는 아래의 <표 13>와 같다.

<표 13>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 및 수련 과정에 따른 우수성 검토를 위한 범주

범주(3개)		하위범주 (16개)	개념 (82개)	코드 /라벨 (196개)
범주 번호	범주명			
범주7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임상전)	• 학습성과를 내는 것에 탁월한 경우 • 기초영역과 임상의학의 통합에 탁월한 경우 • 연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	15개	19개
범주8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임상의학 교육과정)	• 임상추론능력이 탁월한 경우 • 실제 환자 적용과 가능한 정도를 고려하여 전이 능력이 탁월한 경우 • 임상 영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식의 복합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 • 임상실습을 수행하면서 소 통 능력과 관계성, 협력을 기반으로 팀 활동에 적합한 경우 • 임상실습 시 자발성, 적극성, 적응력이 뛰어난 경우 •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이 임상의사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경우	34개	96개
범주9	우수한	• 배움을 실천해가는 능력	33개	81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학습자의 특징 (졸업후 수련과정)	• 환자 중심의 소통 능력 • 인간에 대한 존중 • 전공과의 선택에 있어 목적성 • 희생정신 • 의료 현장에서의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원활함 • 수련의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범위를 아는 능력

4.2.1.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에 따른 우수성

4.2.1.1. 임상 전 교육과정에서의 우수성

기초의학 교육과정에서의 우수성으로 표현되는 것에는 기초의학 교육과정 단계 특성상 기초와 임상 교육의 학문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지필고사, 지식학습, 증례 토의 등이 주된 교육과정 단계의 특징이다. 혹은 일부 기초의학 과목의 경우 실험 참여 기회 및 연구 경험을 기반으로 학습자들은 별도의 경험을 하게 된다. 교육 외 시간은 다수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하는 기초의학 교수들은 학습자들과 별도의 연구 기회나 경험이 잊지 않는 한 과목을 통해 만난 경우가 다수이며 담임 반 교사, 멘토링 등으로 과목을 벗어난 상황에서의 만남 등에 근거하여 학습자들을 이해하는 특징을 보였다. 기초의학 단계에서는 교육과정 자체의 절대적 시간이 지식학습을 위한 시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임상 전 교육과정에서는 과목 시험을 통한 학생들의 성과를 이해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긴 하였다. 의과대학에서의 기초의학 교육과정 및 맥락에 대한 배경 속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은 자신들이 만나거나 경험한 학습자들의 우수성을 검토해 나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단계에서의 우수성은 총 3가지의 주된 특징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개방코딩 결과 이 범주에 속하는 임상의학 전 단계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에 대한 내용은 면담 자료에서 19개의 '코드/라벨'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총 15개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총 15개의 개념은 3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어 임상의학 전 단계에서의 우수성을 보이는 학습자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개요는 아래의 <표 14>와 같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표 14> 우수한 학습자에 대한 특징(임상전 교육과정)

범주	하위범주 (3개)	개념 (15개)	개념 내용	코드/ 라벨 (19개)
범주7.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임상전)	학습성과를 내는 것에 탁월한 경우	6개	• 선 암기 후 이해 • 지식의 임상 상황과의 응용력 • 자기주도학습 • 문제를 빨리 푸는 기술 • 광범위한 양에서의 속도전 •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간의 취사선택 능력	7개
	기초영역과 임상의학의 통합에 탁월한 경우	3개	• 증례를 이해하고 발표할 때에도 자신이 아는 지식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전달 • 질문을 만들어 감 • 자주적 학습 능력이 높을수록	4개
	연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	6개	• 연구 역량과 자신의 성향이 적합할 경우 •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연구로 설계 • 지적 호기심을 깊게 탐색해 가는 힘 • 자신이 궁금한 것을 하나씩 풀어가고 검토해 가면서 해결해 보려는 능력 • 지식을 탐색하여 종합해보는 능력 • 연구를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설득력이 높을수록	8개

개방 코딩 결과 총 19개의 내용들이 '코드/라벨'로 분류, 15개의 '개념' 3개의 범주로 구성된 범주 7에 대하여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코드/라벨'의 19개의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와 '코드/라벨-개념' 간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시기의 우수성은 **첫째, '학습성과를 내는 것에 탁월한 경우'였다.** 이 시기는 지필고사를 통해 다수의 지식의 이해와 습득 여부를 검증해 나가고 임상 현장에 간접적으로 접하는 상황을 연습하고 과제로 수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학습의 효율을 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해 학습 방법을 빠르게 터득하고 학습 방법에 맞춰 실력을 키워 올리는 것이 중요하였다. 너무 깊게 파고들기보다는 시험을 보는 데 적합한 방식과 전략으로 최소 시간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게 공부하는 것이 학업을 이해하고 지필고사 결과를 우수하게 받는 데 적합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선 암기 후 이해', '지식의 임상 상황과의 응용력', '자기주도학습', '문제를 빨리 푸는 기술' 등이 요구되었다. 또한 광범위한 양의 내용을 단기간에 기억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우수한 성과를 내다보니 '광범위한 양에서의 속도전'과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간의 취사선택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우리가 평가하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 평가 방식이 많은 부분이 시험이라는 지필고사를 통한 암기력 테스트 또는 시험 풀이 능력 이런건데 (중략)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암기력과 연습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광범위한 분량의 의학적 지식이 제공받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하고, 거기에 부족함을 인지해서 또 추가로 개발하는 연구 역량까지 개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의과대학 학생들한테 필요하고 그런 학생들이 엑설런트하다고 생각이 들죠" -JK교수

둘째, 기초영역과 임상의학의 통합에 탁월한 경우 교수들은 이 시기에서 우수하다고 보았다. 기초의학 영역이라고 해서 임상 영역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례를 이해하고 발표할 때에도 자신이 아는 지식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 '질문을 만들어 감'으로써 '자주적 학습 능력이 높을수록' 기초의학 교육과정단계에서 우수함이 돋보이는 경우였다. 또한 기초의학에서의 전공영역을 수학하고 지도받으면서 '연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연구 역량과 자신의 성향이 적합할 경우' 우수한 학습자로 교수자들에게는 기억되었다.

"과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해부학과 병리학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임상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학생이 유도를 유독 잘하는 거예요. 이 학생을 좀 크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식의 종합 능력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전혀 다른 걸 배웠지만 우리가 원했던 진짜 진정한 통합을 하더라고요. 임상을 잘하려면 이제 그런 걸 통합한다고 해야 하는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걔는 이제 말하는 게 약간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이렇게 서로 잘 이제 인과관계를 잘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잘하더라고요. -KS 교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끝으로 연구 자체에 관심과 참여 정도가 높을 경우 교수들은 임상전 단계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 경험과 경력을 토대로 연구를 수월하게 하거나 익숙해지는 것에는 편차가 있으나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연구를 설계해보고' '질문을 던져보고 연구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해 가면서 '지적 호기심을 깊게 탐색해 가는 힘'이 있는 경우 우수하다고 보았다. 연구를 한다는 것은 흥미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물음을 '왜 그럴까' 하는 문제의식과 궁금증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으로 '자신이 궁금한 것을 하나씩 풀어가고 검토해 나가면서 해결해 보려는 능력', '여러 지식들을 탐색하여 종합해 보는 것', 연구를 잘하는 것은 교육을 잘하듯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설득력이 높을수록' 기초의학 단계에서 우수한 학습자로 기억되거나 인정받는 경우였다.

"학업 능력이 뛰어나면 연구를 잘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시험을 보는 형태의 이제 학업은 지적인 능력을 보고 있는데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면 연구를 잘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중에 연구를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해요. 아이디어를 다른 논문에서든 누구에게서 받아서 그걸 설계를 하고 방법론을 찾아서 나중에 분석도 하는 식의 연구의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것에 적합한 류의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프레임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연구자로서 잘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학업능력이 뛰어나도 이 프레임에 잘 안 맞는 사람들은 안 돼. (중략) 개인에게만 본다면 동기부여가 명확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데서 만족감을 느껴야지. 그런 학생들이 계속 연구를 잘할 것이라는 거죠."
-LD교수

4.2.1.2. 임상의학 교육과정에서의 우수성

임상의학 교육과정은 의학과 3~4학년 시기로 임상실습이 주된 교육내용이자 교수학습방법인 시기이다. 임상의학 교육과정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요인 또한 개방코딩 결과 총 6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6개의 범주의 구성은 일차적인 자료에서 '코드/라벨'을 통해 96개의 자료가 정리되었다. 이 자료들을 유사한 내용들로 묶은 후 상위단계 작업으로써 '개념'을 도출하였는데 총 34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이 도출된 개념을 총 6가지 범주로 구축하여 임상의학교육과정 단계에서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학습자들의 특징을 기반으로 '임상의학교육과정 단계에서의 우수성'을 확인해 볼 수 잇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인식하는 임상의학 단계에서의 우수한 학생의 특징에 대한 하위범주와 개념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 15>와 같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표 15> 우수한 학습자에 대한 특징(임상의학 교육과정)

범주	하위범주 (6개)	개념 (34개)	개념 내용	코드/라벨 (6개)
범주8.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임상의학 교육과정)	임상추론 능력이 탁월한 경우	8개	• 사례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활용하고 모르는 것들의 빈 곳을 채우는 식의 질문 구성 능력 • 주어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 구조로 연결해 가는 능력 • 현상에 대한 이유를 찾아가고, 왜 그럴까를 점차 검토해 가는 과정이 있는 경우 • 진단 및 추론해 가는 과정 속에서 증례토의 및 발표하는 과업을 통해 종합적 분석을 활용 • 분절적 학습이 아닌 패턴 학습 • 예외적인 것을 제외 해가는 능력 • 저널과 교과서를 검토하면서 지식과 지식의 구조와 관계를 연결해 가는데 능함 •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가면서 호기심의 과정을 검토	24개
	실제 환자 적용과 가능한 정도를 고려하여 전이 능력이 탁월한 경우	4개	•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의 입장이 아닌 의사로서 나의 환자라면 어떠할지를 적용해서 실제 임상 상황을 가정하여 연습 • 자신이 의사 되는 과정에 모두 유의미한 경험과 훈련임을 받아들이고 연습하는 과정 • 임상실습과정에서 케이스에 대한 이해와 질문에 대한 답을 순발력있게 대답	15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증례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통해 지식을 적용해 가고 전이 해가는 능력	
임상 영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식의 복합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	5개	• 의학의 불완전성을 이해 • 의사는 최선의 치료 방향과 방법을 검토할 뿐, 모든 진단에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을 이해해 가는 것 • 기존의 지식을 활용해 가고 누적된 지식을 계속 쌓아 감으로써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잡는 경우 •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오는 능력 • 아는 지식을 임상증례에 적용해 가는 힘	14개
임상실습을 수행하면서 소통 능력과 관계성, 협력을 기반으로 팀 활동에 적합한 경우	10개	• 실습을 돌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관계자와의 관계 형성 • 환자와 관련한 문제 해결과 방향 설정 등에 있어 팀원들과 협력하여 풀어가는 경우 • 의사소통을 잘 하는 경우 • 배려과 헌신을 통해 자신도 공동체에 기여해 가는 것 • 팀에서의 역할 분담 및 역할 수행 • 옆 사람 챙기면서 함께 가는 힘 • 정서적 지지를 함께 해주는 문화 • 교수와의 관계를 위해 질문에 대한 적극적 대답과 참여 • 라포 형성 • 새로운 과를 마주할 때의 태도와 적응력	25개
임상실습	4개	• 자기주도학습방법으로 임상	9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케이스와 경험한 환자 등 정리 •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나 교수에게 적극적 질문과 도움을 요청 • 새로운 과에서나 처음 보는 교수자의 질문에도 적극적 대답과 반응 • 새로운 상황에 대한 도전정신과 순발력있는 태도로 적응하고자 하는 자세	
시 자발성, 적극성, 적응력이 뛰어난 경우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이 임상의사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경우	3개	• 임상실습 기회를 자기 탐색과 진로 검토를 위한 과정으로 인식 • 자신이 가진 목적의식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진로 적합성을 검토 •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이 임상의사로서 적합한지 자기 객관화, 성찰하는 경우	9개

임상의학교육과정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에 대한 개방 코딩 결과 총 96개의 내용들이 ‘코드/라벨’로 분류, 34개의 ‘개념’ 6개의 범주로 구성된 범주 8에 대하여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코드/라벨’의 96개의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와 ‘코드/라벨-개념’ 간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다.

첫째, 임상추론능력이 탁월한 경우이다.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여 단순 사실적 지식의 나열이 아닌 절차적 지식으로 활용 해 가는 지식의 단계이다. 이때는 임상실습 과정에서 ‘마주하고 제시되는 사례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활용하고 모르는 것들의 구멍을 구성하여 질문을 만들어가고’ ‘주어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 구조로 연결해 가는 능력’이 탁월한 경우 우수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들은 단순히 환자 케이스를 이해하고 정답을 달아가려는 태도가 아닌 임상 질환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상에 대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유를 찾아가고, 왜 그럴까를 점차 검토해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어떠한 진단과 치료인지에 대한 정답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 및 추론해 가는 과정속에서 증례 토의 및 발표하는 과업을 통해 종합적 분석을 활용 해가는 것'이다. 이들은 '3차원적 정리 후 추론, 논리성을 밝혀나가면서' 분절적 학습이 아닌 '패턴 학습', 그 이후에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해 가는 능력'을 학습하는데 탁월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증례를 적용하고 찾기 위해 답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널과 교과서를 검토하면서 지식과 지식의 구조와 관계를 연결해 가는데 탁월함'을 보이는 바였다. 이러한 특성은 '증례 토의나 케이스 발표를 할 때 다른 학습자들과 달리 깊이 있는 학습 결과와 추론 과정'을 검토해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가면서 호기심의 과정을 검토'해 나갔으며 단순히 '환자 사례의 이력과 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처방이 나갔으며, 이러한 약을 사용하는지, 검사실 소견과 환자 자료와의 매칭 등을 통해 학습 해나가는 복합적 학습 능력'을 함양하고 있었다.

"임상은 본과 1~ 2학년이랑 좀 많이 틀린데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애들은 환자 노트만 보고 쓰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 쓰는 약을 왜 쓰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이었어요. 검사 소견을 보고 이 환자가 맞고 아니고를 설명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실제로 대다수 학생들은 그 수준까지는 안 돼요. 학생들은 대부분 노트에 적혀 있는 내용만 보지 그 검사실 소변과 환자가 일치한다 매칭을 한다거나 환자한테 쓰는 약은 어떤 이유로 쓴다 등의 고민을 안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흔한 원인균이 뭐라서 이걸 쓰는 것 같아요. 등의 이유를 찾고 말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건 완전 다른 거잖아요. 단순하게 환자의 증상 등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병에서는 이런 게 있는데 이렇다라고 설명을 저한테 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리즈닝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SJ 교수

둘째, 실제 환자 적용과 가능한 정도를 고려하여 전이 능력이 탁월한 경우이다.

비록 임상실습 과정에서는 주치의도 아니고 의사로서의 신분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간접경험 속에서 선배 의사와 교수들이 만나는 환자의 치료 과정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적용해 가는 능력'이다. 이들이 기존에 배운 임상 지식과 실습 과정 및 실기를 통해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의 입장이 아닌 자신의 환자라면 어떠할지를 적용해서 실제 임상 상황을 가정하여 연습 해보고 '자신이 의사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렸으며 치료계획을 세웠을지를 고민'하는데 탁월했다. 이러한 연습과 훈련은 '자신이 의사 되는 과정에 모두 유의미한 경험과 훈련임을 받아들이고 연습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임상실습 과정에서 케이스에 대한 이해와 질문에 대한 답을 순발력있게 대답'하고 '증례에 대한 깊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있는 이해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통해 지식들을 적용 해가고 전이해 나가는 능력'이 탁월한 경우이다.

"그 학생들은 학습에 초점을 어디에 두었을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환자한테 둔 겁니다. 환자, 내가 볼 환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의사가 될 때 결국 환자를 보는 사람이다. 그 학생이 보여주는 우수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환자하고 코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그러더라고요. 원래 성격적으로 안 맞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 학생은 성적에 대한 것도 그냥 부수적으로 나는 얻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정성이 너무 보이니까." -PH 교수

셋째, 임상영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식의 복합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들은 '의학의 불완전성을 이해하고 의사는 최선의 치료 방향과 방법을 검토할 뿐, 모든 진단에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을 이해해 나가는 것부터 익숙한 경우였다. 이들은 의학의 불완전성이라는 특수성을 받아들이고 정답에 집중하여 단일화된 답만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이들은 임상실습은 '기존의 지식을 활용해 가고 누적된 지식을 계속 쌓아 감으로써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잡는다는 점'에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지식을 누적해 나가는 힘',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오는 능력', '아는 지식을 임상증례에 적용해 가는 힘'을 활용하여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에서 다룬 지식을 제3의 지식으로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축적해 가는 과정임을 알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단순히 학업의 양 문제는 아니고 논리적 추론이 있어야 임상에서는 잘할 수 있거든요. 수학은 1 더하기 1= 2라 고 우리가 약속을 했지만 의학에서 1 더하기 1은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다는 이 개념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할 수 있는게 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학은 아직 불완전한 학문이니까. 예를 들어서 임상에서 어떤 진단명을 우리가 파악할 때 이 환자는 a라는 병일 수도 있고, b라는 병일 수도 있어라고 하면 당연히 학생들은 당황해해요. 학생들은 왜냐하면 a면 a고 b면 b여야 되거든. 그래서 자꾸 많은 의대 교수님들이 정답을 얘기할 수 없지만 의사로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 의학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학생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업 받았던 그거랑 좀 다르니까요." -JK 교수

넷째, 임상실습을 수행하면서 소통 능력과 관계성, 협력에 대한 팀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에 적합한 경우이다.

임상실습 특성상 '조원들과 함께 다녀야하고 새로운 과에 실습을 돌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관계자와 선배, 교수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계 속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에서 '의사소통 능력, 사람과의 관계성 형성, 협력을 통한 공동의 문제 해결과 방향 설정 등에 있어 팀워크에 대한 것', '배려와 헌신을 통해 자신도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 등을 통해 '이타성과 타인을 대하는 자세' 등이 결국 팀원과의 소통, 마주하는 의료진과의 소통, 환자와의 만남에서의 소통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특히 속해있는 '팀에서의 역할 분담 및 역할수행', '옆 사람 챙기면서 함께 가는 힘', '정서적 지지를 함께 해주는 문화', '상호 배우려는 태도', '교수와의 관계를 위해 질문에 대한 적극적 대답과 참여', '라포 형성', '새로운 과를 마주할 때의 태도와 적응력' 등이 결국 '타자 간의 관계 형성'과 '사회성 강화'가 임상실습에서의 우수한 요인으로 검토되었다.

"임상실습 2년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학생이 우수할 거냐 이게 (중략) 이제 환자나 의사 간의 관계나 동료들의 관계나 어떤 팀을 이루어서 활동할 때 역동성도 보여주고 어떨 때는 리더 역할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수들에겐 중요하다고 보이죠." -LD 교수

다섯째, 임상실습에서는 자발성, 적극성, 적응력이 뛰어난 경우 우수하다고 검토하였다.

임상실습에는 평가도구가 한정 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임상영역에서의 역량을 검토하고자 하는 평가도구가 지필고사 등으로 국한되어 자신이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 및 교수자의 검토 방향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필고사를 통해 발견하지 못하는 우수성이 있고 학습자 자신도 발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자가 점검과 교수와의 면담이 없이는 성찰할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임상실습에서 우수함을 보인 학습자는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제작', '자기주도학습방법을 터득하여 임상 케이스 및 경험한 환자들에 대한 정리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나 교수에게 적극적 질문과 도움을 요청'하는 식이다. 이들은 임상실습을 돌 때에도 '새로운 과에서나 처음 보는 교수자의 질문에도 적극적 대답과 반응'을 보이며, '새로운 상황에 대한 도전정신과 순발력있는 태도'로 '적응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학습자를 눈에 띄는 학습자로 인식하고 '임상실습 현장에서 많이 배워갈 수 있는 우수성을 지닌 학습자'로 회상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교수님들은 언제 학생의 우수함을 발견하냐면 임상실습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회진할 때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실제 임상실습 이렇게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돌면서 학생들이 증례 토의를 하거든요. 저 학생이 개념이 있는지와 없는지를 그래서 실제로 임상실습 중에 학생들을 보면 저 학생이 굉장히 우수하다 저 학생이 좀 탁월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자율적인 것,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특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상실습에 임하는 태도나 적극성 이런 것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JE교수

여섯째,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이 임상의사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경우였다.

우수한 학습자들은 임상실습 과정을 통해 3, 4학년 동안 경험하는 다수의 임상 전문과를 통해 자신이 마주하는 교수자와 의국 선배들과의 분위가, 마주하는 환자군과 질환이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등을 기반으로 진로 적합성을 검토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목적의식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진로 적합성을 검토'하면서 어떠한 특성이 맞는 부분이고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면서 자신이 의사로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탐색 및 자아실현의 도구로써 임상실습 과정을 활용하는 경우였다. 또한 전문과의 특성을 떠나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이 임상의사로서 적합한지' 기초의학 분야의 의사나 다른 역할을 해야 하는 의사의 역할로의 진로를 틀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계기로 활용함으로써 '자아를 탐색해 가고 자기 객관화와 성찰 능력이 우수할 경우' 교수들은 임상실습 과정속에서 우수한 학습자라고 인식하였다.

"실습도 가보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많은 의사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맞는 게 뭔지 탐색을 잘하는 애였고" -LY교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4.2.2. 졸업 후 수련과정에서의 우수성

본 절은 의과대학을 졸업 후 수련현장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검토에 대한 결과이다. 이 시기의 우수성은 특정한 한 가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닌, 수련의가 보이는 여러 특성, 자질, 속성 등의 상위 개념을 언급하였다. 다만, 의과대학 교수자들은 임상의사의 경우 자신의 전공과 전공의 및 인턴에 대한 인식을 검토한 바로 특정 전공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우수성은 아닌 것을 전제로 한다. 수련 과정이라는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들의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적용되는지를 검토한 바이다. 졸업후 수련 과정에서의 우수성은 이 시기의 특징을 기반으로 메타평가 된 테마로서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환자를 관리하고 진료하는데 직접적으로 의사로서 필요한 책무에 대한 것이 우수한 수련의의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

주요 범주로는 '배움을 실천해 가는 능력. 환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 능력, 인간에 대한 존중, 전공과의 선택에 있어 목적성, 희생정신, 의료 현장에서의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원활함, 수련의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범위를 아는 능력'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드러나는 내용으로는 '성인학습자의 자세, 평생학습자로서의 학습방향, 환자에 관한 책무, 성찰의 능력, 치료에 있어 진정성, 치료계획에 대한 성찰, 희생정신, 다양한 직군 간의 건강한 인간관계 조성, 다양한 인간관계 사이에서의(의사 간, 의사 외 직종 간, 환자 및 보호자) 소통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자세' 등 하나의 요인이 결국 다른 요인을 자아내게 하고 궁극적으로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환자 안전'에 대한 이슈와 연결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개방코딩 결과 해당 범주의 내용은 원자료를 통해 '코드/라벨'로 81개가 도출되었으나 33개의 개념으로 의미를 이해해 나갔으며, 최종적으로 7개의 범주로 세부 내용의 유사도에 따라 분류되었다. 졸업 후 의료 현장에서 드러나는 수련의의 우수성과 관련한 범주, 개념, 코드/라벨의 현황은 아래의 <표 16>와 같다.

<표 16> 우수한 학습자에 대한 특징(졸업 후 수련 과정)

범주	하위범주(7개)	개념 (33개)	개념 내용	코드 /라벨 (81개)
범주9.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배움을 실천해가는 능력	7개	• 평생학습의 자세 • 배운 것을 환자치료에 적합하게 적용하는 능력 • 최신 지견으로 환자에게	22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최선의 치료를 위한 노력 • 환자를 통한 성찰의 기회가 있는 경우 • 치료계획에 대한 성찰 • 환자를 잘 보는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 의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실패를 잘 이겨내는 경우	
	환자 중심의 소통 능력	5개	• 환자를 잘 대하기 • 환자 중심으로 진료 보기 • 환자의 상황과 눈높이(환자 입장)에 맞는 치료계획 수립 • 환자에게 잘 설명하기 • 환자를 둘러싼 복합적 문제를 이해하고 고민하는 노력	9개
(졸업 후 수련 과정)	인간에 대한 존중	3개	• 다양한 환자에게 관심 가져주기 • 다양한 환자 및 보호자의 범주 이해(배경 이해) •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 형성의 탁월함	8개
	전공과의 선택에 있어 목적성	3개	• 최종 전공의 선택에 있어 자신의 의과대학 및 인턴 경험을 고려 • 자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검토 • 소신있는 진로과 선택	4개
	희생정신	2개	•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받아들이고 노력 • 어려운 일도 기꺼이 하려는 태도	4개
	의료 현장에서의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8개	• 다양한 보건의료 직군 간의 소통 능력과 관계 조성 • 환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 • 다양한 전공과의 의료진과의	20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원활함		팀을 통한 치료 및 의사소통과정에서 원활한 경우 • 경청과 공감을 기반으로 소통(겸손함) • 모르는 것을 질문 및 가르쳐주는 것에 대한 상호작용 능력 • 일에 대한 분담 및 공동으로 처리할 일에 대한 업무 분장 • 의사직군 내에서의 선후배, 교수와의 소통 원할 • 확장된 인간관계 및 범위에 대한 적응	
수련의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범위를 아는 능력	5개	• 수련의단계에서의 책임의 범위를 이해 • 선배 및 교수에게 문제를 알리기, 표현하기(보고하는 능력) • 치료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나 잘못을 덮지 않기 • 선배 및 교수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 • 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등을 고민하고 정보 및 자료검색	14개

졸업후 수련과정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범주는 총 81개의 내용들이 원자료로부터 1차적으로 '코드/라벨'로 분류 되어있으며, 이를 상위 단계인 '개념'으로 총 33개가 도출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코드/라벨'의 81개의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와 '코드/라벨-개념' 간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다.

첫째,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 기반으로 배움을 실천해 가는 능력이 우수한 경우이다.

졸업 후 과정에서 수련의로서 우수한 특징에는 의사로서 성인학습자의 자세로 도약하여 기존의 의과대학에서의 학습 방향과 학습전략, 자기관리에 있어 보다 평생학습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자로서의 배움을 실천 해가는 능력을 중요시하였다. 실제 의료 현장에 놓이면 지식, 술기, 태도 모든 것이 의과대학에서 학습한 내용이어도 깊이와 방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의사로서의 환자 안전과 치료를 위해 책임을 지는 것에 강한 책무를 가지는 경우가 우수한 경우였다. 이를 위해 최신 지견으로 최선의 치료를 위한 노력을 가하려고 하는 경우를 의과대학 교수들은 기억에 남는 우수한 수련의로 보고 있었으며, 이들은 환자를 통해 의사로서의 자기 자신을 검토하고 치료계획을 되돌아보는 등 늘 성찰의 기회로 치료 현장의 경험을 여긴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단순하게 환자의 증상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병에서는 이런 게 있는데 이렇다라고 설명을 저한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리즈닝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환자가 머리가 아픈데 내가 뭘 해서 머리가 아프냐 콧물 기침 증상이 있으면서 머리가 아프면 감기 때문에 머리 아플 수 있어요라고 단순히 설명하는 것과 달리 다른 대안도 고려하는 것이죠. 혹시 잠을 잘못 주무셨냐 고개를 잘못 움직였는지... 경우를 다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 떠오르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최선의 치료를 위한 고려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경우에요. 그리고 교수에게 와서도 다시 묻고요." -SJ 교수

둘째, 의료 현장에서의 환자 중심으로의 소통 능력이 우수한 경우이다.

이 특성에서의 소통은 대화를 잘 한다는 것이 아닌, 환자에게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할 때 환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배경을 이해하고, 복합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최선의 치료계획을 환자에 맞게 적절하게 제안하고 설명해 주는 경우이다. 의료 현장에서의 수련의는 이제 직접적으로 환자와 보호자를 직면하게 됨으로써 진료나 회진을 돌 때 환자를 잘 보고 잘 대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 진정성을 가진 의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경우를 우수한 전공의 특성이라고 보고 있었다. 여기에서'환자를 잘 본다는 것'은 환자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는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고 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보고 환자 편에 서서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고민해 보려는 자세를 의미한다.

"어떤 상황 파악력이 빠른 거죠. 상황 파악 능력으로 환자의 니즈와 문제를 빨리 감지를 해서 지금 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구나. 눈치 같은 것이죠. 저는 그게 이 사회생활을 포함해서 특히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로서 앞으로 환자 진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능력과 눈치, 소위 니즈를 파악하는 눈치인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경우를 보면 훌륭하다고 보죠." -HJ교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셋째, 인간에 대한 존중이 기반이 된 수련의인 경우이다.

환자 중심의 소통과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이는 대전제를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나오는 의사로서의 태도를 의미하는 부분이다. 다양한 배경의 환자와 보호자가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성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태도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인간 존중을 기반으로 환자 및 보호자를 대할 때, 타 직종을 대할 때, 선후배 의사를 대할 때의 태도가 인간에 대한 존중이 기반이 서고 존경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대화, 치료, 행동 등이 빚어지는 수련의를 의미한다.

"사람을 상대하니까 인간을 사랑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의료 실수도 생길 수 있고 사람을 존중해야 의료 실수도 최소화할 수 있고, 예의가 있어야 하거든. 환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병원에 환자로 왔지만 의사가 만약에 환자 병실로 안 찾아보러 간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인간으로 존중하면 어떻게 그렇다고 생각하겠어. 만약 환자 입장에서 내가 입원을 했는데 하루 종일 의사가 한 번도 안 나타나면 환자가 얼마나 이상하게 느끼겠냐고." -BY 교수

넷째, 전공(진로) 선택에 있어 자신의 목적의식이 뚜렷한 경우이다.

인턴으로서 다음의 레지던트 계획을 수립할 때 쉽고 남들이 하는 전공과, 인기 있는 과, 수입이 높은 과 등에만을 우선순위로 하여 지원하고, 인기과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과대학시절부터 인턴까지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의 적성을 검토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에 맞는 소신있는 진로 선택, 전공과를 지원하는 경우이다. 특정 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나 배경에 대한 이해, 임상실습 과정과 인턴 경험을 통해 해당 전공과의 특수성, 전공과의 문화, 의국 분위기, 환자군에 대한 적합성, 치료 범주나 방법에 대한 적합성 등과 자신의 특성, 흥미, 비전 등을 고려하여 전공에 대한 탐색과 소신있는 지원을 통한 자기개발을 하는 경우 우수한 수련의의 특징으로 분류하였다.

"특별 관리했던 학생인데 막상 인턴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서 레지던트를 선택할 때 되게 힘든 과를 선택하더라고요. 3d 그때 싫어하는 다들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과를 선택하면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요번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다니면 엘리베이터 타다가 만나면 되게 예쁘고 기특하고 그래요. 다른 애들 보통 보면 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왜 하고 싶은 과만 하고 오히려 필수과는 나간다고 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LK교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다섯째, 희생정신이 기반이 된 경우이다.

의료 현장에서 누구의 역할이라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교수, 전공의, 인턴의 역할이나 동료 수련의 간의 역할, 타 직종 간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객관적인 업무 분장의 범주를 넘어서서 '내 것, 남의 것'의 구분보다는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이슈들에 대해 최소한 업무로서 부여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받아들이고 이를 잘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그 후 자신의 업무뿐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자신이 속해있는 전공과 외에도 타 과에서의 호출, 동일한 과에서의 업무 등 구분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나 처리에 손이 많이 가는 일 등을 기꺼이 같이 참여하려는 태도와 희생정신이 의사로서의 적합한 소양이자 우수한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굉장히 자발적으로 뭔가 볼런티어도 잘하면서 동료가 힘든 거를 자기가 대신 많이 해주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LK 교수

여섯째, 의료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졸업 후 과정에서는 임상에서 마주하든 다양한 직군 간 관계에 잘 적응하고 소통능력이 탁월한 경우를 우수한 특징으로 꼽아냈다. 이는 의과대학에서 경험한 유사하고 균질한 집단으로의 경험에서 더욱 확장하여 비의사 집단과의 소통 환자 및 보호자, 다수의 의료진과의 팀을 통한 치료계획과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상황을 파악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할 경우 우수한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경청과 공감을 기반으로 소통해야 하는데 이러한 태도에는 겸손함이 몸에 배어있어야 타 역할과 직군과의 소통이 원할하고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혹은 가르쳐 주는 데 상호보완적이고 해야 할 일을 분담하고 동시에 함께 처리할 일은 공동의 문제로 끌고 가는데 유력하였다. 대학병원의 경우 중증질환에 대한 토의는 선배 의사와 교수들과의 접촉도 잦기 때문에 의사직군 내에서 소통의 원할함과 타 직종까지 소통의 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의 탁월함을 보일 때 우수하다고 보고 있었다.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를 다양한 범주에서 마주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자를 이해하고 존중, 관심을 가지는 것이 기본이며 인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클수록 이러한 복합적 관계에서의 소통을 이뤄나가기 때문에 인간 존중에서 비롯된 관계 형성의 탁월함을 임상에서의 우수한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의과대학에서보다 확장된 인간관계를 통해 학습자와 균질한 특성이 아닌 집단과 개인을 상대하고 관계를 유지해 가는 데 어려움이 덜한 경우를 우수한 인턴으로 보고 있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수련 현장에서 우수한 것은 더욱이 소프트 스킬이지,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나 교수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예를 들어 자신이 들은 것 내가 이해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지를 다시 물어보면서 이걸 교정해 가거든. 문제가 있는 수련의 중에는 그냥 듣고 알아들은 척하고 넘어가, 사실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 이면에는 또 자기가 이제 무서워하는 거잖아. 자신이 교수한테 혼날까 봐 안 물어보고 그렇게 해. 오히려 이런 것을 두렵지 않은 애들은 ‘나는 이게 맞는지, 이해한 대로 하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교수님한테’이런 식으로.... -BY 교수

일곱째, 수련의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범위를 아는 능력이 있는 경우이다.

끝으로 임상 현장에서는 책임감이 높은 경우 우수한 수련의로 여기었다. 다만, 이 책임감의 범위를 아는 경우였다. 책임감이 높다고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 특히 환자치료와 시술 관련 일체의 행위를 자신이 수행해 버리는 것을 책임감이 높다고 하지 않는다. 인턴과 전공의는 책임소재를 직접적으로 지지 않고 교수가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려움이나 잘못을 드러냈다가 더 혼날까 봐 두려워 문제를 덮거나, 지나가 버리는 경우 문제를 키워 결국 환자 안전에 문제가 갈 수 있다. 이러한 의료 현장의 특징을 이해하고 혼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배, 교수진에게 현 임상 상황에서의 문제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을 기반으로 자신이 연결된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책임을 갖는 태도이다. 자신이 다 해결하고 통제하려는 책임이 아닌 수련의로서 해야 할 역할과 수행 범위를 이해하고 그다음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상위에 보고하는 능력, 도움을 청하는 능력 속에서 환자 안전은 물론이며 책임의 부담도 자신이 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또한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 보고 여러 정보와 자료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환자에게 있어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지닐 때 이들을 졸업후 수련과정에서의 우수한 특성으로 보고 있었다.

“전공의 때는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드러내기만 해도 굉장히 해결이 쉽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기만 해도 모든 문제가 거의 해결되는데 이제 그런 게 내 잘못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드러낼 수 있으니까. ‘나 혼내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게 우선은 괜찮아야 질문도 하고 드러내니까, 내 잘못인지를 두려워 안 해야 좀 어렵겠지만 이 극복을 좀 해야 ‘교수님 실은 제가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혹은 ‘이렇게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같이 해결해 주고 책임져주니까.” -BY 교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4.3. 의사 양성 단계와 학습자의 우수성 탐색 간 관련성

본 장에서는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의 의미를 의사 양성 단계의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앞 장에서 다룬 임상전 교육과정, 임상의학 교육과정, 졸업후 수련과정에서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우수성에 대해 연계 혹은 분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에 연구문제 1~2번에서 도출한 개방코딩 결과에 근거하여 의과대학 교수들이 인식하는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에 구분 없이 의과대학 전반에서의 우수성, 환경적 요인이 유사한 임상실습과정 및 졸업후 수련과정에서의 임상영역에서의 우수성, 기초의학 교육과정과 졸업 후 연구영역에서의 우수성을 검토해보고, 의사 양성 단계의 총체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우수성'을 일차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본 장의 목적은 우수성의 내용을 1:1로 정리하는 것이 아닌 앞장에서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각 환경적 맥락에 따라 어떠한 우수성이 요구되는지, 연계되는지, 탈락되는 지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의과대학 단계에서 학생의 우수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들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는지 등을 환경적 맥락에 기반해서 확인해 보기 위함이다.

일차적으로 의과대학 내 환경적 맥락에 따른 우수성의 연계성을 검토한 후 의과대학 단계에서의 우수성 탐색이 갖는 의미를 해석해 보기 위해 축코딩 결과를 통해 드러낸 본 연구자료의 범주들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분석 후 도출된 범주 간의 의미와 상호관련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는 각 범주 간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에 근거하여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의 6 요인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로부터 도출된 범주 간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해석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에 대한 범주들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이 가지는 위치와 우수성 탐색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축코딩 패러다임 6요소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범주들을 배치해 봄으로써 각 범주가 뜻하는 바와 범주 간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요인 간 상호관련성을 근거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4.3.1. 기본의학 교육과정 전반에서의 우수성

의과대학 교수들이 경험한 우수한 학습자들에게는 특정 교육과정에 구분 없이 의과대학 전반의 학부 과정(기본의학 교육과정)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우수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과대학에서 임상실습 과정의 전후 맥락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의과대학 4년동안의 시기는 의사가 되기 전 단계의 시점이다. 이러한 단계 전반에서는 기초의학을 통한 지식과 술기에 대한 이해, 임상의학 교육과정을 통한 술기와 태도, 기초 및 임상지식의 통합 등 의사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술기, 태도를 배워가는 시기이다. 이때 의과대학 교수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우수성은 '수용하는 자세, 실행해 옮기는 실천성, 성실성, 타인을 챙기고 함께 가려는 자세, 전체 맥락에서 부분을 보는 학습전략, 총체적 이해 방법, 자기주도학습방법, 회복탄력성, 성장하는 마음' 등을 강조하였다. 결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앞서 제시한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이 재반복되는 것이다. 이는 각 단계에 따라 특별히 강조되는 우수성의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기초의학 교육과정에서는 시험을 치뤄야 하고, 임상실습 과정에서의 증례 검토 및 임상추론 과정, 팀 학습 등을 수행 해야하는 교육과정 내의 과업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과업을 하기 위한 우수성을 이루는 요인들이 재정리되는 경향을 보였다. 학부단계에서의 수용하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훈련을 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 해오던 틀로 제한하지 않고 그동안의 자기만의 학습 방법의 전환을 위하여 교수, 선배, 동료의 피드백이나 조언 등을 듣는 태도를 의미한다. 의과대학에서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고 채워나가야 하는 지식의 양도 방대하지만 그러한 지식의 양을 축적하고 적용해 가는 데 있어 외부 정보의 개입이 중요하고 학습전략을 가지고 제한된 시간 내에 학습성과를 내야 하기때문에 외부에서 코칭 해주고 가이드 해주는 긍정적 피드백과 방향 제시는 학부 교육과정과 경험들을 수행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의과대학 입학 전까지 자신이 가지고 온 틀을 깨보는 연습은 경청에서 시작되며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조절 해가는 데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실행해 옮기는 실천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많은 양의 정보와 가이드라인, 피드백을 듣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습 방법과 모양에 맞는지 적용해보고 재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학습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천해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는지가 새로운 환경에 적용 및 전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전제는 수용적 태도에서 기반한 교수나 선배가 먼저 가본 길에 대한 조언과 방향에 대해 따라 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고, 수용해 보려고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실천으로 옮겨보는 것이 적용에 있어 가장 큰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 요소들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추후 마주하게 되는 실패 요소와 과업들 사이에서 이겨내고 다시 시작해 보는 등 실패를 마주하는 훈련,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을 자신만의 노하우로 만들면서 정신 관리를 해가는 것이 의과대학에서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과정에서 '훈련'으로써 강조될 요소라고 하였다. 새로운 교육 내용 및 과업을 마주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참여할 때에도 과거의 자신을 잊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자세, 새로운 것에 대한 용기의 기본은 실패를 마주하고, 실패를 극복해 가는 힘이 강해졌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업과 과정들을 인간이 성장하는 데 겪어가는 과정이고 성장통을 통해 또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해가고 있음을 기반으로 성장의 마인드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은 맥락적 사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상황에 맞는 문제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책임감에 대한 훈련의 중요성이다. 이는 지필고사를 위한 준비, 임상 케이스 발표 준비, 프로젝트 수업 준비 등 정해진 과업과 시험에 대한 준비라는 일차적인 목표를 넘어서서 종합적으로 맥락에서 이해하고, 증례에서 과거 병력을 검토해 보고, 직관적이고 단편적인 판단보다는 복합적 요소를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연습과 훈련이 추후 의료 현장에 대한 복합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훈련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축적해 가는 과정은 비단 임상 현장으로 가는 의사뿐 아니라 연구, 교육을 할 때에도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전체에서 부분을 보고 맥락 특이성 속에서 이해하려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지식의 복합적 활용과 전이 능력과도 연결되는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에서 우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야 하는 것은 익숙한 인간관계로 제한을 두지 말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즐겨보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감으로써 사람에 대한 관심과 다양성을 이해해 보려는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구성원, 학문 성향 등에 제한 및 경계를 하지 않고 학문 간 융합, 다양한 인간 구성원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사를 경험 해보고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봄으로써 추후 새로운 환자와 보호자를 마주하고 치료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직군의 의료팀원들과 소통을 위해 다자간 소통 능력, 타인들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전달하는 능력, 설득력, 설명 기술 등의 훈련이 되어야 의료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이슈와 연결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자간의 소통 훈련의 기본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고 애정이며 자신이 가진 정보나 지식을 공유해주려는 마음, 나의 과업과 시간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도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지는 연습, 타인과 내가 경쟁상대가 아닌 함께 가려는 공동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될 때 비로소 강화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필요한 우수성을 이루는 요소들이라고 강조하였다.

의과대학의 4년~6년의 시간은 학업만을 강조할 시기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학업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에 의한 지필고사 비중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보니 교수들은 이 시기의 전반적인 우수함을 고려할 때 학업을 잘하기 위한 요소로서 우수성을 검토해 나가기도 하였다. 혹은 의과대학은 의료 현장에 가기 전 준비 단계로써 의사로서 적성을 검토하고 의료팀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의업을 해나가야 할 힘을 비축하고 채워가는 시기이기도 함으로 의사가 되기 위해 사전에 갖추고 강화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면서 이것이 결국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이라고 강조하였다.

4.3.2. 임상의학 교육과정과 졸업 후 수련 과정(임상)에서의 우수성

임상의학 교육과정과 졸업 후 임상 영역의 수련 과정에서의 우수한 수련의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의 공통적인 것을 묶어보았다. 이는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과업에 대한 유사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임상 현장 영역에서 갖추어야 하는 특성들에 대해 대답한 것을 주제별로 묶어보았다. 먼저 진료역량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특성, 능력 등을 강조하였다. 이는 진료를 보는 맥락에서 마주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해야 할 자료와 맥락을 이해하고 환자와 보호자와 마주하는 상황, 진료 과정에서 처리해야 하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도움과 역할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를 이해해야만 가능한 능력이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소통 능력, 사회성,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대화의 내용만을 잘 이끄는 것이 아닌 진료에 필요한 내용적 지식을 맥락적 사고와 메타인지를 활용하여 기초의학 영역 임상의학에서의 질병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을 망라하여 복합적 지식으로 만드는 것과 이에 대한 정보처리를 통해 끌어내는 능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는 맥락적 사고 속에서 전체와 부분을 조망할 수 있는 것에는 문제에 대한 성찰과 문제 안에서의 상황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검토해 나갈 줄 아는 힘이 있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많은 양의 지식의 양을 추론해 내고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남으로써 큰 그림 속에서 부분을 이해하고 부분 간의 관계를 잘 그려내는 힘이 있어야 임상 추론을 해가는데 진료역량을 향상 시켜 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

또한 진료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통합하여 내용적 지식을 가지고 진단명을 내리는 것까지의 의사 내부적인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외에도 동료 간, 수련의-교수 사이에서 자신이 이해하고 처리한 내용이 맞는지를 재검토하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외부의 피드백을 수용하는 것과 자기 자신 스스로 내용에 대한 객관화된 지식 체계를 만들어가는 통찰 능력 등 성찰을 할 수 있는 힘과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 태도에는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신의 새로운 관점을 재생산해 나가는 수렴과 확산적 사고의 유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겸손하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바꾸어가려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결국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진료 현장에서 환자 안전과 직결과는 문제이자 책임감과 연결되는 부분이며 맥락적 사고, 성찰 능력, 수용적 태도, 책임감, 소통 능력, 유연한 사고방식, 사회성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진료역량을 키워가고 진료현장에서 환자에게 보다 유의미한 치료계획을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4.3.3. 기초의학 교육과정과 졸업 후 수련 과정(연구)에서의 우수성

임상의학 교육과정과 졸업 후 임상 현장 내 수련 과정의 분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 영역에 있어 기초의학 교육과정과 졸업 후 연구영역에서 우수한 연구자(기초전공의, 대학원생)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의 공통적인 것을 묶어보았다. 연구영역에서의 우수성은 호기심을 기반으로 깊게 탐구하는 힘, 자기 자신의 관심사를 개척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진 경우로 내적 동기가 강한 경우가 특징이었다. 임상의사의 진로보다 소수들이 선택하는 진로이지만 의사로서 연구자의 길을 걷는 것은 자신의 순수한 지적 호기심을 풀어보고자 하는 것과 흥미에 기초하여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대한 선택에 자신감과 외로움이 적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에는 비교적 연구 경험에 노출되었거나 유사한 경력이 있을 때 자신의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연구 분야로 진로를 옮기는 경우였다. 특히 이러한 학습자들은 혼자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적고 스스로 자료를 분석하여 처리하는 것이 편한 경우였다. 이들은 순수한 이공계열 탐구자들의 성향과 유사하며 기존 의과대학의 전공 적합성보다는 이공계열의 순수 과학 분야에 진로와 전공에 적합한 경우였다. 이들의 경우 개인의 내적 동기가 강하고 자신이 궁금하고 풀고자 했던 문제를 풀어가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만족해하는 경우였다. 지적 호기심이 강한 것이 특징이며 연구성과를 내면서 연구하는 것에 지속적인 힘을 싣게 된다. 이들의 경우 연구 성과가 높다고 의과대학의 학업 성과가 높다는 것은 비례관계는 아니다. 이들은 자신이 특별히 관심 있고 개인의 흥미와 호기심에 의해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 좌우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주제를 깊이 들어가고 심화학습을 함으로써 탐구해 가는 그 자체를 즐기고 좋아하는 성향이다. 이들은 외부의 것을 배운다는 것의 즐거움보다는 탐색해서 알아간다는 것의 즐거움을 더 느끼는 경우이며 피상적 학습이나 암기보다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지식 간의 관계를 그려나가고 과학적 논리구조로 풀어가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왜'의 시작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호기심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탐색 과정은 곧 설명을 잘하는 능력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다만, 이러한 설명을 할 때 반드시 구두 설명이 아니어도 글을 통한 자신의 논리구조를 전달하는 것에 익숙한 경우이고 임상 현장에 더 적합한 특성의 학습자들에 비해 구두 전달 보다는 글로써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데 더 익숙함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4.3.4. 의사 양성 단계 전반에서의 총체적 관점에서의 우수성

끝으로 교육과정 구분 없이 졸업 전·후 필요한 의사 양성 단계 전반에서의 총체적 관점에서 우수성의 의미는 의사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일차적으로 영역 구분을 막론하고 '의사'는 의업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필요한 관점에 대해 우수성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의과대학 교수자들은 의과대학이라는 공간이 의사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써 예비 의사가 훈련되고 함양해야 하는 지식과 술기, 태도를 배우고 익히는 시기임으로 교육과정 단계에 따른 구분을 통해 달라지는 우수성을 의미하는 별도의 속성은 없다고 하였다. 이는 각 교육과정 단계나 시기별 주요 성과나 과업이 있기 때문에 각 단계에 따라 중요 정도나 강조하는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특정 우수성으로 구분되는 다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결국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우수성은 구분되는 속성이 있다기보다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바가 일관되게 내재해있고 기초의학, 임상의학, 졸업 후 단계 각 시기에서 수행해야 하는 과업이나 성과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어진 목표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의 강도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이를 구분해서 강조할 점은 있으나 우수성 자체를 가지고 시기별로, 과업별로 구분된 교육과 훈련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인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과대학과 임상 수련 현장은 결과적으로 유사한 특성이 있는 교육 현장이라고 보고 있었으며, 의과대학이 의료 현장에 대한 시뮬레이션 학습 공간의 목적에 맞게 졸업 전후 상관없이 의사 되는 과정에 있어 필요한 특성과 자질, 역량 등을 강조하였다. 이는 평생학습자의 마음가짐으로 의과대학에서의 다수가 보이는 후기 청소년 단계의 학습 방향보다는 보다 성인학습자로서의 태도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의사는 다양한 역할과 진로가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거나 전공 분야를 선택하든 그것과 별개로 환자를 위해 최신 지견을 검토하고 공부해 나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누적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자로서의 태도로 배워가는 자세로 정보를 습득하고,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관리에 포함되는 시간과 체력, 정신적 관리, 성찰 능력, 메타인지 능력을 통한 맥락적 사고, 자기개발 능력, 대인관계 능력을 통한 팀을 통해 처리하고 의사 결정하는 훈련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은 단순히 대화를 잘하고 공감만을 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마주한 의료 현장에서의 임기응변이 중요하고, 단순히 제한된 환자군과 가상으로 설정된 의료상황에서의 환자 만남과 관계에 대한 학습을 넘어 실제 환자를 만나고 보호자와의 의사 결정 관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하기 위해 복합적 사고 능력, 환자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에 대한 검토 능력 등을 훈련해 가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기본은 환자에 대한 관심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정보를 찾아보는 노력과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종합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상황에 맞게 유연한 사고로 의사결정을 해가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환자 문제에 대한 관심과 꼼꼼한 내용 정리와 경청,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등의 힘은 환자를 위한 치료계획과 관리를 위해 전제되는 특징이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좌절, 실패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하여 해결해 보려는 도전 의식, 새로운 해결 과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통해 의사소통의 힘과 다자간의 대인관계 속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일을 처리하고 결정해 가는 힘이 의과대학과 의료 현장을 분리해서 개발될 것이 아니라 의사가 되는 데 필요한 힘이 무엇이며, 의사가 되는 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합한 자질과 특성을 개발하고 발굴하며, 부족한 것은 보완해 가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의과대학 입학을 위한 다수의 일반 의과대학 학생들과 달리 우수한 학습자로서의 의과대학에서의 경험, 의료 현장에서의 우수한 의사로서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어떠한 의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목적의식과 내적동기의 강화로 자신에 그려놓고 계획한 의사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는 다양한 특성과 자질을 자신의 강점을 살리면서 조정해 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의과대학과 의료 현장의 구분 없이 평생학습자로서 필요한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의사로서 준비할 수 있는 우수성의 기본 소양이라고 보고 있었다.

4.3.5. 의사 양성 단계에서 본 우수성 탐색의 위치(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범주를 기반으로 의사 양성 단계에서 본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의 위치와 상호작용 관계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개방코딩을 통해 정리된 바를 기반으로 총 10개의 범주를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축코딩 결과를 기반으로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의 6가지 요인에 적용하여 범주 간의 관계를 해석하고 한다.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연구자료의 해석을 기반으로 연구문제 3번에 대한 의사 양성 단계에서의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에 대한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윗 부분에서 맥락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 전반 및 의사양성 전반의 과정에 따라 요구되는 우수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패러다임 모형의 요인 간 관계성을 검토해 봄으로써 우수성 탐색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연구자료를 통해 도출된 범주 간 관계를 그려보기 위한 첫 단계로써 각 범주들의 유형분석을 위해 범주별 속성과 차원을 검토한 결과를 기반으로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의 구성요소에 맞게 범주를 배치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축코딩 패러다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모형에 속하는 총 6개의 구성요소에 따른 범주의 분류와 범주에 대한 속성과 차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바는 아래의 <표 17>와 같다(인과적 조건 : 범주2. 의대생들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 맥락적 조건 : 범주3. 국내 의과대학 특징, 중심현상 : 범주6.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중재적 조건 : 범주4. 의과대학에서의 하위권 학습자 특징, 범주5. 의과대학에서의 일반학습자의 특징, 작용/상호작용전략 : 범주1.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탐색 방향, 결과 : 범주7,8,9.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임상전, 임상의학, 졸업 후 수련). *단, 연구자료 도출을 통해 범주10도 자료 분석은 되어있으나 연구문제 3번과 관련 없는 범주임으로 아래의 패러다임 모형의 요인 구성에서 제외하였다.

<표 17> 패러다임 모형의 요인에 따른 범주 구성(속성·차원)

패러다임 요인	범주		속성	차원
	번호	범주명		
인과적 조건	2	의대생들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	의대 입시 기준의 신뢰	높음/낮음
			의사들이 우수한지에 대한 인식	긍정적/부정적
맥락적 조건	3	국내 의과대학 특징	학습환경(문화)	경직성/자율성
			유급제도에 대한 인식	강함/약함
			의사 사회 분위기	개방/폐쇄
중심현상	6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배움에 대한 태도	적극적/소극적
			학습에 대한 접근	목적성/수단성
			실패에 대한 대처방식	수용성/회피성
			대인관계	활발함/제한적
			문제해결방식	복합적/단편적
			자기관리능력	체계적/무질서
			지식과 경험의 전이 수준	복합적/단편적
			의사가 되기 위한 목적의식	높음/낮음
			인간에 대한 이해	깊은/얕음
중재적 조건	5	의과대학 일반학습자의 특징	학업성취도	높음/낮음
			의사로서의 적성검토	단기적/장기적
			휴브리스의 회복가능성	높음/낮음
			정신, 심리적 상태	안정/불안정
			사회경제적 환경 의존 정도	독립적/의존적
			인간으로서의 발달단계	성인/청소년기
	4	의과대학에서의 하위권 학습자	의과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	상위권/하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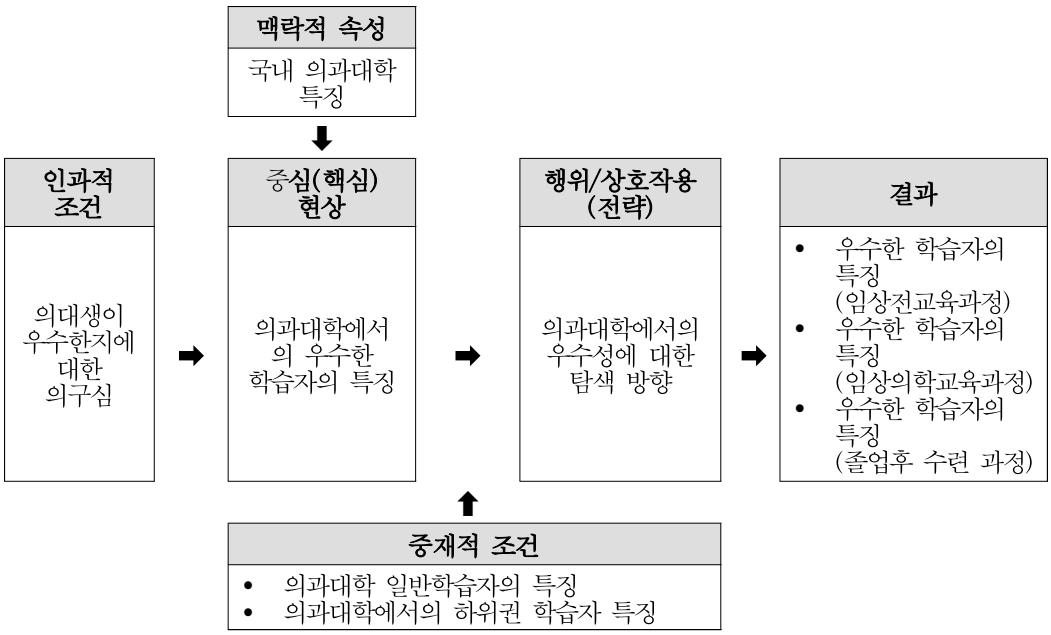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특징	의과대학에의 적응 수준	안정적/불안정적
작용/상호작용 전략	1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탐색 방향	영역별 우수한 의사의 분류	기초의학/임상의학/기타
			우수한 의대생이 보이는 지표(성적 외)	다양함/단순함
			의과대학에서 우수성의 검증 지표	외재적/내재적
			우수성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낙관적/회의적
			의과대학에서 우수성의 의미에 대한 이해정도	구체적/추상적
결과	7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임상전 교육과정)	시험에서의 학습성과	높음/낮음
			기초와 임상의 접근	기계적/자기주도적
			지식과 연구와의 연계성	약함/강함
	8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임상의학 교육과정)	임상추론 방향	단순/복합
			실제 의료 현장에 지식의 전이 능력	높음/낮음
			임상영역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고정적/유동적
			임상실습에서의 팀 활동에 대한 태도	적극적/소극적
			임상실습 과정에서의 참여도	적극적/소극적
			임상실습과 자신의 진로와의 탐색	적극적/소극적
	9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졸업후 수련과정)	의료 현장에서 학습의 실천	지속적/일시적
			환자 중심에서의 소통	적극적/소극적
			의료 현장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	다양성/획일성
			전공과 선택에 대한 준비도	능동적/수동적
			의료 현장에서의 공동체적 자세	적극적/소극적
			의료 현장에서의 다양한 직군과의 관계 형성	넓음/좁음
			수련의로서의 책임감의 범위	명확함/모호함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우수한 의과대학 학생이 가진 우수성을 검토하기 위해 아래의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을 활용하여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 패러다임의 모형에 근거하여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 및 우수한 학생들이 가진 특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총 9가지의 범주를(단, 범주10. 제외) 각 요인의 역할에 맞게 배치해 봄으로써 범주 간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분석은 아래의 6가지 요인에 연구자가 도출한 개방코딩 결과(총 9개의 범주)를 연구자료를 해석하는 데 구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중심현상에 대한 과정과 그 답을 얻기 위한 실천 방안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의 접근을 시도하는 근거에서이다(변기용, 2020).

이에 본 연구의 총 세 번째 연구문제(셋째, 의사 양성 단계에서의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아래의 패러다임 모형의 관계를 통해 해석하고자 한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인식하는 우수성의 의미를 기반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가진 특징, 이러한 우수성이 의과대학 교육 현장과 수련 현장에서의 관련성을 9개의 범주 간 상호작용 과정을 기반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개방코딩 결과 총 9개의 범주에 대해 '중심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적 속성, 중재적 조건, 상호/상호작용전략, 결과'로 배치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12>과 같다.



<그림 12>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축코딩 단계의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이 가지는 의미, 의사 되는 과정에서의 관련성을 해석하고자 한다.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가 가진 특징(범주6)'을 본 연구에서의 '중심현상'으로 정하였다. 중심현상은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문제이자 현재 이 탐색의 흐름, 현상에서 보이는 핵심 현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중심현상)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위한 주요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계기를 '인과적 조건'이라고 한다.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탐색하기 위해 교수들은 이 현상(중심현상)을 해결하고자 '의대생들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인과적 조건)'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여 의과대학 학생들이 우수성을 지닌 대상들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연구의 흐름에서 확인하였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계기는 의대생들의 입시 기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기 때문과 현장의 의사들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이었음이 그 근거였다(하위범주-범주의 속성·차원 시 기재). 그 결과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우수한지를 검토할 때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대생들이 우수한지에 대해 의심을 갖는 접근에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아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우수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의과대학(맥락)이라는 맥락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의과대학(맥락)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조건으로 환경, 조건적 상황을 의미한다. 우수한 학습자들이 속해있는 환경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특수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한 우수한 학습자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 학습자가 지닌 우수성을 이루는 특성은 의과대학이라는 맥락 안에서 해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의과대학이라는 환경(맥락) 아래서 어떠한 학습자들이 우수하게 드러나는지, 그 학습자가 지닌 특성, 자질, 역량 등을 의미하는 우수성은 무엇이 있는지를 해석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참여자들은 국내 의과대학의 특징(범주3)을 검토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과대학을 검토할 때에는 의과대학의 학습 환경의 경직성 여부, 유급제도에 대한 인식 여부, 의사 사회 분위기의 개방성 여부와 관련하여 의과대학(맥락)을 이해하였다.

의과대학(맥락)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중심현상)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 의과대학이라는 맥락적 조건을 일차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러한 맥락의 특징을 고려하여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해석의 제한 범위를 설정하였다. 중심현상을 전개하기 위한 첫 물음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가는 노력을 하였으며, 이는 곧 현상을 풀어가고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의 인과적 조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중심현상에 대해 직접적 요인은 아니지만 이러한 중심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변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등의 요인인 중재적 조건을 검토할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필요가 있다. 이에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알아가는데 이 현상에 변화를 주는 요소이다. 다시 말해 인과적 조건인 의과대학 학생들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검토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경감 혹은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의미한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우수하다고 명료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중재적 조건의 개입 때문이다. 즉, '의과대학 일반학습자의 특징(범주5)'과 '의과대학에서의 하위권 학습자의 특징(범주4)' 때문에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우수한지에 대한 물음을 가진 것이었고,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아닌 중재적 조건을 제외한 특정 대상만이 우수한 대상이며, 우수한 대상이 지닌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의과대학이라는 맥락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학습자의 특징을 볼 때 학업성취도, 의사로서의 적성 검토 기간, 휴브리스의 회복 정도, 정신·심리적 상태의 불안정서, 사회경제적 환경에의 의존 정도, 인간으로서 발달단계의 상태 등을 기반으로 다수의 의과대학 학생들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우수한 이들이 보이는 특징 외에도 의과대학에서의 소수의 하위권 학습자들의 낮은 학업성취도와 의과대학에서의 불안정적인 적응 상태의 대상들을 포함하여 우수한 대상에서 제외해 나갔다. 결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중심현상인 우수한 학습자가 가진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재적 조건인 '일반학습자 및 하위권 학습자 특징'이라는 두 가지 범주를 방해하는 요소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이 보이는 특징을 제외하는 것이 우수한 학습자들에게 보이는 특징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나갔다.

다음으로, 행위/상호작용은 중심현상을 다루는 방식, 전략으로써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로써 풀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현상을 풀어가게 하는 요소이다. 우수한 학습자가 가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의과대학 교수들은 하나의 전략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발견 해가고, 이들이 가진 특징인 우수성을 향상시켜 주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략, 전술, 방법으로써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을 탐색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바는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방향'이었다. 이는 우수한 학습자가 가진 특징을 도출하고 발견해 가는 일차적인 과정을 위함과 우수성이 도출되지 않은 과거의 상태를 성찰하면서 회복할 방향을 고민하는 것과 의학교육자의 역할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회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성을 발현해 나가고 탐색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수한 학습자가 가진 특징을 검토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규정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우수한 의사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수한 의대생이 보이는 지표가 성적 외에 무엇이 있었는지, 의과대학에서 우수하다고 검증할 수 있는 지표는 내재적 요인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음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까지의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소극적이었음에 반성적 자조를 보임으로써 향후 개선되어야 하는 문화라는 점을 성찰하였다. 결국 이러한 탐색을 통해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은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이지만 우수한 의사에게 보이는 요인, 우수한 의대생들에게 드러나는 성적 외 다양한 지표, 내적 요인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요인의 총합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교육과정 단계(임상전·후)에 따라, 수련 현장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임상전 교육과정과 임상의학 교육과정, 졸업 후 수련 과정은 각 단계 자체의 특수성과 요구되는 기준, 해야 하는 과업이 다르다. 거시적으로는 의과대학이라는 맥락 안에 있지만 교육이 수행되는 교육단계인 미시적인 환경에 따라 우수성으로 이해되는 바가 다르며, 이러한 우수성을 규정하는 요소에도 차이가 있다. 다만 의과대학과 의료 현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의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우수성이 있으며, 이러한 우수성을 드러내는 학습자가 보이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단계인 미시적 환경 특성에 따라 임상 전 교육과정에서는 시험에서의 학습성과의 높은 정도, 기초와 임상의 접근을 자기주도적으로 가능한 여부에 따라, 지식과 연구와의 연계 가능 여부를 어느 정도 고려하는지 등을 가지고 우수한 학습자 여부를 파악하였다. 임상의학 교육과정 단계에서는 임상의학 교육 현장인 실습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상추론의 방향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실제 의료 현장에 자신의 누적된 지식의 전이 능력이 높은지, 임상 영역 자체의 특수성을 인식하는데 유연한지, 임상실습 팀 활동 및 참여여 적극적인지, 이러한 실습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 탐색에 적극성을 보이는지를 기반으로 우수한 학습자가 지닌 특성과 자질이 일반 학습자와 다른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련단계에서도 의료 현장의 학습에서의 실천 정도가 지속성을 보이는지, 환자 중심에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시도하고, 의료 현장에서 만난 인간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가능한지, 전공과의 선택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확인하고 탐색하여 결정하는지, 의료 현장에서 공동체적 자세가 함양되어 있는지, 다양한 직군과의 관계 형성이 넓게 원만하게 되어있는지, 수련의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아는지를 기반으로 우수한 수련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4.4.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이 주는 교육적 함의

본 장에서는 의과대학에서의 교육 및 수련 경험이 있는 교수자들 20명과의 면담을 통해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의 우수한 대상에 대한 교육의 변화 방향,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 교육현장의 문화가 무엇이며, 이때 교수자의 역할은 어떻게 되며 대학은 무엇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우수성 개발과 발현을 위해 대학과 교수자의 역할 및 회복 방향에 대한 교육적 역할을 정리한 후에 연구자료 전반의 근거이론 마지막 단계로써 선택코딩 단계에서의 역할로, 범주 10가지의 자료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주제이자 유의미한 대표 내용을 '핵심범주'로 설정하여 범주들을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인 범주의 선정, 연구전체의 함의를 코딩 자료의 최종 결산물로 보고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의 수집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도식화 함으로써 이론으로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요약된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선택코딩을 통해 최종적으로 총 10가지 범주의 대표되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 윤곽'을 통해 현상에 대한 설명을 기술 한 뒤, 이론으로의 발전을 위한 도식을 시각화된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장의 내용 또한 면담을 통해 도출된 자료를 개방코딩 과정을 거쳐 범주10으로 검토하였다. 이 경우의 내용은 원자료로부터 총 243개의 내용들이 '코드/라벨'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상위 단계인 '개념'으로 총 47가 도출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7개의 (하위)범주를 구성하여 범주10으로 정리하였다. 개방코딩 결과를 통해 도출된 '상위범주-하위범주-개념-코드/라벨'의 범주10에 대한 개요는 아래의 <표 18>와 같다.

<표 18>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 회복을 위한 방향(대학, 교수)

범주 (1개)	하위범주 (7개)	개념 (47개)	개념 내용	코드/ 라벨 (243개)
범주 10. 의과대학 학습자의	의과대학 선발 기준의 재검토 및 다양화	8개	• 수능과 내신에 집중되는 입학사정으로 귀결(입학 정책의 한계) • 의사가 되는데 필요 이상의 지적 능력 과잉은 아닌지 의구심 • 의과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입시 점수 권할에 대한 재량권 부족	32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의과대학에 좋은 학생을 뽑을 기준, 방법 검토 필요 • 지적 능력 검토를 위한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것으로 의사로서 적성과 차이가 생김 • 리더십, 의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 파악 척도 개발을 통해 의사로서 적합성 검토 후 선발 필요 • 사람 만나고, 사람에 대한 마음, 말도 잘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은지 검토 필요 •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교육경험으로 의사의 역할의 다양성, 의사 외 진로 등 노출 기회 제공	
우수성 회복을 위한 방향 (대학, 교수)	의과대학에 적합한 학생상에 대한 재검토	8개	• 기존의 대학별 졸업성과와 이상적 학생상과 별도로 필수성과를 갖추는 경우 • 예비의사로서 적합한 학생의 모습에 대한 검토 • 지적 영역 외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훈련을 기반으로 인간으로서 성장의 경험을 하는 것 • 인간의 발달과업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면모를 갖추는 것 • 사회생활(의료 현장)을 해나갈 수 있는 보통의 인재 • 스스로 성장하는 데 교수자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경우 • 학생의 삶이(미래가) 기대되는 경우 • 시간이 지나도 기억나는 학생	22개
	의과대학 문화의 개선이 필요	6개	• 평가인증에서 요구하는 전형적인 의과대학의 모습을 넘어선 색깔 •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는 문화	16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대학이 유지해 온 역사, 전통을 드러내는 문화 • 특별하고 독특한 자신의 대학만의 학풍을 만들어 가는 것 • 서양에서의 사고처럼 강점, 장점, 재능, 잠재력을 인정해 주는 문화 • 교육을 통한 성장의 문화로의 개선(기존의 상하복종, 의사 사회 평판을 넘어선 문화)	
의과대학의 우수성을 표현하는 지표 전환을 통해 기대하는 의사상의 전환 시도	4개	•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특성을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이 필요함 • 상대적 평가를 넘어서 절대적 평가로서의 '우수하다, 탁월하다'를 통한 강점 살리기 표현이 필요 • 우수성의 다양한 범주를 이해하고 검토해 주는 기회 제공 • 다양한 우수성의 범주를 보여주며 특정 롤 모델에 국한하는 발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노력	13개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도구 개선으로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 확충	9개	• 평가도구의 제한적 사용 반성 • 교수자의 교육 시간 확보 • 지적 영역을 벗어난 다양한 범주의 평가도구 개발 • 새로운 평가도구 소개 및 활용을 위한 교수개발 지원 • 교수개발을 통한 교수자의 훈련 • 의학교육자의 '우수성' 코칭 능력 확보 • 교육자로서 실제 의료 현장을 경험 후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필요 • 의과대학 내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도구 방안 마련 • 성장 과정에 따른 우수성의 발현 시기가 다름을 이해	24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과대학 교육방식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 방안 도출	9	• 개별화 교육을 통한 개인의 속도에 맞는 우수성 발현, 지원 필요 • 교수자 역할의 변화 필요(잠재력 발견 및 개발, 촉진자, 관심, 경청, 관심, 관찰, 관계 형성, 면담, 멘토링, 지지자) •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교육과정의 선택의 폭을 통해 자신의 의사로서의 목적의식, 흥미, 관심 연결 기회 제공 • 다양한 교육과정 접근으로 자신을 탐색 및 발견의 기회 제공 • 성인학습자가 되는 기회 제공 • 의과대학 교육의 방향 전환 필요 • 학습자의 선택의 기회를 높이는 교육 방향 제안 • 학습자에게 책임을 심어주는 학습문화 개선	103개
의과대학과 졸업 후 교육과정의 연계성 고려	3	• 의학교육의 연계성 차원에서 의과대학 이후의 졸업 후 과정과 연계해서 우수성 실현 방안 고려 • 의학교육자의 역할, 의학교육의 범주 확대 •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에도 의학교육의 일반적 개입이 가능하게끔 지원	33개

더불어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범주 10에 대해 상위범주-하위범주-개념-코드/라벨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개요이자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코드/라벨'의 243개의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와 '코드/라벨-개념' 간 연결 간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4.4.1.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 방향에 대한 교육적 함의

범주10에 대한 개방코딩의 결과와 관련하여 의과대학 학습자와 수련의에 대한 우수성 발견과 개발을 위한 교육적 함의를 7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의과대학 학생 선발의 기준을 재검토하고 다양화 필요가 있다.

현재 의과대학을 입학하는 경로인 의예과 입학, 학사 편입,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한 진입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다만 이러한 선발경로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적인 면과, 지식에 집중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지적 능력을 과도하게 보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의과대학에서의 학업양이 많기때문에 지적 능력과 다량의 학업 양을 감당할 수 있는 학업역량이 있어야 함에 의과대학 교수들은 동의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입시제도를 통해 들어오는 학습자들의 분포를 보면 이과 출신, 수능성적 우수자, 교외 경험 및 비교과 활동 경험 부족, 리더십 기회 부족, 봉사활동 부분 부족 등의 경험은 소극적 경험은 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봉사활동과 리더십은 일부 입시를 위한 스토리 텔링 혹은 단기적 성과에 의한 경험에 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업성과를 내기 위해 가족과 주변의 지지를 통해 공부만을 강조해 온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다시금 학업역량으로만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에 의사로서의 적성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물론 입시체제 하에서 의과대학에서 단독으로 입시요강과 보고자 하는 평가 항목을 변경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현재의 학업능력을 보는 비중 대비 태도, 술기에 대한 영역을 확대하여 전인격적 형성이 된 학습자를 양성하는데 적합성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입시기준과 요강에 있어 변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향하고 바라보는 우수성을 갖춘 학습자가 입학 하기에는 성적 우수자들이 주로 입학하는 현주소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주로 의사로서의 적성을 고민하고 전공 적합성에 대한 검토 후에 자발적 선택에 의한 전공선택의 성향보다는 학업성적으로 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의과대학이라는 불문율로 인한 입시정책의 승자로서의 선택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은 의사로서 자신이 적성이 맞는지 등의 여부보다는 높은 입시 점수에 대한 보상 기회로써 의과대학 입학을 여기고 있으므로 이 자체에 대한 자부심도 높은 상태이다. 물론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대상들의 균질성 속에서도 면접을 통해 적성을 검토하고 의사로서 보다 적합한 대상을 고르기 위해 의과대학에서는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고 선발 기준을 조정하고 있으나, 면접 등을 통해 거르고 있는 기준의 주관적 요인들로 인해 평가 타당성과 신뢰도에 의견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한 기준인 수능성적, MEET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등의 시험 비중으로 주된 평가 요소로 가미하고 있다는 데 모순이 있었다.

결국 의과대학에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진학하는 의사라는 직업양성소 혹은 사관학교가 아닌 의업을 할 수 있도록 잠재 가능성과 자질과 성향이 맞는 학습자가 들어와서 4~6년 동안 의사 되기 위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세부 진로를 탐색해보고 의사로서의 다양한 역할 속에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입학 사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지나치게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로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이상의 양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다른 영역에서의 발달이 저해되고,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발달 과업을 불균형적으로 수행하며 절름발이식 성장을 겪는 딜레마에 직면한 것은 아닌지 교수들은 우려하였다. 즉, 의사로서 적합한 인재인지, 의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고 경험하는데 전공 적합성이 있는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에 대한 가치와 의식이 있는지 등을 볼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일차적인 숙제이며, 현행대로 입시 관문을 거쳐 입학한 대상들에게는 다양한 진로 선택 프로그램, 교육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역할에 있어 임상 현장 외에 다양한 의사의 역할과 책임이 있음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의사의 역할 중에 다양한 역할이 있고 의료 현장 또한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점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자질과 특성을 되돌아보고 의사로서의 진로를 모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출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의과대학에서의 진로 탐색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업이 맞지 않거나 부적합하다고 여기는 경우,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다른 영역에 달란트가 있을 경우 조기 스크리닝을 통해 새로운 진로를 찾아주는 것이 의과대학 교육자로서의 책무이고 학습자의 인생에서 볼 때 유의미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과대학생들이 굉장히 균질한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균질하고 심지어는 소득, 성별도 굉장히 남성이 많고, 이는 선발의 방식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과라든가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이과적인 성향이 발달했다고 했을 때 수능 성적에서도 이과 과목을 선택했을 때 더 좋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특성이 (중략) 의과대학을 성적 위주로 선발했을 때는 이제 남성 남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소득 수준이 떨어지면 들어올 가능성이 낮아지고, 수도권 사는 지역하고도 연결이 되고” - KD 교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둘째, 의과대학에 적합한 학생상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의과대학에 입학하는데 적합한 학생상이 아닌 의사로서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의과대학을 상정하고 예비 의사로서 적합한 학생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이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원하는 학생상은 대학별 정해놓은 졸업성과나 이상적인 학생상에 따라 차별되는 부분과 지향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결국 평범한 학생을 추구하고 평범한 수준의, 규정된 역량을 학습한 '뛰어난' 성과가 아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성과를 갖춘 의사로서의 역량을 지닌 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의과대학을 수학하고 의사 되는 과정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우면서 지적 영역에만 한정되는 성적을 위한 학습보다는 의사로서 사전에 경험하고 훈련되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성장 과정에서 경험할 것들을 경험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어떠한 훌륭한 의사가 되기 전에 인간의 과업 단계에 따라 성인학습자로서 갖춰야 하는 부분들을 갖춰가면서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학생을 기대하였다. 이들은 특별하거나, 특수한 것을 특출나게 잘하는 요인을 강조하기보다는 의료 현장에서의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평균적인, 적당한, 보통의' 학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이러한 경험을 훈련받는 것이 적합하고, 전인격적 성장이 된 후, 의사라는 업에서 가져야 하는 특수역량을 취득해 가는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았다. 결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과대학이 요구하는 학생상이나 대학의 역량, 특정 의사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이 성인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살아갈 삶을 기대하며,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학습자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고, 의사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돕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대학이 원하는 좋아하는 학생상은 뭔가 이걸 이제 졸업 역량으로 규정을 해 놨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교수들이 이제 합의를 하고 모든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다 연계를 해서 녹아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런 것을 잘 달성했을 때 어떤 리워드도 주고 이렇게 해야만...
사실은 학생들도 내가 우리 대학이 원하는 좋은 학생이 되고 싶다잖아요." -JE 교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셋째, 의과대학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인증제도의 도입과 실천으로 국내의 의과대학 수준의 질은 향상되고 평균 이하의 대학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평가의 질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평가인증제도 도입, 의사국가고시, 균질한 입학사정 등으로 인해 국내의 40개 의과대학은 대학마다 지향하거나 바라보는 졸업생의 상에 소정의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의과대학 교육과정 속에서의 경험 또한 비슷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의과대학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어렵지 않게 국내 다양한 의과대학을 검토해 봐도 유사하고 공통적으로 그려지는 'medical school'의 특정 문화와 다른 단과대학과 구별되게 이 학과만의 특징이 곧 의과대학의 문화로 일반화해도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러한 일률적이고 차별성 없는 의과대학의 문화의 유지와 교육과정의 답습은 각 대학에서 고유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특색있게 할지라도 의과대학 공통의 특성과 방향성 때문에 고유한 문화가 사라지거나 묻히게 된 것이 사실이다.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도약한 대학들은 이제는 전형적인 평가인증 기준에 근거한 대학의 개발과 개선을 넘어서서 '해당 의과대학에 입학하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이 특화 되어있다' 등의 각 의과대학 가지는 고유의 강점, 문화, 색깔을 살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내 의과대학의 수준과 교육의 질이 세계의 공식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볼 때 상당히 상승되고 질 관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각 의과대학에서 키우고자 하는 학생상의 색깔을 뒷받침 하기 위해 대학과 교수집단이 만들어가는 대학별 문화가 향상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답습해 온 의과대학의 전형적인 모습과 균질성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한국을 포함한 동양권에서는 '결점, 약점, 실수, 못한 것'에 치중하여 이것을 보완하는 식의 학습 문화가 기저에 있는 반면 서양 문화권에서는 '강점, 장점, 재능, 잠재력'에 집중하여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살림으로써 격려해 주는 문화가 기저에 있다. 각 문화권의 특성과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교육의 측면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입각한 우수성을 개발하고 누구라도 학습자는 교육을 통해 변해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대상이라는 철학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수성을 발견하고 개발해 주는데 적합한 교육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의과대학은 이러한 동양권의 특성과 의과대학 고유의 문화가 결합 되어 성실함을 빙자한 순종적·순응적 문화와 상하 복종의 관계, 의사 사회라는 좁은 사회에서의 평판 강조 등을 통해 학습자들과 교수자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계의 기저에는 교육의 장에서 회복해야 하는 교육을 통한 성장이라는 본질이 살아있는 학습의 장으로 의과대학별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어떤 교수님들은 우리도 좀 잘한 학생들을 복돋아 주는 정책을 만들어보자 이런 식의(중략).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교수님들도 그렇게 하다가 문제 생기면 안 하느니 못한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일정하게 학생들 교육시켜서 의사 국가시험 어느 정도 합격을 시켜서 그냥 레지던트 하든지 이렇게 됐다면, 우리 대학에는, 우리 대학 학생들은, 뭘 했으면 좋겠는지 그다음에 이런 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중략) 'OO의대에 오면 봉사를 마음껏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연구 센터들도 많고 교수님들 랩실도 있으니까 연구를 할 수 있다.' 등 이렇게 세팅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 대학이 배출하는 좋은 학생은 봉사 정신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봉사 정신이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연구 역량을 갖춘 학생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JE 교수

넷째, 의과대학의 우수성을 표현하는 지표를 전환함으로써 의과대학 교수들이 원하는 의사상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의과대학의 우수성을 이야기할 때 대다수가 학업우수성, 연구우수성 등의 양대 산맥으로 대답을 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은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범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수성은 특정 영역의 역량이 강조되고 특화된 힘이 아닌 사람에게 있어 다양한 특성과 자질을 개발하여 우수함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성장 관점에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속성이다. 의과대학 교수자나 대학에서 그려오고 추구해 온 입학 기준과 의과대학에서의 교수학습 경험을 주로 검토할 때 우수성의 요인을 제한적이고 기존의 틀에 맞춰 둘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은 의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훈련하는 목적이 있는 기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여 의사가 되기에 필요한 자질과 특성을 먼저 검토하고 이러한 것을 수월하게 해나가는 특성을 다양한 관점과 분야에서 개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상대적 기준에 의해 '~를 잘한다, ~보다 잘한다'의 인식에서 전환하여, '우수하다 탁월하다'의 개념을 자신이 가진 강점을 검토하고 의료 현장에 필요하고 적합한 요인과 적용해 감으로써 성장해 나갈 요소를 발견하고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교육의 개념으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경험해 나가야 할 방향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수련을 책임지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우수성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범주로의 확대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 주고 발견해 감으로써 어떠한 의사들이 양성될 것인가, 다양한 역할을 하는 의사의 역할소개와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임상의사 중 특정 과를 위한 의사의 모습도 부적절한 롤 모델이며, 의사는 공부만 뛰어나야 한다는 제한된 프레임 속에서의 발상과 접근을 교육 현장에서부터 변화해 나갈 책무가 교수들과 내부자의 시선에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어떠한 의사를 우리는 양성해 갈 것인가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혀보고, 다양한 범주 구성에서 다양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우수성 영역을 개발해 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의사를 양성해 나가는 교육기관의 책무를 감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평균? 주류? 여하튼 동질성에서 벗어나 있는 것 자체가 우수한 학생의 특성이라고 보는 측면이 좀 있어요. 애초에 학업이라는 게 거의 동등하다고 학업적 능력이 동등하다는 상태에서 그럼 그 외에 다른 어떤 특성이 이 학생을 더 좋은 학생으로 보느냐고 봤을 때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균질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 자체가 그 학생의 강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주 흔한 흔한 거라기보다는 조금 덜 특이한 것으로도.... 좋은 특성이라고...." -KD 교수

다섯째,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다양한 평가도구 개선으로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을 측정하는데 부족한 이유는 평가도구의 제한적 사용과 적합하지 않은 평가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타당도가 저하된 평가를 수행하는 현실 때문이다. 비교적 의학교육환경은 타 기관이나 단과대학에 비해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교육 현장에 활용하고 개발하는 교육의 장이지만 여전히 정해져 있는 평가도구로만 국한하여 평가함으로써 재려고 하는 것과 보고자 하는 것을 적합하게 검토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입학사정에서부터 입학 후 교육과정을 통한 평가 과정 속에서 과연 의사로서 적합한 인재를 선발했으며, 의사로 살아가는데 가져야 하는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의사로 살아가는데 우수성을 함양한 것을 평가하는 기회가 있었는지를 검토해 보면 교수자들은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객관적으로 부족한 교수자의 주어진 시간으로 인해 익숙한 것으로의 평가와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한정되어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평가의 타당도가 무너지게 되고 과도하게 발달되거나 발견되는 부분인 지적 영역에만 편중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도구를 변형해가고 개선하는 식의 도전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기반은 교수자가 새로운 평가도구를 익히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수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하고 적절한 평가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평가자 훈련의 기회가 필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의과대학의 교육문화를 전환해가고 바꾸어가는 것의 실천 단추일 뿐 아니라 의과대학 학습자의 다양한 우수함의 특성들을 발현해 나가고 발견함으로써 성장의 관점으로 교육의 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준비이기도 하다. 이러한 본질적 개선의 변화를 통해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과 방향은 의사를 양성하는 데 적합한 교육의 과정과 훈련의 시간, 이를 평가하는 기회를 통해 우수성에 대한 성장의 단계로 활용해 나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문제는 그것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평가 방법들이 그런 성과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있는 거지.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대생들은 의사국가고시 합격이 최종의 목표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당장에 우리가 졸업 과라든지 EPA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액설런스 한 사람들의 특징을 자기들이 갖추지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KM교수

여섯째, 의과대학 교육방식의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의과대학의 학습자의 우수성의 발현 시기는 개인에 따라 다르고 성장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우수성의 다양한 속성에 대한 검토 다음은 다양한 속성이 발현되는데 차이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점이다. 의과대학 학습자에서 의사되는 과정, 의사가 되어서도 성장해 가는 속도에 개인차가 있다. 각 학습자에 따라 우수성의 발현 시기와 잠재 정도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이들의 잠재력과 발현가능한 특성들을 발견하고 개발해 주도록 교수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교수자의 역할은 주입하는 과거의 강의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촉진자로써 학습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며, 학습자의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경청함으로써 그들의 입장과 상황을 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긴 시간과 관찰의 기회를 통해 무엇을 잘하고, 개발해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 가는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이들이 요구할 때에는 면담을 통해 조언해 줄 수 있으며, 특히 일반적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취약한 실패를 마주하는 경험과 극복해 가는 힘에 대해서 롤 모델 되어주고 의학 또한 불확실성의 학문과 변수가 많은 의료 현장을 이해해 나가고 마주해가는 데에는 ‘실패와 낯선 환경’의 반복임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학습자와의 관계를 통해 지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학습과 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 코치로서의 촉진자 역할이 필요하다. 결국 이들이 단순히 학습을 어려워하거나 못하는 것에 학습 전략적 도움을 일차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그들이 받아오던 인정과, 성취, 성공의 경험이 의과대학과 의사 집단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이 더욱이 강조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자의 관찰과 지지 외에도 교육과정의 물리적인 교육과정 개발 외에도 연구, 비교과영역, 봉사, 동아리, 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관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어주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접하는 정보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만나가고 알아가고 탐색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안은 새로운 시각으로의 전환, 도약, 도전의 장이 되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은 미처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것에도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성장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해 갈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어진 교육과정의 규정화를 넘어서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동기와 목적의식과 호기심에 기반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해 주거나 타 과와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소통의 창을 제시하고, 익숙한 것에서 탈피해 가고 깨뜨려보는 훈련을 하는 기회로 교육과정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다양성 있는 수업과 비교과영역들을 통해 선택을 해감으로써 자신을 탐색해 나가고 자신의 관심 분야와 개발 가능한 부분을 발견하고 성장시켜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에는 학습자 중심의 사고로 학습자의 개별 선호와 관심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학습자의 선택을 지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 가는 훈련을 통해 의사 되는 과정에서의 선택, 의사 결정, 책임, 호기심, 문제 해결 등의 힘이 길러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공하고 교수자는 옆에서 지지, 지원, 조언을 제공하면서 소극적 개입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학습자들은 스스로 성장해 나가고 자신을 성찰하는 힘과 외부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는 앞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말한 성인학습자로서의 주체 의식, 평생학습자로서의 배움의 자세, 성인으로서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이며 결국 의사로 살아갈 때 필요한 소양으로 성숙한 인간으로서 의업을 수행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교수의 역할이 완전 달라져야 되는 게 확실하죠. 그런 장을 만들고, 인플리테이션 해주는 게 중요하죠. 마련해 주고 선택 과목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또 퍼실리테이터를 얼마나 더 투입할 수 있는지도...” - BY 교수

일곱째, 의과대학 교육과 졸업 후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그려나가야 한다.

국내 의학교육과 의학교육자의 역할 범위가 의과대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북미권의 수련제도 프로그램에서 출발하는 학부 수준으로의 의학교육의 방향과 달리 우리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먼저 정착된 후 졸업 후 교육에 대한 관심과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관점과 방향의 차이로 인해 국내 의학교육자의 역할 또한 의과대학 교육에 한정한 평가인증제도 관리 및 개선, 의사 국가고시를 위한 교육과정 수립과 편성, 상담 위주의 업무 투입 등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비교과영역을 담당하여 리더십, 윤리, 프로패셔널리즘, 사회성, 커뮤니케이션 수업의 운영을 담당한다. 이러한 의학교육자의 역할과 의학교육의 범주를 졸업 후 교육으로 확대하여 의사 양성 전반의 단계에서 볼 때 의과대학과 졸업 후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야 하는 리더십, 윤리, 프로패셔널리즘, 사회성, 커뮤니케이션의 학습의 양과 내용을 연장선상에서 이어가는 식의 전환, 인턴과 전공의의 교육과정 틀에 대한 자율성 속에서의 의학교육자들의 전문화된 평가자로서의 투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입 등을 통해 의사는 평생 교육자로서 배워가고 평가받고 성장해 나가는 연속선상에서의 흐름을 의학교육자의 투입으로 역할을 확대 해감으로써 졸업 후 교육에 대한 방향성과 지속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공의 수련 교육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방향에 대해 각 전문과의 특화된 영역과 자율성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속성 차원에서 훈련되어야 할 요소인 '우수함을 규정하는 특성과 자질'을 검토해 나가고 피드백함으로써 모니터링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평가도구를 통해 졸업 후 단계에서도 수련에 대한 평가를 해감으로써 재학습과 보완이 필요할 경우나 적성이 맞지 않아 문제를 힘들어하는 경우 리앤트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한되고 소극적 수준에서의 졸업 후 교육의 방향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선에서 의학교육을 바라보고 의학교육자의 위치와 역할을 개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졸업 후 교육, 전공의 교육 그다음에 CPD하고 연결될 때는 컨티뉴 메디컬 에듀케이션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 과정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우리 그러니까 의사가 계속 자기 퀄리티를 높이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면 의사는 점점 자기의 영역에 깊이가 있고 더 신뢰 높은 그런 스킬이 되고 환자 중심으로 더 발전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연속된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리서티피케이션 과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천차만별이 되는 거에요." -PH 교수

4.4.2. 선택코딩을 통한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에 대한 총체적 해석

연구결과의 '4.3.5'절에는 연구자료를 통해 도출된 범주들에 대해(범주10 제외) 일차적으로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에 의거하여 범주 간의 관계를 이해를 시도하였다. 일차적으로 정리된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을 통한 연구전반의 해석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주요 주제인 핵심범주를 밝히고 이 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범주들을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것이 근거이론방법에서의 마지막 단계인 선택코딩이라고 한다(Strauss & Corbin, 1998). 핵심범주는 연구의 주제이기도 하며 그동안 개방코딩과 축코딩에서 밝힌 개념에서부터 하위범주-상위범주, 그리고 범주간 관계의 총체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모든 내용의 통합을 의미한다. 핵심범주 도출을 위함과 전체적인 연구범주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이야기 윤곽 적기(story telling)', '도표 이용하여 시각화 하기', '메모를 통해 검토하고 정리하기'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김수구, 2009; 변기용, 2020; 신경림, 2001). 이 연구에서는 축 코딩에서의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범주들 간의 관계에 근거하여 이야기 적기를 사용하여 선택코딩 단계에서의 최종적인 '핵심범주'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4.4.2.1. 이야기 윤곽 적기 및 핵심범주 설정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가진 우수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정하는 의과대학에서 필요한 우수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이라는 명확한 기준과 정의가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에 반추하여 우수성의 기준, 검토 잣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 임상의사로서 우수한 대상들을 떠올리면서 우수한 의사란 환자가 몸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의사로서 이러한 의사들이 지닌 우수성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기초의학 의사나 그 외 역할을 하는 의사들의 경우에도 그 역할 군내에서 소위 뛰어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잣대, 기준에 근거하여 우수한 의사들을 떠올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의과대학에서 보이는 우수한 학습자들에게 드러나는 성적 외의 조건들을 검토하였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자신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근거를 끌어내는지 우수성을 검증하는 자신만의 지표, 잣대를 들면서 이를 검토해 나갔다.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에서도 모호한 이유는 개념 자체에 대한 특수하고 추상적인 의미 외에도 '그동안 자신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면 잘하고 있겠지'라는 착각으로 의과대학에서 문제를 보이거나 어려워하는 하위권 위주의 대상들을 주로 관심갖거나 교육과 지원을 했다는 점을 성찰하였다. 이에 절대적인 시간 할애, 우수성에 대한 재인식과 검토를 통해 우수한 학습자들에게도 맞춤식 지원, 우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배움의 현장으로 의과대학도 전환되어야 함을 성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이라는 잠정적 정의를 일차적으로 진행한 후, 의과대학에서 우수성의 의미와 위치를 찾고, 이러한 특징(우수성이라고 가정한)이 있는 학습자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움직였다. 다만, 의과대학 학습자들이 우수한지에 대한 물음을 먼저 던졌는데, 이는 입학 기준이 인지적 요소인 성적으로 인해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비중 때문에 이 입학 기준 자체에 대한 근거로 우수성의 여부를 신뢰하지는 않았다. 또한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의사들이 정말 우수한지, 똑똑한지에 대한 현실적 물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의 탐색에 앞서 의구심을 던지는 것을 우수성 있는 학생들을 발견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습자에 대한 이해, 이들이 가진 특징을 검토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특수성 및 환경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환경, 맥락 내에서 용인되는 우수성이 그 전제라는 점에서였다. 우수한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일차적으로 하위권 학습자를 포함한 다수의 일반학습자 그룹이었다. 이들이 가진 특징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것이 모든 의과대학 학습자들의 기본적인 조건 혹은 일반학습자들에게 두루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였다. 다만 우수한 학습자는 이러한 특징이 있을지라도 이 외에 무언가 다른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것이 있거나, 이러한 대다수가 가진 특징과는 상이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독특하고, 특별하게 기억 남는 우수한 대상이라고 판단해 나갔다. 일반적 학습자에게 보이는 과도한 인지적 우수성은 의과대학 입학생 모두에게 해당하는 요인이며, 일반학습자들은 대다수 높은 학업 성과, 의사로서의 적성검토 여부보다는 의과대학 자체의 입학에 집중하는 경우, 과거의 성공 경험에 대한 휴브리스가 강하며, 심리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는 경우 속에서 학업적 압박과 의과대학의 경쟁 문화 안에서 느끼는 불안 등의 요소가 돋보인다고 하였다. 이들은 대다수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자신은 학업에 집중하고 삶의 나머지 부분들은 주변에서 처리해 주고, 이를 통해 의존적 성향이 강했다. 더불어 성인으로서, 성장해야 하는 단계로 이입하지 못한 후기 청소년의 모습을 많이 보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과 자질이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의 보편적인 특징이었으며 이 안에 하위권 학습자들은 또 다른 적응의 문제와 학업 부진 등의 요인들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대다수의 그룹을 제외하면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가 보이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가 보이는 우수성을 이루는 요소들은 교수들의 인식을 통해서는 '특징'으로 귀결되었다. 대다수 일반 학습자들과 달리 이들에게 드러나는 공통적인 요인이 있었다. 배움에 대한 태도와 가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심화학습, 본질적인 배움에 접근하는 학습 성향이 있었다. 단순히 시험을 위한 조건적이고 수단적인 접근보다는 '앎'에 집중하는 자기주도 학습, 자기관리, 학습전략 등이 보통의 학습자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를 기반으로 학습의 본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꾸준히 해나가는 과정, 깊게 공부하는 심화학습을 통해 의과대학 내 다수의 평가와 과제가 주어지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보통의 학습자들과는 달리 학습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였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태도에서 특히나 일반학습자들과 다른 것들이 많이 드러났다. 실패에 대한 회복탄력성이 높고, 도움을 청할 줄 알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었다. 이와 연결하여 실패 후 다시 방안을 찾고 자신만의 노하우로 그 실패 경험을 이겨내고 나아감으로써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겸손함에서 기반이 된 요소이며, 인간 관계가 원만하여 자신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학업, 생활 등에 도움을 청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었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에 있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맥락적 사고 속에서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다. 또한 메타인지가 잘되어 상황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가 같이 됨으로써 문제 해결 자체를 넘어서서 자신이 풀 수 있는지 여부,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중요도 등의 취사선택이 됨으로써 생활면에서나 자신의 관리에 있어 복합적으로 우수한 모습을 드러냈다. 배운 지식과 경험의 전이, 기초와 임상 현장의 전이 등이 탁월하며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용하는 모습이 평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가, 실습 등 의과대학 생활 전반에서 드러나는 능력이었다. 궁극적으로 자신이 의과대학에서의 교육과정과 경험 속에서 의사 되기 위한 경험을 한다는 의식과 의사가 되기 위한 내적 동기, 목적이 강한 경우였다. 이들은 의사라는 본업 특성상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존중이 기저에 있는 경우여서 이들을 우수한 학습자들이 가진 특징이라고 의과대학 교수들은 보고 있었다.

이러한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탐색하는 과정, 인식 조사를 넘어서서 교수들이 우수한 학습자에 대한 이해, 우수성 발현의 목적, 우수성 탐색을 통한 지원 등이 이어져야 연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우수성 탐색과 발현의 실천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우수성을 탐색하고 우수한 학습자들이 가진 특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저성취자, 인지적 요인에만 집중된 현상에서 전환 되어가는 의과대학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교수들 또한 이러한 탐색과 지원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요인과 의사 되는 과정에서의 필요한 부분임을 상기하는 계기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단순히 그동안 우수성에 대한 개념에 대한 미숙함, 우수성을 이루는 요인들에 대한 미인식 등의 성찰을 넘어서서 대학과 교수자가 지원해 줄 부분, 환경적 요인인 의과대학 환경의 문화 개선 등이 이어져야 함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인지적 요소를 재는 평가도구를 넘어서서 의사가 되는데 필요한 과정 속에서 확인하고 함양해야 할 다양한 요인을 잴 수 있는 평가도구의 발견, 이러한 평가도구 활용에 대한 교수 개발의 활성화, 무엇보다도 교수들의 역할과 인식의 전환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움직여져야 함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학생들에 대한 관심, 절대적 시간 투자, 유의미한 상담과 개별 특성과 자질에 대한 발견, 의사로서의 진로 탐색에 적합한 과정과 경험 연결 등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매개를 연결해 주는 것이 교수와 대학의 역할 변화라는 점이 중요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수한 학습자의 발견, 그들이 지닌 다양한 특성과 자질의 개선, 개인의 특성과 자질에 맞는 진로 선택과 자신에 대한 탐색 방향 제공 등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의과대학 전반에서 드러나는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내 공통적인 속성 외에도 각 교육과정의 단계나 특성에 따라 달리 혹은 강조되어 드러나는 특징이 있었다. 이는 기초의학 교육과정 단계인 임상의학 전단계에서의 과학지식에 대한 인지적 평가, 기초의학에 대한 접근과 실험 기회, PBL 등을 통한 임상증례와 기초의학지식의 융합 과정 속에서 우수하게 표출되는 특징이 있었다. 이에 반해 임상의학 환경인 실습환경 속에서 마주하는 임상실습, 의료 현장 등의 특성 안에서 우수하게 표현되는 특성은 기초의학 교육과정 단계와는 상이하게 드러났다.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원만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함, 팀 활동을 통한 협력, 실습 과정에 따라 과의 변경에 있어 맥락이 바뀌는 환경에의 적용의 우수성, 적극적 태도, 환자 상황을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문제를 탐색해 보려는 시도, 의사 외의 직군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구축 해가는 점 등이 임상 현장 자체에서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임상 추론을 하는 데 있어 단순히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의료환경과 케이스에 적용하여 볼 수 있는 복합적인 접근 방법과 맥락적 사고의 유용성이 빠르게 될 때 우수성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이지만 졸업 후 수련환경에서는 학생 때와 달리 수련의로서의 책임 범위를 알고 어디까지 선배 혹은 교수에게 보고할 수 있는지, 의사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환자 안전과 치료에 접근하는지, 치료를 위한 실질적으로 실천가능한 접근이 무엇인지, 환자, 보호자 외에 다수의 의료팀과의 관계 형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에 따라 우수성을 검토하는 지표들이 다르게 표출되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도출한 범주들을 기반으로 현상의 과정을 정리한 '이야기 윤곽 적기'를 통해 종합해 보면, 첫째,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이해 외에도 우수성 발현을 위한 대학과 교수자의 접근과 방향의 전환이 있을 때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그들이 가진 특징을 발견 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이라는 맥락의 특수성, 의과대학에서 행해지는 문화와 교육과정 특성을 이해해야 하며 이 안에서 우수한 대상이 아닌 보편적 학생들의 특징을 제외하여, 각 교육과정의 특성과 의과대학 환경에 필요한 점들이 발현될 때 우수성이라고 이해하고, 이러한 우수성을 발현하는 학습자의 특성과 자질, 속성 등을 역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요인들이 연합되어 우수성을 발현하며 의과대학이라는 환경적 맥락,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별 주요 특성과 과업에 따라 우수성이 다르게 발현되고 우수성을 이루는 요소들도 맥락 및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습자가 지닌 특성과 자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의 '핵심범주(주제)'를 **'의과대학 교육과정 맥락(환경)에 따른 학습자의 우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요인의 발견 및 지원 필요성'**이라고 설정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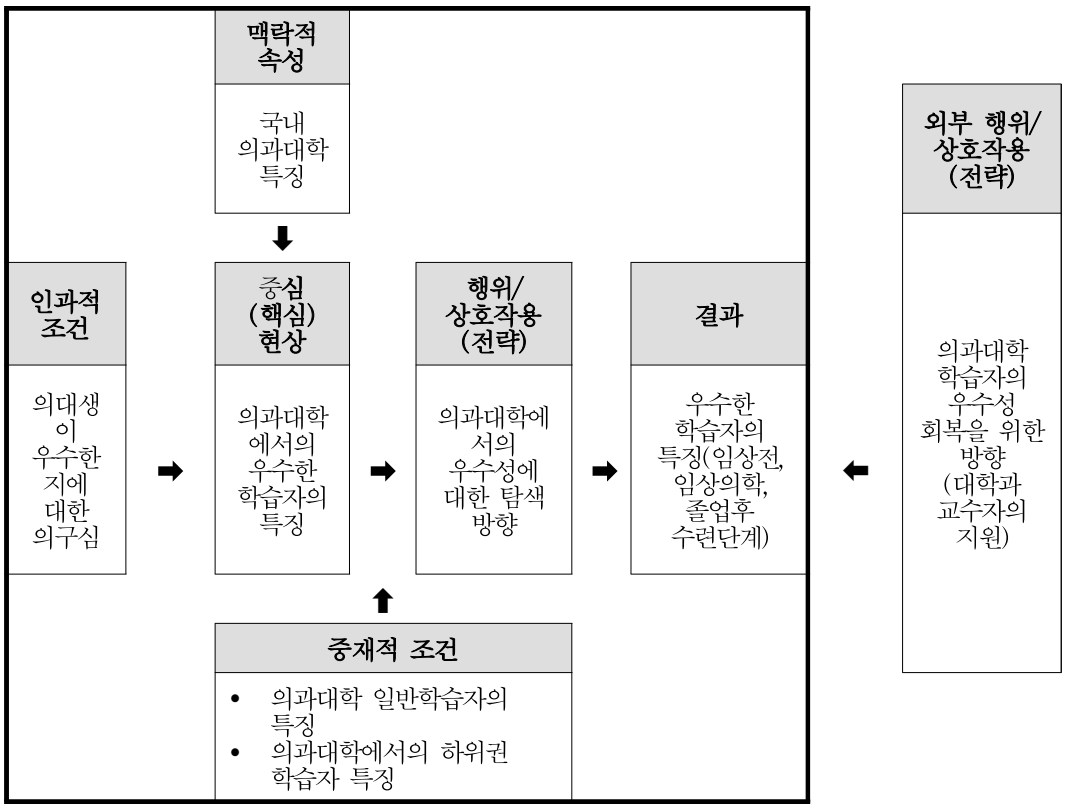
4.4.2.2. 시각적 모형제시

선택코딩 단계에서 이야기 윤곽적기 외에도 시각적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핵심범주'를 중심주제로 설정하여 범주들 간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적 모형으로 아래의 <그림 13>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1차적으로 축코딩 단계에서 다룬 9개의 범주에 대한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을 변환시킨 것으로, 본 연구 전체의 주제와 핵심범주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도구라고 판단되었다. 축코딩 패러다임에서 검토한 중심현상(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에 대해 의과대학(맥락)에서 우수성에 대한 탐색 방향이 상호작용전략으로 활용되고 우수한 대상이 아닌 대상들이 제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교육과정 및 수련 단계에 따라 도출하게 되었다. 이것이 총 9개의 범주의 해석이라고 볼 때 '핵심범주'인 의과대학 맥락에 따른 학습자의 우수성 발현을 위해 기존의 중심현상의 맥락 밖에서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 회복을 위한 방향을 대학과 교수자의 역할로 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중심현상 전방을 촉진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우수성을 발현하고 우수성 교육이 회복되는 의과대학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이 주는 전체적인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설명을 위해 기존의 패러다임 모형 외부에서 상호작용전략을 '교육적 중재, 교수와 대학의 변화' 등이 가미됨으로써 의과대학 환경에서의 우수성 탐색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교육적 방향의 변화와 우수성 회복을 위한 교수와 대학의 노력은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을 발현시키고, 의과대학 학습자가 지닌 우수성이 회복될 수 있는 지속적 지원책으로써 외부 전략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의과대학 맥락에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외부 전략 과정이 있어야 중심현상인 우수한 학습자가 가진 특징을 발견하는 데에도 용이하고, 이러한 우수성을 개발해 주는 데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였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회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선발에서부터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의과대학 상황에 적합한 우수성의 요인들을 검토할 수 있는 잣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의과대학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학생상의 범위가 의과대학 내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와의 연계성 있는 학생상을 제시해야 하는 점, 의과대학 문화를 각 대학에 맞게 특색별로 만들어가면서 다양성을 회복하는 기관으로 변화 되어가고 이 안에서 다양한 학생들의 색깔을 인정해 주는 문화로의 전환도 현재의 획일화 된 의과대학 문화에서 전환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의사가 되어서도 의사상에 대한 기준 비교를 통한 검토가 아닌 우수성에 대한 절대평가가 가능한 의사의 모습을 그려줄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때 우수성의 측정 도구도 평가도구와 환경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실행함으로써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데 적합한 도구를 개발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학의 역할 외에도 의과대학의 교육의 방향이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교수자의 역할 또한 다양하게 변화됨으로써 우수성을 발현하고, 학습자가 가진 특성과 자질을 환경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점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의과대학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교육까지 연계된 우수성 실현 방안을 그려주는 것이 대학과 교수자의 노력이라고 보고 있었으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우수한 학습자의 우수성을 일차적으로 발견하고, 장기적으로 개발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외부의 상호작용 전략으로써 '범주10'을 기존의 패러다임 모형에 변환시킴으로써 본 연구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그림 13>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을 위한 방향(이론적 모형)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4.5. 종합적 논의

4.5.1.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 및 우수한 학생의 특징

의과대학 교수들은 우수성의 개념을 이해할 때 추상적 복합적 개념이나, 의과대학 특성에 기반한 맥락, 의료 현장 특수성, 의사로서 필요한 소양(좋은 의사의 특성과 자질, 한국의 의사상 등)을 기반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이 우수성이 아닌지를 검토해 나갔다. 구체적으로 '우수한 의사들, 의과대학의 학습자들, 임상의학 환경에서 우수한 우수했던 모습'을 회상하며 우수성을 검토해 나가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의 특징이나 의료환경에 적합한 행동, 태도를 보일 때 우수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최소한 좋은 의사의 모습과 의사상에서 드러나는 요인들이 보일 때 우수하다는 일차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다. 우수성을 이해할 때는 '좋은 의사상'이라는 지표,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특성과 의과대학의 문화, 의료환경에서 요구하는 과업 등 환경에서의 필요한 요인에 대해 적합한 결과로써 행동과 태도, 마음가짐을 보일 때 의괴대학에서의 우수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었다. 즉, 맥락이라는 환경과 조건적 특성(의사라는 직업의 역할, 의사의 과업, 의과대학에서의 교육과정 별 특성 및 성과, 의과대학이 가진 대학의 문화와 환경적 풍토)에 기반하여 적합한 요소들이 환경에 맞는 개인의 행동 및 태도 등의 결과로 보여 질 때 이 복합적 행위를 기반하여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이라고 규명하고 있음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의과대학의 존재 목적에 맞게 의과대학에서의 학업 외 의과대학에의 적응, 의사로서의 준비, 어떠한 의사가 될지에 대한 고민 등이 복합적으로 개인이 지니고 있을 때 '의과대학 생활을 수월하게 한다'라고 보고 있었으며, 이는 곧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가 지닌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는 '의과대학이라는 맥락에서 요구하는 우수성을 드러내는 학습자가 우수하다'는 대전제 하에 세부적으로 그 요인들을 검토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차적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우수하다는 표현이 입시성적에 근거한 입학 결과에 의한 우수성과는 다른 의미의 우수성이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였다. 이후 의과대학의 특징을 검토하면서 의과대학에서는 성실함에 대한 문화를 강조하고 이는 유급과 연결될 수 있는 대학 구조의 특징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의사 사회의 특성상 좁은 사회로서 순응성, 위계질서, 순종 등을 강요하는 문화 특성과 연결되는 점이 의과대학 학습자들이 놓인 환경적 상황임을 전제하였다. 의과대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학에서 우수한 경우가 아닌 대다수가 가진 보편적인 의과대학 학생들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객관적으로 '높은 학업 성과를 이룸, 의사로서 적성검토가 부족함, 휴브리스가 강함, 심리적 상태 등에 불안정적, 사회경제적 환경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높음, 인간의 과업에 있어 성인으로서의 모습이 부족함'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모습들이 비단 우수한 학습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대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의과대학이라는 환경 안에 있는 모든 학습자들에게 보이는 일차적인 모습의 기반에 있는 것이 일반학습자의 특징이지만, 우수한 학습자들은 이러한 면모가 있어도 그 다음으로 성장하려는 모습 혹은 변화하려는 모습이 있는 경우였으므로 보편적 특성 외에 다른 모습을 지녔거나, 보편적 모습에서 발전한 모습으로 표출되는 특징을 보였다.

'우수한 학습자에게 드러나는 특징'은 '배움에 대한 태도가 비가시적임, 학습을 하기 위한 성실과 끈기 등의 내적 노력의 모습이 보임, 실패에 대한 대처방식이 탁월함, 인간관계가 원만함, 문제해결능력이 맥락적 사고에 기반하여 탁월함, 자기관리 능력이 탁월함, 지식과 전이 등에 탁월함, 의사가 되고자 하는 내적동기 및 목적의식이 명확함,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음' 등을 보였다. 결국 우수한 학습자가 가진 특징은 일반학습자의 특징이 다름이 아니다. 일반 학습자들과 동일한 환경에 생활하고 의사로서의 준비하고 있지만, 의과대학이라는 문화 자체를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목적과 필요에 맞게 바꾸는 능력, 최소한의 과업 등을 수행하려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탐색해 가고 다르게 바꿔보려는 능력, 시험이라는 물리적인 행위와 평가의 횟수 등이 있지만 이 과정을 배우고 익히는 학습의 본래 과정으로서 심화학습 등을 임하는 경우,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실패할 수 있어도 성장하려는 마음, 대처해나가려는 마음 등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동적 태도, 이러한 문제해결의 맥락적 사고가 가능한 데는 자신을 늘 성찰하고 반추하면서 자기의 현 위치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이뤄지고, 이러한 일차적인 준비가 학업이나 생활을 맥락적으로 바라보고 반추하는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공부를 할 때에도 무엇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분간하여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는 임상실습 등 현장에서도 드러나는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의과대학 생활에서 자신이 어떠한 의사가 될지, 어떠한 진로를 통해 성장해 나갈지를 계획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경험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 가는 경우였다.

즉, 동일한 환경 내에서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만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한, 미래의 의료 현장에 맞는 자신만의 방법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모습으로 '나만의 색깔'을 가진 경우를 우수한 학습자의 특성과 자질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는 특성은 고유한 개인의 성질로 인해 고정적인 개념인 것에 기반했을 때 의과대학 일반 학습자들의 특징과도 별 다른 특징을 가졌다기보다는 우수한 학습자들은 환경에 맞춰 자주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해 나가려는 힘을 '자질'로써 극복해 나감으로써 기존에 자신이 가진 특성을 자질이라는 힘을 가지고 환경에 맞게, 혹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자기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며 변화해 가는 힘을 가진 경우를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특별한 자질을 가졌다는 것이 아닌,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의과대학의 환경(문화, 교육과정 단계 과업, 의사로서의 준비 등)에 맞게 자신을 변형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인 자질을 가지고 변화의 키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가진 요소들의 합이 의과대학이라는 환경에서 우수성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 일반학습자들의 특징을 볼 때 '우수하지 않다'라는 점이 아닌 후기 청소년기 학습자의 특징을 다수 드러나는 데 비해, 우수한 학습자들의 양상에서는 '성인학습자'로서의 특징이 드러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가진 특성과 속성을 주어진 환경에 적합하게 변화시키고 적응해 감으로써, 환경의 제한을 뛰어넘는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경우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4.5.2.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 및 수련 과정에 따른 우수성

우수한 학습자가 가진 특징을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인 임상의학 전과 임상의학 단계에 따라 그리고 졸업 후 수련 과정에서 각각 검토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교육과정 단계에 따라 우수한 학습자들이 보이는 특징은 상이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우수성의 표현은 환경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맥락을 이루는 해당 환경에서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학습자가 가진 특성, 자질, 속성, 역량 등이 조화를 이룰 때 우수성이라는 결과를 표출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우수성의 표현도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학습자가 가진 특징을 검토할 때 성격적 특성에 비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진 자질의 경우 '개발이 가능, 교육 및 훈련이 가능한 점'이라는 속성 때문에 성장 가능하게끔 외부의 지원과 개발이 자타를 통해 가능한 부분이다. 결국 학습자가 가진 특징 중 자질을 자신이 놓여있는 환경의 맥락에 맞게 조정해 나가고 교수자와 대학은 적절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환경에 보다 적합하게 맞춰가는 결과로 이뤄질 수 있다. 일차적으로 학습자 자신도 자신에 대한 탐색을 일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맥락적 사고와 메타인지를 활용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환경의 요구사항을 이해함으로써 이에 맞는 자질, 능력, 역량 등을 개발하고 스스로 이러한 노력이 어려울 시에는 외부의 도움을 통해 이를 발전해 나가고, 부족한 것들을 탐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를 들어 각 교육과정 단계에서의 특징과 중요한 부분, 과업에서의 우선순위, 해당 교육과정 및 경험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이러한 것을 학습자 스스로 메타인지를 통해 자신과 상황을 객관화하여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과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이러한 방향의 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적절한 코칭 등을 통해 목적에 맞는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해 나가는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각 교육과정 단계에 따라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초의학 단계'에서는 '학습성과를 내는 것에 탁월함, 기초와 임상의 통합에 탁월함, 연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음' 등을 기반으로 우수한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다만, 일반학습자가 보이는 '인지적 영역의 성적이 높다'의 의미와는 다른 맥락에서의 '학습성과를 내는 것에 탁월함'의 의미가 있다. 이는 기초의학 교육과정 단계의 환경적 특성에 맞는 표출 행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표현한 바이다, 단순히 이들의 성적이 높다는 점이 아닌 시험이 많은 임상 전 교육과정에서는 의과대학에서의 시험을 위한 학습전략이 탁월하다는 점이었다.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거나,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검토하는, 시험에 대한 전략도 있지만 이를 단순히 성적이 높게 나오는 것을 떠나 자기주도적으로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과학영역에 대한 심화학습, 자기관리를 통한 시간·신체·정신 관리를 기반으로 성실하게 학습해 나가는 습관, 자신만의 학습전략 활용, 전체에서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맥락적 사고 등이 합쳐져 학습성과의 우수성, 실험 및 연구에서의 이해정도, 기초의학 학습 시 이해의 깊이와 이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을 위한 속도 훈련 등이 결합하여 '우수성'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신이 연구에 보이는 호기심, 과학지식에 대한 호기심 등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이라는 특성을 단순히 시험에 의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살리면서 과학적 논리를 구축해 가는데 이해하고, 자신만의 시험전략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며, 시험 준비를 통해 자신이 새롭게 알아가고 배워가는 학습의 결과를 기초의학 지식과 임상 현장에 적용하여 이를 이해해 보려는 식으로 단순히 시험 준비만을 위한 공부를 넘어선 학습전략이 함양 되어있었다. 기초지식을 임상증례 등으로 전이 능력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자신만의 학습법을 만들어 가는 식이었다. 이들은 기초의학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자신이 가진 특성과 이 환경에 맞게 개발한 자질, 역량 등이 합쳐져 우수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임상의학 교육과정에서의 특수성은 기초의학 교육과정에서와 달리 지필시험보다는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임상실습 환경, 임상 실기 등의 훈련이 주된 과업이다. 이러한 실습환경에서 적응을 잘하고 새로운 과를 돌면서 자신을 새로운 환경에 맞춰가는 전이 능력이 탁월한 경우 교수들은 우수한 학습자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이 가진 특성에는 적극성, 외향성, 개방성, 사교성 등이 교수들에게 보여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습 도는 조원과 실습에서 마주하는 여러 인간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했다. 이들의 경우 임상실습 환경에 적합한 특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임상실습 환경에서 요구하는 과업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자질, 역량 등을 개발하는 경우였다. 예를 들어, 다양한 과를 통해 실습을 수행하고, 환자를 경험할 때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는 증례에 대한 환자 질환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주도학습을 기반으로 해당 증례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마치 자신의 환자로 가정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환자의 질병에 왜 그러한 처방과 약이 이루어졌는지, 약의 종류에도 다른 것이 더 있는지 등을 스스로 질문을 도출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다. 이에 환자 증례를 암기하고 족보화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임상 추론을 해나가는 연습을 하고, 증례를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임상추론의 훈련을 자기 스스로 해보고자 노력하고 필요시 전공의 및 교수님을 찾아 질문하고 다음 단계를 더 나아가려는 성장의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였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환자 임상상황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들은 증례를 이해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기초의학에서 배운 지식과 임상 현장 상황에서의 지식과 경험의 전이가 잘 일어나게끔 학습하고 자신의 인지를 훈련하는 것과 그 전반에는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밑바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환자의 다양한 배경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그 환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학습을 기반으로 증례를 검토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관련 지식을 찾아보고 누적해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서 문제를 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일회적으로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습관이 아닌, 문제를 복합적으로 볼 줄 아는 지식과 경험이 밑바탕에 있고, 환자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이 모든 것을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으로 볼 줄 아는 맥락적 사고훈련을 통해 형성되는 복합적 습관이자 노력의 결실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수와의 질의응답, 환자 케이스에 대한 발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 등의 의사소통 기술, 맥락적 사고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문제나 상황의 중요성을 분별하여 해당 상황에 맞게 핵심적인 것을 소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 요인이 임상 환경에 맞게 드러날 때 우수성이 표현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임상실습 조를 통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독단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팀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협력 범위, 함께 풀어가려는 노력 등이 어우러질 때 우수한 학습자로서 인식이 되었다. 학습자의 특성 중 지적 호기심이 동일하게 있어도 기초의학 단계에서의 표현되는 자질과 임상 현장에서는 지적 호기심이 적극적 표현과 접근으로써 표출될 때 우수성의 의미가 이해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임상 현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근거하여 임상과의 순환과 만나는 교수님 및 의료팀의 다양성 속에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익숙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임상실습 팀에서의 다자 간의 관계 형성, 자신의 책임 범위를 기반으로 임상 케이스를 해석할 때는 맥락적 사고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기초의학에서 임상의학 환경이 바뀌면서 새롭게 자신이 맞춰나가야 하는 부분, 추가로 개발되어야 하는 자질 등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동일한 특성이 학습자 개인에게는 그대로 있겠지만 환경에 의해 그 특성이 우수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환경과 맥락에 맞춰가려는 노력인 자질, 역량 등의 힘의 개발이 있어야 우수성으로 발현될 수 있다. 물론 그 환경에 맞는 특성 자체가 상대적으로 타인에 비해 있는 경우 자질의 개발도 비교적 손쉽게 따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기반으로 볼 때 무조건 환경에 맞춰야 특성과 자질, 속성 등이 연합된다는 점을 넘어서서, 자신이 특정 환경에 맞춰 조정해 나갈 때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가능하며, 외부의 지원인 대학과 교수자의 지원 외에도 자신의 특성이 그 자질을 개발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면 이를 근거로 보다 적합한 환경으로의 진로 탐색의 기회로써 교육과정 및 다양한 의과대학의 경험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의과대학 교수들이 인식하는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은 일차적으로 의과대학 환경, 의사로서의 일반적인 과업과 요구되는 역량에 근거한 환경요인에 기반하여 이러한 양상이 보일 때 '우수하다'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학습자가 가진 특징이 학습자가 놓인 의과대학 환경, 교육과정 특성 등 환경 맥락에 적합할 때 우수성이 발현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주어진 환경에 맞게 자신이 가진 성격적 특성 등 일관되고 고정적인 것에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킨 자질의 여부를 보여줄 때 이를 근거로 해당 환경에 적합한 우수성이 드러난다고 해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맹목적으로 우수성을 개발하기 위해 환경에 적합하게 자신을 맞춰가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이 비교적 해당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특성과 자질, 속성 등을 변형해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상황에 적합하게 진로를 탐색하고, 그러한 진로 속에 자신의 역할이 적합한지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경험을 이해하고 학습한다면 능동적 학습자로의 성장이 가능할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의과대학에서 우수성'을 탐색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맞춰 자신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일차적으로 탐색해 보고 개발가능한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발견해 보고 개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상황에 맞춰 적응해 보려는 훈련, 상황에 맞춰 자신을 바꿔 나가는 연습이 결국 의사의 다양한 모습과 역할 가운에 어떠한 위치와 역할의 의사로 자신이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자신을 객관화하여 자신의 특성과 자신이 개발할 수 있는 자질의 분석, 의료 현장의 다양한 전공과의 특색과 진로를 검토함으로써 그 환경 속에 변화 가능한 요소, 절대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의사가 될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의과대학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과대학에서는 고정된 환경만을 고집할 것이 아닌 개선된 교육과정 환경, 진로 탐색 기회, 학습자에게 보다 선택권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한 변화와 교수자들의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을 통해 진로 탐색의 과정을 유의미하게 제공해 주는 식의 학습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검토하고 의사로서 함양할 수 있는 자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과대학의 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우수한 학습자란 고정된 정의가 아닌 자신을 변화하는 혹은 고정된 환경 특성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을 함양했는지,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경우에 자질, 능력을 개발해 간다고 보기 때문에 우수하다고 보았다. 특성과 자질, 역량, 등을 개발해 나가고 자신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수자의 코칭과 의과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우수한 학습자가 지닌 특징은 객관적으로 고정된 무엇이 아니라, 특성을 검토하고 부족한 것은 자질로 채우면서 환경의 적합성에 맞춰나가는 것을 우수성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훈련이 가능하고 성장해 나갈 때 자기 내면의 것과 힘 등을 환경과 연합하여 우수성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의사라는 직업 자체의 목적, 의사의 다양한 역할, 의료환경의 적합성 등을 기반으로 환경 적합성을 검토하고, 평생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기반으로 한 성인학습자로서의 학습에 대한 태도 및 훈련, 의사가 되기 위한 목적의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특성을 검토하고 자질을 개발해 가는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의사가 되는 훈련 전에 성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탐색하는 힘인 자기관리, 메타인지, 배움에 대한 즐거움, 인간의 발달과업의 해결, 실패를 이겨내는 지 등 인간이 해야 하는 힘을 가지고 향후 자신이 놓일 환경에 맞게 자신의 모습과 모양을 변형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는 능력이 있을 때 결국 우수한 학습자로 성장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환경에서 요구하는 바를 스스로 주체적으로 탐색해서 확인하고자 노력하고 이를 위해 스스로를 개발해 나가는 자를 우수하다고 보고 있다.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힘, 자신의 특성을 환경 특성에 맞추려고 자질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키우는 경우 우수하다고 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각 교육과정이나 의료환경, 의사로서의 직업 등의 환경에 따라 자신의 특징, 속성, 자질 등 변동 가능한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발현해 나감으로써 우수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4.5.3. 의사 양성 단계와 학습자의 우수성 탐색 간 관련성

의과대학 전반, 환경 맥락상 유사한 경우(임상의학 교육과정, 졸업후 수련 과정), 총체적 관점에서의 의사 양성 과정 등의 기준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으로 표현되는 바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혹은 유지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중복적으로 드러나는 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점등이 있었다. 다만 각 교육과정 단계의 특성에 맞춰 그 특이성에 근거하여 표출되어야만 하는 환경 자체의 맥락에서 요구하는 바들이 있기도 하였다. 다만 의과대학 교수들은 각 단계, 의과대학에서만, 총체적인 의사 양성 단계 등에서 무엇이 꼭 필요하고 없어도 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무엇을 함양해 가고 습관화 해가야 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관리를 기반으로 성장해 가는 것, 평생학습능력에 기반하여 업무, 학업, 인간사 등의 과업을 계속 배우고 익혀서 실천해 가는 등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었다.

다만, 의과대학의 우수성이 발현되기 위해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한 해석과 같이 의과대학이라는 맥락적 특수성, 의과대학 교육과정별 기대하는 바와 과업 안에서 해당 환경에 적합한 요소를 검토해야 하는 것의 필요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해당 맥락 안에서 용인되고 요구되는 우수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그 맥락에서 요구되는 우수성을 탐색하고 그 우수성을 발현시킬 요인을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개발 해나갈 힘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우수성이 회복되고 숨겨져 있던 점들을 표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의과대학이라는 환경, 의사로의 역할, 교육과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맥락적 특수성 등에 근거하여 그 환경에서 요구하는 적합성과 일치하였을 때 학습자로부터 우수성이 도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우수성이 의과대학과 교육과정 등의 맥락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맥락 밖에서의 외부적 중재인 교육학적 회복의 시도 방안인 새로운 평가도구 및 교수 개발 도구 활용, 교수자의 절대적 시간 확보 등 교육적 개입이 가능한 상황을 토대로 의과대학이라는 맥락에 상호작용해 줌으로써 지속적으로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이 탐색 되고 발현되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내부적 중재적 요인으로써 교수자들이 우수성에 대한 고민과 우수성 교육의 실천을 통한 노력, 저성취자 학생 외 고성취자 학생들로의 관심 전이 등의 전략과 이러한 환경적 맥락 외부에서도 교육적 역할의 개입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우수성을 발현해 나가고, 해당 환경에서 요구하는 우수성의 요인들을 개발해 가도록 지원 가능하다는 전체적인 구조로써 우수성 탐색 방향을 해석해 볼 수 있었다.

4.5.4.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이 주는 교육적 함의

기초의학 교육과정, 임상의학 교육과정인 환경 특징에 따라 개인의 특성이 적합하게 발현될 때 우수성을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 특징과 과업에 따라 우수하게 드러날 수 있는 특성과 자질의 조합이 다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교육과정이라는 환경에 자신의 능력, 특성, 자질 등이 적합했을 때 우수하다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볼 때, 학습자는 주어진 환경에 맞게 자신을 변환 해가는 능력이 있을 때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자신이 가진 성격적 특성 등 고정적인 것에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게 자신을 개발해 가거나 맞춰가려는 노력으로 특정 자질이 드러날 때 그 환경에 맞는 우수성으로 발현되게 된다. 고정된 개인의 특성, 비교적 고정된 환경(다만, 교육과정에 따라, 대학 문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보다는 일차적으로 자신이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능력, 역량, 자질 등의 힘을 축적해 가거나 개선 및 발전시킬 때 우수성의 발현 가능성은 확보된다.

학습자는 자신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 교육과정과 의과대학 전반에서 요구하는 환경에 적합한 요소 중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개발하고 통해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자질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또한 의사의 역할, 진로과 별 특징, 의과대학의 문화 등이 절대적인 고정적인 범주도 있지만 현재의 환경과 과업에서의 조정은 대학의 노력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보다 학습자에게 재량권을 주는 선택 기회의 제공, 비교적 덜 경직된 학습환경, 평가의 다양한 도구를 통한 학습자 평가, 교육과정의 재조정 등의 대학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기반으로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개인 학습자의 특성에 기반하여 어떠한 점들이 부족한지를 분석하고, 개인의 특성에 보다 적합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의학교육자의 역할 중 하나이다.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시간의 투자를 통해 '인지적 요인'의 상담에서 벗어나서 학습자가 졸업 후 어떠한 의사가 될지에 대한 탐색을 함께 해주고, 의사의 다양한 역할 속에서 개인의 특성과 자질을 개발하여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성격적 특성과 환경 등은 비교적 고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질, 능력, 힘 등을 후천적으로 개발하여 무조건적인 맹목적 순종을 강요하는 것의 의과대학의 문화를 넘어서서, 개인의 다양성을 다채롭게 고려하고, 그 특성 안에서 환경에 적합하게 맞춰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나갈 수 있는 개발 가능한 자질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자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대학과 교수자의 역할인 것과 동시에 이러한 과정 자체가 교육의 장에서 우수성 탐색을 통한 교육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자질을 개발해 가는 것, 자질을 표현해 감으로써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주어진 환경에 적합하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수성이라고 볼 때 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수성 탐색 과정을 통해 확인해 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에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 발현을 위한 환경과 학습자의 역할에 있어 학습자는 자신의 고유한 특성에 기반하여 자신을 일차적으로 객관화하여 해당 환경에 맞게 자신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후 자신이 놓여있는 환경에서 요구하는 자질, 개인이 발전시켜야 하는 점 등을 탐색함으로써 환경에 적합하게 자신을 변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과 교수자는 환경을 변경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 주고 고정된 환경이라면 그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지원 가능한 점들을 모색하여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자질을 개발해 나갈 때 환경에 맞는 요인들을 탐색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혹은 환경에 적합한 자질을 탐색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했을 때 코칭과 개별화 교육 등을 통해 학습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환경을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감으로써 우수성을 탐색해 나가고 개발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의과대학, 의사의 역할, 교육과정 특성 등의 맥락 밖에서 교육적 중재와 개입을 통한 지원이 전략적으로 이뤄질 때 학습자는 우수성을 발현해 나가는데 보다 쉽게 나아갈 수 있고, 의과대학 맥락 또한 문화의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환경의 고정적 특성이 조금은 유연해 질 수 있다. 학습자는 먼저 자신을 탐색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하며, 대학과 교수자는 학습자가 해당 환경과 맥락에 맞게 우수성을 발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환경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요소로 인식하며, 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학습자-환경-대학/교수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우수성을 탐색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의과대학 문화를 학습자가 우수성을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에 적합한 우수성 탐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때, 학습자 개인과 의과대학 환경은 의업에 맞는 부합하는 우수성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 탐색은 개인, 교수자, 대학의 입장과 역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총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5. 요약, 결론 및 제언

본 장에서는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의과대학 및 수련현장의 경험이 있는 교수들의 면담 내용과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내려진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후 의과대학에서 학습자의 우수성 탐색과 관련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끝으로 연구의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5.1. 요약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의 면담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들의 우수성'을 탐색해 봄으로써 의과대학 학생들의 특징을 검토하고 이것이 의사 양성되는 과정에서 가지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수한 입학성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의과대학의 학생들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이들이 가진 입학성적 외에 의과대학 자체에서 필요한 의과대학 맥락에서의 우수성은 어떤 것이 있을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의과대학에서 요구하는 우수성은 어떤 것을 근거로 특징짓고 있으며, 의사 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우수하다고 여기고 있는지를 탐색해 봄으로써 의과대학 환경 맥락에 적합한 우수성을 탐색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의과대학 교수들이 생각하는 의과대학에서 요구하는 우수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해 보고, 의과대학에서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의 특징을 탐색해 봄으로써 의과대학에 적합한 우수성을 개발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학생 교육과 지도 시 어떠한 내용과 방향으로 코칭 및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 및 수련 과정에 따라 우수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의사 양성 단계에서의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넷째,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 탐색이 주는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의 2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질문의 예시를 사전에 전달함으로써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연구참여자들이 이해하는 데 돕고자 하였다. 다만, 면담지 내의 예시 질문의 역할은 연구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고 면담의 유연성과 연구를 통해 탐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 인터뷰 질문지에 의한 연구의 경직된 틀 혹은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함은 아니라는 점을 사전에 설명하였다. 면담을 통해 이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 경험한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모습, 우수한 학생들이 보인 특징들이 절대적인 '의과대학의 우수성'이라는 정의로 답변할 수는 없지만, 교수들이 경험한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국내 의과대학이라는 맥락에서 필요한 예비 의사로서의 우수성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우수한 학습자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을 통해 추후 어떤 요소들이 의과대학에서 개발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수행의 목적이 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인식한 의과대학에서 요구되는 우수성, 우수한 학생들이 가진 특징에 대한 면담 내용을 기반으로 질적연구의 근거이론적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을 통한 분석 결과 개방코딩-축코딩을 통해 '총 10개의 상위범주, 총 50개의 하위범주, 총 286개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이는 총 20명의 면담 전사자료의 원자료를 기반으로 총 1,358개의 코드/라벨라벨, 개념부스러기)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후 이 내용을 근거로 상위개념으로 추상화하는 작업을 통해 '개념-하위범주-상위범주'를 마련한 결과이다. 총 10개의 범주는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탐색 방향', '의대생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 '국내 의과대학 특징', '의과대학에서의 하위권 학습자 특징', '의과대학에서의 일반 학습자들의 특징',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임상전)',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임상의학 교육과정)',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졸업후 수련과정)',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 회복을 위한 방향'이다. 또한 이러한 범주를 생성한 것을 기반으로 범주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의 6가지 요인에 의해 이를 해석하였다. 중심현상을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이라고 볼 때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은 '의대생들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이라는 범주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중심현상은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데, 이는 '국내 의과대학 특징'이라는 환경적 조직적 특성으로 인함이라고 보았다. 인과적 조건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감시키는 것으로서의 중재적 조건은 '의과대학 일반학습자의 특징'과 '의과대학에서의 하위권 학습자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을 검토하는 데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중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인 행위/상호전략은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탐색 방향'으로 인해 촉진되는 활동이라고 해석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이 교육과정 및 수련단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고 도출하였다. 이는 면담의 자료를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6가지 요인인 '맥락,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행위/상호작용(전략), 결과'에 이를 배치하여 전체적인 면담 자료의 범주 간의 관계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과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성은 우수한 의사나 학습자가 보이는 특징, 의료환경에 적합한 특징을 보이는 경우, 의사로서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거나 임상 현장의 특징에 적합하게 자신의 특성을 검토하는 식의 모습을 보일 때 우수성을 지녔다고 보고 있었다. 이에 우수성은 복합적 요소이며, 단순히 학업성적이나 실기 능력의 결과가 아닌, '성장하려는 힘'을 기반으로 새로운 환경적 맥락(의과대학, 의료환경)에 적응하고 자기 성찰과 도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는 모습이 드러날 때를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이 있다고 보았다. 우수성은 지식뿐 아니라 자기주도학습능력, 메타인지 활용, 자기관리와 성찰 능력과 같은 성인 학습자로서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특징 또한 '배움에 대한 태도, 학습의 본래 기능 회복, 실패에 대한 대처능력, 인간관계의 원만함, 탁월한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능력, 지식과 경험의 전이와 적용이 탁월한 경우, 의사가 되기 위한 내적 동기가 뚜렷한 경우, 사람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있는 경우'로써 다수의 일반학습자가 보이는 특징인 '객관적으로 높은 학업 성과, 의사로서의 적성검토 부족, 휴브리스 강함, 심리적 상태 불안정,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존적, 인간의 과업에 있어 미성장' 등의 특징과는 상이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이 보이는 특징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 및 성과에 기초하여 드러나는 우수성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기초의학 교육과정 단계인 임상의학 전 단계에서는 '학습성과를 내는 것에 탁월함, 증례 검토 시 기초영역과 임상의학의 통합에 탁월함, 연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의학 관련 지식 확장 수업 및 다수의 평가, 실험 환경 등의 환경에 적합한 우수성임을 알 수 있었다. 임상의학 단계에는 '임상 추론 능력, 지식과 경험의 적용 능력, 소통 및 관계 형성 능력' 등을 우수한 학생이 지닌 특징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는 임상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과에 적응, 새로운 과에서의 환자군 및 의료진과의 만남, 팀 내에서의 실습 시 소통의 기회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필요한 능력 등이 발현될 때 우수한 학습자가 지닌 특징으로 해석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졸업 후 수련의 단계에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력, 질문과 확인을 통한 학습,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한 환자치료 지식의 확충, 수련의로서 책임의 범위를 아는 정도' 등이 주된 특징이었다. 이는 임상의학 교육과정에서의 우수성과 유사하나 보다 실질적으로 자신이 책임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는 의사로서 책임감의 소재를 기반으로 소통의 범위, 환자 치료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 우선순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의료 현장에 적합한 우수한 수련의의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의사 양성 단계 전반에서의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은 각 교육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정 단계에 따른 환경적 맥락에 적합한 우수성이 다르게 존재하지만, 교육과정의 단계별로 우수성을 발현하는 요인들이 축적되고 반복되며, 새로운 맥락에 맞게 활용되어 또 다른 우수성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수성은 학습자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개발하고자 하는 자질, 역량, 힘 등이 연합하여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한 것과 환경에 적합하게 맞춰가는 능력이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습관화된 우수성으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수성의 본질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만의 강점을 개발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절대적 훌륭함(excellence)이라는 점에서 의학교육 현장에서의 학습자의 우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은 의과대학 교육환경에서 우수성을 어떻게 정의해가고, 학생들에게 발현되지 않은 우수성을 탐색해 줄 것인가에 교육의 역할 시사한다. 또한 의학교육현장이 학습자의 우수성을 발현할 수 있는 학습환경이자 문화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 다양화된 평가도구로 우수성 탐색 기회 확대, 학생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융통성 있는 교육문화 개선, 의과대학 학습자가 성인 학습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교수자의 지원 등을 통해 향후 변해가야 하는 의과대학 교육환경의 모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5.2. 결론

국내 의과대학 교수 20명의 면담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을 탐색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의과대학의 우수한 학습자들은 일반 학습자들과 달리 '성장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이해는 '공부를 잘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었으며, 본과 시험 성적, 국가 고시 졸업 성적 등 인지적 요소를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의과대학 교수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우수성은 단순히 성적이나 실기와 같은 단편적인 성과를 넘어, 미래의 의사로서의 역량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 부분에서 간극과 모호함이 존재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의과대학 학생들은 학업적으로 뛰어나고 목표지향적이며, 평가와 관련한 심리적 요인들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을 기존의 학업 우수성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다. 이는 다수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여전히 성인 학습자가 되기 전 학령기 학습자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어진 과업, 성적, 성과, 시간 관리 등을 충실히 수행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연속선상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서 의과대학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으나, 단순히 이것만으로 우수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들은 전형적인 의과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징을 넘어, 과거의 자신을 뛰어넘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새로운 것에 부딪히고, 질문하며, 실패를 통해 다시 성장하려는 준비가 되어있었다. 성장의 방법과 종류는 다양했지만, 주어진 교육과정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새로운 인생의 장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자기 성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질문하며 메타인지를 활용해 성장 에너지를 키워갔다. 이러한 '성장하려는 힘'이 바로 의과대학에서,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예비 의사로서의 우수성으로 정의 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업적 우수성'과 '자기관리 능력'은 그들의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일 뿐, 반드시 우수성으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반면, 우수한 학습자들은 이와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 그들은 의사로서의 준비 과정에서 '성장하려는 힘'을 바탕으로 지신을 끊임없이 발전시켰으며, 이를 통해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습자'로 인식되었다.

둘째, 의과대학에서의 교육과정과 졸업 후 수련과정에서 인지적 요인은 우수성을 발휘하기 위한 충분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과대학은 입학 시부터 인지적 우수성을 중시하며, 입학 후에도 학업능력 중심의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예비 의사를 양성하고 의사로서의 진로를 모색하는 기관으로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졸업 이후 수련단계에서 요구되는 우수성을 검토함으로써 의사로서 필요한 우수성을 발현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 무엇이 개발되어야 하고, 다른 요인들과의 균형을 맞출 방향성을 모색해고자 했다.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인지적 우수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단순히 성적을 비교하거나 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방대한 지식을 통합하고 의료 현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기 위해서다. 다만, 교육과정 단계와 수련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우수성의 범위와 중류는 차이가 있었다. 기초의학 교육과정에서는 방대한 학업량과 다수의 시험이 특징이었다. 이 단계에서는 인지적 우수성이 특히 중요했으며, 지식을 저장, 기억, 처리, 회상하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학업을 잘 수행하고 성적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의과대학 교수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학 지식과 최신 정보를 따라가기 위해 학업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임상의학 교육과정에서는 여전히 인지적 우수성이 중요한 요소였지만, 기초의학 교육과정단계와는 다른 차원의 능력이 요구되었다. 지식을 적용하고 통합하는 고차원적 사고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임상실습, 증례 토론, 문제중심학습(PBL) 등에서 우수성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는 인지적 요소 외에도 조원들과의 소통 능력, 임상현장에서의 질문하는 능력, 새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 등이 더해져야만 우수성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졸업후 수련과정에는 임상의학 교육과정의 유사한 우수성이 요구되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적용에 필요한 부분을 갖추는 것들이 더 중요했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의 소통 능력, 환자-보호자의 다양한 배경을 이해하는 능력, 타 직종 및 전공과와의 팀워크 능력 등 기존의 인지적 요인과 결합되어야 우수성이 발휘되었다. 결론적으로 의과대학에서 임상의학 교육과정 단계에서 요구되는 우수성을 기반으로 한층 더 고차원적인 분석 및 종합의 단계를 거친 지식의 활용이 실제현장과 접목될 때 우수성이 발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과대학에서 인지적 우수성은 의사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도를 의미하며, 각 교육과정 및 수련단계에서의 원동력과 기초 자원이 된다. 따라서 의과대학에서는 각 단계에 맞는 인지적 요인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요인을 교육과 평가에 반영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현장에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의사 양성 단계에서의 '우수성'은 단순히 의과대학과 의료 현장에서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넘어서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수성은 특정 직업적 기술이나 능력보다는,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힘, 평생 학습할 수 있는 힘, 메타인지를 활용해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능력, 그리고 자기관리를 통해 성찰하려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는 의사라는 특정한 전문직업에 대한 점이 아닌, 성인학습자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의미했으며 이것이 곧 의사 되는 데 있어서의 '우수성'이라고 의과대학 교수들은 보고 있었다. 대다수의 의과대학 학생들은 여전히 학령기 청소년 학습자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우수한 학습자는 성인 학습자로서의 특징을 갖추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이 의사로서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동안, 단순히 객관적 성과나 평가에 집중하기보다 이들이 성인으로서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는지에 우수성의 기준을 두고 있었다. 결국,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며,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능력이 중요했다. 이러한 힘을 가진 학생은 의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고, 모르는 점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질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넘어, 평생학습 관점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성장시키며 인간으로서의 발전을 이루는 과정으로서의 의사로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했다. 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우수성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학생들이 이러한 점들을 훈련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의과대학 교육단계부터 학생들이 의사로서, 그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넷째,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을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의학교육의 수월성을 실천하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사로서, 의과대학 학생으로서의 우수성'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이 기억하는 우수한 제자들을 떠올리는 경험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은 즐거움과 선생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그 녀석은, 그 친구는, 그 학생은"과 같은 뜻깊은 추억과 사례를 회상하였다. 단순한 회고와 추억만으로도 교수들에게는 큰 행복을 주었으며, 이는 '교사가 훌륭한 제자를 얻었을 때 세상을 얻은 것과 같다'는 고전적 표현을 떠올리게 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학습자를 떠올리며,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변화, 대학과 교수자의 역할 변화, 다양한 평가도구의 개발 등'에 투자하고 학습자들에게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하여 의미 있는 만남을 이어가는 교육적 접근을 실천한다면, 교수자로서의 효능감이 높아지고 우수한 학습자를 양성하는 교육문화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안전하고 성장 가능한 의과대학과 의료 현장이라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자의 잠재력을 회복하고, 고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수한 학습자가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드는 과정은 곧 의학교육의 수월성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교수자, 학습자, 그리고 교육환경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사로서의 전문직업성을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로 작용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역량 있는 의사, 좋은 의사를 넘어서서 '우수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5.3. 제언

본 장에서는 연구를 마무리하며 연구의 한계점을 정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안과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우수성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레임워크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서 본 연구의 자료가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의 입장을 수평적·수직적으로 다루어야 했으나, 교수자가 경험한 학습자 및 수련의에 대한 검토에 그쳤다. 이는 연구 기간 중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과대학 내 학생들의 집단 휴학 상태로 인해 학생들과의 만남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전국 의과대학생들에 대한 연구 참여 동의 및 계획 수립에 제약이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의학교육에 참여하는 전국의 모든 교수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현재 의학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초·임상 의사, 비의사 등 다양한 조건의 의과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각에서의 경험을 듣고자 했으나,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20명의 의견을 기반으로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과대학의 교수들의 '우수성'에 대한 의견과 고민을 반영하지 못했다. 셋째, 본 연구는 질적연구를 통해 의과대학 교수들이 고민하는 '우수성'을 탐구한 것으로, 주관적 의견이 중심이 되었고, 연구 방법 특성상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우수성의 정의와 요인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의과대학 학습자에 대한 기존의 양적연구가 드러낸 요인분석을 넘어, 우수성을 이루는 기저에 숨겨진 의미, 가려지는 점, 그리고 인식되지 못했던 요소들을 발견하고 끌어내는 과정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는 '우수한 학습자'를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의 일부이자,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위와 같은 제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우수성'을 탐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추후 연구서는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로 포함된 의과대학 교수자 외에도 범위를 확대하여, 의학교육에 참여하는 다양한 집단과 구성원의 입장을 반영한 '우수성 발견 및 탐색'의 주제로 연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의학교육의 수월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수성의 요인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새롭게 발견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수성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성장 가능하며,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의학교육자의 책무이자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다. 발견된 우수성의 요인을 의학교육 현장에 녹여내어 학습자들의 특성, 자질, 특징 등을 탐구하고 개발하며, 이를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은 시대와 상황에 맞는 의학도로서의 우수성을 키워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학습자 개인뿐 아니라 의학교육 전체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의과대학 교육환경과 문화에 '융통성'과 '유연성'을 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과대학은 '경직된, 고정된, 불변성' 등의 독특한 의과대학만의 교육과정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타 집단으로부터 '의과대학만의, 병원만의, 의사만의'의 구별, 차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를 갖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원이자,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융합과 공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과대학만의 문화와 의사로서의 갖는 유일한 전통 자체는 계승할 가치가 충분히 있지만, 이를 고착화하여 '의사나 의과대학은 이래야한다'는 식의 규정화로 이어지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다른 집단과 공감하며, 상호 배려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의 경직성과 불변성을 넘어서는 융통성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문화와 환경으로의 개선을 위해 교수자와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며, 의과대학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된다. 이는 의과대학 외부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로서의 우수성의 본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교육환경과 문화의 개선은 의과대학의 'climate'를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계가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성인으로서의 성숙한 의사의 삶을 준비하며,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우수한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참 고 문 헌

1. 강경리 (2018). 직장인 성인학습자인 교육대학원 신입생의 학습경험을 통한 자아정체성 형성 과정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 269-302.
2. 강명희, 심혜진, 박미순, 김민정 (2008). 온라인 학습활동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습자의 성격 특성(Big-Five Personality Trait)의 예측력 검증. **교육방법연구, 20**(1), 111-132.
3. 강은석, 문영재, 허승은 (2019). 안드라고지 관점에서 접근한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체육실기학습 탐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8**(2), 785-796.
4. 곽영순 (2009). **질적 연구: 철학과 예술 그리고 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5. 국립국어원. (n.d.). 자질.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6. 국립국어원. (n.d.). 특성.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7. 국립국어원. (n.d.). 우수성.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8. 권경만, 김한솔, 변기용. (2022). 근거이론적 방법의 활용 실태와 비판적 성찰.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359-403..
9. 권향원 (2016). 근거이론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실천적 가이드라인과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실천적 가이드라인과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 181-216.
10. 권효진, 이영희, 안덕선. (2012). 의학전문직업성의 개념과 발전 방향. **의학교육논단, 14**(2), 63-72.
11. 김경희, 권경인, 장준환, 신민섭. (2015). 의대생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6(5), 1-21.
12. 김경희 (2016). 제 2 언어 우수학습자들의 학습전략 사용 실태 연구. **일본어교육, 78**, 33-44.
13. 김광연 (2021). 아리스토텔레스의 탁월성과 실천적 지혜. **인문논총, 56**(0), 25-45. 10.33638/JHS.56.2)
14. 김규영, 이희수 (2021). 평생학습관 중장년 성인학습자 특성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989-1009.
15. 김도경 (2019). Medical Professionalism in Neoliberalism.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34*(18).
16. 김랑, 송해덕 (2017). 대학의 플립드 러닝에서 우수 학습자 역량모델링. **교육공학연구, 33**(4), 1001-1024.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17. 김명숙 (2016). 간호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의사결정유형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2**(4), 441-451.
18. 김미경 (2012). *웹기반 학습에서 상호작용설계, 학습과제특성, 웹기반 학습환경이 학습자특성을 매개로 몰입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 김미라, 안서원, 이정모, 안덕선, 이영미 (2006). 의과대학생의 학습양식의 특성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의학교육, 18**(2), 133-140.
20. 김병찬(2019). **왜 교사리더십인가.** 서울: 학지사
21. 김석구 (2014). *안드라고지론에 근거한 학습자 성향, 학습참여 특성 및 SNS활용이 학습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22. 김소선 (2003). 이론 :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이론과 실제. **간호학탐구, 12**(1), 69-81.
23. 김수구 (2009).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신청· 승인 절차상에 나타나는 학부모의 인식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27**(4), 139-164.
24. 김수련, 최규만 (2013). 상위인지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매개 효과 -. **인지행동치료, 13**(1), 51-64.
25. 김숙영 (2002). *초등영어 우수학습자가 보이는 다중지능과 학습전략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26. 김영전, 이제욱, 윤소정 (2022). 텍스트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국내 의사 직무역량 연구동향 분석. **의학교육논단, 24**(2), 93-102.
27. 김용관 (2023). *근거이론을 활용한 치과병원 원내생 진료센터 진료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8. 김은정 (2017). 한국의 사회학 연구영역에서의 근거이론의 활용 방법과 전개, 그리고 향후 방향의 모색:[한국사회학] 게재논문을 중심으로:[한국사회학]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1**(3), 37-70.
29. 김인숙 (2011). 근거이론의 분기: Glaser 와 Strauss 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2), 351-379.
30. 김정화 (2015). 우수언어학습자의 언어 학습전략 및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한일국제회의통역사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64**, 75-97.
31. 김종한 (1998). *고등학생의 교사수업평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32. 김준, 김민지, 김선경 (2021). 탁월성을 추구하는 의료윤리교육을 통한 프로페셔널리즘 강화방안.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4**(4), 409-422.
33.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간편형 한국어 BFI (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연구. **인간이해, 32**(1), 47-65.

34. 김청자 (2006). 자기결정성 동기유형과 창의성 인성 요인과의 관계 연구. **교육과학연구, 37**(3), 237-256.
35. 김하원 (2017). *의학교육과정 변화요인과 과정 분석: 2010년대 이후 성과바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36. 김현정 (2006). 성격유형검사와 5요인 성격검사와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4**, 15-28.
37. 김형숙 (2007). 근거이론을 이용한 ADHD 아동양육경험. **가족과 문화, 19**(4), 193-222.
38. 김혜숙, 유신복 (2016). .원격교원연수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특성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7**(3),437-459.
39. 나경은 (2012). 예비특수교사들의 교육실습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3), 269-289.
40. 나상운, 한상수, 박경혜, Kim Chanwoong, 노현, 어윤경 (2022). Medical professionalism among emergency physicians in South Korea: a survey of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unprofessional behavior. *Clinical and Experimental Emergency Medicine, 9*(1), 54-62.
41. 류현욱 (2008). *의과대학 졸업생의 기본심폐소생술 수행능력과 관련 요인*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42. 맹광호 (2008). 한국에서의 '의학전문직업성' 교육: 과제와 전망.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1), 3-10.
43. 민병모 (2001). *성격 5요인 모형에서 개인-조직 일치도와 수행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44. 민성길, 신원철, 김광일, 정지인, 김동기 (2000).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삶의 질 비교. **신경정신의학, 39**(6), 1054-1060.
45. 박경진, 정현철, 류춘렬, 김범석 (2019). 소외 영재와 일반 과학영재의 학습자 특성 차이 비교: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5), 307-327.
46. 박래성. (2024). 중·고등학교 학생의 특성을 재구조화한 공통 요인에 따른 군집의 특성 분석. 현대교육연구, 36(1), 18-47
47. 박미선 (2011) *성격유형에 따른 감성지능, 심리적 웰빙, 직무 성과 간의 인과관계연구: 서울지역 특급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국내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48. 박알뜨리 (2021). *서울대 최우수 학생의 학업 적응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대학교 대학원).
49. 박장희 (2021). 교육자로서 전공의 역량과 교육과정의 분석과 제안. **의학교육논단, 23**(1), 23-36.
50. 박재현 (2012).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신념. **의학교육논단, 14**(2), 64-68.
51. 박주현, 권효진 (2022). 의과대학 졸업생 코호트의 의사 역량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 일개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7), 559-570
52. 방재범, 이광윤, 이충기, 이동협, 이영환, 김재룡, 강복수 (2008). 의학 전문직업성의 기초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평가 및 구성.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2), 109-121.
53. 변기용 (2020). **근거이론적 방법 : 현장 기반 이론 생성을 위한 질적연구.** 서울: 학지사.
54.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
55. 소경언, 최진아, 박재석 (2014). 최고경영자의 휴브리스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전문경영인연구, 17**(1), 145-165.
56. 손영수 (2010). 의학에서의 생명윤리. **생명윤리, 11**(2), 77-84.
57. 송영명, 이현철 (2009). 학생의 자기조절학습전략과 학교의 사회·심리적 환경이 수학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논문집,** 207-223.
58. 송윤희 (2012). 대학 이러닝 학습자의 완벽주의, 우울, 시험불안, 자기손상전략이 학업지연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4), 209-229.
59. 송인섭, 박성윤 (2000). 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14**(2), 29-64.
60. 신경림 (2001). **근거이론의 단계.** 서울: 현문사
61. 신명희, 강소연, 김은경, 김정민, 노원경, 박성은. 서은희, 원영실, 황은영 (2011). **교육심리학 (2판)**. 서울: 학지사.
62. 신홍임, 전우택, 양은배 (2010).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학습전략과 학업성취도 관계.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2*(3), 197-204.
63. 안덕선 (2014). 한국의 의사상. **대한의사협회지, 57**(1), 3-7.
64. 안수경, 김상돈, 차재빈 (2023).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능력과 진로요인에 관한 탐색 연구 : 고령학습자의 FGI그룹을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13**(4), 143-165.
65. 안재희, 양은배 (2013). 성과중심교육과정 개발절차에 대한 고찰. **의학교육논단,**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15(1), 9-18.

66. 양명희, 이경아 (2012). 자기조절학습과 학성성취도의 관련성: 변화추이 및 인과적 방향성 검토. **교육과학연구, 43**(2), 175-195.
67. 양영유, 이완수, 배재영 (2021). TV 드라마 의제의 일간신문 뉴스로의 전이과정:< SKY 캐슬> 이 재현한 한국 교육현실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2**(1), 76-115.
68. 양은배 (2014a). **역량중심 교육과 의학교육 이슈.** 서울: 한국의학원.
69. 양은배, 이승희, 황은영 (2008). **의학교육 교수학습 방법.** 서울: 군자출판사.
70. 양은배 (2014b). 의학교육 수월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재설계. **의학교육논단, 16**(3), 126-131.
71. 엄태환, 박정현, 김지희 (2008). 구급대원의 자질 및 자세에 관한 조사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0*(6), 3167-3177.
72. 염유식, 김여진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유형에 대한 근거 이론 연구. **한국사회학, 45**(2), 91-129.
73. 오봉근, 김현우 (2016). 대학의 취업교육 서비스품질과 대학생 개인특성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의사결정학연구, 24**(2), 53-79.
74. 오인수, 이승연, 김화영, 김혜미 (2016). 근거이론에 기반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특징에 대한 교사의 인식 탐색 연구. **교육과학연구, 47**(4), 73-93.
75. 유태용, 김명언, 이도형 (1997). 5 요인 성격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0**(1), 85-102.
76. 유은하, 이명화, 오보라 (2020). 학업성취에 따른 학습자 특성 분석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2), 883-908.
77. 유태용 (1999). 조직의 성격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1), 113-139
78. 윤보영, 최익선, 김세진, 박효진, 주현정, 이병두, 이종태 (2015). 한국에서 역량바탕의학교육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제언. **의학교육논단, 17**(3), 110-121.
79. 윤소정, 이상엽, 강신영 (2007). 의과대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간의 학습성향 차이. **한국교육, 34**(3), 3-27.
80. 윤소정, 박귀화 (2018). MBTI 성격유형, 의과대학 성적과 전공의의 전공과 선택 간의 관계: 5년 추적 연구. **예술 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7), 291-299.
81. 윤지연 (2009). *아리스토텔레스의 탁월성과 행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82. 윤태호, 윤소정, 이선희, 정인숙, 박병규, 이상엽, ... 윤식 (2007). 의학전문대학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제도 시행 전후의 신입생 특성 및 인식 비교.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9*(3), 251-255.

83. 이단비 (2019). *의과대학 학생의 재학습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84. 이동현, 심서보, 최재정 (2020).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자 특성에 근거한 선발인재상의 차별화 가능성 탐색. **교육문화연구, 26**(6), 189-214.
85. 이영만 (2009). 초등학생의 성공지능 유형과 자기조절능력 및 학습몰입의 관계. 초**등교육연구, 22**(2), 139-161.
86. 이영미, 안덕선 (2007). "좋은 의사"의 특성 규명을 위한 기초 연구.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9*(4), 313-323.
87. 이원경, 박경혜 (2020). 의학교육 시기에 따른 의과대학생들의 정서 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The Journal of Medicine and Life Science, 17*(3), 86-93.
88. 이이레, 김민경, 김혜원 (2021). 의과대학생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불안의학회지, 17**(1), 12-18
89. 이재덕, 김은영, 김혜진, 백남진, 김정민, 박주현 (2017). *OECD 교육 2030 참여연구: 역량 개념틀 타당성 분석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 탐색.* (RR2017-18). 한국교육개발원.
90. 이정규 (2007). 교사의 성격 5요인과 사고양식과의 관계, **교육학연구, 45**(2), 81-103.
91. 이종수 (2009). **행정학사전.** 서울: 대영문화사.
92. 이종태, 양은배, 이영미, 채유미, 나상훈, 장성인, ... 권희주 (2021). *의료와 사회의 통합적 이해와 실천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과학 교육체제 구축 사업.* (2021-2-0016).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93. 이종태, 이병두, 노혜린 (2013).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의 성과바탕교육과정 개발실례 및 결과 소개. 의학교육논단, 15(1), 31-38.
94. 이주화, 김아영 (2005). 학업적 성취목표지향성 척도 개발. **교육심리연구, 19**(1), 311-325.
95. 이혜범, 양은배 (2013). 의과대학 우수 강의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5**(1), 47.
96. 이혜주 (2008). 아동의 자기조절 학습전략과 관련이 있는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 분석. **아동학회지, 29**(3), 273-288.
97. 이효성, 이용환 (2011). 국내외 역량기반 교육과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교육연구, 34**, 17-35.
98. 이희경, 신수정, 황명환, 김민주, 이현아, 송현주 (2015). 한국형 성인 우수영어학습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자 학습자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현대영어교육, 16**(3), 185-211.

99. 임경민 (2012). *청소년용 한국형 3×2 학업적 성취목표지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00. 장익 (2016). *유급을 경험한 의과대학생의 적응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101. 전성연 (2004). **교수-학습의 이론적 탐색.** 서울: 원미사.
102. 전우택 (2006). 의과대학생 학습 및 생활지도의 새로운 모색: 2005 년도 학생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의학교육, 8**(1), 23-33.
103. 전우택, 양은배, 이수현 (2014). **예비의사를 위한 전공선택 가이드.** 서울: 군자출판사.
104. 전우택, 정한나, 김영전, 김찬웅, 윤소정, 이건호, ... 이선우 (2022). 한국의 환자중심 의사 역량 연구. **의학교육논단, 24**(2), 79-92.
105. 전우택 (2022). 새로운 한국형 의사 전문역량 틀 개발. **의학교육논단, 24**(2), 77-78.
106. 정광희, 김병찬, 김태은, 김갑성 (2009). 한국 교사의 리더십 특성 연구.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9**(1), 1-15.
107. 정다원 (2016). *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성격 특성이 영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108. 정대성 (2015). 의학적 인간학과 윤리학의 관점에서 바라 본 의사-환자 관계.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4) 442-456.
109. 정명희 (1998). *초, 중학생의 목표지향성, 지능에 대한 신념, 인지전략 사용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110. 정민승 (2019). 입시는 정체성이다: 스카이캐슬 인물에 대한 후기구조주의적 접근.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1), 53-71.
111. 정소미, 고아라, 권복규 (2024). 의과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21), 713-723.
112. 정한나, 양은배 (2018). 의과대학 입학전형 집단별 셀라6요인 인성특성 연구. **교육학연구, 56**(4), 47-76.
113. 정한나, 이제욱, 이건호 (2022). 신문기사 키워드 분석(2016 - 2020년)을 통한 의사 및 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분석. **의학교육논단, 24**(2), 103-112.
114. 조성남 (2009). 의사의 자질과 태도가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2**(3):21-41.
115. 조성현, 조용래 (2012). 시험에 대한 자동적 사고 질문지: 개발 및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임상, 31**(1), 11-134.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116. 조승우, 김아영 (1998). 초등학교 아동의 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전략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27,** 71-88.
117.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118. 채수진 (2008). 의과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성향 연구: A의대 사례. **의학교육논단, 10**(2), 9-17.
119. 채수진, 권효진 (2024). 의과대학생이 평가한 자신과 동료 학생의 학습윤리의식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0), 187-194.
120. 채지수 (2021). *초등학교 교사들이 경험한 교사리더십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 교사리더십 역량의 촉진 과 저해 요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21. 최승현, 서범종 (2023). 수월성 개념의 변천에 담긴 인문정신의 교육적 함의. **교육문제연구, 36**(1), 113-133.
122. 하지은, 조희수, 정재삼 (2024).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습자 특성에 따른 정의적 스캐폴딩 실행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1), 305-326.
123. 한재진, 이순남, 권복규, 박혜숙, 임현정, 김태은, 안정희 (2008).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배경 및 특성 비교 - 일개대학 사례 -.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1), 11-21.
124. 한재진 (2013). 외국 의과대학에서의 성과중심교육과정 개발. **의학교육논단, 15**(1), 19-24.
125. 한재진, 강상윤, 김미영, 김애리, 김찬웅, 명선정, ... & 한희진 (2020). *'한국의 의사상, 2014'에 입각한 의사평생교육 역량 개발*. (2020-01).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1-236.
126. 한재진, 김도훈, 김찬웅, 어은경, 명선정, & 오선민 (2022). *2020 한국의 의사상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21-6). 1-248.
127. 허은영 (2009). 방과후학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전략,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중등교육연구, 57**(2), 209-234.
128. 홍숙기 (2004). **성격심리.** 서울: 박영사
129. 황은영, 양은배 (2010). 의학 직업전문성의 특성과 실천 원리. **의학교육논단, 12**(1), 9 - 22.
130. Abu-Hilal, M. D., C Morgan, E., Lewis, G., MC Phail, M., Malik, H. Z., & Hocken, D. (2006). What makes a good doctor in the 21st century? A qualitative study. *British Journal of Hospital Medicine (2005), 67*(7), 375-377.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131. Albanese, M. A., Mejicano, G., Mullan, P., Kokotailo, P., & Gruppen, L. (2008). Defining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competencies. *Medical education, 42*(3), 248-255.
132. Allport, G. W. (1960). The open system in personality theory.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1*(3), 301.
133.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Holt, Reinhart & Winston.
134. Arnold, L., & Stern, D. T. (2006). What is medical professionalism. *Measuring medical professionalism,* 15-37.
135.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Prentice-Hall google schola, 2*, 165-172.
136. Bowe, C. M., & Armstrong, E. (2017). Assessment for systems learning: a holistic assessment framework to support decision making across the medical education continuum. *Academic Medicine, 92*(5), 585-592.
137. Brandeis, L.D. (1914). *Business, a profession, Ernest Poole, editor.* Boston, MA: Small, Maynard.
138. Brown, E. C., Robicsek, A., Billings, L. K., Barrios, B., Konchak, C., Paramasivan, A. M., & Masi, C. M. (2016). Evaluating primary care physician performance in diabetes glucose control. *American Journal of Medical Quality, 31*(5), 392-399.
139. Brusoni, M., Damian, R., Sauri, J. G., Jackson, S., Kömürcügil, H., Malmedy, M. A. R. I. E., ... & Zobel, L. (2014). *The concept of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 European Association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AISBL.
140. Cambridge University Press. (n.d.). *characteristic.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 thesaurus. https://dictionary.cambridge.org*
141. Cambridge University Press. (n.d.). trait.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 thesaurus.* https://dictionary.cambridge.org
142. Carraccio, C., Wolfsthal, S. D., Englander, R., Ferentz, K., & Martin, C. (2002). Shifting paradigms: from Flexner to competencies. *Academic medicine, 77*(5), 361-367.
143. Cattell, R. B. (1970). *Handbook for the Sixteen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16PF).* Campaign, Illinois.
144. Cooke, M., Irby, D. M., O'Brien, B. C. (2014). **의학교육의 개혁과 미래.** (신익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균, 정욱진, 박이병, 박귀화, 유찬종, 박정율, 임기영, 임준 공역). 서울: 학지사, (2010)

145. Costa Jr, P. T., & McCrae, R. R. (1992). Four ways five factors are basic.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6), 653-665.
146. Cox, K. (1993). Planning bedside teaching.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58*(4), 280-282.
147. Creswell, J. W. (2002). *Educational research: Planning, conducting, and evalu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New Jersey: Merrill Prentice Hall.
148. Creswell, J. W.(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149. Creswell, J. W., & Poth, C. N. (201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150. Cruess, S. R., & Cruess, R. L. (2009). The cognitive base of professionalism. *Teaching medical professionalism,* 7-31,
151. Curry , L. (1983). An organization of learning styles theory and constructs. *ERIC Document,* 235 : 185
152. Curtis, S., & Smith, D. A. (2020). Comparison of undergraduate outcomes for students from gateway courses and standard entry medicine courses. *BMC Medical Education, 20*(4). doi: 10.1186/s12909-019-1918-y
153. Davis-Blake, A., & Pfeffer, J. (1989). Just a Mirage: The Search for Dispositional Effec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3), 385-400
154. Deci, E. L., & Ryan, R. M. (1986).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155. Dent, J. A., & Harden, R. M. (2015). A practical guide for medical teachers. *Korean J Med Educ, 27*(1), 55-56.
156. Dent, J. A., & Ramani, S. (2017). Learning with patients: inpatient and outpatient. *Dent J, Harden RM, Hunt D, editors. A practical guide for medical teachers. Fifth ed: Elsevier Health Sciences,* 58-67.
157. Dhaliwal, G., & Hauer, K. E. (2021). Excellence in medical training: developing talent—not sorting it. *Perspectives on Medical Education, 10*(6), 356-361.
158. Digman, J. M. & Inouye, J. (1986). "Further Specification of the Five Robust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Factor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1), 116-123.

159. Ehrman, M. E., Leaver, B. L., & Oxford, R. L. (2003). A brief overview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System, 31*(3), 313-330.
160. Elliot, A. J. (1999). Approach and avoidance motivation and achievement goals. *Educational Psychologist, 34*(3), 169-189.
161. Eysenck, H. J., & Eysenck, S. B. (2013). The biological basis of personality. In *Personality Structure and Measurement (Psychology Revivals)* (pp. 49-62). Routledge.
162. Ferdiani, R. D., & Harianto, W. (2024). Honey and Mumford learning style: creative thinking process in solving statistical problems. *Int J Eval & Res Educ ISSN, 2252*(8822), 8822.
163. Ferrari, M.(2002). *The Pursuit of Excellence Through Education*. New York: Routledge.
164. Fones, C.S., Kua, E.H., & Goh, L.G.(1998). "What makes a good doctor?" - views of the medical profession and the public in setting priorities for medical education. *Singapore Med J, 39,* 537-542.;
165. Frank, J. R., & Danoff, D. (2007). The CanMEDS initiative: implementing an outcomes-based framework of physician competencies. *Medical teacher, 29*(7), 642-647.
166. Ganjoo, R., Schwartz, L., Boss, M., McHarg, M., & Dobrydneva, Y. (2020). Predictors of success on the MCAT among post-baccalaureate pre-medicine students. *Heliyon, 6*(4).
167. Gardner, H. (2004). **다중지능: 인간 지능의 새로운 이해.** (문용린 역). 서울: 김영사. (1999)
168. Garrud, P., & McManus, I. C. (2018). Impact of accelerated, graduate-entry medicine courses: a comparison of profile, success, and specialty destination between graduate entrants to accelerated or standard medicine courses in UK. *BMC Medical Education, 18*(1). doi: 10.1186/s12909-018-1355-3
169. GMC (General Medical Council). (1993). *Tomorrow's doctors: recommendations on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170. Gibbs, G. (2010). *Dimensions of Quality. The Higher Education Academy,*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York.

171. Glance, L. G., Dick, A., Osler, T. M., Li, Y., & Mukamel, D. B. (2006). Impact of changing the statistical methodology on hospital and surgeon ranking: the case of the New York State cardiac surgery report card. *Medical care, 44*(4), 311-319.
172.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Routledge.
173.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9*(6), 1216-1229.
174. Gray, S., Wheat, M., Christensen, M., & Craft, J. (2019). Snaps+: Peer-to-peer and academic support in developing clinical skills excellen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Nurse education today, 73,* 7-12.
175. Gronn, P. (2000). Distributed properties: A new architecture for leadership. *Educational management & administration, 28*(3), 317-338.
176. Gunderman, Richard B. (2009). **의학교육의 새로운 방향.** (기창원, 김경지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반부. (2007)
177. Harden, R. M., Crosby, J. R., Davis, M. H., & Friedman, M. (1999). Part 5 From competency to meta-competency: a model for the specification of learning outcomes. *no. 14Outcome-based, 21*(1).
178. Harden, R. M. (2018). Excellence in medical education - Can it be assessed?. *The Asia Pacific Scholar, 3*(1), 1.
179. Harden, R. M., & Wilkinson, D. (2011). Excellence in teaching and learning in medical schools. *Medical teacher, 33*(2), 95-96.
180. Harden, R. M., Sowden, S., & Dunn, W. R. (1984). Educational strategies in curriculum development: The SPICES model. *Medical Education, 18*(4), 284-297.
181. Harris, A. (2002). Effective leadership in schools facing challenging contexts. *School Leadership & Management, 22*(1), 15-26.
182. Harvey, L., & Green, D. (1993). Defining Quality.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18,* 9-34.
183. Hawk, T. F., & Shah, A. J. (2007). Using learning style instruments to enhance student learning. *Decision Sciences Journal of Innovative*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Education, 5(1), 1-19.

184. Herzig, S., Biehl, L., Stelberg, H., Hick, C., Schmeißer, N., & Koerfer, A. (2006). What makes a doctor a good doctor? A content analysis of assessments by a sample of doctors. *Deutsche Medizinische Wochenschrift, 131*(51-52), 2883-2888.
185. Hirsh, D. A., Ogur, B., Thibault, G. E., & Cox, M. (2007). " Continuity" as an organizing principle for clinical education refor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56*(8), 858.
186. Hojat, M., Nasca, T.J., Erdmann, J.B., Frisby, A.J., Veloski, J.J., & Gonnella, J.S. (2003). An operational measure of physician lifelong learning: Its development, components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Medical Teacher, 25*(4), 433-437.
187. House, R. J., Shane, S. A., & Herold, D. M. (1996). Rumors of the death of dispositional research are vastly exaggerated.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203-224.
188. Huete, Á., Julio, R., Rojas, V., Herrera, C., Padilla, O., Solís, N., ... & Riquelme, A. (2016). Evaluation of Radiology Teachers' Performance and Identification of the "Best Teachers" in a Residency Program: Mixed Methodology and Pilot Study of the MEDUC-RX32 Questionnaire. *Academic Radiology, 23*(7), 779-788.
189. Hurwitz, B., & Vass, A. (2002). What's A Good Doctor, And How Can You Make One? By Marrying The Applied Scientist To The Medical Humanist. *BMJ: British Medical Journal, 325*(7366), 667 - 668. http://www.jstor.org/stable/25452426 BMJ
190. Judge, T. A., Bono, J. E., Ilies, E., & Gerhardt, M. W. (2002). Personality & leadership: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4), 765-780.
191. Kalet, A., Guerrasio, J., & Chou, C. L. (2016). Twelve tips for developing and maintaining a remediation program in medical education. *Medical Teacher, 38*(8), 787-792.
192. Katzenmeyer, M. & Moller, G.(2019).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학교혁신을 위한 교사리더십**. (양성관, 이경호, 정바울 역). 서울: 에듀니티. (2009).
193.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New Jersey: The Adult Education Company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194. Kouzes, J. & Posner, B.(2010). *The leadership challenge activities book (Ed.).* San Francisco, CA: Wil

195. Lambe, P., & Bristow, D. (2010). What are the most important non-academic attributes of good doctors? *A Delphi survey of clinicians. Medical teacher, 32*(8), e347-e354.

196. Leahy, M., Cullen, W., & Bury, G.(2003). What makes a good doctor? a cross sectional survey of public opinion. *Ir Med J, 96,* 38-41.

197. Leithwood, K.(1994). Leadership for school restructur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30*(43), 498-518.

198. Levin, B. B. & Schrum, L.(2017). *Every teacher a Leader*. Corwin, Thousand oaks: Callifornia.

199. Lieberman, A. & Miller, L.(2009). **교사 리더십.** (황기우 역). 서울: 학지사. (2004)

200. Lu, H., Jia, L., Gong, S. H., & Clark, B. (2007). The relationship of Kolb learning styles, online learning behaviors and learning outcomes.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10*(4), 187-196.

201. Marsh, H. W. (1984). student evaluation of university teaching: Dimensionality, realizability, validity, potential biases, and uti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707-754.

202. Marsh, H. W., & Dunkin, M. J. (1992). *Students' evaluations in university teaching: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In J. C. Smart(de.),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vol 8).* New York: Agathon Press.

203. Mattick, K., Dennis, I., & Bligh, J. (2004). Approaches to learning and studying in medical students: validation of a revised inventory and its relation to student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Medical education, 38*(5), 535-543.

204. Maudsley, G., Williams E., M., & Taylor D.C.M. (2007). Junior medical students' notion of a 'good doctor' and related expectations; a mixed methods study. *Med Edu, 41,* 476-486)

205. McCrae, R. R. & Costa, P. T. (2005). The NEO-PI-3: A More Readabl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4*(3), 261-270

206. McCrae, R. R., & Costa, P. T. (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81.

207. McEwan, E. K. (2002). *10 traits of highly effective teachers.* Thousand Oaks: Corwin Press, Inc.
208. Merriam, S. B., & Baumgartner, L. M. (2020). *Learning in adulthood: A comprehensive guide (4th.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9. Milne, M. J., & Adler, R. W. (1999). Exploring the reliability of social and environmental disclosures content analysis.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12*(2), 237-256.
210. Moghaddam, A. (2006). Coding issues in grounded theory. *Issues in educational research, 16*(1), 52-66.
211. Neher, J. O., Gordon, K. C., Meyer, B., & Stevens, N. (1992). A five-step "microskills" model of clinical teaching. *The Journal of the American Board of Family Practice, 5*(4), 419-424.
212.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Oxford English Dictionary (2nd ed.) [CD-ROM].*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13. Pask, G. (1976). Styles and strategies of learn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6*(2), 128-148
214. Pintrich, P. R., & De G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33.
215. Pintrich, P. R., & Schunk, D. (1996). *Motivation in Education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Englewood Cliffs, NJ : Pretice Hall.
216. Pringle, M., Wilson, T., & Grol, R. (2002). Measuring "goodness" in individuals and healthcare systems. *Bmj, 325*(7366), 704-707.
217. Ramani, S. (2003). Twelve tips to improve bedside teaching. *Medical teacher, 25*(2), 112-115.).
218. Rudmik, L., Xu, Y., Alt, J. A., Deconde, A., Smith, T. L., Schlosser, R. J., ... & Soler, Z. M. (2017). Evaluating surgeon-specific performance for endoscopic sinus surgery. *JAMA Otolaryngology-Head & Neck Surgery, 143*(9), 891-898.
219. Saarni, C. (1997). *Emotional competence and self-regulation in childhood. In P. Salovey & D. J. Sluyt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pp. 35-66).* New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York: Basic Books.

220. Schiefele, U. (1991). Interest, Learning and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26*(3& 4), 299-323.

221. Schnelle, C., & Jones, M. A. (2022a). Characteristics of Exceptionally Good Doctors: A Protocol for a Cross-Sectional Survey of Adults. *Patient related outcome measures, 13*, 181 - 188.

222. Schnelle, C., & Jones, M. A. (2022b). Protocol for a Qualitative Study on Doctors' Opinions on and Experiences of Exceptionally Good Doctors. *Advances in medical education and practice, 13,* 103 - 109.

223. Schnelle, C., & Jones, M. A. (2022c). Qualitative Study of Medical Doctors on Their Experiences and Opinions of the Characteristics of Exceptionally Good Doctors. *Advances in medical education and practice, 13,* 717 - 731.

224. Schnelle, C., & Jones, M. A. (2023). Characteristics of exceptionally good Doctors-A survey of public adults. *Heliyon, 9*(2), e13115.

225.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San Francisco: Freeman.

226. Skelton, A. (2007). Understanding teacher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8*(1), 171-183.

227. Smylie, M. A., Bennett, A., Konkol, P., & Fendt, C. R. (2005). What do we know about developing school leaders? A look at existing research and next steps for new study. *A new agenda for research in educational leadership,* 138-155.

228. Steiner-Hofbauer, V., Schrank, B., & Holzinger, A. (2018). What is a good doctor?. *Wiener Medizinische Wochenschrift, 168*(15), 398-405.

229. Stern, P. N. (2016). *In the beginning Glaser and Strauss created grounded theory. In Developing Grounded Theory (pp. 23-34)*. Routledge.

230. Stratton, T. D., & Elam, C. L. (2014). A holistic review of the medical school admission process: examining correlates of academic underperformance. *Medical Education Online, 19*(1), 22919.

231.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232. Strauss, A., & Corbin, J. (2008). **근거이론의 이해.** (김수지, 신경림 역).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0)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33. Swing, S. R. (2007). The ACGME outcome project: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Medical teacher, 29*(7), 648-654.

234. Vidani, J., & Chauhan, R. (2015). The Study of the Concepts of Personality Traits, Values, Skills and Perception of Dr. Manmohansingh. Manmohansingh (December 31, 2015). JN Vidani," THE STUDY OF THE CONCEPTS OF PERSONALITY TRAITS, VALUES, SKILLS AND PERCEPTION OF DR. MANMOHANSINGH", *The Indian writer E-Journal, 1*(1), p1-14.

235. Wright, S.M., Kern, D.E., Kolodner, K., Howard, D.M., & Brancati, F.L. (1998). Attributes of excellent attending physician role models. *N Engl J Med, 339,* 1986-1993.

236. Yazdi, S. N. M., Nedjat, S., Arbabi, M., & Majdzadeh, R. (2015). Who is a good doctor? Patients & physicians' perspectives. *Iranian Journal of Public Health, 44*(1), 150.

237.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 (1986). Development of a structured interview for assessing student use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3,* 614-628.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부록 1]

대 상 자 설 명 문[4)]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에서 의학교육학 전공으로 양은배 교수님 지도 하에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구 참여 제안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의과대학 집단의 학습자들을 검토해가는 것입니다. 의료환경의 모의환경인 의과대학이라는 특수환경 속에서의 우수함과 탁월함 수월성은 무엇인지를 검토해봄으로써 의과대학의 교육 및 수련환경에서의 '우수성'의 특성과 자질을 규명하고 이러한 대상들의 특수성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기반으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필요한 부분을 가감하고 평가에 적용해봄으로써 우수한 특성과 자질에 대해 양성하고 개발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일차적 의과대학의 목표 외에도 선발에서부터 이러한 특성과 자질을 갖춘 예비 의과대학생들을 선별해 나가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졸업 후 교육과정에서의 '우수함'을 양성할 수 있는 요인을 기반으로 의사 양성과정의 교육과 수련의 함의를 가져오고자 함입니다. 이에 교수님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주시면 그에 대한 내용을 저희 연구진들이 주제별로 묶어보고, 그 의미를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양은배 연구책임자(지도교수) 또는 이단비(학위논문작성자) 연구원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질문이 있으실 경우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또는 법정대리인)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4) 대상자 설명문 및 대상자 동의서 전달 시에는 연구 제목 및 연구자 정보를 기입하였으나, 부록 1에서는 삭제 후 설명문의 내용만 수록하였음. 또한 면담 당시 안내한 연구 문제의 일부가 수정되었음.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의과대학 집단의 학습자들을 검토 해가는 것입니다. 의료환경의 모의환경인 의과대학이라는 특수환경 속에서의 우수함과 탁월함 수월성은 무엇인지를 검토해 봄으로써 의과대학의 교육 및 수련환경에서의 '우수성'의 특성과 자질을 규명하고 이러한 대상들의 특수성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기반으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필요한 부분을 가감하고 평가에 적용해 봄으로써 우수한 특성과 자질에 대해 양성하고 개발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일차적 의과대학의 목표 외에도 선발에서부터 이러한 특성과 자질을 갖춘 예비 의과대학생들을 선별해 나가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졸업 후 교육과정에서의 '우수함'을 양성할 수 있는 요인을 기반으로 의사 양성과정의 교육과 수련의 함의를 가져오고자 함입니다. 이에 교수님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주시면 그에 대한 내용을 저희 연구진들이 주제별로 묶어보고, 그 의미를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2.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수, 기간과 장소

이 연구는 총 40명의 대상자가 참여하며(교수자: 20명, 학생: 20명),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IRB 승인일로부터 6개월 연구에 참여하시게 되며, 전체 연구 기간은 IRB 승인일로부터 2024년 07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연구 방법

만일 귀하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본 연구 방법의 특성상 질적연구방법 중 면담법을 활용하여 연구가 수행되기 때문에 우수한 의과대학생의 특성, 자질과 관련한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관 질문에 대해 질문지에 기초하여 질문을 받고 대답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게 될 것이며, 연구 참여자 귀하께서는 면담을 위해 총 60-70분정도 시간이 소요됨을 숙지 부탁드립니다. 면담지에 있는 주요 항목들에 대해 사전에 내용을 숙지해주시고, 면담 당시에 최대한 질문과 관련사항에 근거하여 빠짐없이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구 질문지의 내용과 답변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보장을 해 주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연구 진행 과정에서 귀하께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수한 의과대학 학생의 특성과 자질'에 대한 분석과 연계되는 정보를 연구자가 획득 시 관련 내용이나 배경을 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명해드릴 예정이며, 연구대상자 귀하께서는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은 주로 개인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연구대상자인 해당 교수님/학생대표분께서는 제공해드리는 면담지를 기반으로 반구조 형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지의 기초해서 연구자가 질문은 할 것입니다만 질문내용의 특성상 답변에 의해 추가 질문 혹은 연계되는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지의 틀에 기반하여 귀하께서 경험하신 지난 의학교육 현장인 의과대학과 병원에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경험과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이들이 보이는 특성과 자질, 이슈, 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 전략 및 극복 방안 등에 대해 그들을 지도하고 면담하신 경험을 기반으로 우수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특성을 교육과정 단계에 맞게 교수님의 경험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면담은 한 회에 60분 정도로 오프라인 중 참여자의 희망에 기반하여 비구조화 면담 유형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면담장소는 교수님 및 학생대표분이 속한 대학의 연구실 혹은 휴게실을 통해 사전에 상호 약속을 조율하여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소속된 기관에서의 노출위험, 방해요소, 타인의 시선 등이 부정적 요소로 여겨질 경우나 소속된 대학에서의 개인 면담 수행이 어려운 기타 이유 등이 존재할 경우 서울역, 용산역 등 인근 주요역 부근의 외부회의실을 예약해서 면담을 수행할 예정이며, 면담 시 타 교수, 학생 등 면담을 하는데 있어 방해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장소에서 진행하며 모든 것은 녹음 혹은 필요시 녹화를 사전 동의 하에 수행할 예정입니다. 면담장소는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연구대상자 모두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메일,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 놓고 면담 시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개인이 속한 기관 및 연구실 등의 장소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만남을 가진 경우 교통비 및 식비등의 소정의 사례비를 책정하여 전달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몇 번의 추가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내용을 생생하게 기록하기 위해 면담 내용을 모두 녹음하고자 합니다. 녹음 자료에 대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참여자 및 연구대상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한 비밀보장을 지킬 것입니다.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는 저희의 논문에 인용될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은 논문에서 모두 가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본 연구에서의 아래의 총 네 가지의 연구문제에 대해 주요 연구방법은 연구문제에 따라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주된 연구방법으로는 아래의 면담법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단, 네번째 연구문제의 경우 연구문제 1~3번째에 대한 정리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네번째 연구문제는 별도의 질문형태가 아닌 본 연구결과와 결론으로 이어지는 우수함 특성에 대한 의과대학 및 수련에서의 교육적 함의로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첫번째 연구문제는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을 규정하는 특성과 자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의과대학에서의 교육과정 별 특성과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의과대학 전체 교육과정 상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우수함에 포함하는 자질이 무엇인지를 수련 전 단계에서 검토하는 작업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아래의 가설에서 시작하여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의과대학 학습자의 특성 규명,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실태 등에 대한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우수성'이 무엇인지 조작적 정의를 통해 '우수함'에 대해 규정해감으로써 관련된 이를 도출할 수 있는 요인과 관련하여 면접 문항에 대해 면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두번째 연구문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임상실습 전, 임상실습 후, 졸업 후 인턴)에 따라 우수한 의과대학 학생의 특성과 자질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국내의 교수자와 학생대표 각 20분을 대상으로 귀하께서 가르치거나 경험한 의과대학 및 현장에서의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 임상실습 이전 및 임상실습 이후, 졸업 후 의료 현장까지로 총 세 가지 교육과정 시기 및 단계를 구분하여 차별적 특성을 면담을 통해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세번째 연구문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계에 따른 우수한 대상의 특성과 자질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를 풀기 위해 수련 과정에서 연구문제 1~2에서의 교수자와 학생대표의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그 특성과 자질을 검토해봄으로써 우수한 대상이 보이는 자질과 특성의 의과대학시절에도 드러나는 동일한 요소와 우수한 의과대학 학생 때와는 상이한 수련환경에서만 드러나는 차별적 요인을 검토하여 어떠한 관련이 있고 연계성이 있거나 탈락되는 지를 보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연구문제 총 세가지를 풀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선발 시 강조해야 하는 특성과 자질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며, 의과대학 교육단계에서 개발되어야 하는 특성과 자질 또한 존재할 것이며, 졸업후 수련과정에서 개발되어야 하는 특성과 자질이 있을 것이라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의과대학 선발에 있어서 평가도구를 검토하고 위의 연구문제에서의 교수자와 학생대표의 인터뷰 결과 내용에 대해 의미를 분석함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로써 다음과 같은 총체적인 네번째 연구문제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번째 연구문제는 위의 1~3번의 연구문제를 아울러서 가져오는 의미가 의과대학 및 수련 교육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탐색해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연구문제를 풀기 위해 의사양성 단계에서의 각각의 우수성에 대한 특성과 자질을 정리하여 상호 관련성과 이질성을 통해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의 면담자료를 기초하여 분석한 후 전문가 집단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향후 교육과제 제안에 대한 실행여부 검토를 통해 기존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내용을 의미별로 묶어본 뒤에 이를 해석해가고자 합니다.

4. 연구에 참여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것이 지금 당장 귀하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의학교육 분야에서 선발부터 교육과정단계에 따라 우수함의 특성과 자질이 발현되는 대상을 잘 선발하고, 선발된 대상들을 의료환경과 의과대학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특성과 자질을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교육과정과 평가과정을 개발할 것이며 그러한 의사 양성 단계에 유의미한 도구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학교육에 힘쓰시는 의과대학 교수진과 직원, 학습자 집단 모두에게 보다 의료 현장과 실제의 요구에 맞는 의사 양성 단계에 적합한 제도적 개선과 시스템이 변화되고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성장해가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보다 의미 있는 의학교육의 미래현장에 적용됨은 물론이고, 의학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의학교육자 및 의과대학, 병원 현장에 속한 모든 교수 및 재학하고 있는 학습자들 개인에게 있어서도 실제적이고 유용한 경험으로 재해석 되고, 이러한 의미를 발견해 나감으로써 의사가 되어가는 양성과정에 있어 교육 및 성장 과정 속에서 적용하고 함양해 갈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5. 연구에 참여하여 예상되는 위험 및 불편

본 연구는 인터뷰 연구로서, 과정에서 예상되는 잠재적인 위험, 부작용은 없습니다.

6.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귀하께서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별도로 받으시는 보상은 없지만 오프라인 면담이 진행될 때 교통비 및 소정의 다과비 등에 따른 사례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 개인이 속한 기관 및 연구실 등의 장소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만남을 가진 경우 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통비 및 식비 등의 소정의 사례비를 책정하여 전달할 예정입니다.

7. 정보 수집 및 제공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연구진이 귀하의 개인(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데 동의하게 되며,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여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개인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화의 내용을 생생하게 기록하기 위해 면담 내용은 녹음 후 전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얻어진 녹음 및 전자 자료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 신상과 관련한 비밀 보장을 지킬 것입니다. 귀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담 내용을 논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 및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중 언급된 타인의 신상을 보호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민감)정보의 항목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하여 보관 및 활용합니다.

- 교수자/학생의 성명, 성별, 소속기관(대학), 나이, 학력, 근무경력(재학현황),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면담조사 항목 및 학습관련 정보/이력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면담 자료는 연구를 위해 5년간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귀하는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대한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8. 새로운 정보제공 여부

본 연구진행 중 대상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연구자가 획득 시 그 내용을 안내받고 면담 전후 상황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항에 준거하여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하여 연구참여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9. 개인정보 및 기록에 대한 비밀보장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및 기록은 잠금 장치가 있는 제한된 컴퓨터에 보관되며 연구책임자 및 담당자 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는 학술발표를 위해 인용될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 될 것입니다.

10. 참여/철회의 자발성

귀하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 참여는 종료되고 연구진은 귀하에게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이전까지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여 연구에 이용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연구자에게 귀하의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가령, 연구참여자 중 의과대학 학생의 경우 본 연구책임자가 의과대학 교수라는 사실로 인해 원하지 않을 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연구를 진행하다가 어떠한 이유로라도 연구참여를 중단하고 싶을 경우 의사를 표현하여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참여중단으로 인해 학생의 의과대학 생활 및 진로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우려와 실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 성적 및 진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의과대학 교수(연구책임자)가 아닌 이러한 이해관계가 없는 연구담당자가 연구 참여 및 중단 등 연구참여자 입장에서 연구에 대한 동의를 취득하는 경우나 익명화된 설문(주관식 내용 포함) 및 면담내용을 기술하는 식으로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1. 연구중지, 탈락기준 (중도탈락 관련)

- 대상자가 임상시험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상자가 임상시험 참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대상자가 임상시험에 참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기존에 수집한 참여자 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나 면담을 진행한 경우 면담의 녹취, 기록 등의 잔여물을 임상시험 중단과 더불어 자료를 파기 할 것 예정입니다. 연구진행시 수행된 자료 파기 및 삭제 등의 사항에 대해 연구참여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상연구 참여에서의 중도 탈락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타 시험자의 판단에 의해 임상시험의 진행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구참여자가 해당 연구 내용에 대해 연구질문과 면담질문지를 유출하거나 유출된 사항이 적발된 경우,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기록화 한 경우, 우수성의 대상이 대는 학생의 익명을 보장하지 않은 건이 발견될 경우 연구진행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시험자의 판단에 의해 연구를 중단하는 것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12. 연락처

이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연구자 성명 : 이단비
연구자 주소 :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 02-2228-2511
24시간 연락처: 010-2414-8354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말씀하시거나 다음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IRB) ☎ 02-2228-0430～5
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HPC) ☎ 02-2228-0450～4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대 상 자 동 의 서

※ 아래 항목을 읽고 동의한다면, 좌측 상자 기호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 건강 정보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이 연구목적으로 개인(민감)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등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였습니다.

□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이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은 설명문 및 작성된 동의서 사본 1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결과,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대상자 성명		서명		서명날짜	

'대리인' 또는 '대상자의 대리인' 이라고도 함.

*대리인 성명 (필요 시)		서명		서명날짜	

(대상자와의 관계:)

참관인 성명 (필요 시)		서명		서명날짜	

설명한 연구자의 성명		서명		서명날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부록 2]

□ ‘범주 1~ 범주 5’에 대한 결과

1. 범주1.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탐색 방향

본 절은 의과대학 교수들의 면담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고민, 성찰, 피드백을 정리한 것이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면담 중 오프라인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고 만나본 의과대학 학습자들과 후배, 수련의들을 통해 우수함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 우수함의 영역, 우수함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한 고민을 연구노트에 기재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과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면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기록한 연구노트를 기반으로 연구참여자 별 요약정리를 해감으로써 면담의 내용을 재정리해나 갔다. 그 후 20명의 연구참여자들의 전체적인 면담내용을 각각 정리한 자료를 기반으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컨텍스트화 된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며, 요약을 하고 관련 내용끼리 1차 분류(1단계 : 코드/라벨)하였다.

이를 토대로 유사 개념으로 묶기와 일부 내용은 다시 세부 내용과 요인으로 재배치를 하는 식의 ‘개념’ 생성(2단계 : 개념생성)을 해나갔다. 엑셀에 관련 자료들을 일차적으로 해당 교수 이름과 특정 내용을 코드/라벨하여 표기한 후 나열하였으며, 이 배치에 기반하여 유사한 내용을 언급한 다른 연구참여자의 내용을 동일한 ‘개념’에 붙여가는 식의 개방코딩 작업을 수행하였다. 유사한 라벨을 붙인 것들은 ‘개념’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개념들을 기반으로 유사한 개념끼리 배치하여 하위범주를 구성하고, 하위범주를 토대로 상위범주인 ‘범주’를 구축해 가는 작업을 하였다. ‘범주’를 구축하여 하위범주의 분류 및 개념들이 1차 분류된 내용들로부터 상위개념으로 잘 도출되었는지 역으로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내용을 유목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개방코딩작업을 하는 동시에도 면담 내용에서 어떠한 내용을 언급했는지를 상호 검토하면서 원자료의 내용의 맥락이 맞는지를 검토하였다. 면담 전사본의 줄마다 남긴 메모를 통해 해당 내용의 의미가 1차분류로 배치해 둔 내용(1단계 : 코드/라벨)이 개념에 적절하게 연결되었는지 맥락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동시에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20명의 교수들의 자료의 맥락을 다시 훑으면서 1차 분류된 해당 내용(코드/라벨)이 개념-하위범주-상위범주에 적절하게 코딩이 되었는지 재검토하였다. (상위)범주 아래에 하위범주와 개념에 해당되는 내용을 연구 결과로 기술 시에는 주요한 대화의 원문을 인용하여 아래의 본문에 정리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우수한 학습자가 가진 특징을 검토하기 전 의과대학과 수련현장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고민에 대한 기록을 연구자의 재정리를 통해 기록한 바가 아래와 같다. 이러한 맥락의 이해를 통해 면담자들의 배경에 대한 이해, 국내 의과대학의 상황, 의학교육자의 역할과 범위, 의학교육의 범주,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방향성과 제약사항, 평가인증기준의 적용 여부에 따른 딜레마 등에 대해 연구참여자의 면담 내용의 정리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국내 의과대학 상황과 의료 현장에 있어 교육과 수련의 위치를 검토하는 계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의과대학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의과대학 환경의 특수성, 의과대학 교수자의 위치와 역할, 의과대학 교수가 학습자를 바라보는 혹은 기대하는 관점 등에 대한 이해가 해당 맥락을 통해 정리될 수 있다.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이라는 특성을 파악하기에 앞서 교수자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있는 의과대학이라는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의과대학에서 만나고 경험한 학습자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통해 주관적 요소이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의과대학 학습자는 누구이고, 이들은 어떠한 교육환경에 놓여있고 무엇을 위한 학습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개개인의 학습자의 다양성에 의한 특성도 있지만, 의과대학 학습자라는 집단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을 이해하는 기반 작업이 될 수 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해하는 과정의 흐름은 '우수한 의사를 그려보며 검토 → 의과대학 교육전반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를 회상하며 검토 → 임상의학 교육과정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를 회상하며 검토'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우수한 의사를 그려보며 검토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함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절대적으로 의사가 되기 위해 우수한 사람인지와 상대적으로 동료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우수한 경우이다. 특히 임상의사의 우수함은 '환자 중심 진료의 개념을 기반으로 환자 편에 서서 진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의사(우수한 임상의사의 정의)'를 우수한 의사라고 일반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도 '환자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고민해 보고, 환자가 진료를 맡기게끔 신뢰를 줄 수 있는 준비과정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대상(우수한 의과대학생의 자질)'을 우수한 의과대학생의 자질이라 여겼다. 임상의사는 결국 '환자를 잘 보는 의사'로서 마치 '나의 가족을 이 의사에게 맡겨도 될 정도의 신뢰가 가는 정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우수한 임상의사의 특징)'의 입장이 드는 경우에 이러한 부류의 의사를 일반적으로 우수한 의사라고 한다고 언급하였다. 결국 이들이 단순히 성적이 높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 환자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해결해 주는 의사(우수한 임상의사의 특징)'를 우수한 의사라고 소위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친척을 소개해 줬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을 진료를 보게 연결을 시켜줄 때 몇 번 봤을 때 저 의사는 정말 괜찮아 하는데 그게 꼭 성적이고 등수는 아닌 것 같아 뭔가를 환자 편에서 환자 입장에서 환자를 위해서 뭔가 요구하는 사항을 잘 해결을 해주고 그런 의사가 그런 사람들이 의과대학에서 이제 우수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의과대학은 그런 인재를..." -PH교수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졸업 후 수련환경 속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환자의 가족과 환자가 의사인 나를 신뢰할 수 있을 지 등에 기초하여 환자 편에서 고민해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는 대상(우수한 임상의사의 자질)'을 우수한 임상의사가 될 자질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초의학 의사가 되는 준비를 하는 의과대학생의 경우 '연구를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깊게 정진해보는 힘이 있을 경우(우수한 기초의학자의 자질)' 우수한 연구자이자 기초의학자가 되기 위한 자질이라고 하였다.

(2) 의과대학 교육 전반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를 회상하며 검토

기초 혹은 임상 영역을 불문하고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습자들이 보여주는 특징으로는 '단순히 피상적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닌 '심화학습(딥 러닝)을 하는 사람(우수한 학생의 특징)'으로 '배움에 있어 학습 자체를 깊이 있게 들어가는 학습력이 있는 사람(우수한 학습자의 자질)'이면서 동시에 '깊이 있는 학문을 견디어 나가는 힘이 있는 사람(우수한 학습자의 자질)'을 우수한 대상이라고 하였다. 단순히 학습을 할 때 시험을 보거나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거나 계략적인 접근으로 피상적 학습을 하는 것은 성적 결과와 상관없이 우수한 학습자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우수한 학습자들은 '보여지는 결과가 목표가 아닌 깊이 있는 학습(우수한 학습자 특징)을 하여 주어진 양과 기대치 이상으로 더 학습을 수행해 나가려는 힘(우수한 학습자의 자질)이 있고, 결국 '자기주도학습능력(우수한 학습자 자질)'에 따라 '학습의 깊이를 유지하는 경우(우수한 학습자 자질)'이다. 딥 러닝의 기본은 지난 고등학교 때까지의 학습능력과 전략을 넘어서서 '많은 양 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하는 힘(우수한 학습자의 자질)'이 필요하며,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취사선택 능력(우수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학습자의 자질)'이 강하게 요구된다. 이들은 기초의학 혹은 임상의학 분야를 막론하고 '순수한 지적 호기심의 시작으로 이러한 심화학습 자체에 흥미를 끌어온다(우수한 학습자의 특성)'고 하였다. 이를 통해 '왜 그런가에 대한 성찰능력(우수한 학습자의 자질)'을 함께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들은 '학습의 효과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학습이 유의미하게 이뤄지기 위해 준비작업이 된 경우(우수한 학습자의 특성)'였다. 우선적으로 '자기조절 능력이 있는 학생(우수한 학습자의 자질)'이 이에 속한다. 이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학습의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 비교적 많은 양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의 학습 양을 기반으로 취사선택을 자기 자신이 함으로써 대량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떠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우선적으로 선별해야 하는 지를 가늠하고 집중할 것의 경중을 본인이 결정 학습의 우선순위를 조절하는 자기조절능력의 힘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자기조절능력을 바탕으로 학습 내용과 범위를 효과적으로 취사선택하였을 경우 학습의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기때문에 그 효과의 탁월성은 결국 우수함으로 표출되고 이들을 우수한 학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서 탁월성의 의미는 단순히 장시간 잠을 자지 않거나 무조건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과 주어진 학습 양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지를 취사선택하는 능력의 탁월함(우수한 학습자의 자질)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탁월함의 정도를 기준으로 '우수한 학습자로서의 특징'의 유무를 검토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족보에서 중요한 것도 알지만 어쨌든 어떤 의학에 대한 거 또 특히 이제 임상 기초의학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거에 대한 항상 자기 성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딥하고 슈퍼피셔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갈 수가 있죠. 그러다가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를 만나면은 연구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멀티테스킹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몇몇 학생들은 그런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일정 학습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PH 교수

의과대학에서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이 일반 의과대학 학생들에 비해 유난히 IQ가 높은 객관적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EQ가 발달하여 동료 학생들과 학습공동체 속에서 교류하고 학습정보를 나눌 줄 알고 함께 갈 수 있는 경우(우수한 학습자의 자질)'였다. '의과대학의 학습양은 절대적으로 많기도 하여 혼자서 파고들어서 할 수 있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동료들과 학습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이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의과대학의 특징)'고 보았다. 결국 '족보와 주변 학생들과의 학습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 정보를 얻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자기 주도적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인 힘을 가지고 딥 러닝을 해 나가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을 내포하는데 이는 의과대학만의 특성이자 문화(의과대학의 특징)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3) 임상의학 교육과정에서의 우수한 학습자를 회상하며 검토

임상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임상실습 과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임상실습을 전문과별 따라다니면서 관찰과 기록 등의 역할만 한다는 소극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실습을 도는 행위 다음의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임상실습 기간동안 주어진 대로 실습을 루틴에 맞게 따라만 다니기보다는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맡게 된 환자를 볼 때 관찰력을 발휘하고 환자와 환자가 놓인 상황의 다양성을 관찰해 봄으로써 제대로 여러각도에서 봐보고 생각해보면서 성찰을 해나가는 힘이 필요(우수한 임상의사의 특징)'하다. 단순한 고민과 성찰이 아닌 '환자에 대해 다양한 각도와 시각에서 여러 문제를 고민해 보고 환자에 대한 여러 배경을 고려하여 성찰'해 봄으로써 이러한 '환자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관찰이 다른 환자의 문제나 케이스로 전이되어 학습의 확장과 성찰의 연속성(임상실습, 임상의학의 특징)'으로 이어져야 임상실습과정에서의 우수성이 개발되고 발현된다고 하였다.

특히, 임상 영역에 있어 의과대학생들의 우수성을 검토할 때에는 유능한 임상의사의 특징을 설명한 후에 임상실습에서의 우수함을 발휘하는 경우를 검토하는 식이었다. 임상의학이라는 분야가 '기본의학에서 배운 토대를 기반으로 임상의학에 대한 지식을 임상실습 현장에서 지식을 실제지식과 교과서 지식을 축적해서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시작(임상의학의 특징)'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실습과 기존의 지식의 함양을 달리봐서는 안 된다(임상의학의 특징)'는 점이다. 결국 '환자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임상의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습과는 다른 방향이면서도 단순히 소극적 수준의 임상실습을 따라다니는 정도로는 임상의학 역량의 축적 혹은 다양한 관점에서 성찰해 보는 계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이는 임상의학에 대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임상실습 과정에서는 누가 우수한 학습자인지 기초의학의 성적 결과를 통해 파악하는 것보다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임상실습 과정을 볼 때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환자를 잘 보기 위해 다양한 임상지식을 잘 응용(우수한 학습자의 자질)'해야하고 '이를 케이스 발표로 표현(우수한 학습자의 자질)'해보고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발표 자료와 환자케이스에 대한 고민(우수한 학습자의 자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기초의학 단계에서의 시험을 위한 암기와 응용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수한 학생과 아닌 경우가 확연히 차이가 드러나는 정도의 깊이가 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현되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는 임상의학 단계로 넘어왔을 때 우수한 대상을 발견하기가 쉽고 그들의 특성과 자질이 더욱더 돋보이는 시기라고 하였다. 동일한 환자케이스 혹은 자료 등의 주제를 제시해도 우수한 학생들은 '깊이 있게 주제를 분석하고 공부한 결과를 환자케이스에 적용해서 보여주고, 이를 고민해 본 흔적(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이 다양한 관점에 기반하여 그려지기 때문이다. 이에 좀 더 단순히 암기하는 정도의 학습을 넘어선 응용과 지식의 취사선택 등의 능력이 돋보이는 임상의학 교육과정 단계에서는 우수한 학습자를 분별해 낼 수 있는 시기라고 하였다.

결국 환자를 통해서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게 되는 임상실습 교육과정에서의 우수성은 '환자중심으로 생각해보고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존의 축적된 지식을 다양하게 고민해 볼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임상의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 특징)'이 결국 우수한 학생들의 특성 중 하나로 발현되는 점이다. 다만 평가방식의 단순하고 단편적인 현 상황의 한계로 인해 임상실습 과정에서의 우수한 특성과 자질이 녹여진 역량을 검토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평가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소극적 수준의 평가도구 활용 혹은 부적절한 평가도구로 인해 임상실습과정에서의 우수한 특성과 자질을 검토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없으므로 이러한 자질이 발현되어도 찾지 못하거나 드러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엄청난 지식의 정글에서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환자 중심으로 찾아내고 계속 축적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먼틱 네트워크에서 꺼내서 다시 또 활용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PH 교수

예를 들어 환자를 볼 때 임상수행능력 평가를 넘어서서 '실제 환자를 보는 능력' 등을 검토함으로써 임상의학 교육과정에서의 우수함이 드러나는 학생과 아닌 경우를 검토하고 아닐 경우 그러한 자질을 함양해 줄 수 있을 테지만 평가도구의 현실적 한계(임상의학 교육과정 평가의 한계)로 인해 우수함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임상실습 평가를 할 때 현재 Global rating으로 주로 임하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레이팅으로는 이러한 숨은 적성과 역량을 발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임상의학 교육과정 평가의 한계)'고 보았다. 학습자 또한 임상실습과정에서 참여가 적거나 자기성찰이 없거나 피드백을 못 할 경우 눈에 띄지 않기에 우수함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도 현실이며, 임상의학 교육과정에서 우수함이란 결국 '학생 중에서도 환자를 보는 게 적성에 맞아야 함(임상의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 특징)'으로 기존의 학습전략이나 컨설팅으로 와닿지 않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4)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검증 방안

의과대학 교수들이 우수성의 개념을 탐색 해가는 과정을 통해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은 어떻게 개념을 정립해 가야 할지를 고민하였다. 이들은 열린 구조로 질문된 이 문항에 대해 우수성에 대한 인식의 개인차는 있지만 '복합적인 요소로서 단일화 될 수 없음'이라는 대전제하에 우수성의 예시를 검토하거나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런 경우 우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는 우수성이 결여 되었다고 보지만, 무엇이 우수한 대상과 아닌 대상의 차이인지, 우수성이 회복되려면 의과대학 교육환경에서도 발견되고 탐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면담 내내 고민하는 흔적이 보였다. 이를 탐색해 가는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일종의 검증방안'으로서 우수성을 스스로가 검토해 나갈 때 몇 가지 요인을 가지고 우수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먼저, 의과대학 교육 전반의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는지 여부를 통해 자신이 임상의사로, 기초의학자로, 의료 현장 외부에서의 역할, 인문사회의학에서의 역할 등을 검토하는지를 성찰하고 반추하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우수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단순히 '성적만으로 우수성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하에 자신의 진로를 다양하게 검토하는지를 근거로 우수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의사로서 임상현장에서의 역할이 다수인 만큼 임상의학교육과정 단계에서 자신이 임상현장에 적합한지, 임상과에서도 어느 과의 특색과, 분위기, 환자군, 치료 종류 등이 맞는지를 탐색해 보는지를 근거로 기준을 삼았으며, 환자 외에도 다양한 직군 간의 만남이 있는데 이러한 다수 간의 소통과 문제해결에 있어 자신이 적합한 성향을 지닌 사람인지 검토를 할 때 우수성 여부를 따지는 기준으로 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끝으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삶으로 성숙해져가는 의학도로서의 모습이 보이는지를 통해 자신이 성인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적합한 요인들에 기반하여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 수 있는지에 비추어 우수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개발해 나갈 때 우수한 학습자의 기준이 될 것으로 의과대학 교수들은 우수성에 대한 다양한 기준, 척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래는 총 세 가지의 기준 혹은 척도로서의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을 검토하는데 교수들이 바라보는 방향의 사례를 정리한 바이다.

첫째,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는 노력이 보이는 경우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BY교수에 의하면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은 '순수한 동기에서의 강한 지적 호기심(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습자 특성)'등에서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는 의과대학에서 학습하는 동안에서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다만,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는 삶에서 성인으로서 요구되는 과업을 형성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의과대학에서는 우수성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졸업 후 의료 현장이라는 더 큰 사회 속으로, 삶으로 다가가면 의과대학 당시에는 꼭 필요하고 인정되는 우수성이었음에도 그 정도의 가치만큼 동등하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의과대학 학습자 중 소위 '학업능력만 우수하여 지적 호기심만 있는 경우(비임상 분야에서의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학습자 특성)는 이공계열의 진학이 더 맞는 학생들이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이 임상의학 쪽의 진로와 특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우수함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개인의 특성과 재능을 살려서 임상보다는 기초의학이나 임상 외 분야의 연구 방향으로 진로를 지도해주는 방안이 의과대학 학습자 스스로에게도 자신의 우수성을 발견하거나 지속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가 정말 환자를 보는 의사가 되고 싶다면 진료를 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면 그런 능력을 개발해야 되고,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이라든지 어떤 자극이 일어난 환경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자꾸 자기를 개발해 가야 돼. 자기를 개발해 가야 되고 근데 하다가 보니까 그게 난 도저히 안 되겠어. 난 진짜 사람들하고 말 섞는 것도 너무 귀찮고 이래. 그러면 그 사람은 진료 중에서도 환자를 안 보는 지원과를 해야 돼." -LY교수

예를 들어, 졸업 후 의료 현장에 가면 환자와 보호자와의 매일 마주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자신이 가진 의료지식을 넘어서서 세상과 타협하고 병원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슈들과 타협과 협상을 해나가야 하는데(임상현장의 특징)' 이러한 힘이 부족하거나 전무할 경우 수련을 포기하거나 이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수련의들이 있다고 하였다. 이 경우 혹여 의과대학 단계에서 비상하게 머리는 좋았지만 '프로패셔널리즘, 소프트 스킬이 부족'하면 머리로는 알아도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부적합할 수도 있어 상황에 맞지 않은 답변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 '수련의가 설령 의과대학에서 우수성을 키워오고 유지해 온 왔을지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우수성은 깨질 수 있다(우수성의 연속성 유무)'는 점을 강조하였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수련의라면, '과거의 자신이 지켜온 우수성에 대한 틀을 넘어서서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새 과제를 마주하려는 마음가짐(우수한 수련의 특성)으로 바뀌게 되면' 이러한 특성이 의료 현장에서는 우수성으로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만약, 의과대학에서 우수성을 드러낸 경우였으나 '성인으로서 마주하는 힘(우수한 수련의 특징)'이 부족할 경우는 환자를 보지 않는 지원과나 연구 분야 쪽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로 진로를 바꿀 수 있기에 자신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오히려 문제해결능력이 약하거나 성인으로서 마주하는 힘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임상현장에 누적되어 있게 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수한 특성 마저도 사라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였다.

시대에 따른 입시정책과 선발조건에 따라 의과대학생이 들어오는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보면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최상위권의 성적으로 입학하는게 특징이다. 의과대학 교수 BY에 의하면 마치 '수능성적 최고점 맞은 학생들이 오는 곳이 의과대학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하였다. 의사의 직무는 막상 성적이 높은 것과 어떠한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였다.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정과 연민이 있다(임상의사로서의 특징)'는 특징을 가져야 하며,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야(임상의사로서의 자질)' 견뎌내는 직업 자체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이를 반증해보면, 입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무조건 의대에 입학해야 한다는 통념에 근거한 입시정책이 변화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의료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면의 어려움을 인지하지 않고 직업인으로서의 의사가 될 경우 본인이 극복해 가야 하는 장벽이 높아지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의사로서의 특성과 적성이 맞는지를 계속하여 갈등하게 되고 결국 우수한 의사로의 성장이 어렵게 되는 점을 우려하였다. 이에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 또한 의사가 될 자질과 특성을 본인이 지녔는지를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상과 기초 분야로 나눠 본 후 어느 영역에 더 우수한 강점을 가지고 또 어느 부분이 약하게 나타나는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아성찰을 할 수 있어야(학습자의 '우수성' 잠재력 회복 방안)의사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우수함을 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

둘째, 임상현장에서의 필요요소와 자신의 특성 간 적합성을 검토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우수성을 검토하였다. 의과대학 재학 중 자신이 임상의사로서 혹은 임상 환경에 적합한 사람인지 검토하기 위해 '임상실습 기간을 통해 확인(임상의학의 적합성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의과대학에서의 임상의학 교육과정에서의 우수함을 검토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때 교수자의 역할은 임상실습을 돌고 있는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진로를 임상의학 쪽으로만 선택하라고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에게 '소프트 스킬이 있는지', '사람에게 정이 있는지' 등의 기본 특징(임상의사로의 특징)을 보고 이를 분별해 주는 도움이 필요(의학교육자의 역할, 학습자의 '우수성' 잠재력 회복 방안)하다고 하였다. 임상의학 환경에서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들이 전부가 아니고,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지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보려고 하는 마음(임상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사의 자질)'과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회성(임상의사의 자질)'이 요구되며, '소프트 스킬이 있어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임상의사의 자질)'가 우수한 임상의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한 '자질이 학습자에게 있는지를 검토하고, 코칭 해주는 역할(학습자의 '우수성' 잠재력 회복 방안)이 임상실습 교육과정에서의 교수자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교수자의 개입을 통해 '학습자의 특성과 임상현장과의 적합성을 발견해 주는 과정'은 '학습자들 스스로가 임상실습에 적합한 우수성을 검토해보고 미발견 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갈 수 있는 방안(학습자의 '우수성' 잠재력 회복 방안)'임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임상실습 기간을 거치면서 그런 친구들이 내가 임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BY 교수

의과대학에서는 덜 필요하지만 우수한 수련의로서 필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에서 시작된 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과도 연결되고 대인관계를 통해 의료진 구성원들과의 협력이 가능해지고 결국 이는 환자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임상의사여야 환자에 대한 관심과 긍휼한 마음으로 그 환자를 치료해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더 고민하고 학습하게 되어 외부 의료진들과 소통의 채널을 열게 되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결국 이러한 우수한 수련의는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살리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직군들에 대한 존경과 이해로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또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의료상황에서의 실수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결국 환자인 인간을 예의있게 대하고 치료해 가는 과정을 겸허하고 신중하게 해감으로써 존중을 해가면서 치료를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임상현장에서의 우수성은 환자 및 보호자 입장에서의 고려가 공감이고 공감은 그전에 배려와 인간에 대한 존중이 기반이 되어야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해결 해보려는 힘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단순히 해결할 문제에만 집중을 한다면 문제는 해결할지 몰라도 문제 이면의 것을 놓치게 되어 큰 그림 속에서의 환자 상황을 보기가 어렵다. 결국 환자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하고 환자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그 밑바탕의 힘이 된다고 하였다.

셋째, 교수들은 자신들이 대개 우수하다고 여기는 학습자들이 가진 공통적인 소양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을 기반으로 '우수성' 여부를 검토해 나갔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공부를 잘해왔기 때문에 비교적 성공 경험이 높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집단(의과대학 학습자의 일반적 특징)'이다.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를 직면하려하지 않고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서 회피하는 성향도 강하고(의과대학 학습자의 일반적 특징)' '의사단계에서나 삶의 단계에서나 성장해야 할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의과대학 학습자의 일반적 특징)'도 다수 있다. 다만, 이 중에서 우수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특징은 '문제를 직면하여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 봄으로써 그 다음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극복해 낼 힘도 있다(우수한 학습자의 특징)'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겸손함도 배우게되고 사람을 대할 때 더 진중한 태도를 함양(우수한 의과대학 학생 자질)'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과 습득이 곧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다가 깨져요. 그러다가 실패해요. 그래서 학생이 거기서 이제 좀 중요한 특질, 특성 중에 하나가 그 유연성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빨리 상황과 자신에게 맞게 계속해서 바꾸고 거기에 다시 또 매진하고 이런 것들이 성공과 엑설런스의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CH 교수

우수한 의과대학 학생은 '커뮤니케이션 및 공감을 잘 해야한다는 점(우수한 학습자 자질)'은 의사로서의 연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를 학문이나 교육내용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화 능력과 상대를 이해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 해보는 공감 능력이 함양(우수한 학습자 자질)'된 경우 우수한 의과대학생으로서 임상실습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실천하는데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자질이 있어야 본인이 의사로서 준비하는 데에도 적합하다고 스스로도 반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졸업 후 수련 과정에서도 우수한 수련생과도 연결되는 특징으로써 의과대학은 비교적 좁은 범주에서의 유사한 배경을 가진 교수와 동료들 간의 관계이지만, 의료 현장의 경우 더 다양한 범주의 사회망을 구성하고 이들 안에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의사 내 선후배와 교수만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의료팀 내에 있는 다양한 직군과의 소통, 환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 등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 연습이 필요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우수한 전공의 특징)'를 알아가야 하는 단계가 다가온다. 이에 이러한 것을 의료 현장에서 잘 해결해 나가고 소통해 나감으로써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특징을 지녔을 때 우수한 수련의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의과대학에서는 보다 협소한 범위의 관계이면서도 동질된 그룹에서의 소통과 문제해결이지만 이러한 능력을 잘 발휘하는 특징이 함양되어 있을 경우 우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수한 의과대학 학생, 우수한 전공의 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소통을 잘 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질문도 할 수 있고(우수한 학습자의 자질)', '자신이 문제해결을 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범위가 수평적 관계를 떠나 다양한 직군과의 관계까지 연결되고 교수님이나 선배에게 이 문제의 검토를 요청하고 혹은 틀렸는지를 묻는 과정을 질문할 수 있는 힘이 용기에서 비롯된 소통 능력(우수한 학습자의 자질)'이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의료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실수에 대해 혼나기가 두려워 문제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더 큰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문제를 스스로가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외부와 소통하지 않으려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잘못된 결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소통능력은 단순히 소통을 잘하는 대상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서 배운다고 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라고 BY교수는 단정하였다. 먼저 '마음을 열고 상황을 직면하여 상대방에게 요청할 줄 아는 마음은 용기(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에서 비롯되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책임감(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이 결국 보다 나은 소통 체계와 소통방식을 연마하게 되고 그러한 소통 능력이 하나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료 현장에서 의료문제에 대해 질문을 할 때에는 단순히 모르는 것을 문의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물어본 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에도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한 내용인지 되알리기 혹은 이렇게 이행해도 되는지를 다시 검토 받고 재점검기회(우수한 전공의의 특징)'를 통해 소통을 이어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힘이 있을 때 우수한 전공의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해결능력과 책임감의 귀결은 의과대학에서부터 습관되어지는 것으로 의과대학 교육과정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때 소통방식과 책임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반으로 우수성의 정도를 검토해 볼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수련 과정의 수련의의 경우 문제를 마주했을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선배나 교수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를 드러내기만 해 주는 능력 속에 무서워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수에게 문의를 하기만 해도 문제의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문제를 마주하고, 이를 수면 위로 올리는 힘은 결국 용기와 문제를 해결해 내겠다는 책임(우수한 전공의의 특징)'이 작용할 때 가능한 점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용기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신감과 책임을 넘어서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혼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내는 힘(우수한 전공의의 자질)'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BY교수는 실제로 임상에서 우수한 수련의의 특징을 이러한 요소와 연결시켜 볼 때 수련 시작단계에서 지식의 양이 많이 부족해서 임상에 대한 지식이 확연히 낮은 수련생이 '잘 모르는 것을 반드시 물어보고 배우려는 태도', '틀려도 도전해 보려는 질문', '잘 못해도 우선 노력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해보고 해보려는 태도', '환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 등(우수한 전공의 특징)을 기반으로 '의료팀 내에서의 소통 능력이 좋고(우수한 전공의 자질) 태도가 좋다(우수한 전공의 특징)' 보니 그 결과 수련 마지막 시점에서 지식, 술기, 태도 모든 면에서 양적인 성장을 한 경우를 본 경우를 사례로 제시하였다.

"누구가 봐도 애는 뭐 달라 이런 친구들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전공이 미생물학, 면역학 바이러스학인데 보면 이제 이거는 몇몇 사례밖에 안 되긴 하지만 수업 끝나면 꼭 질문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질문 자체가 깊이가 있어서 저들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고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죠. 개네는 그만큼 준비하고 복습하고 공부하는..." -YS 교수

이러한 경우는 '배움에 임하는 태도가 겸손(우수한 전공의 특징)'하고, '모르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알아가고(우수한 전공의 특징),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용기(우수한 전공의 특징)가 연결되어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감(우수한 전공의 특징)'이 결국 실력을 향상시키게 되고 치료 방법을 더 잘 아는 우수한 의사가 되어간 경우이다. 이때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마음, 모르는 것은 넘어가지 않고 되짚어보고 물어보는 것,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성찰하여 파악하는 것(우수한 전공의 특징) 등이 조화롭게 정리되어 나타난 것이 우수성으로 연결된 것이다. 결국 우수하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과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특성이 발현되도록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 해가고 소통 해감으로써 알아가는 마음이 결국 성장을 이끌어가는 셈이다.

이와 같이 우수한 의과대학생이나 전공의는 배우려는 마음가짐이 된 것이 기본적으로 배움에 임하는 자세(우수한 학습자 특징)가 있기때문에 다음 단계로의 성장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성장의 연속선이 결국 우수함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꾸준히 성장해 나가려는 마음가짐(우수한 학습자 특징)'과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우수한 학습자 특징)'가 우수성을 키우는 근본 토대가 되며 이러한 성향과 특성이 있을 때 결국 우수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우수한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의과대학 교육과정단계에서부터 중요한 부분임을 BY교수는 강조하였다.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우수한 학습자는 '배움에 대한 태도 이전에 순수하게 배움 자체를 즐거워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우수한 학습자 특징)'이 교육과정 단계를 막론하고 공통적이었다. 이들이 혼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직면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이러한 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려움을 능가하는 배움에 대한 열의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배우겠다는 목적(우수한 학습자의 특징)'하에 혼나는 것, 질문을 재차 하는 것, 자신이 한 것을 보고하는 것 등이 수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엑설란트 애들은 배움 자체를 아주 좋아해, 배우는 거 자체를 공부하는 걸 엄청 좋아하고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고." -BY 교수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특징 중 다른 하나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 무형의 것에도 가치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는 점(우수한 학습자의 자질)'이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기억하는 우수한 학습자의 경우는 의과대학 재학시절 단지 성적만 우수한 경우는 오히려 우수한 학생으로 기억이 나지 않고, 성적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이라고 여겨져도 이것과 별개로 '자신이 가치를 가지고 생각해야 하는 것 때문에 지향하고 지켜나가는 힘이 있는(우수한 학습자의 자질)'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들을 우수하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실례로, 개인의 가정사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어려운 동네에서 생활 당시 언어와 생활면에서 모두 열악했던 시절 그 곳에서의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학습과 생활을 이어갔던 자신의 어린시절을 귀감삼아 받은 고마움을 베풀고 있었던 경우였다. 시간이 지나 '자신이 의과대학생이 되어서도 자신의 학식과 경험을 봉사활동을 통해 나눠주는 경우(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였다. 이는 '의과대학 졸업요건도 아니며, 점수화 되지도 않는 부분이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고자 하는 일까지 시간과 마음을 쏟는 경우(우수한 학습자 특징)'를 우수한 학습자라고 회고하였다. 의과대학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다량의 지식을 학습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대적인 양과 정해진 시간에서도 '우선순위를 쪼개어 가치를 좇는 마음(우수한 학습자의 특성)'을 지키는 성향이 우수함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훈련은 의사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함양해야 할 가치를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통해 결국 현장에 나가기 전 인간다운 의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는 셈이라고 하였다.

비단 진로를 고민할 때에도 이런 경우는 자신의 가치가 전도 되지 않은 선에서 깊은 생각과 고민을 통해 무형의 가치를 좇아 진로를 선택하는 결과로도 이어진다고 하였다. '자신과 주어진 상황에 대한 성찰능력(우수한 학습자의 자질)'과 '무형의 보상을 성취해 나가는 힘을 가진 자(우수한 학습자의 자질)'가 결국 우수한 의과대학 학습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있는 것이었다 '자신이 경험한 성장통에서 얻은 교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있고 이러한 가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키는 힘(우수한 학습자 자질)'은 이러한 학습자를 한층 더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었다. 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와 연결되는 것이 '성적 혹은 학점을 쉽게 따는 과목만 선택적으로 듣는 대부분의 학습자(의과대학의 일반 학습자 특징)'들과 달리 '의과대학에서 새로운 영역이나 학문분야의 선택수업을 듣고자 할 때도 용기와 배움에 대한 가치를 기반으로 선택 해가는 힘(우수한 학습자의 자질)'이 결국 무형의 가치를 좇아 무언가를 해나가는 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전해 내려오는 과목의 전통적 정보나 팁에 의한 부차적인 학습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학습내용을 익혀가는 등의 배움의 적극성'을 발휘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과제와 과업이 주어져도 사전의 정보나 지식이 없이도 새로운 장에 직면해서 도전해 나가는 모습(우수한 학습자의 자질)'을 통해 우수성을 함양해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들 중 우수한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들과 동일하게 자원과 정보가 없음에도 그 안에서 개척해 가는 정신이 있었다. 새로운 과제와 과업을 받아들이고 피드백을 수용하면서 수업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경우이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발견 해가는 것에서 새로운 앎을 알아가게 되고 새로운 학습환경에 적응 해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귀감이 될 수 있다. 교수자는 이러한 기회가 증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기회와 학습 현장을 제공 해줌으로써 퍼실리테이터로서의 기능을 통해 '다 알려주고 그대로 하라는 식의 전달이 아닌 힌트와 방향성을 알려주면서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 해주는 역할(학습자의 '우수성' 잠재력 회복 방안)'이 우수성을 발견 해가고 키워가는 길임을 제시하였다.

결국 우수한 학습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놓여서 배움을 알아가고 배우는 것 자체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우수한 학습자 특징)'이 주 된 특징 중 하나이며, '장기적으로 자신이 의사가 될 때 필요한 자본과 정보라는 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게 평가(우수한 학습자 특징)'하고 있다. 이에 의사가 되기 위해 과목의 중요도나 비중에 의한 선택이 아닌 기초 및 임상의학, 선택과목 등 '의과대학에서 주어지는 모든 학습자료와 기회를 의사 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우수한 학습자 특징)'이 있다. 대다수의 '보통의 의과대학 학생들은 해야 하는 과업으로의 최소한의 에너지를 통해 그 단계를 넘어가거나 시기를 넘기자(의과대학 학습자의 일반적 특징)'라는 마음가짐이지만 '배움 자체를 순수하게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 '자신이 의사 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 상황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는 것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경우'였다. 이들이 '배우는 과정을 즐기는 것(우수한 학습자의 특징)'은 무에서 유를 창조 해가는 과정'과 유사하였다. 해당 과목의 중요 정도나 시수를 넘어서 해당 과목에서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속에서 자신의 창조성을 발견하고 알아차려주는 교수자와의 만남 속에서 우수함의 속성을 피워가는 것으로 발견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에서의 '우수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의과대학 재학시절, 수련단계, 현장에서의 의사로 살아간다는 점을 포괄해 볼 때 '평생학습능력과 성찰능력의 힘이 높을수록(우수한 학습자-의사로서의 연속된 자질)' 우수한 의사, 학습자로의 자질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평생학습을 한다는 것은 배움 자체를 즐겨하고 새로운 학문 분야에 익숙하지 않아도 도전하고 부딪혀보면 새로운 성장과업을 넘어가보겠다는 의지가 연결 되어있고,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것 자체에서 자기 스스로 학습능력의 깊이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해 봄으로써 앎을 획득하는 것에 기쁨을 느껴가는 과정인 셈이다. 또한 이러한 평생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찰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성찰에는 두 자지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성찰은 타인으로부터 피드백이나 조언, 평가를 통해 나의 수준과 위치를 알게 됨으로써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현 위치와 방향성을 가늠해보는 잣대가 되죠. 내 자신이 나의 부족한 점과 향상된 점을 부단히 알아감으로써 내가 더 학습하고 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고 잘하고 있는 부분을 알게 되구요. 결국 이를 알아간다는 것은 에너지를 분산해 가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BY교수

결국 성찰과 관련하여 전자의 경우 중등교육과정 및 성인학습 초기에는 두드러지는 성찰방법이기는 하지만 성인학습자로의 안정을 찾아 나가는 단계로 갈 때에는 보다 더 자기자신에 의한 성찰의 힘과 방향 제시가 명확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임을 이야기하였다. 타인과 물리적 자극을 통한 성찰은 한계가 있고 상황에 따라 희소해져가는 단계가 되지만 자기자신의 성찰능력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객관화하여 알아간다는 점은 타인에 의한 성찰보다 노력과 내공이 더 필요한 과업이다. 성인학습자가 될수록 타인에게 피드백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도 되기 때문에 의과대학 학생에서 수련의가 되고 의사로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는데 개인의 성찰 능력의 힘을 학생 때부터 키워나가야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부족함을 인지하여 겸허히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움의 시작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고 이게 곧 의사의 성장 원동력인 평생학습자로의 이어짐도 연결되는 바이다.

예를 들어 학생일 때에는 교수, 동료, 성적표에 의해 피드백을 받기 쉽지만 교수자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학생 때처럼 쉽게 조언을 구하고 피드백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성인 대 성인에게는 조언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도 크기 때문에 성장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개인이 객관적 잣대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성찰하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갑자기 이런 힘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성찰의 연습을 해나가고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러한 성찰의 노력을 많이 해보는 학습자'가 결국 우수한 학습자이고 자기를 반추하고 겸손해 할 줄 알고 다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식의 반복(학습자의 '우수성' 잠재력 회복 방안)'이 우수한 학습자가 지닌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

(5)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교수들의 성찰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을 고민 해보면서 그동안 의과대학의 관심 방향과 교수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문제나 쟁점들을 성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이들은 의과대학에는 잘하는 학생들이 입학한다는 전제하에 '뛰어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탐색'보다는 보통이거나 특히 하위권 학생들을 기반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담 혹은 지원을 해주었다고 하였다. 이에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기존의 하위권 학습자들이 보이는 특징을 되짚어보고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우수성에 대해 탐색 요인과 관심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하위권 자들에 대한 특징을 반추 해봄으로써 우수성에 대한 교육, 연구의 방향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성찰하였다.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의과대학 입학 시 인적성 검사를 통해 적합성을 부여받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아서 고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하위권 학생 특징)고 하였다. 이들의 경우 학습에 대한 전략과 꾀를 씀으로써 최소한의 노력으로 해야 할 일만 하려는 '학습자로서의 기본 태도'가 부족한 경우(하위권 학생 특징)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부류의 경우 최소한의 노력으로 꾀와 전략을 통해 주어진 과업과 단계를 최소한의 에너지로 넘어가려는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고 결국 하위권을 형성하여 누적된 하위권을 유지하면서 다수의 과목과 과정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게 되고 이 그룹을 나오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들에 대한 대학과 의학교육자의 접근 또한 적절한 뒷받침 방법이나 재교육이 적합하게 되지 않고 있어 결국 '의과대학에서 하위권에 안착하게 되고 입학 시 검토한 의과대학에 보다 적합한 특성과 자질이 있는지는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의과대학의 특징)'로 이어지게 되었다.

의과대학에 적합한 특징을 지닌 학습자를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특수성이나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기 전에 선발 제도에서부터 적합성을 기본적으로 검토한 후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비교적 적응을 잘 해나갈 학생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대학 및 교수의 역할이고 학습자 스스로도 자가 점검을 통한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요즈음은 편입과 의학전문대학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원 체계도 최소한으로 비중이 줄어든 상태이고 의예과로 입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국가의 입시정책에 준하여 의과대학 입시의 선발과도 연관되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었다. 이에 의과대학생 선발 시 최소한의 요건들을 보게 되는 조건 때문에 입시제도의 허술함이 결국 의과대학에 적합한 특성이나 자질, 특징 등을 가진 학생인지를 검토하는 거름망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에 의과대학의 문화와 교육과정의 특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하위권 그룹에 지속적으로 속해있거나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본인이 속한 그룹이 하위권이어서 좌절, 낙담을 겪는다기보다는 자신이 의과대학 학습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뒤쳐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이 부분에서 볼 때 하위권 학생들은 자신을 탐색하는 능력이나 의과대학 교육환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객관화시키는 것이 낮을뿐더러 학습에 있어 낮은 효율성으로 인해 낮은 성취의 학습자로 타인들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우수성을 갖추었다고 가정한 의과대학생의 모습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경우 의과대학에 적합한 우수성을 지닌 특징이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입시제도의 틀을 극복하여 입학을 한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의과대학 교수의 입장에서는 '의학교육자의 코칭능력이 의과대학 학생들의 우수성을 재발견하거나 찾아가는 과정 혹은 지속해 가는 과정에서 모두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학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 에너지,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음에 반성하였다. 이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하위권 학생처럼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경우에만 개입하려고 하고 혹은 최소한의 교육평점을 위한 교육에의 개입 등이 었다고 하였다. 절대적인 시간을 학생들에게 투자하고, 학생들과의 관계속에서 이들을 살펴볼 여유가 있어야 개개인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으며 적절한 코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과거에는 주로 평가인증제도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수행하고 이러한 내부 평가를 하는 것 등 형식적인 관점에서의 교육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다. 결국 보여지는 점수에서 문제가 안 보이면 특별히 관심과 개입 등을 덜하게 되고, 보여지는 점수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개입하는 식의 노력이 주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과 상담, 지원 등은 평가인증제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의해 형식적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 것들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것이 전부여서 학생 자체를 위해서, 교육 개선을 위해서 본질적인 개입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반추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의과대학 교수자는 의학교육자라는 본질의 역할을 회복함으로써 의학교육자들이 다시 성장하고 교육에 본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기능대로 개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의학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코칭을 제대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와 같았다. 예를 들어, 학습 전략과 집중력, 성실성 등 우수한 의과대학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요소들이 개개인에게서 발견되도록 시간과 노력의 재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발견해 내는 과정으로서의 노력이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내에도 녹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학습 능력이 안 되거나 안 되는 것으로 여겨져 보이는 결과를 자아내는 것은 단순히 의과대학의 학습양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학습 양으로 인한 낮은 성취감의 귀결이 아닌 '많은 학습 내용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도 인식 여부', '전체와 부분을 보는 능력'과 관련하여 전체 교육과정 대비 이 과목에서 요구하는 내용 등 전체와 부분의 파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이러한 학생들에게 의학교육자가 깊게 들어가서 건드려주고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으나 의학교육의 영역이 일반 교육학의 교육적 영역과 상이한 부분으로 인해 비의사 의학교육자의 코칭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그 기저에는 의과대학 교육의 독특한 특성이 있음이고 결국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성 개발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었다.

다만, 의과대학 교수자들의 입장은 의학교육자들이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교육강화, 적합한 코칭 기회 제공, 잠재력 개발을 위한 지원 등이 교육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강조한 것만은 아니었다. 의학교육자들에게도 지속적인 교수개발을 통해 적절한 코칭과 지원을 잘 하게끔 도와주고 이들의 기능과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학생들에게 관심도 가지고, 관심대상의 확대 및 전환, 적절한 코칭 등이 되기 위해서의 대전제는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적합한 '교수개발이 필요하다(학습자의 '우수성' 잠재력 회복 방안)'고 보았다. 교수개발에는 의학교육을 하는 의학교육자의 개발부터 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의 국내 의학교육학자의 육성 프로그램으로는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업(course work) 이수 후 논문 등의 졸업요건을 갖춘 뒤 의학교육현장에 연구자나 교육자로 투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대학원 과정에서부터 비의사 교육자의 경우 의학교육현장을 먼저 이해하고 간접경험을 하는것이 의학교육을 이해하고 의학교육자로서의 시작이 가능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의학교육학 학위과정 내 대학원생들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 인턴과 같이 몇 주간의 실습프로그램에서 내,외,산,소 등 주요전문과목 혹은 선택과목의 임상과를 학생들과 같이 돌면서 '임상실습과정'을 목격하고 관찰하면서 최소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 의사와 환자의 대화 등을 직접 들어보고 현장을 기록해 봄으로써 어떠한 것이 문제사항으로 드러나는지 현장에서 볼 때와 교실에서 공부할 때의 격차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기록해감으로써 의학교육현장의 맥락과 깊이를 보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학교육환경에 대한 선이해 후 이론을 학습하고 연구를 수행할 경우 보다 '현장감 있는 의학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양성'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 작업이 이루어진 의학교육자가 의학교육현장에 왔을 때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과 고충에 대한 이해, 어떠한 문제로 인해 기로에 막혀있는지를 발견하여 잠재력을 발견 해주고 우수한 특성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뿐더러 우수함을 표출하는데 막고 있는 장애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초토대를 마련한 후에 의과대학 학생들 중 우수성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 학습부진아로 분류되어 유급, 재학습 등의 딱지를 얻게 되는 데 이러한 학생들을 만났을 때 상담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상담을 통해 우수한 특성을 다시 발견하고 찾아감으로써 본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우수함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반대로 우수성을 가리고 있는 점들을 도출 해내고 개선해 감으로써 이러한 조기 탐색은 의과대학에 요구하는 우수성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담 과정을 통해 의과대학 학습자가 가진 학습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과대학 학생들의 개인에 맞는 우수한 특성을 찾아주고 개선 해가는 방안을 마련해주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학습 부진자도 2명이 다 상담을 들어가야 돼. 의대 MD 교수 하나 들어가서 나름대로 상황을 잘 아는 사람 그다음에 이쪽 Ph.D. 출신이 또 들어가가지고,(중략).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정신 상담까지 같이 치료까지 들어가야되고 그렇게 해야지. 내실 있는 그런 상담이 돼서 그 학생이 진짜 도움을 받게 되는거지" PH 교수

"의학교육학 대학원 과정에 짧은 인턴십 같이 공식 교과목으로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인턴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서브 인턴십 비슷하게 해서 학점으로 나가는 거야. 인턴을 따라 다니거나 의과대학 학생을 따라다녀도 된다. 공식적으로 가운같이 입고 들어가서 학생들 수업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해보는 거지. 2주든 4주든지 그게 학점있는 교과 과목이 되는 거예요. 논 엠디 선생님들(Ph.D.)한테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 -PH 교수

또한 '의과대학 교수들은 신세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의과대학 교수들의 특징)' '교수학습 방법 전달에 있어 비효율적인 교수학습 전략과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과대학 교수들의 특징)'가 있어 그들의 우수함을 발굴하는데 기회를 놓치거나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대다수 의과대학 교수가 강의내용을 전달할 때 여전히 강의식 수업 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고 학생들이 학업을 쉽게 기억해 내는 수업방식과 전략을 차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수자 자신이 혹은 집단에서 해오는 식의 방법만을 답습하기 때문에 우수한 강사로서 자질을 개발할 동기부여도 안되고, 또한 비교적 강의시간을 짧게 담당하여 팀티칭 교수자 중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르칠 내용에만 집중하여 학습의 효과성 등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우 교수자로서 스스로에게도 우수한 강의자로서의 자질 개발이 어렵고, 이러한 수업을 통해 전달 받을 경우 학습자 입장에서도 우수성이 키워지거나 발견되는 계기가 줄어들 수 있는 한계도 있음을 우려하였다. 결국 우수한 의학교육을 수행하는 교수가 있어야 학생들의 우수성을 개발해 주기 위한 단계적 접근과 기회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전제로써 '우수한 의과대학 교수개발이 이뤄져야 한다(학습자의 '우수성' 잠재력 회복 방안)'는 점이다. 의학교육자는 최소한 의과대학 문화와 현장을 이해한 사람으로서 동시에 의사들과 소통의 기회를 넓혀감으로써 이들의 문화에 적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문화 속에서 경험한 바를 기반으로 유사한 문제의식, 고민을 가지고 최대한 같은 입장에서의 의과대학 현장과 학생들에게 해결해야 할 점, 고민해야 할 점 등을 제시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사전에 의사가 되기 위한 고민, 의사가 되었을 때의 고민, 의사가 해야 할 책무 등을 직·간접 경험을 한 후에 교육에 개입될 때 의사가 되기 위한 학습자에게도 적합한 우수한 특성이 도출되고 개발되어 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의사 출신이 아닌 의학교육자의 경우에도 의과대학 강의실 및 임상실습 현장을 함께 경험하며 관찰해 보고, 현장 안에서 의과대학이 무엇이고 이곳에서 의사가 되기 위한 우수성을 개발해 나가고 만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나갈 때 의과대학생들에게 보다 유의미한 상담과 조언을 더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 의과대학에서의 교육의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검토해 볼 때, 교육의 성과를 연결 시켜 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적응력을 키워주고 적응을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제시되고 행할 수 있는 환경(학습자의 '우수성' 잠재력의 회복 방안)'이 준비 되어있을 때, 그에 맞는 우수성이 도출되고 의과대학에서의 적응 또한 쉽게 이어질 수 있다. 이때 교육과정이나 내용을 지극히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최소한의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전달할지라도 각 학습자는 자신이 가진 혹은 배양한 자기주도적 능력에 의해 그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완수해 나가는 식이라고 하였다. 이는 우수한 학생들은 추가적인 교육 여부보다 어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정도 우수성을 드러낼 수준의 교육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할 때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가 잘 알고 있고, 이를 실제 잘할 수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개별화된 교육을 지향(학습자의 '우수성'잠재력 회복 방안)할 때 이러한 방법이 우수성을 건드려주고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계가가 될 수 있다. 의과대학에서의 학습자가 우수성을 찾아가고 회복해가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에서 주어지는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습자의 경우, 자신의 가치와 방향을 잃어가는 것 보다는 최소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교육내용과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학습해 나가고, 또한 이수해야 하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 조건으로 여기고, 그 외에는 '자신이 특수적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할 성과로 사전에 세팅을 해놓는 식의 자신만의 독특한 학습 계획(학습자의 '우수성' 잠재력 회복 방안)'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성과을 도달하기 위해 준비 해가는 과정을 통해 의과대학에 맞는 자신만의 우수성을 함양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바라보았다. 의학교육의 전세계적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성과중심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국내 의과대학 학생들도 우수성을 발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어진 기본 혹은 공통 성과를 기본적으로 이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게 일차적이지만, 이후에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최소한의 학습달성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실천해 주는 것이 교수자와 대학의 역할 중 하나일 수 있다. 단순히 규정되고 표준화된 틀에만 학습의 양과 질을 넣으려는 것은 결국 우수성의 발견이 늦어지거나 발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뺏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것의 의미는 그 학생의 학업 수준과 방법을 특정 잣대와 기준으로 인정 해주고 의과대학에서의 수학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의과대학 교육과정 내에서의 주어지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의 교육을 넘어서서 자기가 그 성과의 마무리는 자율적으로 정해볼 수 있으며' '성과를 달성하는 일차적 단계를 넘어서 성과를 갖추고 우수한 특성을 개발하기 위해 스스로가 해야 하는 책임을 키우는 것(학습자의 '우수성' 잠재력 회복 방안)'은 학습자의 일차적인 과제이고 교수자가 지원해 줄 부분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목표 및 진로 방향을 세우고, 자신의 우수성을 찾기 위한 기본 전제'가 '의학 분야의 학습에 대한 준비 여부를 검토(학습자의 '우수성' 잠재력 회복 방안)'하는게 우선적인 과제라는 점을 의과대학 교수들의 인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6)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이해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는 주관적 차이와 개인의 경험, 각 교수가 속해있는 의과대학 환경, 기초 및 임상 전공여부 등 다양한 변인이 있었지만, 개개인들이 우수성, excellence를 이해하고 있는 바를 위해 표현한 요인을 정리해 본 결과이다. 이는 20개 정도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우수성을 정의하거나, 의과대학에서의 우수성, 자신이 이해하는 우수성의 지표 등의 복합적 요인들을 기반으로 검토하는 과정이었다. '우수성'에 대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규정 및 합의를 이룰 수는 없으나 다수가 이해하는 의과대학의 우수성에 대한 정도, 우수성에 포함되어야 할 요인, 우수성을 나타낼 지표나 척도 등을 언급한 것을 종합해 볼때의 의과대학 맥락에서의 우수성의 의미를 더 깊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단, 각 요소들 간의 중복성과 경계 간 불투명으로 인해 복합적 내용으로 개별 요인의 구분은 어렵다는 것이 한계이다. 다만, 본 절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의과대학의 우수성'은 하나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개념으로 단일화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잘한다, 성적이 좋다'등의 동사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종합될 때, '우수하네'라는 가치판단이 가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자신의 진로가 적합한지, 임상 현장에 개인의 특성이 맞는지, 평생학습능력이 있는지, 자신을 관리하고 성찰할 힘이 있는지, 타인과 협력하여 팀웍을 이룰 수 있는지, 독립된 성인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등 단편적 요인으로 구분되는 특징이 아닌 복합적 요인을 알 수 있었다.

"굉장히 브로드하게 대학생에게 요구하는 액설런스와 그다음에 의학도로서 예비 의료인으로서 요구하는 액셀런스가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성인학습자로서의 엑설런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만들어 그 액설런스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의과대학에서는 그냥 이게 학술적 표현은 아니지만 석세스라고 하잖아요. 학습자의 석세스라고 본다면 의과대학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중간에 이제 드랍하지 않거 유급이 없거나 뭔가 중간에 번아웃이 없거나..." -CH교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범주2. 의대생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

‘수월한, 우수한’ 의과대학 학생의 자질을 검토한다는 연구내용에 대해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부정적, 회의적 시선을 비추었다. 이는 아래의 <부록-표 1>와 같이 의과대학 교수들이 인식한 한국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우수한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거나, 부정적의견, 의구심을 표출한 경우를 정리한 자료이다. 면담 중 소수의 내용이나, 의과대학 학습자들이 우수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1단계로써 문제의식을 가지고 물음표를 던지는 단계이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우수한지와 관련하여 의구심에 대한 내용은 개방코딩 결과 총 6개의 코드/라벨을 통해 총 3개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개의 하위범주와 1개의 (상위)범주를 구성하였다.

<부록-표 1> 의과대학 학생들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

범주	하위범주 (1개)	개념(3개)	개념 내용	코드/ 라벨 (6개)
범주2. 의대생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	의과대학생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	3개	• 의사들도 대다수 똑똑하지 않음 • 입시 기준에 잘 통과한 경우로 의대생을 바라봄 • 입시 기준과 우수한 것은 동일하지 않음	6개

본 연구배경에 있어 ‘우수한 학습자’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했고, 대한민국의 입시정책에 있어서는 다수의 자료를 통해 입학 사정된 학생들인데 이들의 우수성이 의과대학에 와서 가려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였다. 다만, 입학 정책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의과대학 입학 현황에 있어 동의하는 바지만, 이들은 ‘누구보다, ~을’ 더 잘하는 ‘잘한다’에 맞는 속성이지 ‘우수한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한다’라는 점에 이해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우리나라 입시정책에 있어 입학의 조건에 맞는 평가 내용을 잘 수행했고, 평가도구에 적합한 대상으로서 비교적 의과대학에서 보고자 하는 요소와 제한된 평가도구 속에서 분류된 경우일 뿐 이들의 입시 결과가 우수할 뿐 이들에 대해 사람 자체가 우수하다고 보는 것에는 기준도 다를 수 있고, 절대적 가치로서 ‘우수함, 수월함, 탁월함’을 이야기할 때와는 다른 맥락일 수 있음을 교정해 나갔다. 의과대학에서 교육하고 지도하면서 느끼는 바로써의 우수성은 학습자를 볼 때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이겨내 나갈 것인가, 이는 결국 의사 되는 예비과정으로서의 훈련의 과정이고 의료환경과의 유사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경험을 밟아갈 것인데 '의사'되는 길에 적합한 지원자인지, 의사로서 잘 살아 나갈 잠재력이 보이는지, 의사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자질을 가졌는지를 보고자 노력했을 때의 특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각의 기반은 의사로 살아가는 데 우수한 자질을 가졌는가, 의사의 역할을 하는 데 우수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 가는 잣대로 '우수성'을 그려야 적합한 의미인 것이지 입학 조건을 충족하여, 입학 조건의 평가도구에 적합한 인재들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어 입학한 대상을 '우수한 대상'으로 보는 데 있어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다. 기존의 의과대학에 들어온 학생들과의 만남과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들을 마주할 때 지나친 학업적인 성취만 강조하거나 학업에 치중한 우수성만 돋보였지 의사로서 필요한 소양에 대해, 의사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갖춰나가는 것에 대해 미숙한 경우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들의 경우 입시성적의 우수함과는 상대적으로 대인관계, 사회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해 능력 등에 대해 현저히 떨어진 결과를 드러낼 때 제한적 틀에서의 공부를 해서 그 부분의 성과만 만들어본 경우였지 인간으로서 성장해야 하는 요소와 과정을 간과한 경우가 많았음을 회고하였다.

"그런 실패의 경험이 또 나를 좀 겸손하게 만들고, 그쪽 분야의 실패지만 결국엔 내 현장에도 의미를 주고 결국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때랑 의대 들어오는 입시체제나 입학수준도 너무 바뀌었어요. 요즘애들 입학성적 보면 결국 이 액셀런트함이 의과대학에 정말 필요한 액설런트함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과학자가 될 애들이 왜 여기 와 있지?..." -BY 교수

입학에 필요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일부 요소이면서도 평가 비중에 근거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학업성취, 지적 능력에만 탁월한 성과를 강조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그쪽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절름발이식 성장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의과대학에 입학이나 의과대학 내의 교육과정 속에서 규정된 입시 조건을 통해 선발되고,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우수한 성과와 성취를 통해 수상을 받거나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해서 우수한 것인가 하는 점이 우수한 요소의 한 지표는 될 수 있지만 우수함의 속성을 검토하는 기준으로는 회의적 시선을 가졌다. 이러한 입시 관문과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의사국가고시 면허를 취득하고 의사가 된 경우를 통해 '의사는 우수하다'라는 명제도 검증될 수 없는 명제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우수하다, 의사들은 똑똑하다'라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제한된 전제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의과대학 학생의 우수성이 무엇이고, 무엇을 우수한 요소로 발견하고 키워줘야 하는지, 우수한 요소를 발굴하도록 도와주고 우수성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범주 또한 다양하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우수성의 본래 의미와 속성으로 검토를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의대에 진학했다는 것이 똑똑하고 우수한 그런 측면보다는 애네들이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 맞게끔 수능 문제를 잘 풀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수능이 이게 대단한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다 강조된 것은 문제를 잘 푸는 방법에 특화된 애들 같아요. 문제를 틀리지 않게 푸는 요령을 잘 지도 받은 것이죠. 또 내신을 잘 쌓기 위해서 고등학교 선택을 잘했고, 스펙을 쌓기 위한 어떤 준비를 잘 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러한 방식으로 의대생들은 의과대학에 들어왔다고 봐요." -HJ 교수

3. '우수한 학습자'를 분류해 나가는 방식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과대학 학습자들이 우수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뒤에 그 다음 단계로 '우수한 학습자'를 검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요인으로 '국내 의과대학 특징, 의과대학에서의 하위권 학습자 특징, 의과대학에서의 일반 학습자들의 특징'을 고려하였다. 이는 우수한 학습자를 검토하기 위한 환경적 맥락과 방해 요인을 고려하여 제외시켜 나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개방코딩 결과 중 '범주3. 국내 의과대학 특징, 범주4. 의과대학에서의 하위권 학습자 특징, 범주5. 의과대학에서의 일반 학습자들의 특징'을 먼저 검토하는 식의 소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면담을 통해 만난 의과대학 교수들은 '자신들이 기억에 남는 제자의 독특했거나 좋은 사례로 알려주고 싶었던 특별했던 경우, 성적으로 나오는 객관적 지표 외에 주관적 지표와 잣대로 개인적으로나 교육자로서의 역할에서 우수한 요인이라고 검토한 것들'을 기반으로 이러한 특성을 보일 때 자신들이 생각하는 우수한 학습자(의과대학생 혹은 전공의)로 정리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우수한 학습자들을 상대적 비교의 요소가 아닌 '역량', '의사상', '졸업성과'에 맞춰 어느 정도 적절한 부분과 요소를 갖춘 대상이 우수함의 속성을 가진 대상이라는 식으로 특정 준거를 활용하여 검토해 나갔다. 연구참여자들은 의학교육을 위해 의과대학 및 수련 현장의 '우수성'에 대해 정의를 규정해 나가고 '누가 우수한 학습자 혹은 수련의'일까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며 의과대학의 내부자로서의 목소리가 녹아져야 한다는 데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부자들이 바라보는 의과대학의 우수성에 대한 통찰이나 검토의 흔적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오히려 그동안 의과대학에서의 관심은 이 집단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했다는 전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속에서 '유급생, 저성과자, 하위권 학생, 경계선(borderline) 학생, 재교육대상자, 국가고시 합격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등에 대한 학업적인 면에서 저성과를 보이거나 학업과 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적응자'에 관련하여 보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 많이 수행되었다는 점을 부연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의과대학생의 우수성을 검토하는 유추 과정 속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의과대학에서의 하위권 학생 대상 그동안 수행된 연구, 교수들의 고민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하위권 혹은 저성취자, 하위성과자,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등의 용어로 학업 혹은 생활에 부적응이나 어려움을 겪어 대학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학생들을 회상해 나갔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주어진 졸업성과를 이루어가는데 무난했던 경우인 소위 '의과대학의 일반적 학습자'라고 여겼다. 이러한 다수의 일반적 학습자 안에서도 의예과까지의 6년 혹은 본과 4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비교과 활동, 동아리 및 대학 내 참여 활동, 연구나 창업 등 주어진 정규 교육과정 외에 에너지를 쏟거나 성과를 낸 경우를 '우수한 학습자'의 경우로 분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분류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비교적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수학하면서 눈에 띄지 않고 특별히 기억 남는 얼굴 혹은 이름이 아니라면 이들이 '보통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전형적인' 의과대학 학생들일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의과대학 교수들의 면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고민하고 회상할 때,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의과대학을 구성하는 학생들을 검토해 나가는 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의과대학 자체의 문화와 특징 속에서 어떠한 학생들이 존재하며, 그중 적응을 잘하고 혹은 뛰어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분류하는 식이었다. 전체 의과대학 학생들에서 저성취자나 적응을 어려워하는 소수 학생을 일차적으로 제외하고, '보통의, 일반적인' 범주에 속하는 다수의 의과대학 학생들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그렇다고 이들과 전형적으로 같지 않은, 이들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소수를 '우수한, 수월한, 탁월한' 의과대학 학생들로 기억해 나갔다. 그 소수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성, 자질, 특징, 성격, 성향 등을 이야기하였다. 이런 식의 분류 방법을 통해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지도했던 의과대학 학생들과 졸업 후 연구, 임상 등의 현장에서 지도했던 우수한 학습자들을 회상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1) 범주3. 국내 의과대학 특징

의과대학을 구성하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교수와 학생이 만들어 온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국내 의과대학 특징을 이해하는 주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과대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의과대학에서 통용되고 권장되는 문화에 익숙한 경우이다. 이들은 새로운 세대의 차이를 이해는 하지만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맞는 과정으로서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경험을 의사가 되는데 필요한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이해했고 연구참여자 또한 그러한 경험을 해온 대상이다. 의과대학에서 느껴지는 타 단과대학 대비 특이한 점들에 대해 연구참여자 중 다수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에 의한 의과대학의 문화에 대한 주된 특징은 아래의 <부록-표 2>와 같이 '범주3. 국내 의과대학 특징'이라는 범주에는 하위범주가 총 3개로 요약이 되며 하위범주를 이루는 개념들은 총 10개의 개념이 정리된 바이다. 이는 관련한 1차 자료 총 18개에서 도출된 바이다. 아래의 <부록-표 2>는 20명 면담자의 면담자료 원자료에서 '국내 의과대학의 특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추출하여 요약한 바이다.

<부록-표 2> 의과대학 교수들이 인식한 국내 의과대학 특징

범주	하위범주 (3개)	개념(10개)	개념 내용	코드/ 라벨 (18개)
범주3. 국내 의과대학 특징	성실함을 강조하는 의과대학 문화	3개	• 성실한 생활의 강조 • 출석의 강조 • 의사의 덕목으로 성실함을 바라봄	5개
	유급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관심	3개	• 의과대학 생활에서의 필수 단어 • 교수 학생 면담에서의 주제 • 생활 관리와 유급과의 연계	6개
	위계질서 강조	4개	• 상하 질서를 따르는 것을 강조	7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좁은 의사 사회의 특징 • 순종적이고 무반항적 학생들이 입학함 • 말을 잘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인식

첫째, '성실함'과 '유급의 우려'를 강조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의과대학 교수가 생각하는 성실함 속에는 '일관되게 지속 해나가야 하는 것, 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순응적·순정적 태도 강조' 등이 포함되었다. 성실함의 강조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특성상 단순히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타 단과대학의 중간·기말고사 외의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아우르는 단위 과목별 평가가 다수 있어 성실함이라는 특성이 깨지게 되면 시험에 미치는 영향, 유급으로의 연결, 의사국가고시 시험에 대한 준비 등에 연속적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성실함이라는 특성을 강조하는데 지나침이 있을 정도였다. 의과대학에 오는 학습자들은 학업우수자들의 집단임으로 매일의 성실한 태도와 규칙적인 양상이 무너진다면 학업 우수성이 높은 집단 속에서 성실함이 깨지는 순간 상대적으로 하위권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저성취자로 분류되는 데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요소로 성실함의 반복을 강조하였다. 또한 성실함은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연속성 외에도 의사가 되어서도 이어지는 인턴·레지던트 과정에서의 수련 생활에도 연결되는 속성임으로 의과대학에서의 '성실함'은 교육이면서 동시에 의사가 되기 위한 훈련의 요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어떻게든 그 많은 것들을 성실함으로 버텨내기만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보상이나 결과가 나오잖아요. 최소한의 성실성이 요구돼요. 성실성은 매우 일관되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어느 시점에 상관없는 것 같고요. 성실함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 자체도 재능 같아요. 노력해가는 노력도 재능이라고 그런 말처럼 일관된 성실성을 가져가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재능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의학과에서는 그 성실함을 강제 당하기 때문에... 학습자들도 그 결과 성실함을 강제로 유지하는 하는 구조에 있게 되기 마련이죠. 아침에 출석도 해야 되고 계속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거꾸로 생각하면 의과대학 문화상 교수인 저희들이 성실함을 체크하는 수단일 수도 있네요. " -KD 교수

'성실함'을 함양시켜 주고 검토할 수 있는 잣대로 의과대학 교육과정 속에서의 '출석'에 대한 검토 여부와 평가 요소로의 비중을 언급하였다. 의과대학에서는 타 단과대학과 달리 전자출석제도를 도입하고 자율적 출석 확인 방식 여부를 넘어서서 '출석'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대한 평가 비중을 '태도점수'의 일환으로 모든 과목에서 지켜나가고 있다.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견에서 '출석점수가 필요한가'에 대한 회의적 접근이 있지만 여전히 출석이라는 매일의 일과 속에서 해야 할 것을 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출석의 의미로 이해하고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출석은 성실함을 보는 하나의 지표로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출석이라는 장치를 평가 비중에 포함하고, 대다수의 과목에서 출석을 평가 요소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실함을 교육하는 것'이 결국에 성실함을 강제적으로 유지하게끔 만들고 있는 장치는 아닌가에 대한 교육적 성찰이 필요한 부분임을 제시하였다. 물론, 출석을 부르는 것은 성실함의 지표 중 하나임과 동시에 의과대학은 '유급'이라는 학사 경고 이상의 제도가 연결된 문화이기 때문에 타 단과대학에서의 학사 경고를 통한 한 학기 지연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 과목들과의 연계성, 학년 중심의 학사일정 구성, 시간과 비용의 문제, 의사 배출에 대한 의사면허 취득과 관련된 연간 횟수 등의 지표와도 연결되는 사안으로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출석'을 강조하는 의과대학만의 문화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의과대학에서는 '순응적, 맹목적 순종, 무비판적' 문화를 강조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성실성을 기르기 위한 구조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은 교육의 효과로 출석을 강조하고 권장하면서 부차적으로 유급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을 아 수 있다. 다만, 성실성 구조 틀에서 '순응적·순종적'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우려와 '맹목적 순종'의 태도 등으로 인격 형성과 교육의 성장 관점에서의 위험 요소를 만드는 문화일 수 있음을 조심스러워하였다. 성실함의 강조가 결국 '순응적·순종적' 태도를 양산하거나 이러한 태도를 의과대학 환경에 적합하다고 보는 일개 교수들의 관점에도 비판적 의견을 더해나갔다. 의과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혹은 추천하게 될 때 주요한 특성과 자질을 '순종적인지, 저항적이지 않은지, 비판적이지 않은지 등'을 주요한 요소로 검토하고 이들을 선발하거나 의과대학에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례를 회고하였다. 다시 말해 의과대학과 의료 현장 속에서 이어지는 '의사 사회'의 상하 복종, 수직 체계 속의 인맥에서 나오는 영향으로 인해 '타당하지 않는 의견과 명령'에도 이유를 묻지 않고 비교적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를 의사로서 적합한 후배로 생각하는 선배 의사들의 문화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하였다. 이는 선배가 제안하고, 교수가 명령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주관이나 주장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게 결국 '이상적인 후배 의사, 의과대학 학생'이라는 관점에 방점을 찍는 경우였다. 더 나아가 '순응적·순종적' 특성이 강한 학습자는 의과대학에 맞는 학습자라고 일반화의 오류를 보이는 의과대학 교수들도 존재함을 회고하였다. 이들의 이유는 결국 기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과대학 분위기가 순응적, 수용적 분위기였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결국 의과대학의 문화이자 의사 사회의 문화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문화의 연속성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기존의 의과대학 문화에 맞고 적합한 인재로 검토하고 있다는 데 배경이 있다. 이로 인해 의과대학 편입생들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타 단과대학 경험을 통해 대학의 문화와 사회 경험을 하고 온 새 집단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로써 '기존의 의과대학 고유의 문화'에 손상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존의 문화가 깨질 것을 우려하는 경우였다. 물론 이러한 보수적이고 제한된 생각 속에서 의과대학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반하는 교수자도 다수 있었다. 이러한 보수세력에 반하여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의과대학에 편입해 온 학생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우수한 학습자로서의 자질'을 더 가진 경우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목적의식, 내적 동기, 자기관리, 자의에 의한 진로 선택 등'의 힘이 결국 기존의 의과대학에 진학한 경우보다 우수한 학습자로 성장하고 우수한 학습자의 특성과 자질을 지닌 것으로 분류해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검토하였다.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말 잘 듣고 순종적인 학생들이 의과대학생 의과대학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을 때 학생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하고 있으니까요. 과거에 의전원 있을 때 의전원 학생들이 미움을 받았거든요. 그들을 의과대학에서 싫어하는 이유는 '반항이나 저항 정신이 비교적 높기때문에 기존 의과대학의 분위기 흐릴까 봐' 였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그 당시 그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드네요..." -CS 교수

(2) 범주4. 의과대학에서의 하위권 학습자 특징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의과대학에서의 유급, 저성취자, 부적응자 등을 통칭하여 하위권 학습자 등으로 불렸다. 이들은 우수한 입학성적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주요 원인인 학업 관련 부진, 의과대학 자체에 대한 어려움, 개인의 정신문제, 사적인 문제 등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의과대학 학습자의 우수한 대상을 검토하기 전 일반학습자와 하위권 학습자를 검토하였는데, 일반학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집단인 하위권에 대한 인식을 검토해 볼 수 있었다. 의과대학에서의 하위권 학습자들의 주된 특징은 아래의 <부록-표 3>와 같이 '범주4. 의과대학에서의 하위권 학습자 특징'이라는 범주를 이루는 내용과 같다. 범주4.의 경우 16개의 코드/라벨로부터 총 8개의 개념이 생성되었으며, 상위단계로써 총 2개의 하위범주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학업 관련 낮은 성과와 생활 적응이라는 관계상 중복되는 요인이 있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는 20명 면담자의 면담자료 원자료서 주요 내용을 추출하여 요약한 바이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부록-표 3> 의과대학 교수들이 인식한 의과대학에서의 하위권 학습자 특징

범주	하위범주 (2개)	개념 (8개)	개념 내용	코드/라벨 (16개)
범주4. 의과대학에서의 하위권 학습자 특징	학업 관련 낮은 성과	4개	• 자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과도하게 집중함 • 편중된 완벽주의 •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자신을 변형하기 어려워함 • 편법이나 요령을 부려서 하려고 함	10개
	의과대학 생활에 적응이 어려움	4개	• 정신적 문제 많음 • 정신적 문제가 자신에게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정신 문제, 중독 등에서 대처 방법을 모름 • 상처를 잘 받는 등 감정 회복에 어려워함	6개

첫째, 이유를 막론하고 학업 관련 저성과를 보이는 경우이다.

의과대학에서는 학업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동의하는 바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갱신되고 새롭게 추가되는 전문지식의 증가로 인해 학습해야 할 절대적인 양이 타 단과대학의 전공수업에 있어 많은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이러한 양을 기준으로 볼 때 의과대학에서 필요한 다양한 소양 가운데 '학업'면을 보는 게 의과대학 교수자들이 면담이나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 일차적인 조건으로 생각하였다. 의과대학은 여느 의과대학을 막론하고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유급을 당하거나 저성취자로 누적되어 의사국가고시를 못 치루게 되는 상태 혹은 불합격되는 상태를 방지해야 하는 특징이 있어 'end point'를 의학교육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 졸업에 방점을 찍는 대학과 교수들의 사고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의사 양성 과정에서의 최종적인 도착점은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지만 일차적인 과업으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객관적 지표와 동시에 의사가 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수학하는 과정으로써 교육과정에서 유의미한 경험을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에 교수자들은 '우수한 학습자'를 검토하기 위한 일차 작업으로써 자신이 경험하고 지도한 학습자 그룹에서 '저성취자, 부적응자'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검토하는데 일차 거름망 역할을 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특히, 이들을 검토할 때 기준은 기초의학 교육과정 단계에 있는 임상 전단계의 교육과정에서는 지필고사가 학업성취의 지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도 기초의학 과목으로 과목평가, 기초의학종합평가 등에서 저성취 수준을 보이거나 실제 유급으로 이어져 학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주관심 대상 학생으로 여겨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들을 지칭할 때 '저성취자, 하위권 학생, 유급생, 재교육생'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저성취자가 누적되어 유급이 되고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었다. 첫째는 전형적인 저성취자들의 특징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이들은 단순히 공부를 안 했거나, 학습 방법을 다르게 사용하거나, 의과대학에 맞는 학습전략이 부족하거나, 의과대학 학습 내용이 자신의 선행지식과 괴리 및 이질성, 의과대학 교육 내용과 학습환경과의 적성 문제 등 학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요소들이 주를 이루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는 특수한 역량이 있거나 의사가 되기 위한 자질보다는 다른 분야 쪽의 진로에 적합한 자질, 힘이 있을 경우 학습의 방향과 방법 등의 문제가 적성 및 자질이 의학도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를 강조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학습 저조 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번 아웃으로 이어지고 유급의 누적으로 의과대학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고유한 관심사나 흥미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다른 것을 놓칠 정도로 소위 '꽂히는,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정한 곳이나 자신이 집중되는 곳 등 의학 분야 외 다른 것에 에너지를 쓰기에도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업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돌리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였다.

"이들을 '성적 배려학생'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 학생들이 학습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고, 대부분 자기관리 능력이 떨어진 경우잖아요. 자기 시간 관리,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결국 선택과 집중이 안 된 경우이죠. 저는 이를 '시프트 능력'이라고 하는데, 놀다가도 공부해야 되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이러한 전환을 빨리 해야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다른 애들에 비해 안 된 학생들이 성적이 안 나오고 누적되면 fail하게 되고, 이게 누적된 경험이 또 연속되는 것 같아요." -JE 교수

둘째, 의과대학 및 의료환경이라는 곳에서의 생활 적응이 어려운 경우였다.

이들은 환경 적응의 실패로 인해 저성취자, 유급으로 누적되는 경우였다.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학업적 측면의 지원과 방향의 전환이 요구되는 경우와는 다른 경우였다. 혹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의 다른 곳에 에너지가 많거나 의사로서의 자질이 아닌 다른 직업에 맞는 자질을 갖춘 경우였다. 이들의 경우 의과대학에서의 생활을 적응 해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 행여 학업은 이어가더라도 생활에 누적된 고통을 토로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거나, 이어가던 학업마저 적응의 어려움으로 학업 또한 저성취로 이어지는 식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였다. 이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열악함으로 가족이나 주변에서의 지지, 재정적 지원,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가정환경 및 개인사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였다. 그 결과 이차적으로 정신적 문제와 연결되거나 외부의 문제로 인해 학생으로서 학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절대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였다. 혹은 물리적인 정신 문제로 인해 학습자 스스로가 지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있던 정신 질환(우울, 정신 분열,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거나, 자신과 지도교수, 주변도 함께 알고 있지만 누적되고 있는 정신질환과 신체적 질환 등으로 연결되어 특정 질환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과 여력이 어려운 경우로 구분되었다. 또한 정신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성격 특성상 '상처를 잘 받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용기가 부족한 경우' 등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신적으로 견뎌내는 힘이 부족한 경우 의과대학 생활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결국 이러한 어려움들은 의과대학 교수자가 개입되어야 하고, 대학에서 지원해야 하는 식의 관리 대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학업 저하, 생활 부적응 등의 이유로 기억에 남거나 걱정이 되었던 경우로 의과대학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 군으로 회상하였다. 이러한 대상들을 일차적으로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 학생들을 구분하였다. 전체 의과대학 학생 중에서 '문제를 일으켰거나, 학업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거나,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겪어 학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어렵거나, 개인의 특성과 자질에서 소극적 성향,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 지적 및 조언받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훈계나 부정적 피드백에 상처를 잘 받는 대상'들은 의과대학 생활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로 내용을 분류하였다.

"그 친구가 두 번인가 유급을 한 상황인데 또 유급을 할 상황이었어요. 그 학생이 전반적인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 애가 유급을 당하고 아래 학년들 사이에서도 또 유급을 또 당하니까 약간 인생이 창피하기도 한거죠. 학습에 대해 말하기도 전에 이 학생 보니 우울 증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우울한지도 몰라요. 스스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물론 상황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 것은 있겠지만 그 정도로 자기가 뭐를 잘 못하는지, 자기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원래 좋은 의사는 글을 읽고 그것을 이미지로 상상해 내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런 묘사, 표현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KS 교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3) 범주 5. 의과대학 학생의 일반적 특징

의과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개방코딩 결과 아래의 <부록-표 4>와 같이 총 6가지 범주로 나눠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수의 의과대학 교수를 통해 나온 공통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관련한 내용에 대해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코드/라벨은 총 183개였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 내용끼리 재배치하여 '개념'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개념은 총 56개이며 이를 각 내용에 맞게 추상적 개념의 상위개념으로 정리하여 총 6개의 하위범주로 구성하였다. 이를 정리한 바가 '범주5. 의과대학에서의 일반학습자들의 특징'으로 상위범주가 정리되었다. 개방코딩 과정에서 연구자가 원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후 코드/라벨로 분류했을시, 유사한 내용, 중복내용 등은 일부 삭제를 진행한 후 코드/라벨 개수 현황을 기입하였다. 면담을 통해 살펴본 의과대학교수들의 일반 학습자들에 대한 인식을 '범주 5'의 하위범주 6개로 내용을 분류하여 개념과 관련되는 코드/라벨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석은 면담 내용을 인용하여 본문에 기재하였다.

<부록-표 4> 의과대학 교수들이 인식한 의과대학에서의 일반 학습자들의 특징

범주	하위 범주 (6개)	개념 (56개)	개념 내용	1차 분류 (183개)
범주5. 의과대학에서의 일반학습자들의 특징	객관적으로 높은 학업 성과를 이룬 경우	10개	• 학습 그 자체로 접근보다는 계산적 접근 • 게임하듯 전략 수립 • 학업 내용을 쳐내기 식의 접근 • 효율 추구 • 피상적 학습자 • 머리 회전 • 전략 • 요령 • 빠르게 과업 처리 • 성인학습자보다 청소년기 학습자	109개
	의사로서 적성 검토 없이 입학	7개	• 의사 직업 자체의 안정감으로 입학 • 수능성적이 아까워서 • 의과대학 입학이 자기의 보상체제 •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부모나 외부의 추천으로 들어옴 • 책임회피, 동기부여 적음 • 전공 적합성 검토 없이 의사로의 삶 고	16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민 부족 • 어떤 의사로 살지에 대한 고민이 적음	
휴브리스가 강함	12개	• 실패 시 자괴감, 회피 • 실패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 • 과거의 경험에만 사로잡힘 • 새로운 도전에 회의적, 소극적 반응 • 한번 떨어지면 올리기 어려워함 • 멘탈이 깨짐 • 자신을 과거의 모습에 제한, 가둬버림 • 새로운 것 하는 데 시작이 오래걸림 •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포기, 회피 • 휴브리스와 완벽주의가 많나 책임감과 성취 속에서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깨짐 • '나는 처음이고, 밑바닥 모르는 게 당연하고, 배워야 하는 사람이다' 등의 인식 부족	21개
심리적 상태, 불안, 압박, 완벽주의 등 정신적 문제로 고통	9개	• 유급, 완벽주의 고통 • 완벽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현재 간 충돌 • 우울, 불안 • 자책, 반성 • 실패의 누적으로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짐 • 의과대학 교육문화와 의과대학생들의 특성 연결 지음 • 도움 요청, 지원받기 등에 부족함 • 스스로 처리하려다 번 아웃, 슬럼프, 우울증 • 회복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음	11개
사회경제적 환경 조건에 대한 공통적	9개	•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원받는 환경(분위기, 경제적) • 그동안 대접 받은 것처럼 고객, 소비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대접이나 서비스를 받는 입장으로 생각	16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특징		• 자신은 학업만 할 뿐, 나머지는 가족이나 주변에서 삶에 대한 문제를 대신 처리 및 해결해주는 경향 • 타인의 힘에 의존한 정보 탐색 • 타인에게 빌린 문제해결, 의존적 • 책임전가 • 소극적인 문제해결의 힘 • 정해주는 틀, 가이드대로만 하려고 함(주체적이지 않음) • 가이드대로 포맷대로 하는 것을 편하게 여김	
인간의 과업에 있어 성장해야 하는 성인학습자로의 단계로 미전이	9개	•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 성장에 미성숙 • 인간의 발달과업, 성장통 직면에 소극적 • 인간의 삶 및 인간에 관심이 적고 교과지식에 한정한 이해에 익숙 • 전체적 삶에서의 의사로서의 부분임에도 부분에만 집중, 전체적으로 보지 못함 • 사람과 어우러지는 대인관계 부족 • 문제해결 및 의사소통 능력 부족(주어진 문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 • 협력, 배려 능력 부족 • 갈등 해결 능력 부족 • 사람이 놓인 상황 맥락에서의 이해 부족	10개

첫째, 객관적으로 높은 학업성과를 이룬 경우이다.

의과대학의 입시 제도의 경로가 의예과 입학, 의과대학 편입,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데 있어 공통적인 특성은 '학업 역량'이 높은 학습자를 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업 우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향과 특성이 있고 이러한 입시제도에 맞추기 위해 후천적으로 노력한 자질을 검토해 볼 때 학업을 잘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것에 집중해 온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 특성 중 연구 참여자들 중 다수가 동의하는 부분이었다. 무엇보다 공부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의과대학의 학업양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학업 내용을 감당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과대학 학생의 필수 조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임으로 학업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은 적합한 평가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의 특성상 '평생학습을 해 나아가야 하는 직업의 특성'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가야 하는 것에 익숙하고 부담이 적은 성향'이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었다. 다만 학업우수 능력의 필요 이상을 갖추려는 경우가 있으며, 학업 능력 내에서도 학업 흥미나 관심 분야가 특정 부분에만 한정하는 경우가 있어 의과대학에서 일반적으로는 '학업의 깊이와는 달리 다량의 학업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의과대학 학습을 따라가는 데에는 충분한 조건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다수가 중복되게 대답한 의과대학 학생의 특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업 우수와 연관된 특성은 총 109개의 '코드/라벨'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상위 개념인 10개의 '개념'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는 개념과 하위 '코드/라벨'이 잘 연결되었는지를 상호 검토할 수 있게 하위 단계의 내용을 상위 개념의 요소랑 매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지를 상호 검토하기 위해 하위단계와 상위단계의 요소를 연결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저는 의사의 가장 큰 죄악은 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업 성과나 성적이 중요하다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 기억에 남는 이런 학생들을 되돌아보면 몇 명 손에 꼽히지는 않아요." -KM 교수

예를 들면 수학능력시험에서 고득점, MEET 시험에서의 고득점 등 입학 조건에서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선발 기준에 적합한 요소를 갖춘 대상자들이 다수라는 점이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비중 상 의예과로 들어오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이들을 검토해 보면 의과대학 입시에서 요구하는 바를 최대한 맞춰서 평가 기준에 맞는 완벽한 성과를 보인 경우이다. 수능성적, 학생부성적 등이 높다는 것은 객관적 수치가 설명하는 바이며, 이러한 학업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 '암기력, 논리적 사고, 방대한 양의 학습양에 대한 훈련'이 되어있는 경우였다. 이들은 '특정 평가 기준에 맞는 성과를 맞추기 위해 특화된 자신들의 습관'을 의과대학에 와서도 이어지는 성향을 보였다. 특히 평가 기준의 틀에 가둬지는 학습을 하기 위한 준비에 민감하고 '평가 기준'과 각 평가 요소의 성적 반영 비율에 민감할 정도로 신경 쓰는 특성을 보였다. 과목의 편중을 떠나서 모든 과목에서 포함되는 평가 기준과 과제, 반영 비율에 교수들을 따라다니며 기존에 제공된 정보 외에도 강하게 문의하는 경우가 있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성적이 잘 나가는 학생들은 주어진 테스크를 '그 과에서 요구하는 것, 임상실습에서 평가라고 생각하는 것에 맞춰서 잘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의전원이나 편입하는 학생일수록 실습 평가 기준에 대한 거를 세세하게 물어요. 무슨 임상실습에서 사용하는 평가도구나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지 등을 자세히 묻는 것이죠. 근데 지필고사는 그렇게 캐묻지 않죠.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 족보에서 50% 이상 유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더 묻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 PH 교수

특히 과목 중에서는 이과 출신의 학생들이 입학하다 보니 수학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성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과학고 출신이 많았으며 혼자서 자신의 학습 내용을 수학하고 파고들며 사람과의 소통보다는 자신이 학업내용과 소통하면 문제를 처리 해나가는 것에 익숙한 경우가 있었다. 여럿이 공부를 나눠서 하거나 팀을 이뤄서 과제를 하기보다는 '혼자 하는 식의 학습을 선호하였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한 학습이 익숙하고 적성이 맞는 쪽으로 자신의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자신이 혼자 처리하는 것에 익숙하고 편리한 것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타인들과의 학습은 '자신이 팀에 피해를 주는 부분과 기여하지 못할 것에 대해 자신 없어 하고 타인이 자신의 학업 수준을 하향해서 평가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도 하였다. 이들은 오히려 '의사로서의 역할보다 연구자 혹은 과학자로서의 역량이 뛰어난 경우와 적성이 맞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학생들 중에 혼자 있기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 특성이 그냥 단체로 뭐 하는 거 싫어하고 깔끔하게 나 혼자 내가 책임지고 내가 혼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요즘은 오히려 IT 사업 가서 진출하기도 하고, 집에서 혼자 뭔가 해서 했으면 잘했을 텐데요. 우리 의사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병원 진료라는 게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애들이 분반 학습, 조별 학습이 많다 보니까 말이 많고 그래요. 왜 TBL이나 이런 것 하냐고 항의도 하고요. 오히려 강의식으로 해달라 식의 요청이 오죠. 또 이런 강의할 바면 온라인으로 동영상 자료만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기네 딴에는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타인들과 같이 하는 것과 팀웍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그러는 말인거죠. 의사가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없거든요. 그걸 알아야죠." -JS 교수

또한 이공계열 학습자 중 학습 방향에 있어 '호기심을 가지고 과도하게 깊게 들어가 탐구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해가 되고 호기심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진 뒤 학습이 가능한 성향으로 깊이 있는 공부는 이루어지나 의과대학에서 요구하는 암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기와 다량의 학습 양을 제한된 시간 안에 소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들도 많이 발견되었다. 이들을 바라볼 과학자로서의 역량과 성향이 과도하게 쏠려있는데 의과대학에 와서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키워가는 데에는 적성과 흥미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같아서 아쉬움이 드는 경우가 면담을 통해 드러나곤 하였다. 혹은 '빠르게 처리 해가며 문제를 풀어가는 식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방법이 익숙하여 수학 문제 풀 듯 학습하는 것에 익숙한 학습자가 많다고 하였다. 이들은 '의과대학의 지식 중 다량의 분야에서의 지식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응용해 가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의과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업 성향을 막론하고 이공계열 학생임에도 이들은 영어 실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었다. 다만 영어 외에는 인문학적 소양 부족했는데 이들이 문과 계열의 학습을 받아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특히 '윤리, 사회, 역사 등의 인간사에 대한 영역에는 문외한인 경우나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자체가 적은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학생들 중에 과학고 교육과정을 거치고 온 친구들도 있고 일반고에서 의대 온 경우도 있긴 한데. 최근에 mst 검사 후 상담을 했던 친구들을 보면 본인이 되게 공대 베이스나 이과형에 준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있어요. 그 분야의 전공적합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였어요. 창의성이 뛰어나거나 혹은 생각을 깊게 하는 공부들에 익숙한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를 탐구하면서 하는 공부형을 가진 친구들인거죠.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의 지식을 한 번에 습득하고 다시 아웃풋을 내는 이런 전형적인 의대식의 학습 형태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JY 교수

의과대학에서 하위권으로 전락하지 않고 비교적 의과대학에서 안정적인 혹은 높은 학업 성과를 내는 경우는 개인의 흥미 영역을 막론하고 '성실하다는 점이고,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능력이 높은 경우'였다. 제한된 시간 안에 방대한 학업의 양을 소화하고 제시된 평가 기준에 맞춰 성과를 보이는 것에 특화된 경우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험보는 기술이 좋으며, 제한된 시간에 해당하는 양을 소화해서 평가 결과에 맞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략적 계산을 통한 경제 논리에 입각한 학습에 대한 접근과 시험을 위한 학습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학업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평가를 받기에 잘 준비된 학습자였던 것이다. 의과대학에 입학해서도 이러한 특성들은 의과대학 교육과정 내의 다수의 지필고사를 통한 학습성과를 검토하는 특징으로 인해 지필고사 위주의 학습관과 암기 위주의 습관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그게 나쁜 것이냐' 저는 그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가 최소 투입의 최대 이익이에요. 경제논리에 의해서요. 그러면 이를 이루기 위한 전략이 그렇게 학습에도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 YS 교수

대다수의 의과대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를 정리 해보면, 내용에 대한 관계의 이해나 복합적인 수준의 지식의 구조를 맞춰가기보다는 '시험 준비를 위한 암기가 일 순위'이고 '정답을 맞춰가고 정답이 아닌 것을 지워가는 데 익숙한' 특징을 보였다. 이들은 기존에 쌓아온 암기 능력과 암기 습관을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암기에도 능숙한 모습을 보였으며, 문제를 잘 풀고 정답을 맞춰가는 학습자가 공부를 '잘하는 학습자'로서의 인식이 강하게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과대학 교수자들이 볼 때 의과대학 학습자들은 암기력 시험에 필요한 요인들의 단련을 통해 오랜 시간 연습 된 학습자들이며, 의과대학의 학습 양의 방대함으로 인해 '족보문화'의 활용을 적절히 하는 데 불편함 없이 받아들이는 학습성향이라고 판단하였다. 족보문화는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시험문제 빈도와 기출문제들에 기반한 정리 및 타인들이 함께 정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이 정리해 준 결과, 요약된 자료' 등이 비교적 정제된 시험목적 위주의 학습내용 및 방향이라는 것에 적합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였다. 족보나 수업에서 진행된 피피티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암기해 나갔고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의 학습에 집중하여 이러한 학습 방향과 흐름에 익숙한 학습자임을 알 수 있었다.

"빨리 막 해서, 시험 볼 때도 족보봐가지고 금방 해결 해버리고, 자기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문제집만 풀어봐가지고 시험 보는 애들이 다수에요. 쉽게 뭔가 하려고 하고 묻어가려고 하고, 더 좋은 족보를 확보했어요. 혹은 이런 족보 확보를 못해하기고 시험을 못봤어요... 이런식이죠" -JS 교수

의과대학의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법의 다양성을 추구하여 환경을 개선해 보는 노력과 기초의학(임상 전단계)외에도 임상실습을 하는 임상의학 교육과정 단계에서의 차이 여부를 검토해보는 등의 노력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과 교수의 변화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습자들은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에 따른 족보화 경향, 족보 위주의 학습내용 공유 및 학습현상'으로 이뤄지는 것을 관찰했다고 하였다. 이들은 '주어진 틀대로 해오는 것을 선호'하며 '새로운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개인의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는 경우나 기존의 과목평가와 다른 평가 방법을 사용하거나 교수학습 방법이 변경되어 새로운 정보에 맞춰 평가 기준의 선례가 없다는 것에 불안해하는' 특성을 보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애네들은 자신과 같은 MD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요. 또 MD 교수님 중에서도 또 지네가 컨트롤 해 가는 게 계속 있고 필터링이 강해요. 예를 들어, 성적 잘 주는 과 안 주는 과, 끊임없이 그런 계산을 하고 살아요. 이게 의대생들이에요." - YS 교수

이들은 '해야 하는 것에는 과도하게 집중하고 투입되는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경향은 있으나 '자신이 해야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외부나 타인의 관심이나 방향에는 소극적인 것'을 보였다. 결국 새로운 변화와 제도의 전환이 이루어져도 이러한 학습 성향을 가진 의과대학 학습자들의 특성과 자질은 변하지 않고 고유하게 유지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당장에 놓인 학습 결과에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직면해 있는 단기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전략적 학습 방향은 유의미한 방향의 생산전 접근'이었으나 학습 성향은 '무조건적 암기, 단기적 성과에 탁월, 타인에 의한 정리된 자료로 성적을 만들어가는 효율성, 자신만의 고유한 학습방법에 대한 고찰과 개선보다는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빠르게 적응해서 이러한 학습 문화를 답습하고 유지해 가는 것'에 익숙한 학습자들로 검토되었다. 결국 '학습자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자율성과 선택의 범위, 변화에 적응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으며 '익숙한 것,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에 준하는 양식에서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고 답습하는 것대로 학습하는 것을 지향'하는 성향을 보였다.

"주로 1~2학년 때는 학업성적 특히 지필고사로 평가를 하고 더군다나 오지선다형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사실 심화학습을 하는 학습자가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식의 문제들을 많이 접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을 머릿속에 갖고 있고 그거를 당분간이라도 기억을 능력이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PH 교수

결국 이러한 준비 자세로 의과대학에는 적합하고 적절한 입학요건을 갖추고 입시요강에 맞는 전형을 충족한 경우였지만 의사가 되는 것에 적합한가는 또 다른 문제였던 점이다. 궁극적으로 의과대학 진입이 목적이었던 경우가 다수이며 이들 중 소수를 제외하고는 의사로서 자신의 특성과 자질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기보다는 '의과대학 입시요강에 맞춰 자신의 특성과 자질을 만들어 오거나 향상해 온 집단'의 특성을 보였다. 연구나 봉사활동, 새로운 분야에의 활동 이력 등은 그 자체의 성과는 우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의과대학 입시를 위한 조건으로써의 준비 작업이었을 뿐 그들이 자신이 의사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개발해 가는 데 있어 필요한 요소로 '연구, 임상 관련 경험 참여, 봉사활동' 등 사회에 포함되어 활동하는 것들에 순수한 동기부여보다는 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과대학 입시를 위한 요소로서 준비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결국 '직면해 있고 직시한 문제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최소 시간 최대 효과를 위한 경제 논리에 맞는 학습 방향을 계획하고 진입하는 것'에는 탁월하나 본질적인 문제나 그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에는 부족한 특성을 보였다. 당장 주어진 과업, 성과에만 집중하는 성향과 처리하고 넘어간다는 식의 과업의 연속 중 하나로만 학습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일반적 특징으로 다수의 학습자를 통해 발견되었다. 마치 이들은 게임 전략을 짜고 게임에서의 승부를 위한 과업을 달성해 내는 식의 '처리하기 식'의 방향으로 가중치 위주의 평가 기준에 맞는 과목 우선순위, 과목 내에서도 가중치 있는 평가 항목 위주로 학습을 해가는 식의 전략적 학습 성향을 보였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에서도 pass를 위한 경계선 직전 수준으로서 최소한의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하려는 성향이 강했으며, 성적 반영 비율에 따라 교육의 효과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였다. 가령 비윤리적인 것임에도 출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가 비중에 따라 반영 비율까지만 출석하고 나머지는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출석 비율을 계산해서 사전에 결석해야 하는 횟수에 대해 자신의 권리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계산적으로 평가 기준을 활용하다 보니 출결 반영을 하려는 평가의 본질 속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본래의 학습효과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입학까지의 그들의 성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써 학습이라는 과정을 과정 자체로서 이해하고 성장해 나가는 측면보다는 교육을 일종의 과업을 처리해 가는 업무 중의 일부로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에만 한정하여 평가를 위한 학습에 익숙한 학습자들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효율성 중심의 학습 성향은 성적을 부여하는 과목의 학습만 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자신이 의사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평가되는 부분에 유리한 과목과 내용 위주의 수업에만 집중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계산된 시간과 에너지의 투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들 중에서도 의사출신의 선배 교수들의 수업, 성적 비중이 큰 수업, 국가고시에 나오는 과목, 인턴 및 전공의 수련에 반영되는 교육 내용 등에 따라 필요에 의한 학습에 집중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는 '부딪혀보려는 성향보다는 이것이 자신에게 있어 유익한지 여부와 문제를 해결할 양인지의 여부를 머리로 미리 재보려는 특성'이 강하며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해낼 수 있는 것, 성취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에만 부딪히려는 성향과 익숙하지 않거나 실패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 새로운 것 등에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도전하거나 개입하려는 성향을 보였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서도 성적, 점수를 후하게 주는 교수들의 수업에 집중하여 성적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을 얻어내려는 것을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식의 학습 참여 성향을 보였다. 결국 경제 논리에 입각하고 계산에 의한 학습에 익숙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다수는 자신들이 의과대학 입학을 위해 준비해 온 학습자로서의 성향을 두드리지게 보이고 있었다. 거꾸로 비교과영역, 의사가 아닌 교수자, 국가고시에 들어가는 비중이 적거나 안 들어가는 경우, 향후 수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교과나 숨은 교육과정 등의 참여는 소극적이거나 최소한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려는 성향을 강하게 보였다. 또한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위한 것이나 자신의 성적 반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 참여나 성실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이 주된 특징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의과대학 학생들의 다수는 총체적 관점에서 장기적 교육효과로서 의사에게 필요한 것을 함양하려는 노력보다는 '현재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집중하고자 하고 성과가 빠르게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는 성향 속에서 '머리 회전, 전략, 요령을 피움으로써 빠르게 과업을 처리하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피상적 학습자의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었다. 지식을 얻는다는 과정 속에서 획득하는 학습 자체의 본래적 만족인 '성취감'보다는 성적을 얻는다는 것에만 한정되는 피상적 학습을 하고 있는 경우였으며, 이로 인해 지식 습득 자체의 본성인 배워가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의 회복보다는 자신이 성적으로 성취 해오던 것에 대한 경험이 단절되자 성취감을 얻을 기회가 의과대학에 와서는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여전히 성적을 중심으로 학습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질보다는 중등교육과정에서 후기 청소년으로서 학습에 대한 특성'이 드러나는 요인들이 더 돋보였다. 의과대학 특성 중 하나인 '학업 능력'을 표현하는 데 있어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업을 바라보고 학업 우수성을 도출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일반적 특성이 비교적 균질성 있는 요소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의사로서의 적성을 검토하지 않고 의과대학 입학에 집중한 경우가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연구참여자 중 다수가 중복되게 대답한 의과대학 학생의 특성 중 '의사로서의 적성 검토 없이, 비교적 동기도 적고, 목적의식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은 총 16개의 내용들이 '코드/라벨'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상위 단계인 '개념'으로 총 7개가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의 기술된 사항과 같으며, 의사로서의 목적의식, 적성검사 등의 노력 없는 일반 학생들의 특성에 대해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16개의 '코드/라벨'의 내용이 개념의 내용과 연결되는지 '코드/라벨-개념' 간 연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과대학 입학이 목적으로 보일 정도로 의과대학에서 요구하는 평가 기준, 입시요강에는 특화된 우수성을 발현하였지만 정작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특화된 우수성을 발현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성취를 보이는 경우는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의과대학 교육의 특성과 자신이 맞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의사가 되는데 필요한 소양이나 역량을 개발하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특성에 잘 맞지 않거나 불편한 경우가 있고, 평가 결과 자체는 하위권이 아니어도 의과대학의 경험이 학습으로서 유의미하거나 행복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의과대학 자체의 입학에는 적합한 요소를 갖춘 학습자이나 의사로서 자질이 맞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국내 입시제도의 특성상 의예과 입학을 보며 수능성적과 학생부성적으로 의과대학 입시의 관문을 통과한다. 입학 시 보는 면접이나 비교과 영역이 있긴 하나 비중이 작기때문에 의과대학 입시에 맞는 지식, 태도 면에서의 비중에는 탁월한 성과를 보였으나 이들을 면담 및 지도해보면 의과대학을 오기 위한 준비에 '성적'만을 준비해서 의과대학에 입학했다는 점이었다. 의과대학에 필요한 조건은 맞으나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자 의사 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학습의 측면에서는 필요충분조건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하는 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수능이나 학생부 성적이 높은 경우 국내 입시정책에 따라 이과 계열의 입시 점수가 높은 수준으로 의과대학 입학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입시성적이 아까워서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적성보다는 입학을 먼저 한 뒤에 의과대학 교육을 통해 적성을 찾아가거나 만들어가고 의사가 되기 위한 면허 취득을 할 정도의 수준이면 비교적 적합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자신의 적성을 검토하거나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이 노력한 결과로 만들어 놓은 입시성적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만한 의과대학에 진학하였고, 의사되는 과정이라는 결정된 진로로 인해 안정감을 가지고 성적 우수자로서 일종의 특권을 누리는 식의 의과대학 입학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의사가 되기 위한 적성 탐색, 의사가 되기 위한 소양 및 자질, 의사가 하는 역할에 대한 검토보다는 '의과대학'이 하나의 보상 체계로 자신이 중등교육까지 이룬 노력에 대한 성과이자 보상으로서 의과대학 진학을 선물 받은 것처럼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입학 동기로 인해 의과대학에서 성적은 양호할지 몰라도 자신이 가야 할 진로에 대해 안정적인 현실 뒤에 불안정한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의사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던 것이다. 결국 의사가 되기 위한 소명의식, 사명감 등의 고차원적인 목적의식의 탐구나 검토보다는 의과대학에 진학 한 두 더 이상 자신의 에너지와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력이 나오지 않는 점에 대해서 회의감을 들어했다. 그 중 하나는 자신이 만들어놓은 학업 성과라는 노력의 산물 외에 의과대학 진학은 선택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 아닌 보상의 개념으로 국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입시생 입장에서는 이과 출신의 학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의 일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로를 선택한다는 개념보다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서의 의과대학 입학을 받아들이는 식이었다. 또한 의과대학에 들어갈만한 성적을 만들고 입시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다른 학과의 진학이나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에 비효율적, 비생산적이라는 식의 타인의 피드백과 시선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부모나 교사의 추천으로 의과대학을 선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과대학에서의 동기부여가 비교적 적게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전공 적합성을 검토하지 않고, 타인의 권유와 추천, 입시성적의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다 보니 정작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의과대학에서의 학습과 경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업'으로만 여기고 졸업해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어떠한 의사로서의 역할과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성과 목적의식을 찾는데 어려움을 갖는 경우도 일반학생들에게서 보이는 주요한 특성 중 하나였다.

"저는 빨리 턴을 해서 다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학생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아니면은 어떤 의지가 부족해서이든. 그 학생이 만약에 다른 파트를 가면 또 빛을 바라는 분야가 분명히 있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의과대학이라는 데 안에 탁 넣어놓고 애들이 계속 거기 막 맞춰서 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을 때 학부모 면담도 하고 빨리 턴을 하는 게 좋다. 학생의 인생을 생각하면 빨리 길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LK 교수

셋째, 의과대학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지닌 심리적 특성인 '휴브리스'가 강한 점이다.

연구참여자 중 다수가 중복되게 대답한 의과대학 학생의 특성 중 '심리적 특성으로 휴브리스가 강한 경우'를 대표적으로 표시하면서 심리적 불안, 교만,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 대한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의 내용은 총 21개의 내용들이 '코드/라벨'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상위 단계인 '개념'으로 총 12개가 정리되었다. 일반학습자의 특징 중 하나로 이 범주에서는 의과대학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과거의 자신의 우수성에만 사로잡히고, 성공 경험에만 젖어 발전 가능성이 적거나 새로운 시도에 부족한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 극복 방법 등에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21개의 '코드/라벨' 내용이 개념의 내용과 연결되는지 '코드/라벨-개념' 간 연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과대학은 시험도 많고, 국가고시 같은 큰 시험 혹은 실기에서 떨어졌을 때 애들이 제일 그게 타격이 클 텐데... 실패 안 해본 애들이어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누적이 되면 힘들 거고, 일반과 애들보다도 실패를 진짜 안 해봐서 역치가 의외로 너무 약한 애들인데 한 번 떨어져버리면 못 올라온다는 게 공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못 올리더라고요. 멘탈이 그냥 깨져버리는 애들도 많고...” *-JY교수*

이들의 경우는 실패에 대한 경험 부족과 실패 경험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자신이 과거에 했던 성공으로 인해 현재 해나가야 할 부분과 현재 마주한 과업에 대한 무게나 실패에 대해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나오는 경우이다. 이들은 의과대학 입시까지 학업성취에 있어 인정을 받아왔고, 객관적 지표로도 우수한 성과를 드러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수준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 성공, 성취, 승자 등에 가까운 지표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자신이 과거에 성취한 수준에 한정되어 자신을 가둬두고 자기 자신의 위치가 현재 또한 그러하다는 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이다. 단순히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은 것을 넘어서서 현재의 ‘나’는 현재의 과업을 마주하고, 주어진 것에서 실패와 성공 앞에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공의 스스로에 국한되어 있어 ‘새로운 장에서의 도전을 시도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에 회의적이거나 소극적 반응’을 하는 경우이다. 또한 과거의 성공의 누적 경험은 결국 자신이 상대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실패나 실수에 대한 부족함을 받아들여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마주하거나, 마주한 결과가 저성취로 다가오거나 실패할 경우, 극복할 방법을 찾는데 어려워하거나 극복하지 못해 넘어지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들은 ‘실패 후에 어떻게 이를 대처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초보자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자신감이 결여된다’. 이는 우수했던 자신을 잃어버려 자존감과 자신감까지 바닥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자신에게 실망한 스스로가 결국 다음 해결 과제와 도전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의과대학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에 실패도 경험해 보고, 실패가 꼭 인생의 실패라는 점으로 국한할 것도 아니고, 실패를 통해 겸손도 터득하고 새롭게 도전해 나가야 하는 과업이 있음을 알고 학습의 과정으로서 실패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과제나 과업의 성과가 마치 자기 자신 자체의 인격적 실패로 인식하여 자괴감에 빠지고 현실을 탈피하고자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휴브리스 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의 과거 성공 경험에만 갇혀 자신을 그랬던 사람으로만 제한하기 때문에 ‘새로운 현장이나 상황에서의 시작 자체를 어려워하거나 시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행여 시작해서 성과가 우수하게 나오지 않으면 포기하려고 하거나 회피해버리려는 결단이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다. 이는 자신이 이뤄온 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거의 성취와 성공의 경험에 대한 자존감과 자부심이 높은 것에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긍정적 정서적 지지 효과를 자아낼 수 있으나, 성공한 자기 자신에 한정한 모습은 과업의 연속선상인 '인생의 장에서 새로운 도전과 시작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또한 자신의 성공의 경험에 한정하여 '자신이 고수 해오고 지켜오던 방식으로 인해 그 결과 성공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을 벗어버리거나 바꿔보려고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완벽주의'의 성향이 자신의 성향을 고수하려는 것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열심히 하고 성실히 끝까지 하려는 자기 자신의 과업 성취에 있어서 책임감이 오히려 화가 되어 새로운 전략이나 평가방안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닫게 되고 '자신이 정해놓은 틀과 완벽주의가 결합되어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의사 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임상 전 교육과정, 임상의학 교육과정, 졸업 후 수련 과정, 평생교육 측면에서 의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장면에 마주하고 배워가야 하는 평생학습자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에서의 생존을 위한 전략에만 국한하고, 의과대학에 입학을 위한 진입 조건으로 활용한 것이 학습의 전부이자 의사 되는 과정에서도 통하는 열쇠라는 오해와 착각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막는 것은 당연하며 의사 되는 과정에 출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특성이 의과대학 학생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징 중 과거의 성공에 심취한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의사 되는 장기적 과정 속에서 실패와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는 것에 취약한 것을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학습자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결국 현재의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혹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의사 되는 과정에서의 당면한 과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나는 처음이고, 밑바닥이고, 모르는 게 당연하고, 배워야하는 사람이다' 등의 마음가짐에는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심리적 요인 중 과도한 불안, 압박, 완벽주의 등으로 정신적 문제로부터 고통받는 학습자가 많다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 중 다수가 중복되게 대답한 의과대학 학생의 특성 중 '불안, 완벽주의, 정신적 문제'가 적지 않게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유급생 혹은 성적 저성취자나, 의과대학 부적응자의 요소와도 중복되는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의과대학 문화상 다수의 학습자가 고민하는 부분이며, 이러한 문제로 면담, 상담 등의 요청이 잦는 사례라고 답변하였다. 이 경우의 내용은 총 11개의 내용들이 '코드/라벨'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상위단계인 '개념'으로 총 9개가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의 기술된 사항과 같으며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코드/라벨'의 11개의 내용이 개념의 내용과 연결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되는지 '코드/라벨-개념' 간 연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개를 그다음 주에 와 가지고 정신과로 보냈고 정신과 의사들이 전문의를 보더니 우울증이 맞다. 주요 우울증이다 해서 투약을 이제 제대로 시작했고 유사 그다음에는 승승장구해서 보고 잘 졸업했어요." -KS 교수

의과대학에만 있는 유급제도로 인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의과대학 교육과 평가에서의 주요한 관심 중 하나가 '유급 여부'였다. 이러한 관심은 유급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이어졌으며, 유급에 대한 이유 중 하나가 과거 자신이 만들어낸 성과에 집중하여 그러한 학습 전략과 태도에만 국한하려는 고집이 결국 완벽주의 성향과 맞닿아 가게 되었고, 그 결과 학습 성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에는 유급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의과대학 교육과정 속에서 불안과 압박으로 이어져 결국엔 정신적 질환을 자기도 모르게 앓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 면담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스스로가 정신의학과 및 상담실에 내원하면서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것은 '학습의 성취가 낮든 높든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심리적 부담과 완벽주의 간에 충돌'이었다. 행여 유급 대상자도 자신이 세워둔 완벽주의의 틀 속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완벽주의의 틀을 깨뜨리지 못해 유급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소한 공부에 있어서는 탁월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자책과 반성, 우울과 불안 등으로 인해 자신이 설정한 모습과 다르게 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심한 경우 실패의 누적과 자기만족이 되지 않는 성과의 이어짐은 정신적 질환인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악순환에서 타의의 지원이나 개입이 아닌 이상 극복해서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경미한 경우의 불안과 우울 등의 증상은 과도한 학업 양과 다수의 시험, 평가를 통한 평가결과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의과대학의 교육문화와 의과대학생들의 특성'을 연결시켜 이해하였다. 학업에 대한 성취가 저조한 경우 불안한 것의 원인인 학업으로 긍정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게임이나 술 등에 중독되거나 혼자 해결하려다 보니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 도움을 청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고 문제를 가져가려다가 누적 현상으로 번아웃이 오고 슬럼프에 빠지고 결국 우울증의 늪으로 이어져 학습자가 회복의 기회와 시간을 찾는데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

다섯째, 의과대학 학습자의 사회경제적 환경 및 조건에 대해 공통적 특징이 있다.

연구참여자 중 다수가 중복되게 대답한 의과대학 학생의 특성 중 '사회경제적 환경,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학습을 하기에 안전한 환경,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등에 대해 환경적 요인이 유사하고, 공부만을 할수 있도록 지원받고 배려받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다수의 의과대학 학습자들의 특징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 경우의 내용은 총 16개의 내용들이 '개념/코드'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상위개념인 '개념'으로 총 9로 도출되었다.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코드/라벨'의 16개의 내용이 개념의 내용과 연결되는지 '코드/라벨-개념' 간 연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적응력도 본인이 뛰어났던 게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이 상당히 컸다고 봐요. 얼마나 가족들의 지원을 받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느냐 이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맞았기 때문에 의과대학에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HJ교수

의과대학 학생들은 비교적 경제적·사회적 환경이 양호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지원받는 문화에서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며, 공부를 하도록 특화된 환경 속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 단순히 경제적 환경의 조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가족과 주변에서의 지지를 통해 공부만 하도록 집중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데 지원 해주고 응원해주는 분위기였던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들은 학업성취에 탁월함을 보였고 그 결과 의과대학 입학까지 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공부를 잘해서 국내 입시제도 속의 승자로서 우월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속한 가정, 학교 등 집단에서 우월하다는 표현을 듣거나 칭찬, 보상을 받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의과대학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의과대학에서도 자신들이 학습자, 피교육자의 입장보다는 고객, 소비자의 입장에서 누리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입을 모았다. 그리하여 '대학에 있는 교수, 조교, 교직원들로부터의 지원과 지지를 받고 대우받는 것,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착각까지 하는 오류'로 인해 '소비자'로서의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유리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은 학업에만 신경 쓰도록 배려 해주는 가족문화와 학교지원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학업이고 '나머지 학업 외 부분에서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데 처리해야 하는 문제 해결에는 타자가 나서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부만 집중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성과 창출 등을 해왔으며, '자신이 해결할 것은 학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인간사회에서 처리해야 할 책임과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고 '입학과 관련해서 필요한 비교과활동, 봉사 등의 요인은 부모나 교사가 지원 해주는 방향에 따라 최소한의 노력과 개입, 정보의 활용 등으로 이루어져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인의 힘에 의존한 정보 탐색, 문제 해결, 책임전가' 등을 드러냈다. 비교적 '소극적이고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타의에 의한 문제해결을 해왔고 자신이 개입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힘이 부족'하여 지원해 줄 대상이나 가이드를 받아서 처리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틀을 제시 해주는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명확한 가이드대로 사전 공지된 것을 이행할 때 심리적으로 편하게 다가오는 학습성향'을 가졌으며 가이드대로 따라하고 유사한 포맷을 가지고 학업과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익숙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학습 환경으로 받아들였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에서 두드러지는 학생들의 일반적이고 전형적 특성 중 하나가 인간의 과업에 있어 성장해야 하는 성인학습자로의 단계로 전이되지 못한 경우였다.

연구참여자 중 다수가 중복되게 대답한 의과대학 학생의 특성 중 마지막으로'성인학습자로의 미성숙한 상태'와 관련하여 세부 특성들을 언급하였다. 여전히 청소년기 학습자의 태도와 성향을 보였으며, 성인으로서 학습을 하는데 있어 보다 성숙한 태도, 주체적인 모습, 적극적 및 자주성 등의 요인이 덜 보인다는 점이었다. 이 경우의 원자료로부터 총 10개의 내용들이 '코드/라벨'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상위단계인 '개념'으로 총 9개가 되출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코드/라벨'의 10개의 내용이 개념의 내용과 연결되는지 '코드/라벨-개념' 간 연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냥 서울대 학업우수자처럼 대학생이 학업을 잘하려면 그런 특성들을 당연히 의대생들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성인의 특성과 아직은 이제 대학생이나 의대생은 청소년 후기 청소년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성인 학습자랑은 또 되게 다른 특성이 있고요" -CH 교수

의과대학 학생, 의사가 되는 과정이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 안에 인간의 직업 중 일부로서 의업을 받아들이고 의업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시기로서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경험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과대학에 진학, 의사 되기 위한 면허 취득까지의 bottom up 구조로의 성장은 하고 있으나 top-down 관점에서의 '인간으로 되어가는 삶의 과정 중에서의 총체적 입장에서의 삶과 직업의 균형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였다. 이들은 '인간이 성장하는 데 겪는 발달과업과 발달과업을 이뤄가는 가운데 겪어내는 성장 과정, 성장통에 대해 직면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으며, 학업을 이뤄내는 성과 대비 '인간으로서 삶을 만들어가고 성장 해가는 데에는 소극적 성장'을 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실례로써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보다는 교과지식에 한정된 지식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익숙'하며, 인간의 삶이라는 큰 맥락 속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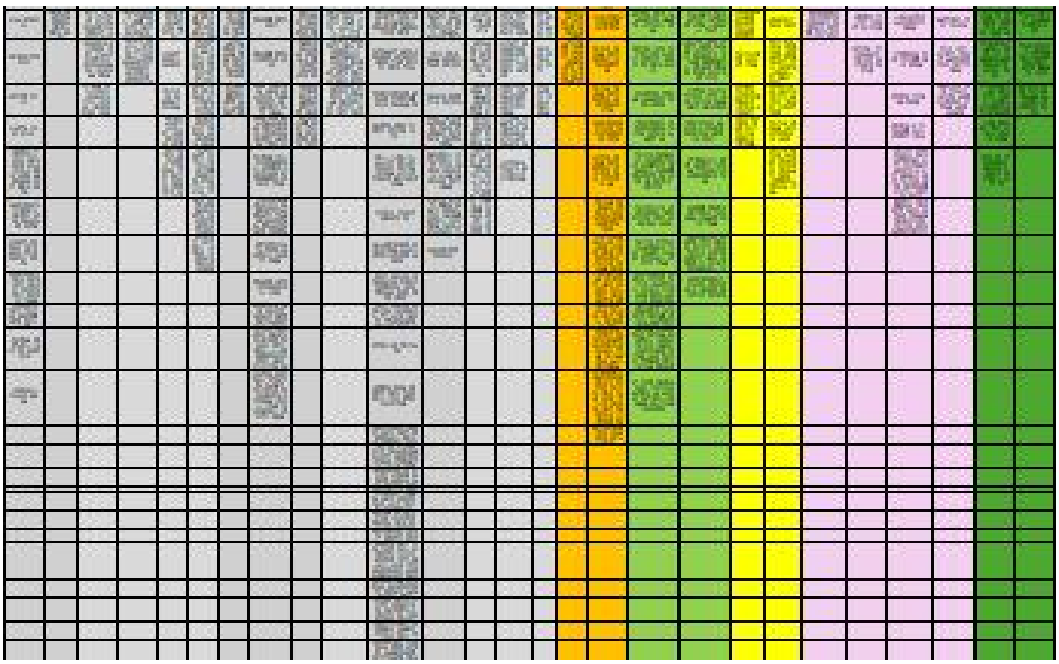
서 의사로서의 역할과 의과대학에서의 학습 경험이 들어있음에도 '전체적인 삶이라는 맥락 없이 부분적 요소에만 집중하여 학습하고, 단기의 성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균형이 부족하고, '학업능력 향상 대비 사회 속에서 어우러지는 대인관계 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력, 배려능력, 갈등 해결 능력 등에 있어서는 경험이 없거나 취약한 특성'을 드러냈다. 결국 '사람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적기 때문에 사람이 놓인 상황이나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고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기에 상대와 상대가 놓여있는 맥락 속에 얽혀있는 인간관계와 구조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어진 문제와 문제 자체의 해결'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환자, 보호자, 의료팀의 타 직군 간의 소통을 해가면서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그 안에서 삶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맥락 속에서의 이해가 결국 배려를 가져오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만을 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글이나 말로 자신의 입장과 상대의 입장 공존하는 문제의 상황을 표현하지 못하고 문제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구로서만 바라보다 보니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소극적으로 드러나고 결국 인간사에서의 문제만 표면으로 드러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에만 제한적으로 기여하는 식의 역할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간으로서 발달과업에 따른 성인으로 성장을 하고 그러한 성인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관심이 기본 토대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숨은 내용, 비가시적 부분은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성적과 해결할 문제에만 집중하는 제한된 학습의 결과 절름발이식 학습자로서의 모습은 결국 미성숙한 인간으로서 특정 부분에만 우수성이 발현된 것이 의과대학 학생들의 다수에게서 보이는 일반적인 특성 중 하나였다. 이는 결국 이기적인 모습, 미성숙한 모습,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인 의사 선후배와 동료에게만 한정된 사회성 발현, 베풀기보다 받기만 하려는 수동적 태도 등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인간으로서 미성숙한 부분과 의사로서의 소명 의식과 역할보다 의사의 직무에만 관심을 두는 학습과 경험만 하려는 성향으로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이 의과대학 학생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참여자들이 바라본 의과대학만의 독특한 특성과 의과대학에서의 일반적 학습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반적 학습자, 하위권 학습자를 제외하면 우수한 학습자의 특성을 검토해 보는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다양한 대다수의 의과대학 학습자들의 주요한 특징을 검토하였고, 특히나 이들 중 더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하위권 성취자나 다른 이슈로 인해 의과대학에서의 적응이 어려운 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의과대학생의 일반적 특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징은 아래의 <부록-그림 1>과 같이 다양한 요인인 183개로 원자료에서 언급되었으나, 유사한 자료에 대해 세로축에 정렬한 후, 이를 이차적으로 관련 주제끼리 다시 묶어 상위 개념으로는 56개로 정리되었으며, 이를 다시 유사한 항목이자 상위개념으로 다시 분류함으로써 총 6개의 (하위)범주로 분석함으로써 의과대학에서의 일반적인 학습자의 특징을 검토해 볼 수 있었다. 이는 비교적 다수의 의과대학 교수를 통해 나온 공통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묶어놓은 주제별 분류라고 볼 수 있다. 의과대학생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범주-하위범주-개념-코드/라벨의 총체적인 개요는 <부록-그림-2>과 같다.



<부록-그림 1> 의과대학 교수들이 인식한 일반 학습자의 특징 개요(1차 분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범주5 의과대학에서의 일반학습자들의 특징		범주5 의과대학에서의 일반학습자들의 특징		범주5 의과대학에서의 일반학습자들의 특징		범주5 의과대학에서의 일반학습자들의 특징		범주5 의과대학에서의 일반학습자들의 특징		범주5 의과대학에서의 일반학습자들의 특징
	5-1. 객관적으로 높은 학업 성과를 이룬 경우		5-2. 의사로서적성 검토 없이 입학		5-3. 휴브리스가 강함		5-4. 심리적 상태, 불안, 압박, 완벽주의 등 정신적 문제로 고통		5-5. 사회경제적 환경 조건에 대한 금틀적 특징		5-6. 인간의 과업에 있어 성장해야 하는 성인학습자로의 단계로 미진이
	10		7		12		9		9		9
	a. 학습 그 자체로 접근보다는 계산적 접근 b. 게임하듯 전략 수립 c. 학업 내용을 쳐내기 식의 접근 d. 효율 추구 e. 피상적 학습자 f. 머리회전 g. 전략 h.요령 i. 빠르게 과업처리 j. 성인학습자보다 청소년기 학습자		a. 의사 직업자체의 안정감으로 입학 b. 수능성적이 아까워서 c. 의과대학입학이 자기의 보상체제 d.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부모나 외부의 추천으로 들어옴 e. 책임회피, 동기부여 적음 f. 전공적합성 없이 의사로의 삶 고민 부족 g. 어떤 의사로 살지에 대한 고민이 적음		a. 실패 시 자괴감, 회피 b. 실패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c. 과거의 경험에만 사로잡힘 d. 새로운 도전에 회의적, 소극적반응 e. 한번 멈추기면 올리기 어려워함 f. 멘탈이 깨짐 g. 자신을 과거의 모습에 제한, 가두버림 h. 새로운 것 하는데 시작이 오래걸림 i. 좋은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포기, 회피 j. 휴브리스와 완벽주의가 많나 책임		a. 욕금, 완벽주의 고통 b. 완벽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현재 간 충돌 c. 우울 불안 d. 자책, 반성 e. 실패의 누적으로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짐 f. 의과대학 교육문화와 의과대학생들의 특성 연결지음 g. 도움요청, 지원받기 등에 부족함 h. 스스로 처리하려다 번아웃, 슬럼프, 우울증 i. 회복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음		a.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원받는 환경(분위기, 경제적) b. 그동안 대접 받은 것처럼 고객, 소비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대접이나 서비스를 받는 입장으로 생각 c. 자신은 학업만 할 뿐, 나머지는 가족이나 주변에서 살에 대한 문제를 대신 처리 및 해결해주는 경향 d. 타인의 힘에 의존한 정보탐색 e. 타인에게 빌린 문제해결, 의존적 f. 책임전가 g. 소극적인 문제해결의 힘 h. 정해주는 틀, 가이드대로만 하려		a.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 성장에 미성숙 b. 인간의 발달과업, 성장통 직면에 소극적 c. 인간의 삶 및 인간에 관심이 적고 교과 지식에 한정한 이해에 익숙 d. 전체적 삶에서의 의사로서의 부분임에도 부분에만 집중, 전체적으로 보지 못함 e. 사람과 어우러지는 대인관계 부족 f. 문제해결 및 의사소통 능력 부족 (주어진 문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
코드	109	코드	16	코드	21	코드	11	코드	16	코드	10
a.e.g.j	입학을 위한 수학능력, 성적을 우수(비교할필요없이 윤짐)	f	목적의식도 만들어져서 오는 경우가 있음	c.g.j	의과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휴브리스	e	정신적 문제많음	b	자신들이 소비자처럼 특권을 누려야한다고 여김	a.c.i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보다 교과지식에 한정된 학습
a.e.j	수능성적우수	f.g	의사가되기위한 조건으로 '목적의식' 소명 등은 많고 있음	c.d.g.h	과거에 했던 성공때문에 새롭게 나가려는 마음 결여	e.h	게임중독, 우울증 등으로 자신의 잠재력 발휘에 어려움함	b	공부잘해서 좋기때문에, 사회에서 의대에서 원가를 자기네가 누려야	a.c.d.i	인간의 삶 이해 등 의 객체 이해 없이 부분적 이해 위주
a.e.j	학생부성적 우수	d.e.g	자신이 왜 그렇게 속도가 낮고 효율적이지 않은 저성취 학습자로 가는지 본인도 모름(메타인지를 의외로	c.d.e.g.i	과거에 성적, 자기자신의 능에서, 잘했던 나에서 못 헤어나오고	e	정신분열증 조현병 있음	h.i	명확한 가이드라인 좋아함	a.b	인생사에서 불때는 발현스가 안맞을정도로 미숙한데 공부는 잘함
a.f	암기력 우수	b.c.e.d	성적으로 의대를 묻이듬(적성보지 않고), 의과대학만이 목적이었음	a.b.f.i	유리멘탈, 멘탈을 극복하지 못하는 애들	c.e.g.h.i	우울감, 정서적 문제가해결되면 정신이나 태도가 올라감	h.i	명확한 지시가 있으면 잘 따름	a.b.c.e.f.g.h.i	인간으로서 스킬 떨어지고 사회는 모르는 아이들인데 지식적으로만
f.g.h	논리적 사고 우수	b.c	수능성적우수함으로 의대입학	c.g.j	대학입학전 고등학교때의 자신의 성적이 높을때 왔	c.e.g.h.i	정신적문제에 대해 자기자신도 몰라서 대처를 못하는 경우도 많음	h.i	사전에 가이드라인 제시만 되었으면 잘따름	c.i	사람, 환자에 대한 정이나 관심이 적음
j	입학전 단계까지는 너무 공사하여 우수성이나 특성 검토 불필요함(집	b.c.f	자신의 적성을 찾지못하고 성적으로만 옴	c.g	자신이 잘해오고, 지원받아오고, 우월했던 경험에서 실패를 마주하게	a.b	완벽주의 성향	a.b.c.d.e	환경적 요인이 지원이 좋고 의지함	c.e.f.g.h.i	정적 등 지적영역은 발달하나 사회성 표현도는 낮은 편
a.c.d.f.g.h.i.j	의과대학이 기대하는 방대한 양의 학습능력 탑재	b.c.d.e.f	자신의 적성을 찾지 못하고 의과대학에 진학	c.g	자기자신이 의과대학에 입학 함곳에 대한 프라이드 강함	a.f	공부의시험의 달인	a	소득수준이 높은경우가 많음	e.f.h.i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
a.d.e.f.j	수학만 잘하고 입시요령, 준비잘하는 애들	b.c.f	의과대학에 단순히 입시정적때문에 입학	c.g	자신이 가져온 성공경험이 있고 그 학과 성공에 한정되는 경우가 있음	a.b.c.e.f.g.h	유교영향이어도 완벽주의 성향으로 융통 정도가 커서 심리적 스트레스	a.b.c	가족들의 지원, 지지를 많이 받음	e.f.h.i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르쳐야 할 정도로 심각함
e.j	의과대학학이 요청이지 의사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없음	b.c.e.f	본인의 적성을 찾지 못하고 입시성적 잘 맞는 학과에 옴	j	인생굴곡없이 생활이 없지만 자신의 성공무단도 그렇닌 기억으로 버팀	a.b.f.g.h	완벽주의의 압손이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것에만 집중	a	경제적 지원을 받음	c.e.f.i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깨기지으로 접근했서 실제 활용이 안됨
d.g.h.j	성질화게 자기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능력	b.c.d.e.f.g	자신을 합격하는 경험이 적고 성적 때문에 의과대학 입학	c.d.g.i.k	성인이됨과 사람으로서 성장하려고 계를 잃어야 고민하지 않겠지만	a.b.h	자신의 경험을 유지, 고집하려다 실패	h.i	학원이나 가이드를 주는대로만 학습	f	글이나 발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잘하지 못함
a.c.d.e.f.g.h.i.j	학업을 할 준비는 너무 잘 갖춘상태	b.c.d.f	타인(부모, 교사)의 권유로 성적에 맞게 입학전공(자신의 적성을 찾	a.b.c.d.e.g.h.i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회피하는 성향은 자신이 그동안 이룬것으	a.b.g.h	자신의 과거의 성공과 학습방법 고집하고 내려놓지 못함(방황하는 경	c.e.g	자신이 처리하려는 힘이 부족하고 누가 주변에서 해줬거나, 누가 해줄 부모가 돌사활동 등 입학준비 모든		
a.d.f.g.h.i.j	시험보는 기술이 좋음	f	전공적합성을 탐색하지 않고 들어옴	d.k	난 이제 멀버렉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또 배우고 도전하는 마음을 갖는			c.d.e.g	실적과 내용을 채워주기에 자신의 학생으로서의 대우(불합리한 대우 예민)		
j	영어실력 우수	f.g	의과대학, 의사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많음	a.b	실패경험이 적을 실패경험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b	불합리한 대우 어려움		
j	요즘 의과대학 애들은 영어는 많이 잘함	c.e.f.g	의과대학 자체가 목적이자수단 의사로서의 목적은 없음. 자신을 내려	a.b	우수해서 들어오지만 정작으로 인해 스트레스 자주						

<부록-그림 2> 범주5. 의과대학 일반학습자들의 특징
(범주-하위범주-개념-코드/라벨)

첫째, 객관적으로 높은 학업 성과를 이룬 집단이다. 다만, 이들은 학습의 과정, 본질보다는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들은 피상적 학습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머리 회전이 빠르고, 전략적으로 학습에 임하고, 요령을 익혀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과업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들은 빠르게 일 처리를 해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에 특징이 있고, 학습을 해가는 과정보다는 학습 결과, 성적 등의 보상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들은 성인학습자로서의 특성보다는 청소년기 학습자의 특성이 많이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의사로서 자신의 적성이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입학한 경우가 많았다. 단지 의사라는 직업으로 얻는 안정감에 의해서거나, 입시성적이 아까워서 마치 의과대학을 보상 기제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들어올 때 자신의 선택보다는 교사나 부모의 선택으로 왔기에, 의사로서 적성이 안 맞거나 의사로서의 소명이 안 생기고 유의미한 활동이 어려운 것 등에 책임을 회피하였다. 결국 동기가 부족한 것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 있었다. 이에 어떤 의사로 자신이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과, 의사로서의 삶 자체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경우였다.

셋째, 휴브리스가 강한 점이다. 비교적 과거의 성공의 경험이 강하고 강렬하기에 그 틀에 자신을 맞추거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현재의 모습 간에서의 괴로워하는 경우이다. 과거와 현재의 수준이 다름에 대해 좌절하고, 새로운 도전에 어려움을 가지고, 과거의 자신의 틀에 자신을 가두는 식의 모습을 보였다. 좋은 성과로 이어질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성과가 좋지 않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을 해볼 때 자괴감에 빠지거나, 성취를 해가는 과정에서 완벽주의과 휴브리스의 충돌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당연히 처음 마주하는 것이고, 모르는 게 당연하고 배워야하는 것이다라는 점에 미숙했음이 특징이었다.

넷째, 심리적 상태와 관련하여 불안, 압박, 완벽주의 등 정신 문제로 괴로워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유급, 완벽주의 등의 고통으로 우울, 불안, 자책, 우울증, 슬럼프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실패의 누적이 결국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지고,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스스로 처리해 보려는 특징으로 인해 번 아웃이 오고, 슬럼프, 우울증 등으로 회복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였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이들의 사회경제적 환경 조건이 유사함으로 인해 '받는 것'에 익숙한 입장인 경우가 많았다.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사회경제적 지원, 집안의 분위기 등이 도움을 주는 입장이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학업만 신경 쓰면 되고 나머지 사회의 일 처리, 집안일 등은 타인들이 주변에서 해주고 챙겨주는 식이었다. 의과대학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대접에 익숙한 나머지 타인이 제공해 주는 틀, 가이드에 따라가기에 익숙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거나, 새로운 것을 주도적으로 해가려는 힘이 부족하다.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과도하게 받으려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인간으로서 성장해야 하는 과업에 미숙함을 보였다. 이는 학업성취도만큼 인생, 삶에서의 성장 정도는 반비례하는 경우였다. 인간으로서의 발달과업, 인간으로서 어우러져서 배우는 삶의 모습과 태도, 이러한 과정에서 오는 성장통 등을 직면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결국 인간으로서 성인이 되고, 사회구성원이 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이러한 것에 관심이 적기 때문에 의사가 사회의 구성원 중 일부라는 생각보다는 의사 자체의 직업, 의사의 직무 등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사람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사람과 어우러지는 대인관계, 의사소통기술, 협력, 배려, 갈등 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결, 사람이 놓인 맥락에서의 이해 등에 부족하였다. 결국 현재 주어진 미시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국한하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특징이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f faculty perceptions of Medical Student Excellence

We interviewed 20 medical school professors to examine learner excellence in medical school. First, we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an excellent learner based on the professors' perceptions of excellence in medical school.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excellence required for the process of becoming a physician and to bring out the uniqueness of learners by examining what excellence is in medical school and what needs to be developed in learners. The research questions were: First,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excellent students in medical school, Second, how does excellence manifest itself according to the stage of medical school curriculum and training, Third, what is the relevance of excellence in medical students at the stage of physician training, and Fourth, what are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exploring excellence in medical students? Based on th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grounded theory method are as follows.

From a total of 1,358 ‘codes/labels’, 286 'concepts', 50 subcategories, and 10 superordinate categories were organized from the interview data. Based on this, we tried to interpre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tegories by applying the axial coding paradigm model, and tried to understand them holistically by establishing core categories and presenting a schematic through selective coding. The exploration of excellence in medical school professors was based on a review of 'the picture of an excellent physician, characteristics of excellent learners in medical school education in general, characteristics of excellent learners in clinical medicine curriculum, and validation methods for excellence in medical school' to understand excellence in medical school. In the process, we reflected on the perspectives of excellence in medical school and the previous indifference.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xcellent students, the first research question was whether medical students are excellent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excellence in medical schoo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xcellent learners were derived after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schools, characteristics of underachievers, and characteristics of typical general learners. They found that high-performing learners “have a positive In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xcellent students, the first research question was whether medical students are excellent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excellence in medical schoo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xcellent learners were derived after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schools, characteristics of underachievers, and characteristics of typical general learners. They found that high-performing learners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learning, are able to restore learning to its original function, have their own ways of coping with failure, are good at asking for help, and have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y also excel at problem solving, self-objectification, and transferring and applying knowledge and experience. They had a clear sense of purpose and respect for life as they considered their qualities and suitability for becoming a doctor.attitude toward learning, are able to restore learning to its original function, have their own ways of coping with failure, are good at asking for help, and have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y also excel at problem solving, self-objectification, and transferring and applying knowledge and experience. They had a clear sense of purpose and respect for life as they considered their qualities and suitability for becoming a doctor.

For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the characteristics of excellent learners at each stage of education and training, pre-clinical education stage’s learners were characterized by “curiosity, designing research topics, asking questions, and exploring deeply based on curiosity. In addition, “the ability to solve curious problems and synthesize multiple sources of knowledge and explain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well” were also characteristic of excellent learners at this stage. In the clinical education stage, they were characterized by “clinical reasoning and the ability to transfer knowledge and experience to actual patients, excellent at synthesizing knowledge after understanding the specificity of the clinical area, good communication skills and amicable relationships, spontaneity and adaptability to new environments, and reviewing their suitability as clinicians. These were similar to the characteristics of a excellent trainee. In the training phase, “the ability to start anew as a beginner in the field, to ask questions and clarify ambiguities, and to respond to new environments,” which was linked to the specificity of the clinical field.

The third research question sought to understand how excellence is related to each stage of the medical education process. We examined the continuous need for excellence across medical schools, between clinical practice and residency, between basic medical curricula and research areas, and across curricula from a holistic view of the medical education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process. We found that the factors of excellence are accumulated and complemented in similar contexts in relation to the specificity of the context and educational content of each stage, but from a holistic perspective, the factors for excellence as a doctor are the attributes necessary to develop oneself as a member of society. These are the learning dispositions and life agency that adult learners should possess, and they are not separate curriculum categories, but points that doctors and adults should have.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is, an axial coding paradigm model was appli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xcellent learners and the influencing and hindering factors related to the medical school environment, curriculum, and stage of training to interpret the meaning of medical student learners' search for excellence in the inter-relatedness of the categories.

The fourth research question,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medical students' pursuit of excellence, was organized into seven categories based on professors' perceptions. These were: the need to revisit the criteria for student selection and diversification strategies, the need to revisit the appropriate student award for medical schools, the ne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improving the culture of medical schools, the need to review the doctor's award based on excellence, the need to measure excellence with various assessment tools, the need for universities and instructors to improve the current medical school teaching methods, and the need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medical school and post-graduation education. We were able to examine excellence in medical schools and identify what needs to be done to create and improve an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allows learners to express their potential for excellence.

From the above, we can see that medical student excellence is not only cognitive, but also requires the development of what is appropriate for the medical school environment and what is required in the process of being a doctor. It is not limited to test scores, but it requires exploring and developing the strength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earner to find and develop the strengths needed in the process of becoming a doctor. Cultivating excellence is ultimately about building the strengths necessary for human growth as lifelong learners, which in turn builds the capacity to respond to the medical field and society. In addition to the individual learner's efforts to explore and unleash their excellence, it also requires environmental changes and educator efforts. By changing the medical school environment, learners can broaden the scope and breadth of their excellence and help them develop their own excellence that is appropriate to the improved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environment. At the end of the day, exploring excellence is about getting to know the learner and matching them to their future fit as a physician, and developing their excellence and fulfilling their potential in a medical school environment is about realizing the purpose of the medical school. To this end, research on the search for excellence in medical schools should continue to be conducted from a variety of insider perspectives. Developing and reviewing the excellence required by the times and environment for medical learner excellence can be the starting point for training doctors who are required by the changing society and medical field context.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exploring excellence in medical learners revealed in this study, it is hoped that it will be used as a basis for improving medical education culture and changing medical education.

KEY WORDS: excellent learners, characteristics of excellent medical students, medical student excellence, grounded theory method